

## 제 8장 일제강점기의 고성

### 제 1절 일제강점기 고성의 발전

#### 1) 행정구역의 변화

일제는 식민통치 강화를 위해 행정구역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전통적 지역은 그 지위와 역할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났다. 조선왕조의 지방행정 체제는 군현제를 근간으로 하여 전국의 행정단위를 중앙의 통제 아래 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도제와 군현 개혁의 개편, 속현과 면리제의 실시, 군현의 명칭 개정 등 전반에 걸쳐 지방행정 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조선의 지방통치 체제는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유지되다가, 1895년 5월 지방제도 개정령이 공포되어 종래의 8도는 세분되어 23부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제 운영상 많은 문제를 드러내면서 다시 13도제로 변경되었다.

이후 1910년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하면서 우리나라 지방제도는 또다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일제는 조선을 병합한후 1910년 9월 ‘조선총독부관제’와 ‘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 등의 법령을 발표함으로써 지배기구의 기본 방침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지방관제’를 마련하여 지방의 말단까지 지배하는 기반 구축작업에 착수하였다. 한편 10월에는 ‘도, 부, 군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비롯하여 ‘면에 관한 규정’ 등의 총독부령을 발표하여 지방행정체계를 갖추어나갔다.

일제는 식민정책의 말단까지 효율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면을 말단 행정조직으로 통일하고 가장 친일적인 인사를 장(長)으로 임명하였다. 일제는 식민지배를 강화해 가는 초기에 각 지방의 군수는 대개 조선인으로 임명하였으나 일본인 중심 거주지역인 부의 부윤은 모두 일본인으로 임명하였다. 조선총독 정치가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가지 일제는 1914년 대대적인 지방제도 개혁을 단행하면서 부·군·면·동·리에 이르기까지 행정조직을 세밀하게 정비하였다. 이때 이루어진 개편은 부·군·면의 행정구역 통폐합이 중심이었다. 즉 행정구역의 호구와 면적의 기준요건을 사전에 총독부가 정하여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폐지하여 인접구역에 통합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 결과 종래 전국 12부 317군 4,322면이었던 것이 개편 후에는 12부 220군 2,521면으로 크게 변하였다.

1914년 지방제도 개혁은 특징은 종래의 부·군제를 폐지하여 부를 도시행정의 기본단위로 하며 일본거류민단과 각국 공동조계를 폐지하여 지방행정의 일원화를 추구하였다. 그리

고 종전에 일본거류민단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 수익성이 있고 실리적인 것은 모두 일본인 교육을 위한 학교조합에 승계하고 거류민단이 갖고 있던 부채 중의 많은 부분을 부에 승계함으로써 일본인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군과 면의 대대적인 재배치 통폐합을 통하여 군·면의 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통제력의 강화와 경비를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지방에 따라 다르게 불리기도 하였던 말단 행정기구로서 면의 지위를 확정하여 면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였으며, 면사무소를 설치하여 종래 면장의 거주지에서 처리되던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지방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차지하는 것은 1917년에 시행되는 면제이다. 중요한 내용은 첫째, 면을 사업을 경영하는 주체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총독이 지정하는 면은 상담역(相談役)을 두고 부채를 얻을 수 있으며, 셋째 동리장을 폐지하여 새로 구장(區長)을 두고, 넷째 호별할(戶別割), 지세할(地稅割), 그밖의 특별부과금,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섯째 재무수속을 상세히 규정하게 하고, 여섯째 면조합(面組合)을 설치하여 일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총독이 지정하는 면(指定面)에 한해서는 상담역을 두고 기채권(起債權)을 허용하여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면(보통면)보다는 더욱 많은 자율권을 보장해 주었다.

구장은 종래 동리장이 수행했던 행정기능을 맡도록 하였고, 이들 구장을 면이 직접 관리하게 하여 동리 단위의 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면제의 실시는 지방말단 행정을 면으로 일원화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면제 실시 이후 군의 행정적 지위는 중간적이고 과도적인 존재로 규정하였다. 일제하에서 군은 독자적인 공공사무와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하였다.

한편 1919년 3·1운동 이후 새로 부임한 아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은 ‘지방관관제’를 개정하여 지방제도를 정비하였다. 1920년 시행된 지방제도에 따라 변화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의 면제에서 지정면을 읍으로 하고, 보통면을 면으로 하며, 둘째 읍·면을 모두 법인으로 하여 법령에 따라 공공사무와 귀속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셋째 이에 따라 읍면은 규칙제정권을 가지며, 넷째 읍회는 부회와 같은 정도의 의결권을 갖게하는 한편 면협의회 의원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부와 마찬가지로 감독규정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1930년대에는 제2차 지방제도 개편과 1937년을 기점으로 전쟁이 확대되면서 조선은 전시체제로 크게 변화하였다. 이 시기에는 지방행정조직은 모두 전시통제 조직과 관련을 맺거나 그 통제 아래에 있게 되었다. 즉 지방지배에 있어 전시통제의 효율성이 가장 강조되었다. 1940년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을 결성하여 부군읍면 등의 지방행정조직을 기본으로 전시체제

를 더욱 강화하였다. 요컨대 일제강점하 조선에 실시된 지방행정조직은 군 대신에 면을 지방행정제도의 중심으로 삼아 말단조직까지 장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지방제도 개편시 일제는 고성군에 14개 면을 설치하고 관리를 배치하였다. 면의 하부단위로 8개 내외의 행정리를 설치했다. 리는 몇 개의 자연 마을을 통합하여 만들어졌으며 주민들이 ‘구장(이장)’을 선출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였다. 1914년에 개편된 행정구역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914년 고성군의 행정 구역 개편 현황><sup>1)</sup>

면이름	마을 이름	비고
철성면	교사리, 덕선리, 기월리, 서외동, 대평리, 무량리, 우산리, 송학동, 죽계리, 동외동, 성내동, 수남동, 신월리, 월평리, 울대리	15개 마을
삼산면	장치리, 삼봉리, 미룡리, 두포리, 이당리, 대독리, 판곡리, 병산리	8개 마을
대가면	암전리, 유흥리, 금산리, 연지리, 양화리, 척정리, 송계리, 신전리, 갈천리	9개 마을
마암면	좌연리, 석마리, 신리, 장산리, 성전리, 도전리, 화산리, 보전리, 삼락리, 두호리	10개 마을
회화면	녹명리, 삼덕리, 봉동리, 어신리, 배둔리, 당항리	6개 마을
영오면	오서리, 오동리, 영대리, 성곡리, 영산리, 양산리, 연당리	7개 마을
거류면	용산리, 은월리, 송산리, 가려리, 거산리, 당동리, 신용리, 화당리	8개 마을
동해면	감서리, 봉암리, 외곡리, 내곡리, 장좌리, 용정리, 양촌리, 장기리, 내산리, 외산리	10개 마을
하일면	춘암리, 오방리, 학림리, 송천리, 동화리, 용태리, 수양리	7개 마을
하이면	봉원리, 와룡리, 봉현리, 석지리, 사곡리, 덕호리, 덕명리, 월흥리,	8개 마을
구만면	용와리, 저연리, 화림리, 주평리, 효락리, 광덕리	6개 마을
상리면	가슬리, 오산리, 고봉리, 조정리, 동산리, 무선리, 망림리, 자은리, 부포리	9개 마을
영현면	연화리, 신분리, 침점리, 봉림리, 영부리, 대법리, 봉발리, 추계리	8개 마을
개천면	가천리, 청광리, 예성리, 명성리, 북평리, 용안리, 봉치리, 나선리	8개 마을
14개 면	119개 리	행정리

## 2) 군·면 행정 담당자의 변화

일제는 면단위에 문서행정체계를 도입한 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능력있는 관료집단을

1) 越智唯七 편, 『新舊對照 朝鮮全道 府郡面里洞 名稱 一覽』, 중앙시장, 1917.

확보하고자 하였다. 행정에서 문서화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먼 행정의 담당자에게도 전문적인 행정가로서의 조건이 요구되었다. 191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까지 고성군의 행정담당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하 고성군 직원>

1910	1911	1912	1913
홍승표(洪承杓, 郡守)	홍승표(洪承杓, 郡守)	홍승표(洪承杓, 郡守)	홍승표(洪承杓, 郡守)
소림의일(小林毅一, 書記)	김규년(金圭年, 郡書記)	김규년(金圭年, 郡書記)	도원오랑(稻垣五郎 郡書記)
길촌전(吉村傳, 書記)	이민하(李玟河, 郡書記)	택전일환(澤田一丸, 郡書記)	전병인(全秉仁, 郡書記)
김규년(金圭年, 書記)	이원협(李源協, 郡書記)	김성현(金星漢, 郡書記)	북삼의용(北森義勇, 郡書記)
홍승조(洪承助, 書記)	北森義勇, 郡書記	北森義勇, 郡書記	정운조(鄭運祚, 郡書記)
이민하(李玟河, 書記)	吉村傳, 郡書記	이민하(李玟河, 郡書記)	澤田一丸, 郡書記
윤교석(尹教錫, 書記)	小林毅一, 郡書記		김규년(金圭年, 郡書記)
1914	1915	1916	1917
임영준(林英俊, 郡守)	임영준(林英俊, 郡守)	임영준(林英俊, 郡守)	임영준(林英俊, 郡守)
김규년(金圭年, 郡書記)	橘川順三, 郡書記	전병인(全秉仁, 郡書記)	이한구(李漢求, 郡書記)
전병인(全秉仁, 郡書記)	정운조(鄭運祚, 郡書記)	園田正幹, 郡書記	전병인(全秉仁, 郡書記)
橘川順三, 郡書記	園田正幹, 郡書記	高橋治八郎, 郡書記	小石川秀雄, 郡書記
정운조(鄭運祚, 郡書記)	김규년(金圭年, 郡書記)	이한구(李漢求, 郡書記)	김병탁(金秉鐸, 郡書記)
최옥영(崔旭榮, 郡書記)	이한구(李漢求, 郡書記)	정운조(鄭運祚, 郡書記)	노태식(盧台植, 郡書記)
澤田一丸, 郡書記	전병인(全秉仁, 郡書記)	橘川順三, 郡書記	小野登, 郡書記
稻垣五郎 郡書記	高橋治八郎, 郡書記	이래길(李來吉, 郡書記)	김규년(金圭年, 郡書記)
	이래길(李來吉, 郡書記)	김규년(金圭年, 郡書記)	萬田新太郎, 郡書記
1918	1919	1920	1921
손영목(孫永穆, 郡守)	(孫永穆, 郡守)	손영목(孫永穆, 郡守)	손영목(孫永穆, 郡守)
김재일(金在一, 郡書記)	阪根義英, 郡書記	高木好太郎, 郡書記	김재일(金在一, 郡屬)
이한구(李漢求, 郡書記)	이필동(李秘東, 郡書記)	채홍철(蔡鴻哲, 郡書記)	이필동(李秘東, 郡屬)
김규년(金圭年, 郡書記)	정해승(鄭海升, 郡書記)	윤관(尹權, 郡書記)	이재호(李在浩, 郡屬)
김재섭(金在燮, 郡書記)	김재섭(金在燮, 郡書記)	이재호(李在浩, 郡書記)	박익모(朴益模, 郡屬)
이필동(李秘東, 郡書記)	靑木泰藏, 郡書記	이필동(李秘東, 郡書記)	김태순(金泰鎔, 郡屬)
小野登, 郡書記	김규년(金圭年, 郡書記)	阪根義英, 郡書記	윤관(尹權, 郡屬)

萬田新太郎, 郡書記	김재일(金在一, 郡書記)	정해승(鄭海升, 郡書記)	阪根義英, 郡屬
田邊斧松, 郡書記	高木好太郎, 郡書記	김재일(金在一, 郡書記)	欠端清治, 郡屬
	權寧漢, 郡技手	青木泰藏, 郡書記	青木泰藏, 郡屬
	權正鉉, 郡參事	이석화(李錫華, 郡技手)	이석화(李錫華, 郡技手)
	朴暉洙, 郡參事	박경수(朴暉洙, 郡參事)	
		권정현(權正鉉, 郡參事)	
1922	1923	1924	1925
(李章雨, 郡守)	(李章雨, 郡守)	(李章雨, 郡守)	(李章雨, 郡守)
阪根義英, 屬	阪根義英, 屬	金在一, 屬	白石一郎, 屬
李在浩, 屬	金泰鎔, 屬	白石一郎, 屬	朴南徽, 屬
井上薰, 屬	白石一郎, 屬	李洗聖, 屬	金正彦, 屬
朴益模, 屬	井上薰, 屬	河弼源, 屬	金在榮, 屬
金泰鎔, 屬	金在一, 屬	강웅길(岡熊吉, 屬)	강웅길(岡熊吉, 屬)
李秘東, 屬	金在榮, 屬	李盛熙, 屬	白石正親, 屬
金在一, 屬	崔暉烈, 屬	井上熊, 屬	李盛熙, 屬
船越鐵之助, 屬	鈴木吉彌, 屬	金正彦, 屬	金益洙, 屬
崔暉烈, 屬	李盛熙, 屬	坂根義英, 屬	李浩聖, 屬
鈴木吉彌, 屬	河弼源, 屬	金益洙, 屬	吉良達, 産業技手
柿部實, 産業技手	金正彦, 屬	金在榮, 屬	大島敬吉, 産業技手
藤井達助, 産業技手	小田秀, 産業技手	小田秀, 産業技手	小田秀, 産業技手
市村勇, 産業技手	藤井達助, 産業技手	貞光助一, 産業技手	林次郎, 産業技手
金亨璣, 技手	市村勇, 産業技手	藤井達助, 産業技手	上廻儀一, 技手
新宮四郎, 技手	貞光助一, 産業技手	吉良達, 産業技手	李鍾甲, 技手
朴起珣, 技手	北野喜多治, 産業技手	田中龍一, 産業技手	
	赤嶺鶴次郎, 技手	市村勇, 産業技手	
	金亨璣, 技手	高浪俊久, 産業技手	
	朴璣珣, 技手	이등임(伊藤稔, 産業技手)	
		李鍾甲, 技手	
1926	1927	1928	1929
(李章雨, 郡守)	(李韶榮, 郡守)	(李韶榮, 郡守)	(黃潤東, 郡守)
白石一郎, 屬	紀野光敬, 屬	金在榮, 屬	愼重穆, 屬
白石正親, 屬	岡熊吉, 屬	金洪漢, 屬	金膺斗, 屬

朴南徽, 屬	李宗憲, 屬	愼重穆, 屬	金益洙, 屬
金正彥, 屬	金益洙, 屬	金膺斗, 屬	渡邊喜次郎, 屬
金在榮, 屬	愼重穆, 屬	金益洙, 屬	朴海柱, 屬
강웅길(岡熊吉, 屬)	金正彥, 屬	田邊健浩, 屬	金洪漢, 屬
李浩聖, 屬	朴南徽, 屬	朴南徽, 屬	朴南徽, 屬
李宗憲, 屬	金在榮, 屬	岡熊吉, 屬	愼重灝, 屬
金益洙, 屬	白石正親, 屬	紀野光敬, 屬	鳥毛麟, 屬
林亨在, 書記補	金基元, 書記補	金基元, 書記補	金基元, 地方書記
平野彰, 産業技手	林次郎, 産業技手	姜奉用, 産業技手	大島敬吉, 産業技手
吉良達, 産業技手	平野彰, 産業技手	毛利弘, 産業技手	姜奉用, 産業技手
小田秀, 産業技手	吉良達, 産業技手	尾前正八, 産業技手	毛利弘, 産業技手
林次郎, 産業技手	太田潤太郎, 産業技手	吉良達, 産業技手	尾前正八, 産業技手
太田潤太郎, 産業技手	小田秀, 産業技手	阿部武彦, 産業技手	阿部武彦, 産業技手
李鍾甲, 技手	李鍾甲, 技手	李鍾甲, 技手	木下旦, 産業技手
			李鍾甲, 技手
1930	1931	1932	1933
(黃潤東, 郡守)	(黃潤東, 郡守)	(宋燦道, 郡守)	(宋燦道, 郡守)
福島陸雄, 屬	朴南徽, 屬	金學成, 屬	金學成, 屬
金益洙, 屬	金洪漢, 屬	朴南徽, 屬	金洪漢, 屬
愼重穆, 屬	藤崎善治, 屬	河永俊, 屬	吳鳳壽, 屬
渡邊喜次郎, 屬	愼重穆, 屬	福島陸雄, 屬	川口鐵太郎, 屬
鳥毛麟, 屬	川口鐵太郎, 屬	金益洙, 屬	河永俊, 屬
金洪漢, 屬	金益洙, 屬	川口鐵太郎, 屬	朴南徽, 屬
朴南徽, 屬	福島陸雄, 屬	金洪漢, 屬	福島陸雄, 屬
朴海柱, 屬	高奉允, 屬	岩城綱一, 屬	岩城綱一, 屬
愼重灝, 屬	鄭在祥, 屬	黃형(糸+瑩)秀, 地方書記	黃형(糸+瑩)秀, 地方書記
黃형(糸+瑩)秀, 地方書記	黃형(糸+瑩)秀, 地方書記	阿部慶吉, 産業技手	姜敬萬, 地方森林主事
阿部慶吉, 産業技手	阿部慶吉, 産業技手	姜奉用, 産業技手	小松鶴城, 産業技手
木下旦, 産業技手	小松鶴城, 産業技手	木下旦, 産業技手	樫田五郎, 産業技手
阿部武彦, 産業技手	松本嘉一, 産業技手	松本嘉一, 産業技手	木下旦, 産業技手

小松鶴城, 産業技手	木下旦, 産業技手	阿部武彦, 産業技手	松本嘉一, 産業技手
姜奉用, 産業技手	京原岡, 産業技手	小松鶴城, 産業技手	安部武彦, 産業技手
李鍾甲, 技手	姜奉用, 産業技手	京原岡, 産業技手	池田宗一, 産業技手
	黃乙圭, 技手	黃乙圭, 技手	崔正鎬, 地方産業技手
			黃乙圭, 技手
1934	1935	1936	1937
(宋燦道, 郡守)	(盧台植, 郡守)	(盧台植, 郡守)	(盧台植, 郡守)
河道律, 屬	藤井正治, 屬	藤井正治, 屬	藤井正治, 屬
吳鳳壽, 屬	吳鳳壽, 屬	吳鳳壽, 屬	孫完植, 屬
菊永親司, 屬	河道律, 屬	河道律, 屬	河道律, 屬
河永俊, 屬	菊永親司, 屬	菊永親司, 屬	石井潔, 屬
福島陸雄, 屬	姜興根, 地方教化主事	谷俊知, 屬	谷俊知, 屬
姜興根, 地方教化主事	尹炳材, 地方森林主事	趙永濟, 屬	崔斗仁, 屬
尹炳材, 地方森林主事	高木政雄, 産業技手	盧相麒, 地方森林主事	盧相麒, 地方森林主事
黃형(糸+瑩)秀, 地方書記	金炯萬, 産業技手	姜興根, 地方教化主事	姜興根, 地方教化主事
樞田五郎, 産業技手	樞田五郎, 産業技手	李鍾勳, 産業技手	李鍾勳, 産業技手
小松鶴城, 産業技手	小松鶴城, 産業技手	橋本晴三, 産業技手	上田俊之, 産業技手
金炯萬, 産業技手	石田岩雄, 産業技手	金炯萬, 産業技手	金炯萬, 産業技手
池田宗一, 産業技手	池田宗一, 産業技手	石田岩雄, 産業技手	坂元俊男, 産業技手
高木政雄, 産業技手	孫秀鳳, 地方産業技手	山田勇次, 産業技手	橋本晴三, 産業技手
石田岩雄, 産業技手	崔正鎬, 地方産業技手	樞田五郎, 産業技手	樞田五郎, 産業技手
崔正鎬, 地方産業技手	白南信, 地方産業技手	高木政雄, 産業技手	石田岩雄, 産業技手
白南信, 地方産業技手	宋錫賢, 地方書記	丁一龍, 地方産業技手	金垠千, 地方産業技手
	黃형(糸+瑩)秀, 地方書記	鄭孝根, 地方産業技手	鄭性陽, 地方産業技手
		尹炳材, 地方産業技手	鄭孝根, 地方産業技手
		宋錫賢, 地方書記	李判甲, 地方産業技手
			尹炳材, 地方産業技手
			崔贊烈, 地方産業技手
			朴在鳳, 地方産業技手
			鄭奉宇, 地方書記
			宋錫賢, 地方書記

1938	1939	1940	1941
(盧台植, 郡守)	(盧台植, 郡守)	연산유광(延山維光, 郡守)	김택준광(金澤俊光, 郡守)
河道律, 屬	河道律, 屬	有馬乾, 屬	守田日出輝, 屬
妹尾正, 屬	後藤健吉, 屬	鄭竣, 屬	田口正夫, 屬
谷俊知, 屬	妹尾正, 屬	後藤健吉, 屬	清島忠炫, 屬
大坪貞夫, 屬	大坪貞夫, 屬	田口正夫, 屬	金澤實敏, 屬
孫完植, 屬	孫完植, 屬	貞岡洋文, 屬	星山吉潤, 屬
崔斗仁, 屬	崔斗仁, 屬	金相汶, 屬	金城平治, 屬
姜興根, 地方教化主事	姜興根, 地方教化主事	大悟法武, 技手	桐本晴光, 屬
李源直, 地方森林主事	徐正圭, 地方森林主事	野間口榮吉, 産業技手	裴村淵, 技手
李鍾勳, 産業技手	鄭孝根, 産業技手	鄭孝根, 産業技手	大悟法武, 技手
東清次, 産業技手	古谷博, 産業技手	鄭順鍾, 産業技手	
坂元俊男, 産業技手	野間口榮吉, 産業技手	辰喜恭五郎, 産業技手	
上田俊之, 産業技手	樫田五郎, 産業技手	大川永芳, 産業技手	
姜致楠, 産業技手	坂元俊男, 産業技手	田房節治, 産業技手	
樫田五郎, 産業技手	金炯萬, 産業技手	淺田直行, 産業技手	
金炯萬, 産業技手	田房節治, 産業技手	白村自鏡, 産業技手	
李判甲, 地方産業技手	姜致楠, 産業技手	金城秀忠, 産業技手	
朴在鳳, 地方産業技手	鄭性陽, 地方産業技手		
崔贊烈, 地方産業技手	李判甲, 地方産業技手		
鄭孝根, 地方産業技手	朴在鳳, 地方産業技手		
安銖容, 地方産業技手	朴在鳳, 地方産業技手		
金啓判, 地方産業技手	尹炳材, 地方産業技手		
鄭性陽, 地方産業技手	安銖容, 地方産業技手		
尹炳材, 地方産業技手	卞在珪, 地方産業技手		
潘基漢, 地方書記	崔贊烈, 地方産業技手		
鄭奉宇, 地方書記	潘基漢, 地方書記		
	尹成遠, 地方書記		

위의 도표는 『조선총독부직원록(朝鮮總督府職員錄)』을 기초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1930년대 후반까지 조선인 군수가 임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1920년대까지 조선인이 임명되다가 이후 일본인으로 변화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제강점하에서 군이 행정조직에서 과도적인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면 단위 행정을 감독하는 것을 위주로 군수의 역할과 지위가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선인을 군수로 임명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군수를 지냈던 두 명의 이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sup>

손영목: 1909년 대한제국 정부에서 내부(內部) 지방국주사에 임명, 1910년 한일합병이 되자 조선총독부 경상남도 도서기(道書記)가 되었고, 이어서 1918~1921년 경상남도 고성군수 역임, 이후 동래군수와 울산군수를 역임했다. 1928년 총독부 중추원통역관겸 서기관, 내무국 사무관에 전임되었고, 1929년 강원도참여관을 거쳐 1931년 9월 경상남도참여관 겸 도사무관이 되어 산업부장을 지내다가 명받아 1935년 지방관 이동에서 발탁되어 강원도지사 임명.

노태식: 1914년에 문관보통시험에 합격, 판임관(判任官) 견습을 끝낸 후 1916년에 조선총독부 군서기(郡書記)가 되었고, 이어서 경상남도 산청군 권업과장, 경상남도 농무과에서 근무, 1931년 12월에 조선총독부 군수로 임명되어 함양군수를 역임, 1934년 9월~1939년까지 고성군수.

다음은 『삼천리』 제10권 제5호(1938년 5월 1일)에 송화학인(松花學人)이 총독부 및 각도 고관 인물평을 소개한 글에 실린 송찬도(宋燦道)와 관련한 내용이다.

송찬도씨는 강원도 평강군(平康郡) 출생으로 당년 44세의 장년 관리인데 학력은 경성제 일고보(京城第一高普) 3년에서 중도 퇴학한 것 밖에 없는 독학지사(篤學之士)이다. 두뇌 명석하고 사람 대할 때에 그 인상이 부드러울 뿐 아니라 교제에 능한 점은 외무부 사무관으로 적임이다. 봉천(奉天) 부영사(副領事)로 있다가 재작년 초하(初夏)에 양재하(楊在河)씨가 외사과에서 충북 참여관으로 영전하자 그 후임에 발탁되어 복잡한 대만(對滿) 관계에 실로 동분서주 신경(新京), 동경(東京) 등지에 자조 내왕하면서 활동해야 전(前) 과장 상천육승(相川勝六)씨의 신임이 후하였다. 사무에 능하며 부하에게도 정이 후하디는데 현재는 수석 사무관으로 송택(松澤) 부장을 부조(扶助)하여 대만주(對滿洲), 대북지(對北支)

2)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한국근대인물DB를 참고.

관계 등 시국관계의 복잡 다단한 사무를 잘 처리하고 있어 장래에 지사(知事)에 영진할 것은 틀림없다. 원래 씨는 침착하고 근면한 성격으로 경남 固城 군수 시대에 농촌 진흥 운동을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당시의 내무국장 중도성삼(中島省三)씨가 그곳에 시찰을 갔다가 감복하여 씨를 외무성에 부영사로 추천하여 봉천에 주재케 한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총독부직원록』을 통해 고성군 각 면의 면장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일제 강점하 고성군 각 면장 현황><sup>3)</sup>

면별 연도	고성면	삼산면	대가면	마암면	회화면	영오면	거류면	동해면	하일면	하이면	구만면	상리면	영현면	개천면
1919	박효수 (朴孝洙)	박남극 (朴南極)	허종기 (許宗琪)	최일열 (崔一烈)	구시서 (具時書)	김한찬 (金漢贊)	정원식 (鄭源植)	김상규 (金祥圭)	최관현 (崔冠炫)	최보현 (崔普炫)	최정철 (崔正喆)	이용년 (李鎔年)	강규순 (姜奎淳)	김두영 (金斗英)
1920	박남극 (朴南極)	박상중 (朴尙鍾)	허종기 (許宗德)	허종덕 (許宗德)	구시서 (徐洪權)	서홍권 (徐洪權)	정원식	김상규	*	이형의 (李馨義)	최경순 (崔景淳)	이용년	강규순	김두영
1921	박남극	박상중	권정현 (權正鉉)	허찬중 (許贊中)	구시서	정세훈 (鄭世薰)	정원식	김상규	*	이형의	박진택 (朴鎭澤)	이용년	강규순	최찬호 (崔贊鎬)
1922	박남극	박상중	권정현	허찬중	구시서	정세훈	허 관 (許觀)	김상규	최준호 (崔尊鎬)	이형의	박진택	이용년	강규순	최찬호
1923	박남극	박상중	권정현	허찬중	구시서	최찬호 (崔贊鎬)	허관	김상규	최준호	이형의	박진택	이용년	강규순	박용만 (朴容萬)
1924	박남극	박상중	권정현	최우순 (崔兪尊)	구시서	최찬호	이종규 (李鍾奎)	김상규	최준호	이형의	최정철 (崔正喆)	이용년	양한탁 (梁漢澤)	박용만
1925	박남극	박상중	이복규 (李僕奎)	최우순	구시서	최찬호	이진홍 (李震弘)	김상규	최준호	이형의	최정철	이용년	양한탁	박용만
1926	박남극	이상린 (李相麟)	이복규	최세열 (崔世烈)	김윤명 (金允明)	최찬호	이진홍	이채갑 (李采甲)	최준호	목봉수 (睦鳳洙)	최정철	이용년	양한탁	박용만
1927	박남극	이상린	이복규	최세열	김윤명	최찬호	이진홍	이채갑	최관모 (崔冠模)	목봉수	최정철	이용년	정형규 (鄭炯奎)	최정갑 (崔正甲)
1928	박남극	이상린	이복규	최정열 (崔正烈)	김윤명	최찬호	이진홍	이채갑	최관모	목봉수	최정철	이용년	정형규	최정갑
1929	박남극	이상린	이복규	최정열	김윤명	최찬호	이진홍	이채갑	최관모	목봉수	이창수 (李昌洙)	이용년	정형규	최정갑
1930	박남극	이기재 (李起在)	이복규	최정열	김윤명	최찬호	이진홍	이채갑	최관모	최재황 (崔載晃)	이종수 (李鍾洙)	이용년	정형규	최정갑

3)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職員錄』 해당 연도.

1931	박남극	이기재	이한규 (李漢奎)	최세열	김운명	최계호 (崔啓鎬)	이진홍	이채갑	최관모	최재황	이중수	이용년	정형규	최정갑
1932	박남극	이기재	이한규	최세열 (崔世烈)	김운명	최계호	이진홍	이채갑	최관모	최재황	최락현 (崔洛顯)	이용년	정형규	최정갑
1933	박남극	이기재	이한규	최세열	김운명	주재식 (朱載植)	이진홍	이채갑	최관모	최재황	최락현	이용년	정형규	최정갑
1934	박남극	이기재	이한규	최세열	김운명	주재식	이진홍	이채갑	최관모	최재황	최락현	이용년	정형규	최정갑
1935	박남극	이기재	이한규	최세열	김운명	주재식	이진홍	이채갑	최관모	최재황	최락현	이용년	정형규	최정갑
1936	박남극	이기재	이한규	박효수 (朴孝洙)	김운명	주재식	이진홍	임병은 (林炳殷)	최관모	최재황	최락현	이용년	정형규	최정갑
1937	박남극	이기재	이한규	허준 (許濬)	김운명	주재식	이진홍	임병은	최관모	최재황	최락현	이용년	정형규	최정갑
1938	박남극	이기재	박익모 (朴益模)	허준	구장서 (具璋書)	주재식	이진홍	임병은	최관모	천두성 (千斗成)	최락현	이용년	정형규	최정갑
1939	박남극	이기재	박익모	허준	구장서	주재식	이진홍	임병은	최관모	천두성	최락현	이용년	정형규	최락선 (崔洛銑)
1940	박남극	이기재	新井謙之	허준	義川璋書	新安文治	巴山弘茂	임병은	최관모	천두성	完山仁平	巴山楮健	애일창 (愛日彰)	완산학길 (完山鶴吉)
1941	遠藤薫	平沼允完	新井謙之	湖山濬	義川璋書	新安文治	巴山弘茂	林榮	完山哲一	千田益國	完山仁平	巴山楮健	애일창	완산학길

위의 표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면장의 임기가 매우 길다는 것이다. 고성면의 박남극과 상리면의 이용년의 경우 21년간 ‘근속’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류면의 이진홍, 하일면의 최관모, 개천면의 최정갑, 영현면의 정형규, 삼산면의 이기재 경우도 10여년 재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장들은 대개 일정한 교육을 받은 각 지역의 유력자가 임명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교육을 받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임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제는 군과 면의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먼저 복잡해지는 면 행정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면장회의가 일상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산업장려와 관련하여 농사개량을 장려하거나 가마니·새끼 제작 등에 대한 지도활동을 독려하였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총동원체제로 돌입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활동을 전개하였다. 청년단체나 부인단체를 비롯하여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는 한편 각종 모금운동을 독려하였다.

일제 강점하 고성지역의 호수와 인구변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성군 호수와 인구수><sup>4)</sup>

구분 연도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합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911	153	277	224	501	13,396	35,307	30,607	65,914					13,549	35,584	30,831	66,415
1912	205	501	327	828	11,984	31,917	28,031	59,948					12,189	32,418	28,358	60,776
1917	206	476	392	868	13,778	39,003	35,733	74,736	1	5		5	13,985	39,484	36,125	75,609
1918	208	467	396	863	13,953	39,237	35,549	74,786	2	8		8	14,163	39,712	35,945	75,657
1924	205	445	430	875	14,739	40,242	37,551	77,739	6	24	2	26	14,950	40,711	37,983	78,694
1925	209	449	426	875	15,280	41,662	39,837	81,499	9	29		29	15,498	42,140	40,263	82,403
1926	213	454	458	912	15,444	42,023	39,822	81,845	12	32	1	33	15,669	42,509	40,281	82,790
1927	207	437	431	868	15,447	41,686	40,186	81,872	13	34	3	37	15,697	42,157	40,620	82,777
1928	196	400	379	779	15,395	41,018	39,920	80,938	9	30	2	32	15,600	41,448	40,301	81,749
1929	206	419	398	817	15,333	40,294	39,821	80,115	13	36	3	39	15,552	40,749	40,222	80,971
1930	191	419	395	814	15,635	42,030	41,254	83,284	11	31	3	34	15,857	42,480	41,652	84,132
1931	225	493	436	929	16,069	42,293	42,148	85,441	5	12	2	14	16,299	43,798	42,586	86,384
1933	215	486	433	919	16,136	44,504	42,900	87,404	5	13	2	15	16,356	45,003	43,335	88,338
1934	203	452	373	825	16,168	44,421	42,415	86,836	5	13	4	17	16,376	44,886	42,792	87,678
1935	234	507	430	937	16,315	45,198	43,124	88,322	5	13	2	15	16,554	45,718	43,556	89,274
1936	213	446	400	846	16,430	45,306	43,558	88,864	6	18	4	22	16,649	45,770	43,962	89,732
1939	182	349	336	685	15,926	42,899	42,422	85,321	2	3	1	4	16,110	43,251	42,759	86,010
1942	175	314	347	661	16,621	45,606	46,664	92,270	2	3	1	4	16,798	45,923	47,012	92,935

4)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해당 연도판.

## &lt;고성군 고성면의 호수와 인구수&gt;

구분 연도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합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912	77	111	117	217	1,911	4,397	4,145	8,542					1,988	4,508	4,262	8,770
1914	99	141	163	304	638	1,384	1,357	2,741	1	3		3	738	1,528	1,520	3,048
1915	97	178	160	338	966	2,125	2,072	4,197	1	4		4	1,064	2,307	2,232	4,539
1917	122	271	223	494	986	2,405	2,232	4,637	1	5		5	1,109	2,681	2,455	5,136
1918	119	256	218	474	1,003	2,331	2,199	4,530	2	8		8	1,124	2,595	2,417	5,012
1924	71	148	158	306	361	779	815	1,594	6	24	2	26	438	951	975	1,926
1925	76	151	150	301	367	840	833	1,673	7	25		25	450	1,016	983	1,999
1926	127			544	2,187			10,921	10			28	2,324			11,493
1927	123			503	2,258			11,189	10			31	2,391			11,723
1928	118			440	2,285			11,271	8			29	2,411			11,740
1929	120			447	2,354			11,472	10			34	2,484			11,953
1930	107			446	2,446			12,204	10			30	2,563			12,680
1931	133			550	2,653			13,330	4			11	2,790			13,861

1924년 말 현재 고성군 관내 면별 호수와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

## &lt; 1924년 말 현재 고성군 각 면별 조선인 호수와 인구수&gt;5)

구분 면명	호수	인구		
		남자	여자	합계
고성	2,070	5,092	4,965	10,057
삼산	933	2,721	2,523	5,244
하일	827	2,301	2,178	4,479
하이	778	2,079	1,948	4,027
상리	890	2,485	2,257	4,742
대가	1,148	3,167	2,977	6,144

5) 『매일신보』 1925년 6월 14일.

영현	837	2,394	2,180	4,574
영오	985	2,525	2,523	5,048
개천	873	3,412	2,092	5,504
구만	702	1,960	1,864	3,824
회화	1,077	2,688	2,460	5,148
마암	1,023	3,067	2,840	5,907
동해	1,405	3,948	3,661	7,609
거류	1,192	3,393	3,083	6,476
합계	14,740	41,232	37,551	78,783

< 1924년 말 현재 고성군 각 면별 일본인 호수와 인구수 >

면명	호수	인 구		
		남자	여자	합계
고성	127	288	257	545
삼산	3	5	8	13
하일	3	3	3	6
하이	1	2	2	4
상리	2	3	4	7
대가	1	1	2	3
영현	5	6	11	17
영오	1	1	3	4
개천	2	3	3	6
구만	1	2	3	5
회화	24	44	56	100
마암	3	4	3	7
동해	25	73	63	136
거류	7	10	12	22
합계	205	445	430	875

1925년 고성군은 호수는 1만 5천, 인구는 7만 8천여 명의 군세를 이루고 있었으며, 경작지는 논 8,900여 정보, 밭 4천 수백여 정보였다. 1924년도 기준으로 쌀 수확량은 11만 5백 6석, 면작(棉作)은 약 8백 정보에 수확량이 6만 8천근이며, 양잠이 359석(石), 수산물이 약 5만원의 어획량을 보이고 있었다. 고성군에서는 수확량 증대를 위해 농업개량과 이에 필요한 지도를 독려하였는데 박정수(朴珽洙), 이관수(李阪洙), 허선(許宣), 이진기(李鎭畿), 권정현(權正鉉), 이진만(李鎭滿), 최제호(崔濟鎬) 등이 활동하였다.

1927년 현재 고성군 관내 각 면별 호수와 인구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27년 고성군 각 면별 호수와 인구수><sup>6)</sup>

면명	호수			인구						합계
	내지인	조선인	계	내지인			조선인			
				남	여	계	남	여	계	
고성면	123	2,258	2,381	257	246	503	5,699	5,490	11,189	11,692
삼산면	3	1,004	1,007	6	5	11	2,820	2,678	5,498	5,409
하일면	4	907	911	6	7	13	2,540	2,306	4,846	4,859
하이면	3	842	845	5	3	8	2,310	2,201	4,511	4,519
상리면	3	895	878	4	3	7	2,423	2,407	4,830	4,837
대가면	1	1,161	1,162	2	2	4	3,221	3,139	6,360	6,366
영현면	4	862	865	7	7	14	2,322	2,160	4,482	4,496
영오면	2	1,010	1,012	3	3	6	2,565	2,577	5,142	5,148
개천면	1	875	876	2	1	3	2,370	2,186	4,556	4,559
구만면	1	721	722	1	1	2	2,019	2,000	4,019	4,021
회화면	20	1,101	1,124	42	48	90	2,770	2,815	5,585	5,681
마암면	1	1,089	1,099	2	2	4	2,923	2,901	5,824	5,828
동해면	35	1,505	1,540	86	85	171	4,253	4,048	8,301	8,472
거류면	7	1,238	1,245	14	18	32	3,451	3,278	6,729	6,761
계	207	15,477	15,697	437	431	858	41,686	40,186	81,872	82,777

6) 『郡勢一般』, 慶尙南道固城郡, 소화 3년 7월 編製.

이 외에 지나인(支那人) 10호 31인이 고성면에, 3호 6인이 회화면에 거주하고 있었다.

토지는 국유지가 약 130정(町)으로 논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잡지·밭·대지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민유지는 13,854정이 있었는데 논이 9천여 정으로 가장 많았고, 밭이 4천여 정, 다음으로 대지가 480여정, 잡지가 40여정이었다.

< 1927년 고성군 토지 현황>(단위:町)

종별	畓	田	垆	雜地	합계
國有地	116.3	4.2	2.1	7.1	129.7
民有地	9,036.9	4,289.6	486.0	41.5	13,854

1927년 현재 고성의 총인구는 82,777명이었는데, 이를 직업별로 구분하면 농업·목축·임업이 69,4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업·교통업이 2,905명, 어업·제염업이 1,601명 등의 순으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1927년 고성군 직업별 호수와 인구수>

업별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총 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농업·목축·임업	53	228	12,254	69,211	1	3	12,308	69,442
어업·製鹽業	24	123	263	1,478	-	-	287	1,601
공업	10	52	185	801	12	24	195	853
상업·교통업	33	155	638	2,716	-	-	683	2,905
公務·자유업	76	271	190	733	-	-	266	1,004
其他有業者	9	36	1,552	5,786	-	-	1,561	5,822
無職業者	2	3	395	1,147	-	-	397	1,150
합 계	207	868	15,477	81,782	13	27	15,697	82,777

교육 시설로는 공립소학교가 4곳으로 학급수는 7개, 교원수는 10명, 학생수는 168명이었다. 공립보통학교는 10곳으로 학급수는 45개, 교원수는 45명이었고, 학생수는 1,792명이었



다. 이 외에 사설로 운영되는 서당이 29곳 있었으며, 학생은 561명이었다. 그리고 사설학술강습소가 1곳 있었으며, 학생수는 82명이었다.

<1927년 고성군 교육시설 현황>

종별	공립	사립	계	학급수	교원수	아동		1927년졸업생	1927년경비
						남	여		
소학교	4		4	7	10	92	76	37	12,906
보통학교	10		10	45	45	1,546	246	280	90,700
계	14		14	52	55	1,638	322	317	103,606
서당		29	29		30	447	14		3,152
사설학술 강습소		1	1	4	3	82		18	1,600

종교 분야에는 기독교 관련 교회와 포교소가 7곳 있었으며, 목회자는 8명, 신도는 조선인 383명이었다. 사찰은 4곳 있었으며, 승려는 70명이 있었다. 위생기관으로 병원 2곳, 의사 3명, 의생(醫生) 33명, 치과의(齒科醫) 1명, 산과 2명, 약종상(藥種商) 75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산업 분야에서 고성 각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던 가축으로 소는 7,503마리, 말은 105마리, 노새는 1마리, 돼지는 1,132마리, 산양은 361마리 닭은 12,791마리였다.

광업분야에서 금은동(金銀銅) 광구(鑛區)가 5곳이 있었으며, 면적은 418,000평에 달하였다. 동 광구는 1곳으로 면적은 50,000평이었고, 은동연아연(銀銅鉛亞鉛) 광구는 1곳으로 면적은 213,000평이었고, 금은연(金銀鉛) 광구는 1곳으로 면적은 880,000평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금은동 광구 1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일본인이 경영하고 있었다.

고성은 지리적으로 해안을 끼고 있는 특징이 있다. 1927년 현재 어종별 어획고를 살펴보면 대구가 380,720관에 117,333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정어리가 22만여 관에 9만 2천여원의 어획고를 보였고, 다음으로 가물치, 갈치, 조기, 전어 등의 순으로 되어 있었다.

## &lt;1927년 고성지역 어획고&gt;

종별	내지인		조선인		총계	
	수량(貫)	가액(円)	수량(貫)	가액(円)	수량(貫)	가액(円)
정어리	227,720	91,328	1,700	770	229,420	92,098
대구	178,300	53,965	206,430	63,068	384,720	117,033
조기	3,900	2,320	25,274	10,516	29,174	12,836
갈치	13,250	4,650	31,503	10,456	44,753	15,106
가자미	-	-	4,930	1,648	4,930	1,648
가물치	150	105	43,033	27,515	43,182	27,620
전어	60	30	20,668	9,984	20,728	10,014
蛸	-	-	4,909	2,975	4,909	2,975
준치	380	190	6,530	2,180	6,910	2,370
기타	5,866	2,605	145,846	44,486	151,712	47,091
계	429,626	155,193	490,823	173,598	920,449	328,791

이들 수산물은 원거리로 운송되어 거래되거나 장기간 저장, 판매를 위해 어종의 특징에 따라 소건(素乾)·염건(鹽乾)·자건(煮乾) 등의 형태로 가공되었다. 수산물제조 분야에서 조선인은 소건과 염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반면에 일본인은 주로 자건 형태로 제조하는 것을 취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염에 종사하는 자는 119명이었고, 염부(鹽釜)는 15, 염전면적은 21,919평이었으며, 1년간 생산한 소금은 356,880근에 달하였다.

## &lt;1927년 고성지역 수산제조물 현황&gt;

종별		일본인		조선인		합계	
		수량(貫)	가액(円)	수량(貫)	가액(円)	수량(貫)	가액(円)
食 用 品	素乾	대구		860	860	860	860
		蛸		677	1,354	677	1,354
		오징어		270	540	270	540
	鹽乾	대구		250	250	250	250
		갈치		1,890	1,223	1,890	1,223
		조기		3,050	2,135	3,050	2,135
		기타		20	100	20	100

	煮乾	鱈煎子	306,785	245,428	100	80	306,885	245,508
		기타			100	100	100	100
		계	306,785	245,428	200	7,217	314,002	252,070
肥料			800	400	400	200	1200	600
총계			307,585	245,828	7,817	7,417	315,202	252,670

고성지역 도로상황은 2등도로가 1곳으로 길이는 약 27km, 3등도로가 2곳으로 총길이는 약 27km, 등외도로가 10곳으로 개수(改修)한 길이는 95km 정도이고, 개수하지 못한 길이는 약 34km였다. 교통수단으로 하물을 운송하는 우마차(牛馬車)가 169대, 하차(荷車)가 41대, 자동차가 1대, 자전거가 211대, 통영(統營)을 오가는 발동기선(發動機船)이 2척 있었다. 한편 고성에서 인접한 통영을 비롯하여 마산, 진주 등의 지역과 연결하는 자동차 운행상황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출발지역	경유지역			도착지	定期	거리(里)
고성				統營	10	6.08
고성	塘洞	安靜	魯山	통영	2	8.00
고성	背屯	岩下	眞東	馬山	14	11.16
고성	烏山	歌瑟	泗川	晋州	6	9.59
고성	大可	永縣	永吾 一部	文山	2	8.00
고성	배둔	介川	영오	문산	2	10.00

고성지방은 해안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교통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고성은 1926년 7월에 통영과 연결하는 항로를 개설하여 상업교통의 불편 일부를 해소하게 되었다. 통영군 이운면(二運面) 주리(洲里)에 거주하는 박학중(朴鶴重)이 5천원을 투자하여 제2어도환(第二御島丸)을 구입하여 매일 2회씩 통영과 고성을 왕래함으로써 해산물과 각종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전보다 편리하게 되었다. (7월 1일부터 운행함)<sup>7)</sup>

고성과 옥지도 사이에 정기항로가 없어 통영을 경유하거나 또는 범선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불편함이 많았다. 1931년 9월에 조선해운회사(朝鮮海運會社)에서 고성과 옥지도 사이에 정기항로를 개통하고 연해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영경찰서에 항로출원서를 제출하여 10월 28일 인가되었는데, 취항선은 발동기선 26톤으로 규모였

7) 『매일신보』 1926년 7월 4일.

다.<sup>8)</sup>

1932년에는 1월부터 고성 옥지도 사이 정기순항선이 운행되었다. 영남기선조합(嶺南汽船組合) 대표 위죽등언(衛竹藤彦)이 허가를 받아 씨에게 허가되어 발동기선 福丸으로 고성을 기점으로 서산(緜山), 두부(豆府), 동강(東江), 사량(蛇梁), 추도(秋島), 노대(老大), 연주(蓮走)의 여러 섬을 경유하여 옥지도까지 1일 1회 왕복운항을 시작하였다. 종래에는 고성의 장날에 한하여 옥지도부터 범선 3척으로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정도였다. 배삐은 고성과 옥지도 사이 편도 40전, 왕복 70전으로 책정되었다. 운항시간은 고성에서 8시에 출발하여 12시에 옥지도에 도착하고, 옥지도에서는 오후 2시에 출발하여 고성에는 6시에 도착하는 것이었다.<sup>9)</sup>

육로 교통도 새로운 교통편이 개통되면서 인근 지역과의 교류와 소통이 점차 활발해졌다. 1928년 고성군 상리면에서 삼천포를 통행하는 도로 약 3리 거리 구간의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종래 교통에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총공사비용 4,800원을 확보하여 1927년 12월 10일부터 등외도로(等外道路) 공사가 진행되어 1928년 3월에 통행이 이루어져 생활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다.<sup>10)</sup>

1935년에는 도로의 포장공사가 진행되어 교통의 불편이 일부 해소되었다. 고성관내 도로 가운데 고성면의 모범도로 40미터와 회화면 배둔리 700미터, 마암면 2천미터, 상리면 1천미터 등 공사비용 6,131원과 부역에 동원되는 연인원 8,650명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2월 14일부터 마산토목관구(馬山土木管區)에서 기술원이 고성에 와서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sup>11)</sup>

도로사정이 점차 정비되면서 교통비도 조정되었다. 1936년 경남자동차주식회사에서는 경남영업선의 중앙지라고 할 수 있는 고성정류소를 영업소로 승격시키고 업무를 쇄신하기 위하여 고성읍내 미시장변(米市場邊) 면유지(面有地)를 매수하여 사무소와 차고를 건축하였다. 그리고 6월 10일부터는 영업선 일반에 운임인하를 단행하여 일반의 호평을 받았으며, 더욱이 고성-통영선은 고성회사와의 경쟁선로인 관계로 운임정가인 1원을 반액 할인하여 50전으로 하여 오던 것을 아예 정가로 책정하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간 운임도 조정되었는데, 이때 개정된 운임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진주-삼천포 1.05전, 진주-통영 2.00전, 마산-고성 1.50전, 사천-고성 1.00전, 사천-辰橋 95전, 사천-배둔 1.25전, 고성-문산 1.30전<sup>12)</sup>

8) 『매일신보』 1931년 9월 11일 ; 11월 11일.

9) 『매일신보』 1932년 2월 24일.

10) 『매일신보』 1928년 2월 1일

11) 『매일신보』 1935년 2월 19일.

1925년에는 고성지역에도 시내전화가 개통되어 통신분야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교통 시설과 수단이 점차 편리하게 진전되는 가운데 매년 호수와 인구가 증가되어 일반에도 시내전화를 가설하기로 결정되어 1월 20일에 공사를 마치고 25일 오전 11시에 고성우편소내에서 개통식을 거행하였고, 식을 마친 후에는 등옥여관(藤屋旅館) 내에서 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sup>12)</sup> 1932년 6월에는 대성의원(大省醫院)이 건물을 신축하여 고성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원하는 변화도 있었다.<sup>14)</sup>

한편 오랜 기간동안 현안 중에 있던 간이수도 부설에 대해 지방보조비가 확정되어 1931년 7월부터 구체적인 공사설계를 진행하고 총 공사비 3만원으로서 2년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sup>15)</sup> 이후 간이수도공사는 원만하게 진척되어 1932년 완공되었다. 1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1933년 경 고성면에서 경영하는 고성간이수도는 초기에 일반인이 예상하고 우려하던 것과는 달리 성적이 우량하여 수입지출상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인근 다른 군에 비하여 수질 등이 양호하고, 저수지와 급수민(給水民)의 거리가 인접한 관계로 항상 음수(飲水)의 신선함이 유지되어 일반인의 위생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호평을 받았다.<sup>16)</sup>

고성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고성번영회 조직이 추진되다가 1933년 6월 19일 고성면 등옥여관(藤屋旅館)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칙에 대한 심의와 역원을 선출하였는데 임원은 회장은 원등훈(遠藤薰), 부회장은 이갑용, 이사는 청수영태랑(清水榮太郎), 고문은 송찬도(宋燦道) 군수·송본(松本) 서장·덕원안웅(德元安雄)·박남극(朴南極)이었다.<sup>17)</sup>

고성번영회는 1934년 7월 18일에 총회를 열고 원등 회장의 사회로 정관의 변경, 역원(役員)의 재선거 등을 마치고 합의재판제구역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개선된 역원은 회장에 이갑용, 부회장에 정상의웅(井上義雄), 이사에 덕전총길(德田惣吉), 평의원에 박창순(朴昌淳)·김중주(金鍾注)·이종완(李鍾完)·이형권(李滢權)·청수영태랑·아옥청언(兒玉淸彦)·이택이팔(伊澤利八)·수내일출고(水內日出高)·도변성오(渡邊省五)·이시영(李始榮) 등이었다. 1년 전의 구성원과 비교하여 일본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18)</sup>

1933년 고성군 거류면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자력갱생, 농촌진흥운동에서 성과가 있어 모범지역으로 홍보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자력갱생을 위해 육지면(陸地棉)의 지도군 모

12) 『매일신보』 1936년 6월 20일.

13) 『동아일보』 1925년 1월 29일.

14) 『매일신보』 1932년 7월 8일.

15) 『매일신보』 1931년 7월 13일.

16) 『매일신보』 1934년 6월 11일.

17) 『매일신보』 1933년 6월 27일.

18) 『매일신보』 1934년 7월 23일.

범촌락으로 되어 면내에 제반 산업시설이 많이 설비되어 있었으며, 주요농산품을 비롯하여 특히 면화가 연간 1,562반(反)에 159,850근(斤)의 수확고를 올렸으며, 향후 10년간 면화증산계획을 추진함에 거류면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채소의 생산도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품질도 좋은 것으로 평판이 있었으며, 해상에서는 연간 5천여원의 해산물도 산출되었다. 또한 면소재지인 당동에 시장이 개설되어 인근 각지에서 상인과 物貨가 집산하여 연간 매매가가 수만원에 이를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1932년부터는 당동에 고성금융조합출장소가 설치되었고, 교육기관도 보통학교 4학년제를 이진홍(李震弘) 면장과 지역 유지 박중호(朴琮浩) 등의 노력으로 6학년제로 증급(增給)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1932년 말 현재 인구는 호수 1,310호, 인구 7,422인으로 심상소학교와 우편소도 설치되어 있었으며, 교통망은 고성과 통영사이에 매일 자동차 왕래하고 있었다. 이즈음 거류면에 있는 시설조합과 단체로 교풍회(矯風會) 11개소, 채소조합 1, 양계(養鷄)조합 1, 납세조합 1, 도지도부락(道指導部落) 1, 모범교풍회(模範矯風會) 1, 면작개량계(棉作改良契) 10, 전작(田作)개량조합 3, 수도정조식실행(水稻正條植實行)조합 11, 우계(牛契) 1, 태평저곡(泰平貯穀)조합 11, 휴반상원비배관리완성실행계(畦畔桑圓肥培管理完成實行契) 5, 청년회 4, 부인회 4, 납세저금계 1, 권농공제조합 3, 농촌지도촌락 1곳 등이 있었다.<sup>19)</sup>

고성군에서는 1933년부터 농번기에 탁아소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이때 탁아소가 설치된 곳은 거류면 가려리와 고성면 송학동이었다. 이듬해에는 은월리의 교풍회 주최로 탁아소를 신설하는 것 이외에 6개소가 추가되었는데 하이면 월흥리, 상리면 백척번정리(百漣煩亭里), 영현면 영부리(永芙里), 개천면 나선리(羅仙里), 마암면 화산리(禾山里), 거류면 은월리 등이었고, 탁아소 설치기간은 모두 6월 10일부터 동월 30일까지 3주간으로 하였다.<sup>20)</sup>

한편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총동원체제로 돌입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시국강연회 개최, 부인단체나 청년단체 등을 조직하여 활동을 독려하였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발족하고 각 지역에서 정신총동원연맹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8년 10월 1일 고성군 고성면이 읍으로 승격하게 되었다. 당시 『매일신보』에 실린 고성의 현황을 소개한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현황을 보건데 축년(逐年) 이수(異數)의 발달을 수(遂)하여 소화 12년 말 현재로 내지인 108호 464명, 조선인 2,836호 14,392명으로 계 2,946호에 인구 14,865명으로 각 관공서가

19) 『매일신보』 1933년 9월 1일.

20) 『매일신보』 1934년 6월 8일.

정비되어 있고 교육기관으로는 농업실수학교, 고성고등소학교, 고성소학교 외에 이갑용(李甲用)씨 경영의 고성학원과 사립 신명(信明)유치원 등이 있으며 군 설립의 간이도서관도 있다. 또 문화시설로는 전신, 전화, 전기, 상수도 등이 완비되고 농업이 주이나 상업 역시 은진(殷進)하여 읍으로서의 관록은 이미 구비되어 실로 전도양양한 바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산업 중 그 왕좌를 점하는 것은 농업으로 이 성쇠여하는 곧 읍세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경지면적이 1,687정(町) 4반(反), 쌀 생산이 22,580여석, 보리가 5,774석 이외에 두류(豆類)가 1천여석, 잡곡이 약 1백석, 소채가 수만 관, 특용작물로 육지면이 20만근, 대마가 약 4천근 등이 산출되며 상업상황은 대개 소매상으로 연 1만원 이상의 매상고를 올리는 자가 24호(戶)에 달하며 시장을 중심으로 매매되는 연간 교역고(交易高)가 1,457,000여원을 산(算)하고 공업도 역시 상당하여 연산액이 24만여원에 달하며 수산고(水産高)가 또 경이적 팽창을 시(示)하여 20여만원에 달하여 물화집산의 중심지로서 연년변영의 길을 밟고 있다. 교통상황은 해륙의 요충에 당하여 마산·진주·사천·통영의 중심이 되어 군내 각 면에 이르는 매일 수회 정기자동차의 편이 있어 조금도 불편을 감(感)함이 없고 부산, 통영, 삼천포 등에는 정기항로가 있어서 해로 역시 편리하게 되어 있다. 또 위생시설로는 사설 의원이 3개소 의생(醫生)이 6명 치과의 1명, 약종상(藥種商) 14, 매약상(賣藥商) 20을 산(算)하고 격리병사(隔離病舍) 등도 시설되어서 위생조합의 지도와 아울러 읍민 보건상 큰 공헌을 끼치고 있다.<sup>21)</sup>

당시 고성이 전반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는 식량 등 각종 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갔다. 근로보국단 결성, 비행기 헌납운동 전개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압박을 가하였다. 일제는 1931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시기에 아시아와 태평양 전쟁기간 동안 조선에 대하여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강탈하였다. 특히 1938년 육군특별지원병제도를 실시하면서 일본군대로 동원된 조선인은 일제 패망까지 대략 21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인의 병역문제는 강제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되어 마침내 조선인에 대한 지원병제도 실시가 결정되었다.

일제는 1938년부터 육군특별지원병제도를 통하여 이른바 ‘지원병’이라는 명목으로 조선인을 병력으로 강제 동원하였다. 명분상으로는 지원하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이거나 마찬가지였다. 이 제도에 따라 조선인 육군특별지원병들은 조선총독부에서 설치한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에서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받고 일본군대로 동원되었다. 육

21) 『매일신보』 1938년 10월 1일.

군특별지원병제도는 초기에는 조선인 군인동원에 관하여 일제의 조선인에 대한 심각한 불신 속에서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의 훈련 등 조선인의 황민화에 진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41년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전장이 확대됨에 따라 일제는 조선인에 대해 병력충원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었고, 1944년 징병제 실시 이후에는 육군특별지원병제도를 개정하여 17세 미만의 소년까지 일본의 전쟁터로 동원하고자 하였다.<sup>22)</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성군에서는 1938년 제1회 지원병 모집이 있었고, 1939년 7월 제2회 모집이 있게 되자 50명이 응모하였다. 이들은 경남도에서 실시한 시험과정을 거쳐 9명이 합격하였다. 도내 전체에서 85명이 합격하였는데, 이 인원수는 군 단위에서 가장 많은 수라고 하였다. 각 면별로 지원병에 응모하여 합격한 자는 다음과 같다. 김종갑(金縱甲 : 고성면), 문창수(文昌守: 삼산면), 서종주(徐棕柱: 삼산면), 민금세(閔金世: 대가면), 한순봉(韓順鳳: 영현면), 우정윤(禹禎允: 영오면), 이상중(李相中: 구만면), 정일열(丁日烈: 마암면), 박우상진(朴又相鎭: 회화면)<sup>23)</sup>

일제는 지원병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전장으로 내몰린 조선인의 희생을 명예로운 것이라고 교묘하게 포장하여 활용하였다. 매일신보는 지원병 정종태(鄭鍾泰)가 산서(山西)전투에서 전상(戰傷)을 입은 것을 고성 출신으로 첫 명예라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고 있다.

육군 지원병으로 북지 전선에서 활약중인 경남 고성군 영현면 출신 정종태 상등보병(上等步兵)은 산서전선 ○○부대에서 오른쪽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최근 도착되어 영현면에서는 면주재소, 학교가 연합하여 유가족 위문을 하였고, 학교 생도들은 황교장이 선두로 유가족의 모내기를 조력하는 등 여러 가지 감격한 장면을 보였다.<sup>24)</sup>

인적 동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고성지역민들은 가마니 짜기, 송진 채취, 새끼 꼬기 등의 군수품 조달에 동원되었고, 일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국운동(保國運動)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쌀, 콩, 조 등의 농산물은 물론 옷감, 기름 등 생활 자재에 대해 가격을 통제하였다. 그리고 퇴비제조량 증산 독려, 세금 징수와 납세 선진, 납세근로자에 대한 표창, 금융조합 육성 등을 통해 전시체제를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1942년 대관검사소에서 지원병에 합격한 고성출신은 김강호원(金岡鎬源: 고성면), 정보

22) 표영수, 「일제강점기 陸軍特別志願兵制度和 조선인 강제동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9, 2014 참조.

23) 『매일신보』 1939년 4월 9일.

24) 『매일신보』 1939년 7월 22일.



성모(井本性模: 동해면), 아산순길(阿山順吉: 영오면) 등이 소개되었다.<sup>25)</sup> 일제는 조선에 징병제도를 실시하기에 앞서 개정병역법(改正兵役法)을 1943년 8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1944년부터 병역에 들어갈 대상자들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1943년 10월부터 호주가 본적지 읍면사무소에 적령계(適齡屆)를 제출하고, 이듬해 4월부터 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징모구역(徵募區域)을 설정하였는데, 고성은 함안, 김해, 창원, 통영과 함께 부산병사구(釜山兵事區) 제2징모구(徵募區)로 분류되었다.<sup>26)</sup>

다음은 1930년 이후 고성지역의 선거와 행정, 경찰 분야의 조직과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고성의 면협의회 인물, 행정과 경찰 분야 담당자의 면면을 볼 수 있으며, 시기별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1931년 5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고성군면협의(固城郡面協議)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성면(12명) : 문성율(文聖律), 이택이팔(伊澤利八), 청목인평태(靑木仁平太), 금영박(金永博), 김기원(金基元), 청수영태랑(淸水榮太郎), 구유명(具有明), 김원원(金沅沅), 이갑용(李甲用), 이용수(李龍洙), 오중근(吳仲根), 사전원일(砂田源一)

삼산면(10명) : 임문연(林文演), 김종필(金鍾弼), 박재화(朴載華), 박희정(朴喜貞), 문성조(文性助), 서상인(徐相仁), 이남수(李南秀), 이인수(李仁水), 백찬기(白贊基), 이강수(李康壽)

하일면( 8명) : 최경환(崔璟煥), 김한중(金漢鍾), 구영진(具英振), 박상봉(朴相瀾), 김○영(金○英), 최일세(崔壹世), 김기수(金基秀), 최상 모(崔尙模) 하이면(8명): 김태수(金泰守), 김구순(金龜詢), 최 치호(崔致鎬), 강창중(姜暢中), 박상윤(朴相潤), 박진홍(朴鎭洪), 박봉환(朴琫煥), 강대균(姜大均)

상리면( 8명) : 김덕율(金德律), 진기근(陳基瑾), 이진상(李鎭爽), 이정수(李 丁洙), 최명호(崔命鎬), 박진수(朴璉洙), 이지항(李地恒), 백박 갑(白朴甲)

대가면(10명) : 허종관(許宗官), 제용근(諸瑢根), 이성규(李成奎), 이진덕(李鎭德), 허정기(許正驥), 최한열(崔瀚烈), 이항수(李恒洙), 최규권(崔圭權), 이진석(李鎭奭), 박두병(朴斗秉)

영현면( 8명) : 오봉선(吳奉善), 윤정성(尹丁成), 장태식(張泰植), 김락문(金洛汶), 강형락(姜亨洛), 강태주(姜太周), 양한식(梁漢植), 강 병준(姜炳俊)

25) 『매일신보』 1942년 6월 15일.

26) 『매일신보』 1943년 8월 31일.

- 영오면( 8명) : 윤태병(尹泰炳), 서정운(徐丁允), 서병순(徐丙珣), 김한국(金漢國), 김준대(金準大), 우제룡(禹濟龍), 하용기(河龍基), 김한두(金漢斗)
- 개천면( 8명) : 박용하(朴容夏), 박성병(朴聖秉), 최일섭(崔一燮), 김창호(金昌鎬), 최사영(崔士永), 김응제(金應濟), 김옥제(金玉濟), 전덕운(全德雲)
- 구만면( 8명) : 이우의(李遇懿), 곽종안(郭鍾安), 최상락(崔相洛), 김완수(金完洙), 허재기(許在基), 이정수(李丁洙), 최경순(崔景淳), 김일용(金日鎔)
- 회화면(10명) : 구창회(具昌會), 박익진(朴翼鎭), 이수열(李秀烈), 심영택(沈英澤), 하전남추(下田楠秋), 선목기지조(船木幾之助), 서응엽(徐應燁), 김한년(金漢年), 도영숙(都寧塾), 이진엽(李鎭燁)
- 마암면(10명) : 최재진(崔載鎭), 최락권(崔洛權), 최우순(崔羽淳), 허찬중(許贊★中), 허형도(許衡道), 이호원(李鎬元), 이현옥(李鉉彧), 최권열(崔權烈), 이상대(李相大), 김재을(金在乙)
- 동해면(10명) : 서영식(徐泳植), 이재승(李載承), 최동호(崔東護), 천정락(千玪洛), 하방덕태랑(下方德太郎), 강선중(姜善中), 김의협(金義浹), 박영갑(朴永甲), 최동호(崔東浩), 정태영(鄭泰瑛)
- 거류면(10명) : 김상겸(金相謙), 강성순(姜性淳), 김영두(金永斗), 이종환(李宗煥), 권태환(權泰煥), 최홍민(崔洪民), 김회봉(金會鳳), 김난규(金欄奎), 이방수(李芳洙), 구치옥(具致玉)<sup>27)</sup>

1933년 현재 고성군 행정조직과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8)</sup>

군 수 : 송찬도(宋燦道)

서무계

주 임 : 국영친사(菊永親司) · 하영준(河永俊) · 오봉수(吳鳳壽) · 복도육웅(福島陸雄)

산업기수 : 견전오랑(檉田五郎) · 고목정웅(高木政雄) · 소송학성(小松鶴城) · 지전종일(池田宗一) · 석전암웅(石田岩雄) · 김형만(金炯萬).

고원(雇員) : 서기수(徐基洙) · 장상식(張尙植) · 박용보(朴容甫) · 천두용(千斗用) · 김문태(金文泰).

도리원(道吏員) : 지방산업기수 최정호(崔正鎬)

27) 『매일신보』 1931년 5월 25일.

28) 경상남도, 『慶尙南道職員錄』, 1933.

지방삼림주사 : 강경만(姜敬萬)

지방교회주사 : 강흥근(姜興根)

지방삼림주사 : 한웅교(韓雄敎)

재무계 주임 : 김학성(金學成) · 박남휘(朴南徽) · 김홍한(金洪漢) · 천철태랑(川口鐵太郎)

기수 겸속(兼屬) : 황을규(黃乙奎)

고원(雇員) : 정성춘(鄭盛春) · 신양규(申良圭) · 전동완(全東玩) · 이준송(李準松) · 남진규(南鎭奎) · 이규택(李圭澤).

도리원 : 지방서기 황○수(黃○秀) · 최종락(崔鍾洛).

#### ○ 고성면

면장 : 박남극(朴南極)

서기 : 정규훈(鄭奎勳) · 이정호(李正浩) · 박화수(朴樺洙) · 이진수(李鎭洙) · 김남도(金南道) · 김형국(金亨局) · 박우섭(朴又攝) · 황두석(黃豆石).

기수 : 강정규(姜正奎)

#### ○ 삼산면 : 병산리(屏山里)

면장 : 이기재(李起在)

서기 : 윤상구(尹相九) · 서병기(徐炳基) · 강종훈(姜宗勳) · 최규원(崔圭元) · 이강옥(李康玉)

기수 : 황영숙(黃永淑)

#### ○ 하일면 : 학림리(鶴林里)

면장 : 최관모(崔權模)

서기 : 최찬순(崔贊淳) · 최기환(崔沂煥) · 최승호(崔升鎬) · 이병호(李炳鎬) · 최경환(崔璟煥)

#### ○ 하이면 : 덕호리(德湖里)

면장 : 최재황(崔載滉)

서기 : 백진기(白璣基) · 최근호(崔謹鎬) · 박상홍(朴相洪) · 김종두(金宗斗) · 정윤조(鄭允祚)

기수 : 김채홍(金采洪)

#### ○ 상리면 : 오산리(烏山里)

면장 : 이용년(李鎔年)

서기 : 이형수(李瑩洙) · 박우수(朴又守) · 김덕술(金德述) · 백형만(白亨萬) · 최위징(崔渭澄)

기수 : 이종수(李鍾壽)

#### ○ 대가면 송계리(松溪里)

면장 : 이복규(李僕奎)

서기 : 정종섭(鄭鍾聶) · 허점태(許点泰) · 허범(許梵) · 정쾌대(鄭快大) · 임상근(林上根)

기수 : 이증삼(李曾三)

○ 영현면 침점리(砧店里)

면장 : 정형규(鄭炯奎)

서기 : 백영기(白榮基) · 최락찬(崔洛瓚) · 백일수(白日守) · 정중호(鄭鍾鎬) · 김근모(金謹模)

○ 영오면 영대리(永大里)

면장 : 주재식(朱載植)

서기 : 성종률(成鍾律) · 박수웅(朴壽熊) · 송두섭(宋斗燮) · 서백환(徐伯煥) · 이영주(李永周)

기수 : 김상규(金相奎)

○ 개천면 청광리(淸光里)

면장 : 최정갑(崔正甲)

서기 : 최식림(崔式林) · 최락선(崔洛銑) · 최락조(崔洛朝) · 허남철(許南哲) · 박종병(朴鍾秉)

○ 구만면 효락리(孝洛里)

면장 : 최락현(崔洛顯)

서기 : 최익락(崔翊洛) · 최성호(崔成鎬) · 이두원(李斗元) · 이상오(李相五)

○ 회화면 배둔리(背屯里)

면장 : 김윤명(金允明)

서기 : 구장서(具璋書) · 김두협(金斗挾) · 김현경(金鉉璟) · 김이곤(金二坤) · 김봉이(金鳳伊) · 김순제(金順濟).

○ 마암면 장산리(章山里)

면장 : 최세열(崔世烈)

서기 : 최증순(崔增淳) · 황증안(黃增安) · 허종보(許宗寶) · 허은도(許垠道) · 최원대(崔元大) · 조무양(曹茂陽)

○ 동해면 장기리(章基里)

면장 : 이채갑(李采甲)

서기 : 강택근(姜澤根) · 박상규(朴祥奎) · 황성옥(黃性沃) · 김상권(金相權) · 강영환(姜永煥) · 옥봉길(玉鳳吉)

기수 : 김우석구(金又錫九)

○ 거류면 당동리(塘洞里)

면장 : 이진홍(李震弘)

서기 : 김창기(金昶琪) · 공용석(孔龍碩) · 백남순(白南淳) · 최천익(崔千益) · 안기제(安基濟) · 성상규(成祥奎) · 최한룡(崔漢龍)

1935년 5월 21일 있었던 면협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총유권자 1,465명 중 1,451명이 투표하고 기권자는 14명에 불과할 정도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결과 당선된 각 면별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성면 : (누락)

삼산면(정원 10명): 허흥중(許興中) 전중영(全中櫻) 서정훈(徐正垣) 정일도(鄭逸都) 임문연(林文演) 서병호(徐炳昊) 서병수(徐炳壽) 박상중(朴尙鍾) 김종필(金鍾弼) 강의영(姜義永)

하일면(정원 10명): 최수개(崔守介) 이진하(李鎭夏) 최문환(崔文煥) 최기락(崔奇洛) 용필구(龍必九) 배대은(裴大垠) 최규세(崔圭世) 강익수(姜益守) 김기수(金基秀) 천능조(千能祚)

하이면(정원 8명) : 최두호(崔斗鎬) 최락완(崔洛完) 강한중(姜漢中) 김태수(金泰守) 박응실(朴應實) 정○홍(鄭○弘) 박상윤(朴相潤) 박정교(朴貞敎)

상리면(정원 8명) : 이정수(李丁洙) 이진상(李鎭瑬) 진기관(陳基瓘) 권용기(權鎔基) 김덕율(金德律) 최재만(崔再萬) 박상홍(朴相洪) 백형순(白亨舜)

대가면(정원 10명): 이신규(李臣奎) 제정탁(諸廷鐸) 제병근(諸炳根) 제무용(諸戊用) 허종칠(許宗七) 심기환(沈其環) 허재중(許在鍾) 허종와(許宗洙) 정학규(鄭學奎) 하남준(河南俊)

영현면(정원 8명) : 김진여(金鎭輿) 김형복(金炯福) 백동기(白同基) 윤기흔(尹基忻) 양한택(梁漢澤) 오상갑(吳尙甲) 장태식(張泰植) 이성진(李成珍)

영오면(정원 8명) : 김남정(金南正) 최계호(崔啓鎬) 장태병(將泰炳) 서보환(徐普煥) 서순권(徐淳權) 김준대(金準大) 김용권(金用權) 우제룡(禹濟龍)

개천면(정원 8명) : 김응제(金應濟) 김하두(金夏斗) 채동환(蔡東煥) 전덕운(全德雲) 박용하(朴容夏) 하찬성(河燦城) 최규엽(崔圭燁) 변상태(卞相泰)

구만면(정원 8명) : 최용호(崔庸鎬) 이향수(李香洙) 이상충(李相忠) 김일용(金日鎔) 허정진(許正鎭) 곽종원(郭鍾轅) 이우의(李愚懿) 허재기(許在其)

회화면(정원 10명): 구창회(區昌會) 서응엽(徐應燁) 정종명(鄭宗明) 송강말광(松岡末廣) 이용우(李龍雨) 김재곤(金栽坤) 심영택(沈英澤) 김한중(金漢琮) 박

익진(朴翼鎭) 도영숙(都寧塾)

마암면(정원 10명): 허홍도(許洪道) 허형도(許衡道) 최익순(崔翼淳) 최락권(崔洛權) 최권열(崔權列) 허찬중(許纘中) 이인옥(李仁玉) 김재을(金在乙) 이정식(李丁碩) 최재진(崔載鎭)

동해면(정원 10명): 최포덕(崔鋪德) 강병재(姜柄宰) 천용규(千用奎) 최규복(崔圭福) 이순기(李淳己) 정재규(鄭在珪) 이채순(李 采珣) 김동택(金東宅) 김정현(金玪鉉) 전장수(田長水)

거류면(정원 10명): 이종환(李宗煥) 최용기(崔鏞畿) 김용순(金容淳) 김봉두(金琫斗) 남익조(南益祚) 최홍민(崔洪民) 구연팔(具然八) 황용희(黃鏞熙) 김형무(金炯武) 김회봉(金會鳳)<sup>29)</sup>

<선거 상황 고성지역 사진 있음★>

1939년 면협의회 선거결과 각 면별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1935년과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동해면협의회원 : 김진래(金鏡來) 박영갑(朴永甲) 김의협(金義浹) 박태훈(朴泰勳) 강가무(姜佳武) 박진호(朴辰浩) 전정중(田井重)천용규(千用奎) 이화실(李華實) 최규복(崔圭福) 최동호(崔東浩)

거류면협의회원 : 김형무(金炯武) 이상연(李尙連) 최금수(崔金水) 이상봉(李相鳳) 전재관(全在官) 구학구(具鶴龜) 변경도(卞京道) 백락학(白樂鶴) 김상관(金相寬)

하이면협의회원 : 송계필(宋季弼) 박상진(朴相璉) 강태홍(姜泰洪) 조차식(趙且植) 최두호(崔斗鎬) 김재석(金載錫) 박정교(朴貞敎) 정명석(鄭明錫)

영오면협의회원 : 최계호(崔啓鎬) 서우찬(徐又贊) 서백환(徐伯煥) 우제룡(禹濟龍) 김상근(金尙根) 김용권(金用權) 김문규(金文 奎) 김기영(金基榮)

대가면협의회원 : 하남준(河南俊) 정운용(鄭允用) 이진하(李鎭河) 남정우(南繼祐) 제도탁(諸廷鐸) 진학식(陳學植) 제정삭(諸廷 朔) 심기환(沈其環) 허종와(許宗注)

영현면협의회원 : 양한탁(梁漢鐸) 백동기(白洞基) 이성봉(李聖鳳) 강병준(姜柄俊) 마능

29) 『매일신보』 1935년 5월 26일.

- 숙(馬能淑) 장철수(張哲壽) 박근실(朴根實)
- 하일면협의회원 : 천능조(千能祚) 배대은(裴大垠) 강익수(姜益守) 최경환(崔璟煥) 최변호(崔汴鎬) 초재묵(崔載默) 김점조(金占祚) 이진하(李鎭夏)
- 마암면협의회원 : 이○순(李★淳) 이종우(李鍾宇) 이상조(李相祚) 이대원(李大院) 김재근(金在近) 최수형(崔秀亨)
- 개천면협의회원 : 김응제(金應濟) 김두용(金斗用) 김하 두(金夏斗) 한병준(韓炳俊) 천종록(千鍾祿) 박희원(朴熿遠) 최식림(崔式林)
- 상리면협의회원 : 최락교(崔洛敎) 박난조(朴蘭祚) 권용기(權鎔基) 염영선(廉聆善) 박정규(朴正圭) 이훈용(李薰鏞) 진수진(陳洙鎭) 이진상(李鎭瑬)
- 회화면협의회원 : 김선수(金善洙) 구창회(具昌會) 허학중(許學中) 서응엽(徐應燁) 박수봉(朴守奉) 박태진(朴泰鎭) 이향열(李香烈) 김 용탁(金容鐸) 이진엽(李鎭燁) 중도자태(中島滋太)
- 구만면협의회원 : 최성호(崔成鎬) 이범수(李範洙) 김완수(金完洙)
- 삼산면협의회원 : (명단이 누락되어 있음)<sup>30)</sup>

1938년 현재 고성군의 경찰조직과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고성경찰서 : 고성군 고성읍 소재
- 서장 : 경부(警部) 비량원추랑(比良元秋郎)
- 경부보(警部補) : 송본웅차랑(松本熊次郎)
- 경사(警査) 부장 : 태전주길(太田住吉) 우야주세(宇野主稅) 강촌의치(岡村義治) 임종훈(林鍾勛) 길천정선(吉川貞善)
- 경사 : 서정진(徐廷璠) 이천환(李千煥) 오성국(吳聖局) 주점득(朱占得) 송영 박(松永博), 송영달(孫永達) 김진옥(金軫玉) 남기병(南基丙) 박치호(朴致浩) 탕포행부(湯浦行夫) 흑전항부(黑田恒夫) 등택정미(藤澤正美) 이남규(李南圭) 김형운(金炯潤)

○ 삼산주재소

순사 부장 고뢰치칠(高瀨治七) 이임선(李任善) 소천은장(小川銀藏)

○ 하일주재소

순사 부장 상지원치(上地圓治) 최상룡(崔相龍)

30) 『매일신보』 1939년 7월 26일.

- 하이주재소  
순사 부장 좌등희작(佐藤喜作) 송석찬(宋石贊)
- 상리주재소  
순사 부장 하야첩기(河野捷己) 강응섭(姜應燮) 최학진(崔學進)
- 대가주재소  
순사 부장 국분치(國分 治), 장극수(張克秀)
- 영현주재소  
순사 옹곡무남(熊谷武男) 김흥국(金興國)
- 영오주재소  
순사 장야준이(長野俊二) 남삼수(南三壽)
- 개천주재소  
순사 부장 천상손(川上 孫), 강호순(姜灝淳)
- 구만면주재소  
순사 부장 무전력(武田 力), 조평수(趙坪洙)
- 배둔주재소  
순사 부장 궁본무웅(宮本武雄) 이영수(李泳銖)
- 마암주재소  
순사 부장 협간수웅(狹間秀雄) 김재실(金在實)
- 당동주재소  
순사 부장 등정이평(藤井理平) 신혜정(申蕙禎)
- 동해주재소  
순사 부장 고양정근(高野定近) 오재룡(吳在龍)
- 내산(內山)출장소  
순사 장부금부(庄部金夫)

1938년 현재 고성군의 행정조직과 담당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sup>31)</sup>

군수 : 노태식(盧台植)

서무과 과장 : 하도율(河道律)

검내무과근무 : 손완식(孫完植)

고원(雇員) : 이증삼(李曾三) 박순규(朴淳奎) 김경태(金鏡泰) 손성룡(孫聖 龍)

31) 경상남도, 『慶尙南道職員錄』, 1938.



지방서기 : 정봉우(鄭鳳宇) 반기한(潘基漢)  
 도고(道雇) : 김성현(金聖鉉)  
 내무과 과장 : 대평정부(大坪貞夫) 최두인(崔斗仁) 곡준지(谷俊知), 매미정(妹尾正),  
 손완식(孫完植)  
 산업기수 : 견전오랑(桴田五郎) 강치남(姜致楠) 김형만(金炯萬) 상전준지(上田俊之) 판  
 원준남(坂元俊男) 동청차(東淸次), 정효근(鄭孝根)  
 고원 : 박용보(朴容甫) 이승동(李承東) 김석주(金碩柱) 서기수(徐基洙) 황증안(黃增安)  
 지방산업기수 : 윤병재(尹炳材) 김계관(金啓判) 안수용(安銖裕) 정성양(鄭性陽) 최찬열  
 (崔贊烈) 박재봉(朴在鳳) 이판갑(李判甲)  
 삼림주사 : 이원직(李源直)  
 지방교회주사 : 강흥근(姜興根)  
 지방삼림주사보 : 전중홍(田中洪), 김순제(金順濟), 심희준(沈喜俊)

□ 고성읍성내동

읍장 : 박남극(朴南極)  
 부읍장 : 정규훈(鄭奎煥)  
 서기 : 이정호(李正浩) 김남도(金南道) 김형국(金亨局) 박동환(朴東煥) 최규원(崔圭元)  
 황관익(黃灌益) 김봉상(金奉相) 최락구(崔洛九) 최정은(崔正閔)  
 기수 : 박화수(朴樺洙)

□ 삼산면 병산리

면장 : 이기재(李起在)  
 서기 : 윤상구(尹相九) 강종훈(姜宗勳) 서병기(徐炳基) 이강옥(李康玉) 최관림(崔灌林)  
 이상석(李相碩)  
 기수 : 서두원(徐斗元)

□ 하일면 학림리

면장 : 최관모(崔灌模)  
 서기 : 최찬순(崔贊淳) 최정희(崔丁熙) 최승호(崔升鎬) 최경환(崔璟煥) 이종혁(李鍾赫)  
 배현부(裴鉉富)

□ 하이면 덕호리

면장 : 천두성(千斗成)

서기 : 백진기(白璣基) 박상홍(朴相洪) 김종두(金宗斗) 이찬희(李贊熙) 최위형(崔渭衡)  
최재옥(崔載玉)

기수 : 정윤조(鄭允祚)

□ 상리면 척변정리(滌煩亭里)

면장 : 이용연(李鎔年)

서기 : 이형수(李瑩洙) 박기윤(朴琪潤) 최위징(崔魏徵) 하병찬(河柄鑽) 김진표(金珍杓)  
이상만(李相萬)

기수 : 백형만(白亨萬)

□ 대가면 송계리

면장 : 박익모(朴益模)

서기 : 정종섭(鄭鍾聶) 허범(許梵) 정쾌대(鄭快大) 박정병(朴貞秉) 허남명(許南明) 허  
경승(許旻升)

기수 : 제정엽(諸廷燁)

□ 영현면 침점리

면장 : 정형규(鄭炯奎)

서기 : 백영기(白榮基) 최락찬(崔洛瓚) 백일수(白日守) 김태모(金泰模) 백갑조(白甲祚)  
마정락(馬正樂)

□ 영오면 영대리

면장 : 주재식(朱載植)

서기 : 박수웅(朴壽熊) 서기성(徐璣成) 김덕수(金德秀) 허용중(許龍中) 서점수(徐点壽)  
강한수(姜漢秀)

기수 : 김상규(金相奎)

□ 개천면 명성리(明星里)

면장 : 최정갑(崔正甲)

서기 : 최락조(崔洛朝) 권진규(權鎭奎) 최정의(崔正義) 남천이(南千伊) 최도형(崔道亨)

하관수(河判洙)

임업기수 : 김수성(金洙聖)

□ 구만면 효락리(孝洛里)

면장 : 최락현(崔洛顯)

서기 : 최락선(崔洛銑) 최원락(崔元洛) 허재권(許在權) 최진호(崔晉鎬) 김석규(金碩圭)

기수 : 이두원(李斗元)

□ 회화면 배둔리

면장 : 구장서(具璋書)

서기 : 김이곤(金二坤) 최규련(崔圭鍊) 정국홍(鄭國洪) 최성보(崔聖甫) 최경갑(崔慶甲)

김임조(金玉祚)

기수 : 김종복(金鍾福)

□ 마암면 장산리

면장 : 허준(許濬)

서기 : 황성옥(黃性沃) 최원대(崔元大) 김재춘(金在春) 김진상(李鎭祥) 김봉태(金宗泰)

허이중(許二中)

기수 : 황용태(黃鏞泰)

□ 동해면 장기리

면장 : 임병은(林炳殷)

서기 : 김상권(金相權) 강한순(姜翰淳) 옥봉길(玉鳳吉) 김경수(金景洙) 박공숙(朴功壽)

이정훈(李正薰) 전갑도(全甲道) 전억수(全億洙)

기수 : 김헌곤(金憲坤)

□ 거류면 당동리

면장 : 이진홍(李震弘)

서기 : 공룡석(孔龍碩) 최천익(崔千益) 성상규(成祥奎) 백남순(白南醇) 김창식(金昌植)

이상상(李相桑) 김도형(金道亨)

기수 : 김판암(金判岩)

1943년 현재 고성군의 행정조직과 담당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sup>32)</sup> 지역별 관련 인물을 살펴볼 수 있다.

고성군수 : 김학성(金學成)

내무과 과장 : 수전일출휘(守田日出輝) 김상문(金相汶) 배길윤(裴吉潤) 전구정부(田口正夫) 이점수(李點守)

고원 : 이진상(李鎭祥) 이관수(李寬洙) 이종근(李鍾瑾) 백갑조(白甲祚) 김본 조(金本祚) 조정제(趙正濟) 심근섭(沈謹燮) 이성춘(李成春) 김종봉(金鍾奉) 박정병(朴貞秉) 주정민(朱貞敏)

지방서기 : 반기한(潘基漢) 박순규(朴淳奎)

지방지도주사 : 박상규(朴祥奎)

도고(道雇) : 김석존(金石存) 이상상(李相祥)

권업과(勸業課) 과장 : 최동용(崔東龍) 김택실민(金澤實敏) 배길윤(裴吉潤 : 겸내무과근무)

군기수(郡技手) : 배윤(裴潤)

산업기수 : 정순중(鄭順鍾) 정한규(鄭漢奎) 배상갑(裴相甲) 최정호(崔禎浩) 등정민부(藤井敏夫) 전방절치(田房節治) 도전구시(島田龜市) 금 변신의(錦邊信義)

고원 : 이강수(李崗洙) 이규환(李圭煥) 구태옥(具太玉)

식량대책사무촉탁 : 이정호(李正浩) 박종태(朴鍾泰) 정윤조(鄭允祚)

지방기수 : 박우경(朴雨璟) 김석주(金錫柱) 서정권(徐正權) 박재봉(朴在鳳) 정우진(丁雨鎭) 이관갑(李判甲) 강대성(姜大成) 배병규(裴秉奎) 박봉길(朴鳳吉) 이한순(李漢純)

지방삼림주사 : 박동선(朴東善)

지방삼림주사보 : 심희준(沈喜俊)

부인지도사무촉탁 : 손막랑(孫莫郎)

□ 고성읍: 성내동

읍장 : 원등훈(遠藤 薰)

부읍장 : 박희수(朴樺洙)

서기 : 미택장작(米澤章作) 김남도(金南道) 정치환(鄭致煥) 김경수(金景洙) 김진표(金珍杓) 강태호(姜泰浩) 김봉상(金奉相) 권진규(權鎭奎) 정봉주(丁鳳柱) 허용중(許龍

32) 경상남도, 『慶尙南道職員錄』, 1943.

中) 김창석(金唱錫) 박희수(朴喜洙) 김정옥(金正玉) 김우세(金又世)

기수 : 김상태(金相泰)

전작(畑作)기수 : 박종순(朴宗順)

식량대책사무촉탁 : 이차윤(李次允) 조용능(趙鏞能)

□ 삼산면: 병산리

면장 : 윤상구(尹相九)

서기 : 박중기(朴仲基) 서병주(徐炳柱) 임수봉(林守鳳) 한홍갑(韓弘甲) 구일대(具一大)

하순환(河舜煥) 하부길(河富吉) 진매지(陳每知)

기수 : 서두원(徐斗元)

전작기수 : 정흥복(鄭興福)

식량대책사무촉탁 : 김재공(金在功) 김송엽(金松業)

□ 하일면 : 학림리

면장 : 최관모(崔冠模)

서기 : 최찬순(崔贊淳) 최승호(崔升鎬) 최정희(崔丁熙) 배현부(裴鉉富) 천권욱(千權旭)

최재원(崔載元) 이종권(李鍾權) 김영조(金泳祚)

전작기수 : 권성복(權盛福)

식량대책사무촉탁 : 최재경(崔載敬) 이기식(李基湜)

□ 하이면 : 덕호리

면장 : 천두성(千斗成)

서기 : 백진기(白璉基) 박상홍(朴相洪) 최연형(崔涓衡) 최재옥(崔載玉) 박석문(朴錫文)

김명부(金命夫) 박능수(朴能守) 박종구(朴鍾久) 김종두(金宗斗) 박봉현(朴鋒炫)

최락모(崔洛模) 박상선(朴相善)

□ 상리면: 척번정리

면장 : 이형수(李瑩洙)

서기 : 이상환(李相煥) 최위징(崔魏徵) 하병찬(河炳鑣) 이갑인(李甲仁) 최삼배(崔三培)

최락선(崔洛璿) 이종춘(李鍾春) 김술봉(金戌★鳳)

기수 : 백형만(白亨萬)

식량대책사무총탁 : 백갑인(白甲寅) 정효영(丁孝榮)

□ 대가면: 송계리

면장 : 이상홍(李相洪)

서기 : 허재범(許在範) 정쾌대(鄭快大) 이진관(李鎭寬) 허경승(許景升) 제갑도(諸甲道)

이진부(李鎭富) 이찬규(李燦奎) 이진동(李鎭東)

기수 : 허맹도(許孟道)

전작기수 : 정현관(鄭鉉觀)

식량대책사무총탁 : 허순도(許淳道) 허재진(許在鎭)

□ 영현면: 침점리

면장 : 정형규(鄭炯奎)

서기 : 백영기(白榮基) 최락찬(崔洛瓚) 김태모(金泰模) 정삼세(鄭三世) 윤형곤(尹衡坤)

정병진(鄭柄進) 김우식(金友植)

전작기수 : 우일수(禹一洙)

식량대책사무총탁: 정종섭(鄭鍾攝) 양혜중(梁惠鍾)

□ 영오면 : 영대리

면장 : 주재식(朱載植)

서기 : 김덕수(金德秀) 김임조(金壬祚) 서점수(徐点壽) 강한수(姜漢秀) 최락영(崔洛楹)

우정윤(禹禎允) 정병환(鄭柄煥) 장원근(張元根)

기수 : 성경탁(成警★鐸) 여수갑(余守甲)

식량대책사무총탁 : 엄정윤(嚴正潤) 서영효(徐英孝)

□ 개천면 : 명성리

면장 : 최락선(崔洛銑)

서기 : 최도형(崔道亨) 천홍영(千洪英) 김성두(金城斗) 채갑수(蔡甲洙) 이병택(李秉澤)

김종태(金鍾台)

기수 : 김목환(金穆煥)

식량대책사무총탁 : 허정호(許正鎬) 정동수(鄭棟守)

□ 구만면 : 효락리

면장 : 최락현(崔洛顯)

서기 : 이두원(李斗元) 이탁수(李鐸洙) 최용도(崔用道) 이선탁(李善鐸) 최판윤(崔判尹)  
조임출(趙任出) 이쾌도(李快道)

기수 : 최영호(崔永鎬)

식량대책사무총탁 : 이용중(李龍中) 이상천(李相千)

□ 회화면: 배둔리

면장 : 구장서(具璋書)

서기 : 김이곤(金二坤) 최경갑(崔慶甲) 이서환(李西煥) 이재봉(李在峯) 박홍길(朴洪吉)  
한쌍동(韓雙童)

기수 : 박홍헌(朴洪憲)

전작기수 : 김종두(金鍾斗)

식량대책사무총탁 : 경산문석(京山文錫)

□ 마암면 : 장산리

면장 : 허준(許濬)

서기 : 최원대(崔元大) 최규련(崔圭鍊) 김재춘(金在春) 최경호(崔景鎬) 허복도(許福道)  
최영완(崔泳完) 하기대(河琪大) 김종태(金鍾泰)

기수 : 박종안(朴宗安)

전작기수 : 김기현(金奇鉉)

식량대책사무총탁 : 최종락(崔宗洛)

□ 동해면 : 장기리

면장 : 임병은(林炳殷)

서기 : 박공숙(朴功肅) · 이규탁(李圭鐸) · 김경수(金敬守) · 변재린(卞在麟) · 김종윤(金鍾潤) · 박삼진(朴三眞) · 김억수(金億守) · 박순병(朴舜秉) · 김영룡(金泳龍) · 천금출(千今出)

기수 : 천돈영(千★돈(金+敦)永) · 최정규(崔正圭)

식량대책사무총탁: 김사수(金四洙) · 김일현(金日玄)

□ 거류면: 당동리

면장 : 이진홍(李震弘)

서기 : 공용석(孔龍碩) · 황성옥(黃性沃) · 최천익(崔千益) · 허윤(許允) · 임봉회(林鳳會)  
· 김용옥(金容玉) · 최재완(崔載完) · 이기봉(李基鳳)

기수 : 남광옥(南光玉) · 이행열(李杏烈)

식량대책사무총탁 : 김성범(金聖範) · 구삼주(具三柱)

## 제 2절 고성지역 교육현실과 학교 설립

일제강점기의 교육정책은 식민지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식민지시대의 교육정책은 한국을 식민지로 개편하고 한국인을 식민지 지배체제에 순응하고 노동력 수탈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기는 하였지만 기본 틀은 변하지 않았다. 즉 우민화 정책과 실용적 사역인 양성의 교육을 실시하고, 민족교육의 온상인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식민지 교육정책의 기본법령은 1911년 제정된 ‘조선교육령’ 인데, 이후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리고 사립학교들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말에 제정된 ‘사립학교령’ 을 개악하여 ‘사립학교규칙’ 을 공포하여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사립학교를 통한 반일민족 교육운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사립학교 수도 크게 감소되었다.

일제 강점기 초기에는 실업교육과 일본어 교육에 초점이 맞춰졌다. 1901년대 학제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전문학교와 실업학교로 나뉘었다. 한국 식민지 지배에서 교육의 역할은 적지 않았다. 그것은 일본이 한국인의 민족성을 말살하여 한국인을 일본인의 아류화(亞流化)하려는 근본방침을 달성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는 무단통치방법으로 한국지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른바 문화정치를 실시하면서 교육제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일제는 한국인에 대한 교육에도 융화정책을 반영하여 종래 저급하게 짜여졌던 학교체계를 수정하여 일본의 학제와 비슷한 제도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도 표면상 완화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식민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인 동화주의와 황민화정책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 으로 새로 개정된 교육제도에 따라 수업 연한에 변화가 생겨 6년제



보통학교, 5년제 고등보통학교, 3~5년제 여자고등보통학교, 5년제 전문학교, 2년제 대학 예과, 4년제 대학으로 구성되었다. 일제가 조선 사람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절대다수의 민중의 자녀들은 학교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일제는 학교 입학조건과 진학제도를 새로 규정하였다. 각급 학교의 입학자격을 얻으려면 재산증명서와 가정의 정치적 동향에 대한 교장 및 경찰서의 평정을 받아야 했다.

일제강점기 국내에서 반일민족교육운동은 합법 또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사립학교교육, 서당교육, 야학교육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사립학교는 일제의 감시와 통제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지만 여전히 반일민족 교육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20년대 전후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되었다. 첫째 애국적 인사들에 의해 설립 운영된 것으로 전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였다. 둘째, 1910년을 전후하여 일제의 탄압과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교학교로 전환한 사립학교들이 있었다. 셋째는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선교계 학교들이었다.

한편 일반 민중들의 계몽교육을 담당한 기관으로 서당과 야학이 운영되었다. 특히 개량서당과 야간 강습소인 야학이 중심을 이루었다. 일제 강점기의 야학 운동은 빈농, 빈민층의 생활 조건 개선과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다. 민중들은 근대 교육이 글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분 상승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일제하에서 사립학교들이 각종 규제와 통제로 위축되어 있었던 반면 서당교육은 비교적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개량서당으로 변신하면서 근대적인 교육기관과 같이 학년, 학기, 학급을 구성하고, 한문이나 동몽선습을 비롯하여 조선역사와 조선지리 등의 과목도 교육하였다. 서당과 함께 민중교육의 일익을 담당한 야학은 노동야학을 비롯하여 농민야학, 여성야학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민중교육 기관이 지속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된 것은 기본적으로 정규 교육기관이 크게 부족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빈곤한 민중의 자녀들에게 취학의 기회가 많지 않았고, 3·1운동 이후 민중의 자각과 교육열이 고조되었으며, 민족운동의 주도세력이 계몽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민중계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1910년대 후반까지 고성군에는 보통학교 3개를 제외하면 사립으로 철성의숙(鐵城義塾) 밖에 없었고, 여러 촌락에 한문서당이 있는 정도였다. 이에 학령기에 있는 대부분의 자제들이 한문서당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나이가 20세 가까운 때에 보통학교에 입학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 분위기가 크게 변화하여 신교육에 대한 열의가 고조되어 한문서당이 아닌 학교에 입학시키는 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따라서 각 촌락의 인

사들이 학교장에게 입학을 요청하였으나 학교 당국에서는 연령제한에 의하여 만 8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만 허락한다는 지침에 수많은 학부모들이 탄식하며 아쉬워하였다.

1921년 3월 23일 고성공립보통학교에서는 제10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는데 졸업생이 모두 43명이었고, 이 가운데 여학생은 1명이었다. 4학년생으로 낙제생이 한 명도 없었고, 조행선량(操行善良)의 학력우수자로 윤상구(尹相九), 홍순규(洪淳奎), 추선수(秋宣秀), 허정모(許正模)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1개년간 정근자(精勤者)는 김만식(金萬植), 김춘일(金春日), 김우희정(金又喜正), 박주도(朴柱道), 남진규(南鎭奎), 하성룡(河性龍)이었다.<sup>33)</sup>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면서 외국이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이에 고성의 유지, 독지가들이 유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례도 많았다. 대가면 송계리의 이진경(李鎭炯), 고성면 교사리(校社里)의 오덕근(吳德根), 마암면 장산리(章山里)의 허종탁(許宗鐸), 회화면 녹명리(鹿鳴里)의 이진기(李鎭畿) 등은 유학비용의 일부를 후원하였다. 이진경은 동경에 유학하는 김정도(金正道)에게 매월 15원씩을, 대구 계성중학(桂成中學)에 진학한 김원이(金元伊)에게 매월 7원씩을 지원하였다. 오덕근은 경성 중동중등(京城中東中等)에 진학한 이갑조(李甲祚)에게 매월 10원씩, 동경에 유학하는 김정도에게 매월 15원씩을 후원하였다. 허종탁은 일본에 유학하는 김정도 매월 15원씩을 지원하였고, 이진기는 산구현고등상업학교(山口縣高等商業學校)에 유학하는 안태원(安太元)에게 매월 20원씩과 배둔공립보통학생(背屯公立普通學生) 4명의 의식(衣食)을 모두 담당하였다.<sup>34)</sup>

고성공립보통학교에서는 수년간 이 학교에 근무하던 훈도(訓導) 김상홍(金相洪)이 노동야학회를 조직하여 기본금 수백원을 모금 적립(積立)하고 학생 수십 명을 모집하여 가르치고 있었다. 그가 다른 학교로 발령받아 떠나게 되면서 야학교의 운영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는데 후임으로 온 훈도 김정희(金井喜)가 노동자 약 백 명을 대상으로 일본어와 산술(算術)을 가르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인사들은 일어와 산술보다는 노동자에게 긴급한 조선문(朝鮮文)과 일용한문(日用漢文)을 가르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라고 하여 교과 내용에 이것을 포함시켜 교수하는 것으로 하였다.

배움에 대한 열정은 더욱 확산되어 갔다. 고성교회에서 여자야학을 개설하자 교회당이 터져나갈 정도로 여성들이 모여든다고 하였다. 당시 교사 김순남(金順南)은 주간에는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야간에는 야학교에서 열심히 교수하므로 고성지역 여성계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sup>35)</sup> 지역 유지들의 지원으로 강습소의 설치도 많아졌다. 1922년 9월

33) 『동아일보』 1921년 3월 28일.

34) 『동아일보』 1921년 4월 26일.

1일 덕선리(德仙里)에서는 이관수(李判洙)가 향학열(向學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 기관이 충분치 못하여 정규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립 봉양강습소(鳳陽講習所)를 설립하고 많은 청년자제를 모집하여 교육하였다. 12월에는 거류면(巨流面) 송산리에서 인근에 학교가 없어 일반인들이 유감스럽게 여기던 중 지역 유지 여러 명의 발기(發起)로 4천여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송산리강습소를 설립하고자 교사(校舍) 건축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당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회화면 어신리 신북 지역 촌락은 호수가 25호에 지나지 않는 작은 규모였는데 김성진(金誠鎭)과 유지들이 협력하여 1921년 4월부터 노동야학회를 설립하고 남녀 학생 40명을 교육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당시 신북야학회(新北夜學會)의 교원으로 있던 이들은 김도식(金道食)·김윤곤(金潤坤)·김한조(金漢祚)·김태지(金泰池)·김두봉(金斗奉)·김현휘(金鉉暉)·김진한(金振漢)·김윤범(金允凡)·김재범(金再凡) 등이었다.

구만면에서는 유지 최병호(崔炳鎬)와 면장 박진택(朴鎭澤) 등 여러 명이 일반면민을 권유하여 1922년 여름부터 구만강습소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런데 강습소의 건물이 비좁아 40여 명의 아동을 수용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광덕리(廣德里)에 있는 옛 서당(書堂)을 수리하여 사용하였다.<sup>35)</sup>

1924년 고성군의 14개 면 가운데 보통학교가 설립된 곳은 6곳이었고, 기타 사설강습소도 여러 곳에 설립되어 운영되었지만 중학교가 한 곳도 없어서 유학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로서는 아쉬움이 많은 실정이었다. 이즈음 연희전문학교에 재학중이던 황판석(黃板石)이 귀향하여 청년학원(靑年學院)에서 무보수로 중학교목을 교수하겠다고 자청하고, 학생들을 모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았다. 고성읍내 교회 장로로 있던 최상림(崔尙林)은 문화발전과 교회확장을 위해 애쓰면서 교회당의 건축을 비롯하여 교육기관으로 유치원, 부인야학을 교회에 설립하고 기독교청년회와 자모회 등을 조직하여 헌신적 노력으로 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였다.<sup>36)</sup>

거류면에서는 1922년 9월 이정식(李正植), 송재홍(宋在弘)과 신룡리(新龍里) 화당리(華塘里) 각 부락의 의연금, 그리고 일반 유지의 협력으로 신성학원(新成學院)을 설립하였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후 1923년 7월 지역주민들의 도움과 의연금 모집으로 원사(院舍)를 신축하고 노력한 결과 남녀학생이 128인에 이르게 되었다. 신성학원은 1925년 거류면과 동해면이 연합으로 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기성회를 발기하고 의무의

35) 『동아일보』 1921년 6월 22일.

36) 『동아일보』 1923년 1월 2일.

37) 『시대일보』 1924년 9월 21일.

연금을 모금함에 따라 신룡리 일부와 화당리에서는 신성학원을 혁파하고 학원재산으로 의 연금에 충당하자고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상관(金相寬)과 이정식은 보통학교가 설립 되더라도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무산(無産)아동을 수용할 기관 또는 유치원으로 존속시키자고 각 부락에 권유하였으나 끝내 문을 닫게 되었다. 따라서 모금한 후원금과 학원 총 재산 1,200원 중 용동(龍洞)에 140원, 마동(馬洞)에 51원, 무계(茂溪)에 22원, 송곡(松谷)에 6원, 화당리에 190원을 분배하고 원신리(元新里)에서만 신성학원을 유지할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sup>38)</sup>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류면에 있던 신성학원은 1927년 1월 끝내 폐지되고 말았다. 지방의 무산아동(無産兒童)을 교양하기 위하여 기본금 1,600여원으로 창설되어 많은 아동을 교육하였는데 당동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될 때에 학원기본금으로 8백여원을 당동보교에 기부하게 되면서 학원은 점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지역 유지 이정식, 김상관, 김원겸(金元兼) 등이 열심히 활동하여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월 28일 문을 닫게 되었다. 학원의 적립금 가운데 남아있는 700여원과 교사(校舍) 매각대금 중 일부를 한문서당 설치하지는 주장도 제기되어 갑론을박의 논의가 진행되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sup>39)</sup>

설립 당시에는 활기에 넘치던 교육기관도 무엇보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될 때는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았다. 동해면 동명강습소는 정화정(鄭和亭)과 김봉규(金鳳圭)의 노력과 활약으로 유지들의 기부로 운영되었다. 그러다가 재정의 어려움에 닥치자 서당의 접장(接場)이었던 정기범(鄭基範)에게 강습소의 전신인 서당의 적립금을 강습소의 유지비로 충당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기범은 신학문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지원을 허락하지 않아 강습소가 더욱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다.

1925년에 들어 각 학교의 입학생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고성공립보통학교에서는 신학기에 학생을 모집한 결과 모집인원 남 60명, 여 60명 중 4월 1일에 남자는 겨우 정원에 도달하였으나 여자는 20여명이나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일(下一)공립보통학교에는 모집인원 60명 중 3월 27일 현재 지원자가 5명뿐이라 하였고, 배둔(背屯)공립보통학교는 모집인원 60명 중 4월 1일 현재 지원자는 35명 뿐이었고, 개천(介川)공립보통학교에는 모집인원 60명 중 겨우 20명만 모집하였으며, 상리(上里)공립보통학교에도 역시 정원에 크게 미달하였다. 각 지역의 학생 모집이 이전과 같지 않은 원인은 대부분 생활난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하거나 보천교(普天敎)의 교육반대 영향이 있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sup>40)</sup>

38) 『동아일보』 1926년 1월 9일.

39) 『동아일보』 1927년 2월 8일.

개천면의 청광(淸光)·가천(佳川)·나선(羅仙) 지역에는 1922년까지 교육기관이 하나도 없었다. 이에 지역의 유력자 박용하(朴容夏), 최정로(崔正魯) 두 사람의 노력으로 삼광강습소(三光講習所)를 설립하고 교육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그런데 1925년 1월에 이르러 경비관계로 부득이 강습소를 폐쇄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 유지와 학부형이 회합하여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 이에 박용만(朴容萬), 최정갑(崔正甲), 최정로 등 여러 명의 열성으로 3월 중에 2차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일부 완고한 인사들은 서당(書堂)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에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강습소를 복교(復校)시키고자 3차 회의를 소집하여 반대하는 인사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성심껏 권유한 결과 모두가 복교를 찬동하고 기본금 일천오백원 이상을 적립할 재원도 마련하여 4월 중에 개교할 준비에 들어가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sup>41)</sup>

하이면 석지리에서는 동네에 있던 재래의 서당을 강습소로 만들려고 김종수(金鍾洙), 박상윤(朴相潤), 박상엽(朴相燁) 등이 노력한 결과로 1920년부터 보통학교 4년제 내용을 교수하였다. 1925년에 이르러 석지강습소(石芝講習所)는 교육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하고 지역 유지의 사재와 기부금 2천원을 확보하여 강습소의 기본금으로 적립하는 한편 이전부터 무보수로 교사를 맡고 있던 김종수 외에 조봉규(趙奉奎)를 초빙하여 보통학교에 못지않은 시설과 교육을 시행할 계획하였다.<sup>42)</sup>

1925년 회화면 배둔리 야소교회(耶蘇教會)에서는 여자교육의 부실함을 각성하여 여자야학을 설립하고 30여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배둔공립보통학교 교원인 손인도(孫仁道), 신용오(辛容五)가 교육을 담당하였다. 1925년 10월 고성보교부형회의 임원은 회장 박남극(朴南極), 총무 천성락(千性洛) 김종주(金鍾注), 이사 전우일(全宇一), 평의원 김백세(金白世)·황승룡(黃承龍)·이갑용(李甲用)·이정희(李正熙)·신병진(申秉珍)·최필관(崔必觀)·김태호(金台鎬)·구유명(具有明)·김창준(金昌俊)·천두상(千斗上), 서기 김정홍(金正洪) 등이었다.<sup>43)</sup>

학교설립이 모든 지역에 균형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지역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1925년 거류면과 동해면은 서로 인접하여 지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양면(兩面) 일교(一校)가 적당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었다. 이에 거류면에서는 양면이 연합하는 취지로 기성회를 조직하였는데, 동해면에서는 일면 일교로 기성회를 조직하여 각각 의연금을 모집

40) 『동아일보』 1925년 4월 6일.

41) 『동아일보』 1925년 4월 8일.

42) 『동아일보』 1925년 5월 16일.

43) 『동아일보』 1925년 10월 24일.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두 지역 주민은 상호간에 의혹을 품게 되었고, 거동(巨東)청년회에서는 양쪽 기성회에 질문서를 보내는 등 갈등이 깊어졌다. 이에 고성군수 이장우(李章雨)는 제반사정으로 결국 양면 일교로 귀결될 것이라고 설명하여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해면기성회에서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토의한 결과 위치 문제로 산외(山外)회원인 장기리(章基里)·양촌리(陽村里)·내산리(內山里) 방면의 의연금은 주민에게 평균하여 분배하되 위치는 장기리를 주장하고, 산내(山內)회원인 내곡(內谷)·외곡(外谷)·감서(甘西)·봉암(鳳岩) 지역은 의연금 12,000원 중 8,000원을 네 동리에서 부담하고 위치는 산내로 주장하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산내지역 4개 동리 대표는 감서리에서 다시 회합하여 이미 4개 동리에서 4천원의 의연금이 모금되었으므로 다시 2천원을 모집하여 거류면과 연합하기로 협의하여 기성회를 조직을 준비하게 되었다. 학교가 설립되는 위치 문제로 거류면과 동해면이 서로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sup>44)</sup>

거류면과 동해면의 학교설립에 대한 협의는 이후 순탄하게 진행되어 1926년 봄부터 고성군 당국과 협력하여 4년제 학교 당동보교(塘洞普校) 한 곳을 신축하여 11월 3일 낙성식을 갖게 되었다. 이날 군수 이장우(李章雨)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낙성식과 연회를 개최하고 오후에는 대운동회가 열려 30여종의 취미진진(趣味津津)한 학생들의 율동은 농촌의 학부형과 주민들에게 커다란 쾌감을 주었으며, 원족차(遠足次) 왔던 고성공립보통학교 여사부의 율동유희(律動遊戱)도 있었고, 8시부터는 각희(脚戱)대회도 개최되어 축제분위기를 고조시켰다.<sup>45)</sup>

1927년 고성에서는 농업학교의 설립을 목적으로 유지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고성이 농업지대이고, 보통학교는 이미 2면 1교 이상의 설립을 보게 되어 매년 졸업하는 생도가 300여명에 이르지만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생도는 일부 유산계급 자제로 졸업 아동의 절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인사들 절대다수가 일반 보통학교 졸업생에게 실업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이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업학교설립 문제를 논의하던 중 4월 28일에 각 면 구장(區長) 회의를 이용하여 고성청년회, 각 면장, 기타 유지자의 발기로 고성공립보통학교에서 기성회발기회를 개최하고 임시의장 김종주(金鍾注)의 사회로 향후 위치문제와 내용조직, 약 8만원의 금액 모금 방법 등을 협의하였다.<sup>46)</sup>

고성농교기성회는 위원을 5개조로 나누어 적극 활동한 결과 200명의 회원을 모집하였고,

44) 『동아일보』 1925년 12월 27일.

45) 『동아일보』 1926년 11월 10일.

46) 『동아일보』 1927년 5월 8일.

5월 23일 고성청년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창립대회에서 준비위원 천두상(千斗上)의 사회로 경과보고와 규약통과를 마치고 임원을 선거하였는데 회장에 허선(許宣), 부회장 이용년(李鎔年), 이사장 이진억(李鎭億), 이사 이판수(李判洙) 외 3인, 감사 이진만(李鎭萬) 외 2인, 간사 박남극(朴南極) 외 29명, 서무부 전갑봉·천두상 등이 선정되었다.<sup>47)</sup>

『동아일보』 1927년 6월 7일 기사에는 고성의 농업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 자산가(資產家)들이 분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사를 실어 독려하고 있다.

우리 인생은 교육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더구나 우리 조선민족은 배우지 못한 까닭으로 여러 방면으로 받고 있는 손해와 압박이 하나 둘이 아니어늘 이 원인을 알면서도 차 기관 완비에 노력치 않는 것은 너무도 한심한 일이 아닐까. 고성은 삼십삼 방리(方里)의 면적과 팔만여 인구를 포용한 대군으로서 지세와 평야가 또한 비옥하여 타군(他郡)의 선묘(羨慕)를 받아오는 자연적 혜택지이다. 이에 재주하는 팔만인구는 호상간에 생활상의 차이가 있지마는 전조선적으로 볼 때에는 결코 빈궁한 농군이 아니라 하겠다. 비록 남일방(南一方)이 해안에 연(沿)하여 교통상 주楫(舟楫)의 편(便)이 있다하나 이 어획물로 고성주민의 주업이 되지 못할 것이며 상업이 그러하고 공업이 역시 그러하다.

그러면 우리 고성주민은 오직 농업으로만 살아갈 수 있고 지방의 명성도 농업으로만 선양(喧揚)되리니 이 업(業)을 연구하고 개량하여 더욱 사업(斯業)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고성주민의 할 바 당연한 사업일 것이다. 이리하므로 뜻있는 고성주민은 군내에 농업학교를 설치하고 매년 삼백여명에 달하는 보통학교를 졸업한 우리의 자제로 하여금 이 농업지식을 함양케 함을 절실히 느끼고 무슨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논의하여 왔다. 그런데 다행히 거4월 28일에 이의 발기회를 조직하고 회원모집에 극력활동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지난 5월 23일에 농업학교기성회를 완전히 조직하고役員會(役員會)에서 구체적 토의를 하리라하니 이 얼마나 반가운 소문인가. 이 기성회는 군내 유지 유력자 근 이백명이 모여 조직한 것이며 그리고 일반민심이 이에 추향(趨向)하는 바 많으니 우리는 기성회가 가히 앞장서서 우리의 소망하는 농업학교를 세워내리라고 믿기를 의심치 않는 바이다.

그러나 과거의 우리네 사업을 볼 때에 창립 때에는 제법 핑장히 떠들어 놓고 종말에 가서는 언제 시작이나 하였느냐는 듯이 흐지부지 사라져버린 예가 하나 둘이 아니므로 혹 이번 기성회도 이러한 전철(前轍)을 밟지나 않을까하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것은 다른 회합과 또 달라서 우리 처지와 환경이 이의 절실함을 말하고 더욱이 농촌사람으로서 농업

47) 『동아일보』 1927년 5월 27일.

학교를 설치하지는 단순한 계획이라 무슨 반대가 있으며 뉘라서 방해하리요. 이것만은 다만 우리의 성력(誠力)과 정신에 있는 것이니 전 군민이 협동하였다 같이 힘만 쓴다면 반드시 종국(終局)의 성공을 얻으리라고 믿는 바이다. 그럼에는 설치기금 팔만원이란 금액은 우리의 힘으로 모아야 하고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야 할 것이니 ‘누구를 믿을 것 없이 반드시 내가 할 일이다’ 라는 철저한 각오 아래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이때를 당하여 특히 군내 유산(有産) 제씨에게 일언(一言)을 더할 것은 나의 소유를 줄이지 않고 내가 쓰고 남은 재산으로서 이 학교를 세우겠다 하는 소소한 기부금이나 동정금에 응하던 그런 희사적(喜捨的) 심리를 버리고 고성농업학교를 위하여 추수를 몇 천석 또는 몇 백석쯤 줄이겠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유재산 기본(幾分)을 떼어서 농업학교의 기금에다 보충을 하겠다하는 그러한 파례(破例)의 성력(誠力)과 각오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이 거대한 사업을 성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팔만원이라는 금액은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러나 이 금액으로 군내 재산가의 전소유할(全所有割)에 배당을 하고 본다면 현재의 소유재산에서 일평일전(一坪一錢)을 줄이지 않더라도 생활의 여유금(餘裕金)으로서 팔만원은 능당(能當)히 모아낼 수 있으려니 기존 재산 중에서 차입(借入)이나 매각을 하지 않고 당분간 재산의 증식만 하지 않겠다하여도 그 성력만 주도(周到)하다면 안될 바 없을 것이 아닐까. 유산가(有産家) 제씨는 특히 이번 이 계획에 대하여 깊은 고려가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 이 사업이 1일이라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바이다.

고성농업학교기성회의 활동은 크게 고무되어 6월 5일 고성청년회관에서 제2회役員會(役員會)를 개최하고, 부회장 이용년(李鎔年)의 사회로 진행하여 구체적 방침을 토의하였다. 우선 고성의 유력자 이상중(李相鍾) 등을 방문하여 각출(釀出)액수를 정한 후 다시 회합하여 남은 문제를 토의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원으로 이용년(李鎔年)·박남극(朴南極)·김종주(金鍾注)·천성락(千性洛)·이진만(李鎭萬)·구종근(具鍾根)·김상욱(金相煜)·천두상(千斗上) 등 8명이 선출되었고, 기성회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역원 정형규(鄭炯圭) 외 11명의 의연금(義演金)이 있는 후 폐회하였다.<sup>48)</sup> 고성농업학교 설립을 위한 기성회의 노력이 다방면으로 전개되었지만 경남도청의 방침과 지방의 경제 상태에 비추어볼 때 단독으로 농업학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고 우선 보습학교를 설치하고 나서 향후 목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일반회원에게 서면으로써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묻는 것과 3만원으로 예상되는 경비를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1927년 10월 22일 동아일보 신문에 김형두(金炯斗)가 고성의 교육현황에 대하여 기고한

48) 『동아일보』 1927년 6월 10일.



글이 있다. 이 기사를 통해 당시 고성 관내의 교육시설과 여건을 학교규모를 비롯하여, 1920년대 초반 각급 학교의 변화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 ◇ 고성학원

교육열이 팽창한 그 때에 보통학교로는 능히 다 입학 못하게 되었다. 입학을 못한 그 네들은 도로에 방황하며 배움에 주리임을 받아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차(此) 상태를 본 고성청년회에서는 장래가 유망한 천진난만한 아동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하여 눈물을 같이 하며 공낭(空囊)을 털어 고성학원을 경영하게 되었다. 당시 황웅도 씨는 빈한한 가정에서 생활비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교편을 잡아 무산자의 아동을 주야학(晝夜學) 2백명을 혹서극한(酷暑極寒)을 무릅쓰고 교수에 진력하였다. 그것도 무산자의 경영이라 일가월증(日加月增)으로 비운이 습래하게 되었다. 1926년 3월을 기념하고 제1회 졸업생을 내는 동시에 불가불 주학부(晝學部)는 폐문하게 되었다. 남은 학생은 황씨의 극력추선으로 입학을 시키게 되었고 야학부는 지금 남, 여 2부로 꾸준히 진행하여 나온다.

#### ◇ 고성공보교

고성 읍내에 재하여 역사가 장구하며 제반내용이 충실하다. 실습지도 광활하며 양잠의 설비까지 되어 있다. 생도는 7백여명이며 교원은 12인이며 금년에 16회 졸업생 백여명을 내게 되었다.

#### ◇ 철성의숙

우금(于今) 십여년 전에 박거수(朴居洙)씨 외 2씨의 창립으로 고성 덕선리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교원은 3인이요, 제도는 6년제로 6학급이니, 부호(富豪)의 경영이라 자본이 충실하고 각종 설비가 완전한 것은 물론이요 차 의숙은 뒤로 산이요 좌우(左右)의 내로 경치도 좋고 광활한 운동장에 상비(常備)한 축구문(蹴球門)과 정야구(庭野球)의 라인선(線)과 주위의 뽕뿌라와 교정의 무궁화는 철성건아(鐵城健兒)의 용기를 뽐낼만하다.

#### ◇ 창명학원(昌明學院)

산외(山外)에 산이 중첩한 해안인 삼산면 미룡리가 소재지다. 1925년에 김재홍(金在洪)씨 외 제씨의 창립으로 이래 많은 재원(才源)을 양성하여 오는 바 김재홍씨가 열심 교수한다고 한다.

#### ◇ 하일공보(下一公普)

하일면 학림리 부촌에 재하였으니 지금부터 5, 6년전에 창립된 것이 아직 4년제로 약 2백명의 생도와 4인의 교원으로 겨우 금년에 3회 졸업생을 내었다 한다.

#### ◇ 상리공보(上里公普)

상리면 오산리에 면소(面所)와 동거(同居)하다가 작년에 겨우 학년 연장이 되었는데 바 생도는 250여명이라 한다.

◇ 개천공보(介川公普)

전자(前者) 개천강습소가 공립보통학교로 변경되고 개천시장에 교사를 신축하고 학교가 일신(一新)되어 생도는 170여명으로 학급은 4학급 교원은 4인이라 한다.

◇ 송계공립보교(松溪公立普校)

대가면 송계리 부촌에 있어서 각 설비가 완전하며 1923년에 학년 연장이 되어 금년에 6년 1회 졸업생을 내었다. 생도는 백여명에 지(至)하며 교원은 7인이라 한다.

◇ 배둔공립보교(背屯公立普校)

회화면에 있어 고성에 들쭉가는 학교요 역사도 상당하다. 생도는 4백여명이라 한다.

◇ 거동공보교(居東公普校)

거류 당동정(塘洞町)에 재(在)하여 전 신성학원 동해면강습소를 합하여 1926년에 신설되었으니 아직 3년밖에 지나지 못한다. 차 학교의 설립에 대하여는 이정식(李正植)씨 외 수씨(數氏)의 고심진력(苦心盡力)이 많다 한다.<sup>49)</sup>

1927년 대가면 송계공립보통학교는 교장 서학조(徐鶴祚)의 취임 이후로 유아무야(有耶無耶)에 있던 학부형회를 부활 조직하여 아동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제1회 총회를 개최하고 아동교육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회비 납부 성적이 좋지 않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12월 3일 제2회 학부형회를 학교에서 개최하고 회장 이진억(李鎭億)씨의 간곡한 설득과 부회장 정형규(鄭炯奎)의 기본금조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교육활성화에 대한 여러 조항을 논의하고, 면내의 무산아동(無産兒童)을 취학시켜서 널리 교육을 보급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영현면에서는 1928년 재정적으로 빈약한 상황이지만 면민 일동의 열렬한 향학열에 힘입어 동심(同心) 협력하여 영현공립보통학교를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1월 26일에 면민대회를 개최하고 찬부(贊否) 의견의 날인(捺印)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윤정성 외 171명 중에서 1명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찬성을 얻어 군 당국에 보고하여 곧바로 기성회를 조직하기로 준비하였다.<sup>50)</sup> 1928년 6월 1일부터 당동공보교 4년생 전부가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원인은 교장 배척(排斥)이며, 군 당국과 학교 학부형회에서는 예상치 못한 동맹휴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49) 『동아일보』 1927년 10월 22일.

50) 『동아일보』 1928년 2월 5일.

1928년 5월에는 고성지역의 교육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철성의숙을 경영하고 있던 박거수가 교통사고로 별세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당시 신문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고성군 철성면 철성리에 본적을 둔 박거수(朴居洙)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11시경에 시내 남미창정(南米倉町) 정류장 부근에서 전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몸을 다쳐 시내 소격동(昭格洞) 자택에서 치료중이던 바 12일 오후 12시경에 뇌진탕으로 별세하였는데 씨는 일찍이 고향에서 18년 전에 단독 경영으로 철성학교(鐵城學校)를 경영하여 현재의 설립자로 있으며 그 외에도 교육 실업계에 많은 공헌이 있었다더라.<sup>51)</sup>

철성의숙(鐵城義塾)은 이후 운영경비의 곤란으로 1929년 9회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고성지역의 상징이기도 하였던 철성의숙의 폐교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전해졌다. 당시 동아일보의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남 고성군 덕산리 사립 철성의숙은 <고 박진완(朴鎭完)씨의 설립★> 거금(距今) 십오년 전에 설립되어 지방 아동교육을 위하여 많은 공헌이 있으나 항상 경비문제로 유지에 곤란을 당하고 지내던 바 지난 3월 23일 제9회 졸업식을 당하여 식을 마친 후 숙장(塾長) 박경수(朴璟洙)<(★朴暲洙)>씨는 재학생과 학부모를 따로 모아 놓고 본 의숙이 경영곤란으로 인하여 금년부터 문을 닫게 되었으니 재학생 일동은 읍내 공립보통학교에 통학하라는 의외의 선고를 내리었으므로 어린 아동의 서러워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고 선생과 학부모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어쩔줄을 몰랐다는데 현 재적생 72명은 고성공립보통학교에 전학하고 건물 1동, 대지 약 2천평, 답(畓)4두락 임야 1필(畢)은 고성군청에 넘기어 실업보습학교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바 연전(年前)에 군 당국으로부터 사립학교로 그냥 두지 말고 고성에 제2공립보통학교로 만들자는 요구까지 있었던 것을 절대로 그리하지 못하겠다고 완강불응(頑強不應)하였더니 학교가 이다지 쉬이 넘어질줄이야 꿈에도 뜻하지 못한 바라 하여 신간회 고성지회에서는 거월(去月) 30일 오후 9시에 성내동 조선일보 지국에서 긴급 간사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 위원으로 구종근, 천두상 외 1명을 선거하였다 하며 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동교(同校) 교사로 13년 동안을 열심 근속한 박맹룡(朴孟龍)씨를 방문한 즉 비분강개한 어조로 눈물을 씻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

“우리 조선에도 허다한 사립학교가 있지만은 우리 철성의숙과 같이 연조로나 성적으로

51) 『중외일보』 1928년 5월 14일.

보아서 이를 잇는 학교가 드뭅니다. 물론 경영자의 역성이고 여러분의 원조하여 주신 덕택이겠지요마는 내가 이 학교에 십여년 동안을 변치 않고 교편을 들게 된 것도 단순한 교사로서의 취미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데 대해서는 매우 경영이 곤란하므로 무슨 대책이 있으리라는 것은 일찍이 알고 있었으므로 지난달 이십삼일 제9회 졸업증서 수여식 날 숙장 박경수씨가 재적생은 남아 있으라 하기에 무슨 좋은 대책을 강구하였는가 만일 경영이 어려워서 휴학이라도 하게 된다면 내가 직접 구걸을 하여서라도 금년 일년은 더 경영하여 나갈 결심을 단단히 하고 숙장의 말을 들어 보니 이미 군 당국과 일체 협약이 다되었다고 하므로 어찌 할 수 없어 한숨만 쉬었나이다. 그래도 십여년 동안 이 학교에서 쓰나 다나 교편을 들고 왔었는데 어찌면 이다지도 교원에게 내용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 없이 이 중대한 교육기관을 그다지 몰래 처치를 하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뿐입니다.” 52)

철성의숙은 설립자가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구실로 전 재산 2만원 가치를 고성학교 경비에 기부하는 동시 학생 약 1백 명을 고성공립보통학교로 전학하게 하고 폐교에 이르렀다. 철성의숙의 폐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신간회 고성지회에서는 진상을 조사하기로 하고 조사위원 전갑봉·구종근·천두상 3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립자측의 무성의한 소치로 실업보습학교 설립을 촉진한다는 미명하(美名下)에 사회여론의 무마책으로 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에 고성신간지회에서는 철성의숙 폐교에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동교를 다시 개교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4월 10일 설립자 박종수(朴鍾洙)와 신간지회 간부 일동이 한 자리에 모여 협의한 결과 박종수로부터 학교비용에 기부하는 것을 거절하기로 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신간회고성지회에 일임(一任)하여 철성의숙의 복교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에 신간회 간부 일동도 책임지고 복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여 철성의숙 문제는 일단락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sup>53)</sup>

신간회고성지회에서는 일반인에게 철성의숙의 복교와 관련하여 성명(聲明)할 바가 있어 1개월여 시간동안 준비한 끝에 성명서를 인쇄하려고 하였는데 고성경찰서에서 출판법에 의해 허가를 얻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천두상을 대표로 하여 출판허가원을 제출하였는데 그 후 경찰서에서 천두상을 소환하여 경찰부로부터 불온한 점이 있어 허가될 희망이 없으니 자발적으로 취소하라고 권유하였다. 천두상이 이에 불응하자 또다시 그를 소환하여 취소를 권유하는 동시에 만일 취소를 하지 않으면 이후의 사업에까지 지장이 있을 것

52) 『동아일보』 1929년 4월 3일.

53) 『동아일보』 1929년 4월 14일.

이라고 압박을 가하였다. 천두상은 그 말의 부정함을 항의하는 동시에 정당하게 취급하여 총독부에서 불허가 처분이 된다면 모르거니와 자발적으로 취소는 못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였다.<sup>54)</sup>

1929년 10월에는 사설강습소의 인가신청이 대부분 벽에 부딪혔다. 고성농민조합에서 경영하는 고성농민야학회가 불허된 것을 비롯하여 허가원을 제출한 사설강습소는 대부분 불허가가 되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단지 불허가 지령장(指令狀)으로 통보되는 정도였다. 이때 강습소로 신청하였다가 허가받지 못한 곳은 고성농민야학회, 철성의숙야학회, 교동야학회, 무량야학회 등이었다.<sup>55)</sup>

영오면 오서리에서도 지역 유지들이 일반 무산계급을 위하여 유익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1929년 4월부터 야학을 개최하여 노동자 80여 명을 모집하여 한글을 교수하였다. 야학 운영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던 윤경년(尹璟年)은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문맹퇴치라고 인식하고 생활에 유익될 점이 많이 연구하여 모범 농촌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당시 오서리아학에서는 윤경순(尹璟順)·우성순(禹性順)·송두섭(宋斗燮)이 강사로 활동하였다.

1930년대 일제의 교육정책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치르면서 조선민족 말살정책을 추진하면서 황국신민화 교육을 강요하였다. 이에 따라 국체명징(國體明徵), 내선일체(內鮮一體), 인고단련(忍苦鍛鍊)의 3대 교육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통제하였다. 1932년은 고성교육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고성군내 14면 중에 삼산면, 구만면, 동해면에는 그때까지 공립보통학교가 없었다. 이에 3개 면의 면장과 유지들의 열의와 주민들이 요구가 증대되면서 모든 면에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어 고성군에는 1면 1교가 갖추어지게 되었다.<sup>56)</sup>

개천면공립보통학교는 4년제로 설립된 이래 학년 연장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동교육에 많은 불편이 있어 주민들의 현안으로 남아있었다. 학년 연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면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2천원은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액수였다. 이에 개천공보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던 중 70여명의 면민이 모여 장시간의 토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지역유지 김하두(金夏斗)와 김응제(金應濟)가 우선 자신들의 소유를 저당하고 2천원을 차입하도록 하고 이듬해에 이를 실현할 것을 결의하였다.<sup>57)</sup>

고성지역은 1932년 1면 1교의 교육환경이 조성되었지만 실습단계의 중등교육기관이 한

54) 『동아일보』 1929년 7월 13일.

55) 『동아일보』 1929년 10월 31일.

56) 『동아일보』 1932년 9월 17일.

57) 『동아일보』 1934년 12월 1일.

곳도 없어 6천여 명의 부형은 자제의 교육을 위하여 십수년 동안 중등학교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지방경제 사정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는데, 1935년에는 군수 노태식(盧台植)을 비롯하여 군내 유지들과 주민들이 협력하여 자제들의 중등교육을 위한 고성농업전수학교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상남도 당국의 승인을 얻는 한편 도지방비 2천 7백원의 보조금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1934년 12월 26일 고성군청에서 지방유지들이 모여 농업전수학교 설립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장시간의 토의를 거쳐 부담금 1만 6천원은 각 면에서 부담하여 기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성면 5,330원, 삼산면 840원, 하일면 830원, 하이면 650원, 상리면 680원, 대가면 830원, 영현면 710원, 영오면 950원, 개천면 630원, 구만면 630원, 회화면 770원, 마암면 1,190원, 동해면 1,030원, 거류면 930원 등 합계 16,000원을 각 면에서 부담하고, 4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학교 부지는 고성면 교사리로 정해졌다.<sup>58)</sup>

고성농업실수학교는 목표보다 일정이 조금 늦어진 5월 1일부터 개교케 되었다. 이 학교는 농촌진흥을 위하여 모범농민을 양성한다는 취지 아래 설립되어 학생 전체를 기숙사에 합숙시켜 자작자급(自作自給)에 주력하게 하는 한편 학과는 수신(修身), 국어, 조선어, 산술, 이과(理科), 농업 등을 교수하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야학부를 별도로 두고 중등학교 정도의 과목 대수(代數), 영어 등을 교수하는 것으로 하고 제1회 신입생 모집인원은 25명으로 하였다.<sup>59)</sup> 고성농업실수학교는 4월 19-20일에 입학선발시험을 시행한 결과 김한봉, 김세호, 김정태, 박상석, 김장갑, 김한순, 이성수, 허용중, 허종립, 이진목, 제정엽, 이주수, 최일승, 허종성, 김석규, 최석도, 송상길, 강영주, 정화갑, 이을환, 김태성, 차귀준, 허남갑, 공기상, 백남종, 이상만, 백남신, 황정만 등 32명이 합격되었다.<sup>60)</sup>

고성군 관내 14개 면에 보통학교가 한 곳씩 설립되어 있었지만 교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성 관내 각 면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문맹을 퇴치하고자 방방곡곡에 농민야학교와 부녀야학교를 80여 개소나 설립하고 무산아동 1천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sup>61)</sup> 학교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지만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교육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1935년 고성지역의 공립보통학교와 간이학교 등 초등교육기관은 16개 달하였고, 학생은 합하여 5천여 명 정도였는데 매년 춘공기를 당하면 한 반에 평균 10여 명씩이나 결석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결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원인은 결석아동들이 대개 빈곤한 가정 자녀들로서 간신히 호구해가며 학교를 다니다가 농한기

58) 『조선중앙일보』 1935년 1월 6일, 2월 15일.

59) 『조선중앙일보』 1935년 3월 14일.

60) 『조선중앙일보』 1935년 4월 25일.

61) 『조선중앙일보』 1935년 1월 26일.

가 되면 부형들의 일자리가 막히고 가정은 가난과 싸우게 되면서 안타까운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고 하였다.<sup>62)</sup>

1935년 당시 고성군은 10만 인구에 학령 아동수는 남녀 2만여 명으로 14개소의 보통학교와 2개소의 간이학교, 기타 서당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남녀학령 아동수 2만여 명 가운데 그나마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수는 1할 8푼인 3천 8백명에 달하고 그 외 미취학 아동이 1만 6천 2백명이나 되어 1면 1교가 교육환경이 조성되었지만 미취학 아동이 전체 8할 이상에 이를 정도로 부실한 상황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성면 대평리 유한수(柳漢洙) 등은 1백여호의 동민을 위하여 1926년 대평학원을 설치한 이래 무산농민 자녀의 문맹퇴치에 주력하던 중 1935년 원사(院舍)도 신축하는 등 시설을 보완하고 확장하여 동네 주민 8할 이상이 문자를 해득할 수 있게 하였고, 수용하는 아동도 5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고성공립보통학교는 1926년 이래 입학지원 아동이 크게 증가하여 12학급으로는 지원자 전부를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면 1교가 완성된 상황에서도 취학 곤란하여 삼산, 거류, 대가, 마암면 등에서 지원하는 아동이 있어 매년 1백 40명 모집에 불합격 아동이 5백여 명에 달하고 미취학 아동이 무려 3,517명이나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 9일 고성보교 강당에서 학급증설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임시의장 홍건표(洪健杓)의 진행으로 미취학 아동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미취학 아동의 교육문제 해결은 학교 증설과 이에 따른 경비를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학급증설기성회 창립총회준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였다.<sup>63)</sup> 기성회발기회 대표와 지방대표로 오덕근·이영권(李榮權)·구종근을 선정하여 경상남도청에 학급 증설의 필요를 진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였다.<sup>64)</sup>

고성 관내에서 미취학 아동이 제일 많기는 고성공립보통학교 구역이었다. 고성공립보통학교에서는 고성면내의 학령아동을 전부 수용치 못할 뿐 아니라 고성면의 삼산면, 대가면, 거류면, 동해면 일부분에서 지원자가 수백 명에 달하였기 때문에 학급 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1935년 현재 미취학 아동이 1천여 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학급 증설기성회를 조직하는 동시에 6월 7일 고성면사무소에서 기성회 간부회를 개최하고 학급 증설에 필요한 총공사비 1만 5천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는데, 부담금은 지방민의 호세등급에 의해 지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8월부터는 회원들을 통해 기

62) 『조선중앙일보』 1935년 2월 1일.

63) 『조선중앙일보』 1935년 3월 14일.

64) 『조선중앙일보』 1935년 4월 9일.

부금 모집에 착수하여 경비마련에 박차를 가하였다.

1935년 영현면에서도 1928년 4년제로 설립된 공립보통학교의 학년 연장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동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영현면에서는 1934년 12월 이래 학년 연장을 위한 여러 차례의 논의와 면민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성회장 정형규를 비롯한 유지들이 호별 방문을 통해 면민 전체가 참여하여 부담금 3,943원을 마련하여 완납시키고 당국의 허가를 요청하였다.<sup>65)</sup>

회화면 배둔리에 있는 배둔야학원은 1926년 3월 동리 유지 김동기씨가 배둔친목회 후원을 받아 설치한 무산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매년 신입생을 70여 명을 수용하고, 학년도 제4학년까지 운영하였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보교생보다 실력이 매우 우량하여 제3학년 아동이면 보통학교 제4, 5학년의 보결시험에도 합격하는 자가 매년마다 수명씩 배출될 정도였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교원 최광열(崔光烈)·김상오(金相五)·정종규(鄭宗奎)·박태년(朴泰年) 등이 10여 년을 하루같이 활동하는 한편 경영비용도 자진 부담하는 등의 결과로 나온 것이었다. 배둔야학원에서 아동에게 가르치는 각종 과목은 보통학교 과목과 같이 빠짐없이 가르쳐 이곳을 통해 문맹을 깨우친 자가 무려 7백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였다.

1935년 5월에는 고성면 동외동의 이갑용(李甲用)이 지방발전과 무산자녀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사재를 내어 학령이 넘은 문맹자녀를 위하여 고성학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제1회 모집 아동수는 1백명 정도로 하였는데 4백여 명이 지원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학원시설의 사정상 1백명만 입학시키고 5월 26일 개교식을 갖게 되었다.<sup>66)</sup> 1939년 3월 고주공립심상소학교(固州公立尋常小學校)에서는 비상시국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5만 7천원의 거대한 예산으로 건축공사가 착수되어 9월 12일에 학교와 군청 관계자를 비롯하여 1천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상량식이 거행되었다.<sup>67)</sup>

1933년 고성군내 있었던 고성학교조합은 성내동에 있었으며, 관리자는 원등훈(元藤 薰)이었고, 출납역겸서기(出納役兼書記)는 소야영서(小野嶺瑞)였다. 장좌학교조합은 관리자가 산하묘일랑(山下卯一郎)이었고, 출납역 겸서기는 산하태일랑(山下泰一郎)이었다. 당동정학교조합(塘洞町學校組合)의 관리자는 산협토작(山脇土作)이었고, 배둔학교조합의 관리자는 하전남추(下田楠秋)였다.

1938년 현재 고성학교조합의 관리자는 덕원충삼(德元忠三)이었고, 출납역 겸서기는 원구

65) 『동아일보』 1935년 3월 20일.

66) 『조선중앙일보』 1935년 5월 3일 ; 5월 30일.

67) 『동아일보』 1939년 9월 17일.



방치(田尻芳治)였다. 장좌학교조합의 관리자는 산본이수(山本理壽), 출납역겸서기는 산하암송(山下岩松)이었고, 당동학교조합의 관리자는 원전웅길(原田熊吉)이었고, 배둔학교조합의 관리자는 하전남추(下田楠秋)였다.

일제는 1943년에 개정 제4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되면서 황민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시기 조선교육령은 전시 체제에 필요한 사상 교육,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 초등과 고등과를 두게 하였고 지역의 실정에 따라 하나만 설치할 수도 있게 하였다. 수업연한은 초등과 6년, 고등과 2년으로 하고, 실업교육은 더욱 강화시켰고, 조선어 교육도 전면 금지시켰다. 일제는 양성된 학생들을 징병하거나 징용해 노동력을 수탈하였다.

1943년 현재 고성학교조합의 관리자는 국본회(國本會), 서기겸출납역은 일향체도(日向謙道)였다. 장좌학교조합은 동해면 장좌리에 있었으며, 관리자는 산본이수(山本理壽)였고, 서기는 산하암송(山下岩松)이었다. 당동학교조합은 거류면 당동리에 있었으며, 관리자는 원전웅길(原田熊吉)이었고, 배둔학교조합은 회화면 배둔리에 있었으며, 관리자는 중도자태(中嶋滋太)였다.

### 제 3절 고성의 경제와 상업의 변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는 일본의 상품시장으로 이용되는 한편 식량과 원료의 공급시장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으로서는 조선의 경제적 조건을 파악하여 시장의 통제와 상업권을 수탈하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그 중 하나는 1914년 공포된 「시장규칙」이다. 이 규정은 일반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식료품을 공급하는 식료품 경매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의 경영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공영제를 법적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종래의 장시에 대해서는 허가주의를 공식화하는 한편 헌병 경찰로 하여금 장시에 대한 감독과 단속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시장규칙에 따라 시장은 그 형태에 따라 4종으로 구분하였다. 제1호 시장은 재래의 정기시장을 주축으로 하여 이와 병설된 가축시장과 약령시장을 포함시켰다. 제2호 시장은 주요 도시의 공설시장으로 도시 소비자 가계의 안정을 위해 시가지에 공공기관이 설립한 공설시장과 일용품시장이다. 제3호 시장은 주요 도시의 회사경영에 의한 수산, 청과 전문시장으로서, 경매방법에 의한 수산물, 청과물, 야채의 집단 도매시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4호

시장은 곡물증권 및 현물 곡물거래소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제3호와 제4호 시장은 일제에 의한 경제침탈의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인 쌀과 각종 곡물, 면화류 등을 강제로 수탈하기 위한 시장으로 활용되었다.

일제는 시장규칙을 통해 전통적으로 각 지역에서 개설되고 있던 장시를 원시적 시장체도로 규정하고 각종 특산물과 농산물을 수탈하는 정책을 강행하였다. 특히 농촌 장시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법률적으로 확보하고 조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장시는 축소·폐지되기 보다는 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는 추세를 보였다. 더욱이 1919년 3·1운동 당시 각 지역의 장시는 민중들이 만세시 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일제는 정기시장에 상설 점포들을 개설하게 하여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상권을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다.

조선시대 이래 장시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뿌리를 둔 관습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일제 식민당국은 제도적·법률적으로 시장에 대해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관습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1930년대 들어 농촌진흥운동 과정에서 장시를 정책선전이나 보급, 강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시간 엄수, 색복(色服) 착용, 납세 독려 등 농민의 생활 전반에 걸친 내용들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개설되고 있는 장시를 활용하여 양력 사용에 대한 홍보와 함께 이를 강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일제는 식민지 초기부터 양력사용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전시체제기에 들어가면서 양력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 시기 신문기사에는 1931년도부터 양력시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33 ~ 34년의 선전기간을 거쳐 1936년에는 본격적인 시행준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제는 조선인 상층부를 대상으로는 제사의 양력화를 압박하는 한편 일반 농민을 대상으로는 장날의 양력화를 이용하였다. 고성지역에서도 장시 개시일을 양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각 면장회의를 열고 이를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재래시장의 현행 음력에 의한 개시일을 양력으로 고침은 반도문화(半島文化)의 합법적 지도와 생활개선상 가장 유효적절한 바로 내년부터 개정 실시하게 된 본부 방침에 순응하여 경남 고성군에서는 지난 29일에 군회의실에서 군내 면장회의를 열고 이 개정취지의 보급책과 수속과 준비 등 실시상 유감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결정하였는데 이것이 실시되면 당초에는 오래 동안의 습관을 탈각하는 것임에 따라서 다소 불편이 없지 아니하겠으나 그러나 농촌경제 취인(取引)과 생활개선상 이익됨이 많을 것이라고 한다.<sup>68)</sup>

장시 개설이 양력사용 시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력으로 개설되자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전국의 모든 장날을 양력으로 일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민간에서 음력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일괄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은 장날과 제사를 양력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조선 민중의 생활주기를 결정하는 전국의 1,400여개에 달하는 장시를 양력으로 개시함으로써 실생활에 양력을 신속하게 정착시키고자 한 것이다. 장날의 양력화는 동일한 시장권에 있는 장시 전체가 동시에 시행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일제의 강력한 농민파악이 촌락단위까지 가능해졌고, 지속적인 홍보와 강제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음력으로 개시하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양력을 기준으로 개시되는 것이 점차 정착화되어 갔다.<sup>69)</sup>

각 지방의 장시수는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또한 장시수의 단순 증감 변화 뿐만 아니라 신설, 폐지, 개시일 변경, 공간적으로 시장 구역의 정비와 확장 또는 이전 등의 변동을 겪고 있었다. 장시의 변동에 영향을 주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교통과 운송 체계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장시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시장을 신설하거나 이전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자주 발생하였다.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도별 장시개설 현황과 장시수의 증감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도별 시장 수(1호·2호·3호 시장 전부 포함)><sup>70)</sup>

도별 연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합계
1911	110	55	83	83	125	139	107	97	82	43	73	59	28	1,084
1915	115	51	93	71	125	157	149	102	104	56	92	59	37	1,211
1921	101	52	90	67	116	159	138	112	118	56	97	89	44	1,239
1925	101	56	89	68	118	164	142	117	131	80	109	88	53	1,316
1930	120	58	89	63	121	170	145	125	144	95	132	111	52	1,425
1935	115	61	90	64	127	170	158	124	146	98	141	128	72	1,494
1941	112	66	90	70	125	170	167	114	153	115	156	155	97	1,593

68) 『매일신보』 1937년 12월 1일.

69) 허영란, 『일제시기 장시연구』, 역사비평사, 2009, 276~284쪽 참조.

70)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 해당 연도판.

## &lt;일제강점기 지역별 시장 증감 상황&gt;

도별 기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1911~ 1921	-9	-3	7	-16	-9	20	31	15	36	13	24	30	30
1921~ 1930	19	6	-1	-4	5	11	7	13	26	39	35	22	22
1930~ 1941	-8	8	1	7	4	0	22	-11	9	23	24	44	44

1923년 현재 고성군내에는 읍내시장(고성면 성내동, 1·6일) 배둔시장(회화면 배둔리, 4·9일), 당동시장(거류면 당동리, 3·8일), 하명(下明)시장(개천면 명성리, 2·7일) 등 4개가 개설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배둔장은 고성읍내 시장 못지 않게 성황을 이루었다. 이곳은 고성과 마산간의 굴지하는 해륙물의 집산지로 유명한 시장이었다. 장터에는 어상(魚商), 음식점, 포목상(布木商) 등 시장거래의 편리를 위해 가설한 가점(假店)이 많았다. 1927년 2월에는 대낮에 화재가 발생하여 가설한 점포 백여 호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sup>71)</sup>

시장은 점포와 인가 등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고성읍내에서도 큰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읍내 미시장(米市場) 부근에서 이발영업을 하는 이종태(李鍾台)의 영업소에서 발화하여 불이 붙은 지 순식간에 김종배(金鍾培)의 포목상과 고무 구두장사 가게를 태우고, 인근에 있는 김종배의 살림집과 음식점 영업을 하는 정창준(鄭昌俊)의 집을 반소하는 등 6가구를 태우고 이튿날 오전 2시에야 비로소 고성소방대의 출동으로 진화되었는데, 피해규모는 약 1만5천원이나 되었다.<sup>72)</sup> 고성 읍내의 화재는 고성객사가 화재로 소실된 이후 28년 만에 발생한 큰 재해였다.

고성군에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존 장시 이외에 추가 신설을 요청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장시가 신설되는 계기는 시장 수요의 기초를 이루는 인구 증가와 상품 유통의 증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지역 개발을 위한 능동적인 방편으로 우시장이나 장시 신설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1928년 영오면 오서리에서는 금곡면민과 연합하여 1,300여 명이 연명으로 경상남도 당국에 시장 개설을 허가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sup>73)</sup> 새로운 장시를 개설하려는 영오면 오서리는 인접한 금곡면과 함께 1천 3백여 호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진주와 고성의 경

71) 『동아일보』 1927년 2월 3일

72) 『동아일보』 1927년 3월 5일

73) 『동아일보』 1928년 8월 21일.

계가 되는 곳으로 교통이 편리하여 상인의 통행도 빈번하므로 시장 개설이 절실하다는 것이었다.

1929년 12월에는 하일면에서 시장설치를 위한 인가원을 제출하였다. 하일면에는 면사무소 소재지인 학림리와 가까운 곳에 임포장(林浦場)이 개설되어 상품거래와 이용자가 많아 성황을 이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교풍론자(矯風論者)의 폐지설까지 강하게 제기되면서 결국 시장이 폐지되고 말았다. 이후 10여 년간 시장이 없어 이 지역은 해륙교통이 점차 편리해지고 시장이 다시 개설되기를 절실히 바라는 가운데 면장 최관모(崔權模)가 유지들과 함께 시장 설립 인가원(認可願)을 도 당국에 제출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조합에 대하여서도 사천군 삼천포에서 관할하는 것은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고성군 삼산·상리·하일 3면을 망라하여 금융조합을 신설할 것을 준비하였다.<sup>74)</sup>

1920년대 후반 이래 시장개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지역경제와 생활여건상 개선이 강하게 제기되어 면내 유지들이 번영회를 조직하여 임포시장 개장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30년 9월 20일(음력 8월 3일)에 다시 시장이 열리게 되었다. 그동안 40리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고성읍장이나 삼천포 또는 통영의 시장을 이용하던 지역주민들로서는 상품거래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임포시장은 이날 개장식과 함께 각희(씨름)대회도 개최하는 등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임포장이 개설된 이후 이곳에서 상품거래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특히 학림리의 임포항은 매일 정기선이 운항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매일 수십척의 선박이 출입하는 곳으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1933년 폭풍우 피해로 인해 종래의 돌제(突堤)가 유실되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도 당국에 돌제의 개수(改修)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9월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총 공사비 3천원 가운데 도비 보조가 2천 1백원 하일면 부담 9백원이 투입되는 공사였다.<sup>75)</sup> 이즈음 하일면 학림리 임포시장에 가축시장을 신설하게 되었다. 종래 고성읍내와 삼천포읍의 중간에 위치한 이유로 가축시장이 없어 인근 농가에서는 가축매매를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삼천포나 고성 시장을 이용하는 등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임포시장에 가축시장이 추가로 개설되면서 이 지역 일반 농가는 물론 목축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sup>76)</sup>

1930년 5월에는 영현면에서도 시장개설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1천호가 넘는 영현면민은 고성읍과 인접한 사천읍의 시장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40~50리 되는 거리는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수 십년 동안 시장개설을 현안으로 두고 노력해 오던 중 교통수단과 경

74) 『매일신보』 1929년 12월 18일.

75) 『매일신보』 1935년 8월 24일.

76) 『매일신보』 1935년 8월 24일.

제적 여건도 많은 변화가 있어 면장 정형규(鄭炯奎)와 여러 유지들이 협의가 있었고, 군 당국에서도 이곳에 시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 시장허가원서를 군 당국과 도 당국에 제출하였다. 시장의 위치는 영현·금곡·영오 3면의 경계인 연화동(蓮花洞)으로 정하는 것도 협의되었다.<sup>77)</sup>

장시를 설치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강렬한 요구와 소요 비용을 마련하더라도 도지사의 허가까지 있어야 합법적인 개설이 가능하였다. 장시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은 전국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장시 설치 운동의 목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장시 신설을 위한 노력은 지역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체적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장시 설치의 지역의 개발 및 발전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그것은 지역주민 모두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1930년대 시장의 신설을 위한 지역간 경쟁이 촉발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리면에서는 1933년 오산리에 시장을 신설하면서 금융조합을 이전시키거나 우편소를 신설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자력갱생, 농촌진흥운동에 열의로 매진하고 있는 경남 고성군은 군수 송찬도(宋燦道)씨 지도 노력하에 일익거군 일치로 갱생의 기분이 농후하여기는 차체에 동군 상리면은 면장 김용년(李鎔年)씨의 부단의 노력과 성심지도의 결과로 금년 8월중에 동 오산리(烏山里)에 다 시장까지 신설한 바 본리(本里)는 고성, 사천, 삼천포 및 진주군 문산(文山), 금곡면(金谷面) 등 지대와 상연(相連)하여 물하(物荷)의 이출입(移出入)과 매매가 실로 번다하여 연간 수십여만원의 거래가 있어 장래 상당히 발전의 여망이 있는 터이며 더욱 상리, 하일, 하이, 삼산 등 4개면 관내에서 설치된 무학금융조합(舞鶴金融組合)도 현재 고성읍내에서 이 오산(烏山)에다 이전시키고자 금하 이래 송 군수 급 면장 이용년씨의 성심진력으로 본 부에 진정까지 한 바 불원 이전실시를 보게 되는 동시 계속하여 동지에다 우편소(郵便所) 설치운동도 극력으로 한 바 체신 당국의 실지조사가 완료됨을 따라 이도 불원 실현되리라는데 우편소는 면영(面營)으로 하리라하며 본 면은 각종 산업시설이 완비되어 전 면민은 근면노력하여 당국의 지도에 순종하므로 실로 자력갱생의 기치하(旗幟下)에 매진하여 가는 터인데 이는 전혀 이용년 면장의 간단(間斷)없는 지도노력의 결과라 하여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다는 바 본면 사무소도 4천여원 예산으로 불원(不遠) 신축을 하리라 하는 바 이 면은 증왕(曾往) 본도 평의원으로 2, 3 양회나 고성군선출에 당선되어 본도 공완(公腕)에 다대한 공적을 이룬 완가(腕家)라 한다.<sup>78)</sup>

77) 『중외일보』 1930년 5월 28일.

1935년 고성군내의 시장은 고성, 배둔, 당동, 개천, 임포(林浦) 5개소로서 1개년간의 거래액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합계금이 74만 4천 8백 24원에 달하였다. 매매된 물품종별로는 농산물이 32만 862원, 수산물이 10만 2천 8백 55원, 축산물이 10만 8천 6백 77원, 기타 물품이 9만 5천 8원, 기타 작물이 11만 7천 4백 22원이었다.<sup>79)</sup> 이러한 수치는 기존에 개설되고 있던 장사에서 거래되고 있던 규모를 소개한 것으로 신설된 장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장개설 위치가 지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났다. 회화면에 있던 배둔리는 5백여 호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큰 부락인데 매년 홍수 때가 되면 하천이 범람하여 천변에 개설되고 있던 배둔장도 이용에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에 면장 김윤명(金允明)과 지역 유지들의 활동으로 국고보조 수만원을 확보하여 하천정리 공사를 진행하고, 하천변에 위치했던 배둔장은 마암면 장산리에 거주하는 허홍도(許洪道)가 토지 천여평을 시장부지로 무상으로 기부함에 따라 1935년 9월 10일에 시장 이전인가를 받았다. 이후 시장개설에 대한 제반 준비를 마치고 12월부터 배둔장을 이전하여 개설하게 되었다.<sup>80)</sup>

1936년 회화면 배둔시장은 배둔천 부근에 위치하여 연간 거래액이 4만원에 이를 정도로 경남도내에서도 이름이 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런데 1935년 하천정리가 진행되면서 시장 위치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다. 이에 같은 해 9월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예전에 배둔보통학교가 있던 부지에 시장을 이전하여 개설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장의 여러 시설이 미비하여 특히 비가 오는 장날에는 불편함이 더하였다. 따라서 시장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당국에 신청하는 한편 회화면에서는 간이보험자금 4천원을 기채(起債)하여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sup>81)</sup>

고성만 어업조합에서는 1934년부터 해산물의 공동판매를 개시함과 동시에 성내동 어시장의 출회물산(出廻物産)도 조합공판을 경유하도록 인가되었으나 시설의 불완전함과 기타 이유로 한동안 이를 중지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성만어업조합에서는 1936년 12월 군회의실에서 시장 연고자를 회합하여 협의한 결과 해안 중매자는 시장측 중매를 불허하고 종래의 시장 연고자를 중매자로 채용하여 공판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하여 어시장의 공판제가 부활되게 되었다.<sup>82)</sup>

78) 『매일신보』 1933년 12월 13일.

79) 『조선중앙일보』 1935년 2월 16일.

80) 『동아일보』 1935년 12월 15일

81) 『매일신보』 1936년 2월 12일.

한편 삼산면어업조합에서는 고성면 성내동·수남동·신월리·월평리 4개 동리를 구역에 편입하는 동시에 명칭을 고성만어업조합으로 개칭하기 위하여 본부에 인가수속을 하였는데 1936년 4월 17일부로 인가되어서 동 조합에서는 남동(南洞)에 지소를 설치하여 해산물공동 판매를 하기로 하고 중매인 선정을 하였는데, 이갑용·문성률(文性律)·이정희(李正熙)·김평석(金平石)·서정훈(徐正煥)·천경두(千敬斗)·정상진(丁尙鎭)·김성천(金性天)·박찬용(朴贊用)·천두상(千斗上) 등 10명이 내정되었다. 이들은 4월 27일 오후 1시부터 군회의실에서 중매인 여러 명을 초청하여 사업실시 협의회를 개최하고 논의한 결과 오는 5월 1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어선집중이 종전보다 격증할 것이며 또 어가 향상이 되는 동시에 선어품질도 향상될 것은 명확한 것이라 하여 일반의 기대가 더욱 증대하는 추세에 있었다.<sup>83)</sup>

1933년 현재 고성지역에는 삼산어업조합과 동해어업조합, 그리고 배둔금융조합이 있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84)</sup>

○ 삼산(三山)어업조합

소재지 : 고성군 삼산면

조합장 : 박재화(朴載華)

이사 : 김태인(金泰仁)

고원 : 김선재(金仙在)

○ 동해어업조합

소재지 : 고성군 동해면

이사 : 하방덕태랑(下方德太郎)

○ 배둔금융조합

소재지 : 고성군 회화면

조합장 : 허형도(許衡道)

이사 : 김영룡(金永龍)

서기 : 최장림(崔璋林)·강우석(姜又錫)·최규범(崔圭凡)·박희원(朴熺遠)

82) 『매일신보』 1936년 12월 23일.

83) 『매일신보』 1935년 4월 30일

84) 경상남도, 『慶尙南道職員錄』, 1933.



1938년 현재 어업조합 관련 조직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sup>85)</sup>

○ 고성산업조합

소재지 : 고성군 고성읍

조합장 : 이갑용

이사 : 황영수(黃(糸+營)秀)

서기 : 정태현(鄭泰炫)

고원 : 이규실(李桂實) 오만수(吳萬壽)

사정원(査定員) : 이봉춘(李逢春)

○ 고성만어업조합

소재지 :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豆布里)

조합장 : 박재화(朴載華)

이사 : 김동엽(金東燁)

서기 : 김창순(金昌淳)

고원 : 한창도(韓昌道) · 손덕칠(孫德七)

기수 : 김병기(金炳己)

○ 동해어업조합

소재지 :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조합장 : 산본이수(山本理壽)

이사 : 천침주(千枕周)

서기 : 김선재(金仙在)

고원 : 박삼진(朴三眞) · 이상훈(李相煥)

○ 고성금융조합

조합장 : 이진홍(李震弘)

본소(本所) 이사 : 암전관문(岩田寬文)

서기 : 함태훈(咸泰勳) · 강신정(姜信丁) · 최학생(崔學生) · 박지훈(朴之堦) · 이수영(李秀映)

雇員 : 정철모(鄭喆模) 조규태(曹圭泰)

지소(支所) 부이사(副理事) : 이석호(李石昊)

85) 경상남도, 『慶尙南道職員錄』, 1938.

서기 : 윤재성(尹載成) · 박남두(朴南斗)

고원 : 이상찬(李相讚) · 황용우(黃龍雨) · 남재우(南宰祐)

1943년 현재 고성지역 어업조합 관련 조직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sup>86)</sup>

○ 고성만어업조합

본소 소재지 : 고성군 삼산면

지소 소재지 : 고성군 고성읍

조합장 : 박재화(朴載華)

이사 : 신수동(申守東)

서기 : 강종훈(姜宗勳) · 최재선(崔在先) · 최재후(崔載厚) · 신태섭(申兌涉)

고원 : 고복영(高卜榮) · 문정수(文正秀)

○ 동해어업조합

소재지:고성군 동해면

조합장 : 하방덕태랑(下方德太郎)

이사 : 천광주(千桃周)

서기 : 천두용(千斗用) · 전갑도(全甲道) · 이상훈(李相垣)

○ 고성금융조합

조합장 : 이진홍

이사 : 김정완(金廷完)

서기 : 최학생(崔學生) · 안주호(安周鎬) · 이수영(李秀暎) · 이상찬(李相讚) · 김흥조(金興兆) · 박성정(朴性政) · 황경(黃景) · 조규태(曹圭泰) · 이수석(李秀奭) · 임상재(林庠在) · 박상삼(朴相三) · 박승영(朴勝瑛) · 정화진(丁和鎭)

고원 : 김종순(金鍾順) · 김현근(金顯謹)

배둔지소 부이사 : 추규영(秋圭瑛)

서기 : 김주옥(金胄玉) · 최석림(崔奭林) · 박주수(朴周洙) · 최락구(崔洛久) · 김세종(金世鍾)

고원 : 최기호(崔基鎬)

당동지소 부이사 : 진갑생(陳甲生)

서기 : 남재유(南宰裕) · 허종록(許宗錄) · 최용락(崔龍洛) · 이정훈(李正薰) · 이경모(李京模)

86) 경상남도, 『慶尙南道職員錄』, 1943.

고원 : 이문홍(李文弘) 임춘산(林春山)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까지 고성지역에도 각종 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이 시기 설립된 회사명과 업종, 설립일, 대표자, 사업분야, 소재지, 관련 인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87)</sup>

○ 고성전기(固城電氣)주식회사

업종 : 전기업

설립일 : 1925년 8월 12일

대표자 : 덕원안웅(德元安雄)

목적 : 전등전력의 공급과 전기기계기구의 판매, 임대 및 그에 관련된 공사의 청부

자본금 : 100,000원

본점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면 동외동 334

중역 : 이사 : 권천등삼랑(蜷川藤三郎), 금영박(金永博), 이등이인(伊藤利人), 중도미칠(中島彌七), 감사 : 권천열치(蜷川悅治), 원등훈(遠藤薰), 각협수시(角脇秀市), 지배인 : 청목인평태(靑木仁平太)

○ 고성자동차(固城自動車)주식회사

업종 : 운수창고업

설립일 : 1931년 6월 16일

대표자 : 김종주(金鍾注)

목적 : 승용 임대 자동차 영업, 정기 노선 승합 자동차 영업, 화물 자동차 운수 및 임대 영업

자본금 : 33,200원

본점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면 성내동 48-2

중역 : (이사) 이택이팔(伊澤利八), 이석희(李石喜), 중도미칠(中島彌七), 이시영(李始榮), 감사 : 이갑용(李甲用), 박남극(朴南極), 오덕근(吳德根)

○ 고성식산(固城殖産)주식회사

업종 : 기타

설립일 : 1932년 12월 16일

87)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27, 1933, 1937, 1939년판), 東亞經濟時報社.

대표자 : 덕원안웅(德元安雄)

목적 : 부동산 관리 토지 건물의 경영 및 매매 금융업 채권의 징수 차입금 기타 일반 채무의 보증 대리업 창고업 중개업 상품 위탁 매매 물품 매매

자본금 : 200,000원

본점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면 성내동 39-2

중역 : 이사 : 중도미칠(中島彌七), 이택이팔(伊澤利八), 청수영태랑(清水榮太郎), 정상의웅(井上義雄), 감사 : 원등훈(遠藤薰), 진전실(津田實), 김종주(金鍾注)

○ 고성주조(固城酒造)주식회사

업종 : 양조업

설립일 : 1936년 9월 5일

대표자 : 이갑용(李甲用)

목적 : 조선주인 탁주 및 약주의 제조 판매 및 그에 부대한 일체의 사업

자본금 : 100,000원

본점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면 성내동 78-2

중역 : 이사 : 김정문(金正文), 이봉진(李奉辰), 감사 : 장지환(張志煥), 이형권(李濬權)

○ 고성운송(固城運送)합자회사

업종 : 운수창고

설립일 : 1937년 6월 1일

대표자 : 임희관(林喜寬)

목적 : 화물 자동차 운송업

자본금 : 10,000원

본점주소 : 경상남도 고성면 성내동 171

○ 고성상사(固城商事)주식회사

업종 : 상업

설립일 : 1938년 1월 29일

대표자 : 이봉수(李鳳洙)

목적 : 내외국 물산 매매 부동산 매매, 토목 공사 자료 유통, 산업 자금 유통, 운송업

자본금 : 200,000원

본점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면 성내동 334

중역 이사 : 박상요(朴相堯) · 제정탁(諸延鐸) · 이용수(李龍洙) · 허홍도(許洪道) 감사 :  
이진욱(李鎭煜) · 이관수(李判洙) · 정재길(鄭在吉).

## 제 4절 고성지역 노동운동

1920년대 초반 지역별 노동조합은 여러 직종들을 망라한 형태로 조직되었다. 초기의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선각적 지식인과 ‘유지’ 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지역 내의 전체 노동자들을 망라하여 위로부터 조직되었다. 즉 노동조합의 결성에는 선진적 지식인이나 청년,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많은 역할을 하였다.<sup>88)</sup> 특히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범주로는 청년층과 청년조직을 빼놓을 수 없다.

노동운동가들은 노동자들의 교양을 높이고 의식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대중적 교양과 조직적 훈련을 도모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각 부문에서 활동할 전위를 양성, 훈련하기 위해 노동청년단체들이 활발하게 결성되었다. 1920년대 노동조합의 노동자 교육활동으로 노동야학과 강연, 강좌,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신문이나 기관지의 간행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러한 교육활동의 목적은 계몽과 지식전파를 통하여 노동자들의 교양과민족의식·계급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전국적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통합은 1923년 후반기부터 추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24년 4월 조선노동총연맹이 결성되었다. 이 연맹은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노동조합 조직 운동을 배경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1927년 9월에는 노동, 농민단체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조선노동총동맹이 설립되면서 노동자들의 전국 조직으로 노동운동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중심 단체 역할을 하였다.

1920년대 중반에 들어와 노동문제는 여성문제, 농민문제와 더불어 주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전반적 영향 아래 식민지 시기 전체에 걸쳐 노동조합의 활동이 가장 다채롭게 전개되었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수많은 노동대중과 지역운동가들이 노동운동에 헌신하였다. 이들은 현지의 봉건세력이나 자본가들, 일제 지방권력의 방해에 맞서 다수의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주요 활동은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 옹호와 생활향상을 주장하고 노동계급의 의식을 계몽하고 단결을 각성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의식과 교양을 목적으로 한 토론회나 강좌 등을 제공하는 한편 노동야

88) 김경일,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비평사, 1922 ; 김경일, 『일제하의 노동운동(1920~1945)』, 지식마당, 2004, 참조.

학의 설치, 서적구독의 장려, 학술연구반이나 독서회의 개최, 단기 노동강습회의 개최, 다양한 강연회나 연설회 등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노동조합의 문화적 활동은 노동대중을 계몽하여 교양을 증대시키고 계급의식을 고양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1920년 후반 이후 노동운동은 문맹퇴치와 미신타파, 남녀교육의 평등 등의 주장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합법화된 영역에서 단위 조직의 결속시키고 역량을 확대시키려는 것이었고, 동시에 일제가 민족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기도 하였다.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 식민지의 노동운동은 기존의 직업별 노조를 산업별 노조로 바꾸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활동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함께 1930년대 초 세계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조선에서도 공업생산이 위축되는 가운데 소규모 공장을 중심으로 자연도태 현상이 확대되어 곳곳에서 휴업 또는 폐업하는 공장들이 속출하였다. 결국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과 임금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노동자들의 생활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이 노동운동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각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파업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투쟁의 방식도 집단투쟁이나 총파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도표> 1929~1937년 동맹파업 발생의 추이<sup>89)</sup>

연도	건수	참가 인원				원인			결과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계	임금	대우	기타	성공	실패	타협	미해결
1929	102	7,412	49	832	8,293	57	10	35	24	44	34	
1930	160	17,192	172	1608	18,972	89	26	45	41	63	56	
1931	205	16,854	131	129	17,114	141	16	48	34	100	71	
1932	152	14,170	591	63	14,824	99	14	39	30	69	53	
1933	176	13,599	213	23	13,835	118	26	32	37	74	65	
1934	199	12,941	86	71	13,098	134	16	49	57	86	56	
1935	170	12,062	101	24	12,187	107	25	38	47	72	51	
1936	138	8,100	145	1	8,246	86	13	39	34	32	72	
1937	99	8,706	291	90	9,148	55	7	37	25	36	37	1

한편 합법영역에서 노동운동이 침체되고 비합법영역의 노동운동이 급진화하는 가운데 일제와 자본에 의한 탄압과 매수에 의해 많은 조합들이 어용화되기도 하였다. 1930년대 말에는 이른바 일제의 본격적인 전시동원체제로 편입되면서 노동력의 강제동원과 노동능률의

89) 김호일,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한국사』 50, 국사편찬위원회, 2011, 168쪽 참조.

극대화를 위한 극심한 통제와 억압이 가해졌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은 침체기 또는 암흑기를 거치게 되었다.

고성에서는 고성공립보통학교의 훈도(訓導) 김상홍(金相洪)이 노동야학회를 조직하여 자본금 수 백원을 모집하고 생도 수십 명을 모집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김상홍이 다른 학교로 옮겨가면서 야학회가 중단되었는데, 1921년 6월 새로 전입한 훈도 김정희(金井喜)가 야학회를 복원하여 고성에 있는 노동자 약 1백 명을 모집하여 운영하였다. 교육내용은 일어와 산술(算術)이었는데 노동자에게 긴급한 조선문(朝鮮文)과 일용한문(日用漢文)을 요구함에 따라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였다.<sup>90)</sup> 마암면의 경우 교육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1921년 8월 15일에 유지 이동식(李東植)·이상삼(李相三)·허찬중(許纘中)·최경락(崔敬洛)·김태기(金泰琪) 등의 발기로 노동야학을 개설하고 10월 1일부터 개학하였다. 야학교는 마암면 천도교의 교실을 이용하였고, 김태기와 이동식이 명예로 교사의 역할을 맡았으며 학생수는 60여명에 이를 정도였다.<sup>91)</sup>

고성지역에서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큰 전기가 마련된 것은 1926년 1월 11일 고성자유노동동우회(自由勞働同友會)가 창립되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전까지 고성에는 노동운동을 주도할만한 단체나 기관이 없어 유감으로 여기던 중 천두상(千斗上)의 발의로 고성노동자 다수가 성내동 천윤기(千允基) 집에서 회합하여 고성자유노동동우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준비회를 개최하였다. 노동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창립대회를 개최하여 천두상이 노동동우회의 설립 취지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선언장령규약은 사정에 의하여 집행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사항을 결의하였다. 고성자유노동동우회의 사무소는 동아일보 고성지국으로 정한 뒤에 제반 문서와 비품의 설치비용 의연금인 10여원이 모금되었다. 당시 분위기는 이구동성으로 지금까지의 질곡(桎梏)에서 신음하던 것을 동우회의 창립과 함께 탈출하였다는 희열(喜悅)이 가득하였다고 하였다. 이때 선출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sup>92)</sup>

집행위원장 천두상, 서무부 전갑봉(全甲奉)·박태율(朴泰律)·박정관(朴正寬), 선전부 황필수(黃必秀)·한영진(韓英辰), 경리부 김갑성(金甲聲)·김기화(金基化)·박인수(朴仁洙), 회원모집부 천병락(千丙洛)·조길윤(趙吉允)·이명조(李命祚)·천억돌(千億玆), 조사

90) 『동아일보』 1921년 6월 22일.

91) 『동아일보』 1921년 10월 26일.

92) 『동아일보』 1926년 1월 15일.

부 구종근(具鍾根)·박점술(朴點述)·공삼용(孔三用)

고성자유노동동우회의 창립대회가 마무리 된 후 곧바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장 천두상의 사회로 전갑봉·황필수·김갑성·천병락·구종근을 상무집행위원으로 선거하고 폐회하였다.

고성노동동우회에서는 7월 4일 혁신회(革新會)로부터 강사를 초빙하여 시사문제 대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위해 오후 6시부터 악대를 선두로 수 백매의 선전 배라를 살포하고, 밤 9시부터는 고성청년회관에서 수백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김상욱(金相煜)이 ‘인생과 노동’을, 이상갑(李相甲)이 ‘자본주의의 세력과 노동계급’을, 구종근(具鍾根)이 ‘현하(現下) 조선 전 노동계급의 처지’를, 전갑봉(全甲奉)이 ‘계급의식과 대중운동’을 주제로 열변을 토하였다. 이들의 강연이 끝난 후 자유 등단으로 장응식(張應植)이 강단에 올라 의미깊은 ‘백의민족(白衣民族)의 비애’를 설파(說破)하고 노동 군중의 대동단결을 절규한 후 밤 11시 30분에 폐회하였다.<sup>93)</sup> 11월 1일 오후 8시에는 고성청년회관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모임에서 경남사회운동자대회에 출석할 위원을 추천한 것과 이들에 대한 여비를 마련하는 건이 논의되었다. 협의 결과 이백신(李栢申)·임형규(林亨圭)·김삼조(金三祚) 3인을 추천하고, 이백신에게는 여비 6원을 보조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월연금(月捐金)과 각회(脚戲)대회를 찬성하였지만 미수금에 대해 모든 위원이 출동하여 징수할 것도 결의하였다.

고성노동동우회에서는 1927년 1월 5일 고성청년회관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1월 11일 창립축하에 관한 건, 정기대회소집에 관한 건, 정광문고(正光文庫) 후원에 관한 건, 월연금(月捐金) 징수에 관한 건과 징수위원으로 이명조(李命祚)·임형규(林亨圭)·김기섭(金基攝)을 선정하고, 입회원 수리에 관한 건 등을 결정하였다. 고성노동동우회는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1927년 1월 11일 창립 1주년 기념회를 준비하였다.<sup>94)</sup> 기념식은 노동계급의 해방을 부르짖고 착취받는 계급을 위한 경제적 투쟁을 비롯하여 노동 조직이나 교양에 이르기까지 1년 동안 활동한 업적을 알리고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기념일 오후 2시에 축하식을 거행하려하였으나 경찰당국으로부터 금지를 당하고, 부득이 기념식이라는 형식으로 연혁보고(沿革報告)를 시작으로 회원들의 소감발표가 있는 후 3시에 폐회하게 되었다. 이후 곧바로 제2회 정기대회를 열어 의장 전갑봉과 서기 이상신의 임시집행으로 고성운동진흥에 관한 건, 월연금(月捐金)징수에 관한 건, 반동분자

93) 『시대일보』 1926년 7월 8일.

94) 『동아일보』 1927년 1월 14일.



조사에 관한 건, 본회 취지선언에 관한 건, 집행위원 개선에 관한 건 등의 사항을 토의, 결의하고 오후 5시에 폐회하였다.

노동자의 권익확보와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등 전국적으로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는 상황에서 사상운동의 중앙단체인 정우회(正友會)의 선언이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의가 계속되어 결론을 보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다. 고성노동동우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후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1월 15일 고성청년회관에서 고성사회단체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가단체는 고성청년회 외 10개 단체였고, 출석대표가 45명이나 되었다. 간담회에서는 혁진회(革進會) 대표 천두상의 개회사가 끝난 후 의장 전갑봉과 서기 천두상의 임시집행으로 다양한 현안을 결의하였다. 즉 사상운동, 청년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형평운동(衡平運動), 여성운동, 소년운동, 일반문제, 정우회선언에 관한 건, 실행위원선거에 관한 건 등을 결의하였다. 이들 사항들을 통해 당시 여러 사회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던 방향과 목표를 짐작할 수 있다. 간담회는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진행되는 시국에 대해 흥금을 토로하였고, 다만 결의사항 중 청년운동과 관련하여 동척이민(東拓移民) 문제에 대한 조목을 간담회장에 함께 하고 있던 경찰의 제지로 상정(上程)하지 못한 것을 무엇보다도 유감으로 여기면서 다음을 기약하였다.

고성노동동우회에서는 고성청년회에서 경영하는 노동야학의 유지가 곤란을 겪자 지원방법을 강구하던 중조선고래(朝鮮古來)의 유풍(遺風)인 매귀극(埋鬼劇) 공연으로 지원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2월 11일부터 시작하여 18일까지 고성 관내 지역을 순회하며 공연하여 300여원의 동정금(同情金)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sup>95)</sup> 그런데 노동야학의 운영은 갈수록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3월 21일에는 서외동에 있는 사무소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노동야학을 인수하여 경영할 것에 대해 많은 토의를 진행되었다. 논의 결과 고성청년회에서 경영하는 노동야학을 인수하여 경영할 것, 월연금(月捐金)과 동정금 징수위원을 선정할 것, 회원을 정리하기 위하여 대회의 결의문을 발취(拔萃)하여 통지하고 찬부(贊否)의 날인(捺印)을 받을 것, 노동부담금 5원을 납부할 것, 위원보선(委員補選)에 관한 건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고성청년회에서 맡았던 노동야학의 운영은 고성노동동우회로 넘어오게 되었다.<sup>96)</sup>

이후 노동야학의 운영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 1927년 4월 16일 성내동 강정준(姜正準)의 집에서 있었던 고성노동동우회 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결의 사항은 회원정리에 관한 건, 노동야학춘기 원족(遠足)에 관한 건, 문부

95) 『동아일보』 1927년 2월 23일.

96) 『동아일보』 1927년 4월 6일.

(文簿)정리에 관한 건, 야학부 예산안 통과에 관한 건, 메이테이에 관한 건, 야유회에 관한 건 등이었다.<sup>97)</sup> 고성노동동우회에서 운영하는 노동야학은 많은 군민의 교양에 노력하였으며, 1928년 봄부터 학생모집 규약을 일부 변경하였다. 모집규약의 주요 내용은 연령 8세 이상의 농민으로 하고, 원서접수 수리 기한은 3월 말까지이고, 모집정원은 약 50명으로 하고, 2~3학년 보결생 약간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고성청년동맹 여자부에서 경영하고 있는 고성여자야학교도 농촌여성의 문맹퇴치운동에 일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연령 8세 이상의 여성 50명을 모집할 것을 계획하여 추진하였다.

한편 고성노동야학교 주최로 3월 하순에 고성 각 면의 노동야학에 무산아동과 농민의 교양에 노력하고 있는 각 야학강사 연합간담회를 개최할 것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박맹룡 등이 위원으로 선정되어 각 지역 노동야학에 공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참석을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노동동우회의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5월에는 고성청년회와 연합하여 메이데이 행사를 준비하였다. 두 단체는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메이데이란 글자를 박은 홍당목(紅唐木) 수건을 이마에 두르고 호미와 망치 등 노동기구를 들고 시내행렬을 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리고 야간(夜間)에는 메이데이 강연을 성대하게 거행하려 하였으나 돌연 경찰 당국으로부터 금지당하여 해산되고 말았다.<sup>98)</sup>

고성노동동우회에서는 9월 2일 오후 9시 30분 고성청년동맹회관에서 제12회 집행위원회를 열고 임형규(林亨圭)의 사회로 진행하여 종래의 무익한 단합주의(團合主義)로부터 노동운동의 계급적 이익으로 전개할 것과 노동총동맹의 서면(書面)대회 승인의 건, 임시대회소집에 대한 결의를 마치고 폐회하였다.

1928년 3월 17일에는 고성청년동맹 고성지부 발기로 고성노동조합의 내용충실, 야학유지 등 필요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고성사회단체병합위원회를 청년동맹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고성노동조합에서 노동야학을 유지하기 위하여 흥행하였던 매귀극(埋鬼劇)의 수입지출 결산서에 대해 심의하지 못한 점이 적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위원을 선거하여 해당 조합위원장에게 통지를 하고 곧 조사에 착수하되 참가단체는 신간회고성지회, 고성농민조합, 신흥과학연구회, 고성청년동맹 고성지부이고, 조사위원은 박맹룡·황용도·오만수·박화수(朴華洙)·전갑종을 선출하였다.

고성의 노동운동은 1929년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고성노동조합과 형평사(衡平社) 두 단체는 각각 원대한 포부와 목적으로 조직되어 2, 3년 전까지 고성의 여러 사회단체와 비

97) 『동아일보』 1927년 4월 12일.

98) 『동아일보』 1927년 5월 8일.

교하여 나름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지만 투쟁방법이나 내용이 점차 느슨해져 그 존재까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인식하였다. 이와같은 분위기에서 11월 16일 고성이 여러 사회단체가 모여 토의한 결과 노동조합은 이미 민중의 신임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조직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단체와 비교하여 뒤떨어진 점이 없지 않으므로 이를 해체하는 동시에 새로 고성합동노동조합을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형평분사(衡平分社)는 회원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침체 원인이 된다는 것으로 파악하여 천두상, 전갑봉, 황응도, 오만수, 임형규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조사, 해결하도록 위임하고 부흥을 촉진할 것을 독려했다.<sup>99)</sup>

1930년 고성군 동해면 외곡리 부근에 수리조합을 설치하게 되었다. 표면적인 목적은 무용한 토지를 이용하지는 것이었으나 근본적인 목적은 한해민(旱害民) 구제책이 일환으로 공사를 시작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고성군 당국에서는 미리 조사하여 두었던 한해민을 공사지역에 파송케 되었는데 불과 며칠이 못되어 모두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고성농민조합에서는 그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위원을 파견하여 조사한 결과 신체 건강한 노동자라도 하루 임금이 30, 40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첫날 하루를 노동하면 지쳐서 이튿날에는 완전한 노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따라서 식사도 부족하고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고성군에서는 노동자 1일분 1인당 임금을 최저한도로 60전을 제정하였다고 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이었다. 청부업자들은 농한기이기 때문에 노동 임금을 충분히 줄 수 없으나 농번기에는 임금을 자연히 올리게 될 것이라며 불합리한 구실을 내세워 불만의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하였다.<sup>100)</sup> 그러나 일반 노동자들은 적정한 대우를 받기 위해 노동동우회의 도움을 받으며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31년에는 고성수리조합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임금문제로 파업이 발생하였다. 고성수리조합 공사장의 2백여 명의 인부는 노동임금이 하루에 33전으로 평균치인 40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여 하루를 벌어도 그날을 먹지 못할만한 비참한 현상으로 공사 착수일부터 불평이 자자하였다. 더욱이 고성군 당국에서는 이것이 궁민구제사업이라 하여 하루 임금 중에서 매일 5전씩의 저금을 강요하므로 노동자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금을 할 수 있느냐며 그 무리함을 항의하다가 7월 29일에는 저금을 할 수 없다 하고 모두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에 고성군에서는 마침 고성군청에서 회의 중에 있던 관내 14개면 면장을 비롯하여 관계 관리가 현장에 출장하여 5전의 저금이 부담이 된다면 3전씩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당일 밤에는 백여명 인부가 고

99) 『동아일보』 1929년 11월 26일.

100) 『중외일보』 1930년 5월 15일.

성면 덕선리 도로에 때를 지어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에 순사까지 출동하여 적극적으로 진압하려 하였으나 군중은 쉽게 해산되지 않았고, 다음날에는 한사람도 공사에 나오지 않고 일제히 동맹파업을 단행하였다.<sup>101)</sup>

고성군내 거주지가 있는 노동자는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외지에서 노동하러 들어왔던 노동자 50여명은 여기 있다가는 굶어죽고 말겠다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도 저금제도가 철폐되지 않으면 절대로 취업을 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당황한 고성군과 청부업자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당일 밤사이 청부업자측 청수(淸水) 등이 노동자의 숙박소를 방문하고 저금문제에 대하여는 일체 자기가 책임지고 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므로 다음날인 31일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노동자 약 1백여 명이 전과 같이 취업하는 것으로 수습되어 가는 국면이 되었다.<sup>102)</sup>

그러나 근본적으로 낮게 책정된 임금문제는 1932년에 이르러서도 해결의 기미가 없었다. 고성수리조합 공사를 청부받은 녹도조(鹿島組)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을 매우 험하게 지급하는 관계로 인근 지방 노동자는 이에 종사하기를 기피함에 따라 공사 진행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평안도나 함경도와 같이 거리가 먼 곳으로부터 수십 명의 노동자를 모집하여 왔지만 그들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견디지 못하고 거의 돌아가 버렸다. 따라서 고성군청에서는 각 면장에게 출역을 독려하여 각 동리에 출역인원수를 지정하고 의무적으로 출역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새벽부터 밤이 어두워질 때까지 일하고 하루의 임금 10전 내외를 받고, 여기에다 의무 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부를 떼고 나면 8, 9전에 지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이 대단히 힘든 고역이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이 더욱 꺼리는 일이 되었다. 빈민구제라는 명목으로 수리조합공사가 진행되었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적정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반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형국이어서 불만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여기에다 1932년 2월에는 고성수리조합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표(傳票)를 위조하여 금품을 사취(詐取)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고성수리조합 공사장에서는 매일 공사에 종사하는 인부에게 그날그날의 임금을 전표로 지불하여 일정한 날에 금전과 교환하는 바 이 임금으로 그날그날의 생활을 하는 노동자는 수일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금전 교환일까지 기다리지 못하여 그 전표를 상점 등에서 할인하여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임금 전표를 교묘하게 위조하여 공사장이 있는 덕선리는 물론 고성읍내 각 상점 여러 곳까지 물품과 금전 6백여원을 편취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를 알게 된 고성경찰서에

101) 『동아일보』 1931년 8월 2일.

102) 『동아일보』 1931년 8월 3일.

서는 지난 2월 2일 십여 명 경관이 자동차로 공사장에 출동하여 밤이 되도록 활동하였으나 범인은 체포하지 못하였고, 누구의 소행인지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때 피해를 입은 곳은 고성읍내 이택상점(伊澤商店), 금영상점(今永商店), 소천상점(小川商店)과 덕선리 주조장(酒造場)과 박익수(朴翊洙) 등이었다.<sup>103)</sup>

고성지역의 노동운동이 수리조합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노동자들의 불만과 이에 대한 단체행동 등은 경찰을 더욱 긴장하게 하였다. 고성에서는 메이데이를 앞두고 노동운동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한 경찰은 4월 20일 시내 각처를 물샷틈없이 엄중한 경계를 하는 동시에 천두상(千斗上)을 비롯하여 여러 회원의 집을 수색하여 서적을 포함하여 문서를 압수하고 단체 간부에 해당하는 이용규(李龍奎), 정찬주(鄭贊柱), 강인수(姜仁守), 천상봉(千翔鳳), 조길운(趙吉允), 하갑룡(河甲龍)을 검거하였다.<sup>104)</sup> 메이데이 에 대규모의 노동제(勞動祭)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4월 30일에는 청년동맹의 관계자를 중심으로 청소년 8명을 검거 유치하였다. 5월 1일에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 이하 모든 서원이 총출동하여 근무하고 늦은 밤까지 시내를 엄중하게 경계하며 요리집의 술 먹는 사람을 비롯하여 도로의 통행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하며 철야 경계를 하였기 때문에 노동제 행사는 성사되지 못하였다.<sup>105)</sup>

1933년 6월에는 고성군 마암면에서 대구와 통영간 2등도로 개수공사가 궁민구제(窮民救濟)사업의 일환으로 착수되어 공사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 공사를 담당한 청부업자 유장국송(遊長菊松)은 동리 농민 4백여 명을 10여일 동안 한푼의 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총임금 1천 5백원에 달하도록 청산하지 않고 오늘 내일하고 미루고 있었다. 이에 공사에 참여한 농민들은 점심을 굶어가며 이양 때에 이양도 돌보지 않고 하루 몇 십전을 받아가지고 농사에 약간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자 노동자들은 극도로 흥분하여 경상남도 당국에 진정하여 호소하였다. 경상남도 당국에서도 유장국송에게 조속히 노임을 지불하라는 경고를 하는 동시에 청부업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공사를 맡기지 않겠다고 경고하였다.<sup>106)</sup> 고성의 농민 노동자들은 불법하고,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단체행동으로 당국에 진정하거나 파업으로 대응하는 등 권익을 찾기 위해 결집하였다.

103) 『동아일보』 1932년 2월 5일.

104) 『동아일보』 1932년 5월 3일.

105) 『동아일보』 1932년 5월 5일.

106) 『동아일보』 1933년 6월 19일.

## 제 5절 고성지역 농민운동

일제는 1910년대 조선토지조사사업,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초반에 걸쳐 산미증식계획, 1930년대 중반에 농촌진흥운동, 이후의 조선증미계획 등의 식민농업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같은 농업정책의 기본 목표는 식민지 지주제의 형성과 이를 통한 농업수탈의 감행이었다. 산미증식계획의 목표는 토지개량과 농사개량에 의한 미곡 증식과 증식미를 일본으로 반출하는 것이었다. 산미증식계획 가운데 토지개량 사업은 조선총독부 식산국에 토지개량과·수리과·개간과를 두어 이를 추진하게 하였다. 또한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토지개량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조선식산은행 산하에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를 창설하여 토지개량사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농사개량사업은 주로 조선농회가 담당하였다. 농사개량사업을 위해 이른바 ‘우량품종’의 보급, 화학비료 사용의 확대, 퇴비 등 자급비료의 장려를 적극 추진하였다.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소작농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sup>107)</sup>

이와 함께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도 크게 작용하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소작인들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와 토지개량비를 포함하여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 수리조합비 등 각종 비용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층의 경제적 궁핍은 더욱 심화되어 갔다.

일제하 한국 농민들은 식민농업정책에 대항하여 민족적, 계급적 각성을 통해 운동조직을 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민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농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조직되는 것은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였다. 농민들은 면·리 단위의 소작인조합, 소작조합, 농민공제회 등의 농민단체를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 소작인조합은 조합원이 소작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도부는 흔히 지주 또는 지주출신의 인텔리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소작인조합의 활동도대개 소작계약개선, 농사개량, 생활개선, 계몽활동 등이 주를 이루었다. 1920년대 농민운동은 소작쟁의, 수리조합 반대운동, 화전민 항쟁, 곡물검사제 반대운동, 조선농회 반대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107) 「농민운동」, 『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1, 177~214 참조.

한편 일제가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업이 토지개량사업이었다. 수리조합을 설치하여 농경지에 관개·배수함으로써 토지생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 농민의 지배와 수탈에 이용하는 수리사업은 산미증식계획의 요체였다. 수리조합 구역내의 소작농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수리조합 반대운동이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수리조합 반대운동은 沈水토지의 정당한 보상 요구와 조합구역내의 소작료 인상과 과도한 水稅에 대한 투쟁이 주를 이루었다.

농민운동은 1930년대 이후 농민조합운동과 천도교의 조선농민사운동, 기독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농촌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1930년대 초반 조선의 농촌사회는 지주소작 관계를 중심으로 농민층이 몰락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농민층의 일제와 지주에 대한투쟁의식이 더욱 강하게 표출되었다.

<표> 소작쟁의의 연도별 발생 현황<sup>108)</sup>

연도	발생건수	동원인원수	사건당 인원수
1921	27	2,967	110
1922	24	3,539	148
1923	176	9,060	52
1924	164	6,929	42
1925	11	2,646	241
1926	17	2,118	125
1927	22	3,285	149
1928	30	3,572	119
1929	36	2,620	73
1930	92	10,037	108
1931	57	5,486	96
1932	51	2,910	57
1933	66	2,492	38
1934	106	4,113	39
1935	71	2,795	39
1936	56	3,462	62
1937	24	2,234	93
1938	30	1,338	45
1939	24	969	40
합계	1,085	72,572	

108) 김호일,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한국사』 50, 국사편찬위원회, 2001, 131쪽 참조.

1930년대 중반 이후 각지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던 농민운동은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일제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되고 민족말살정책이 시행되는 전시체제 하에서 농민운동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에는 일제의 농산물 강제공출, 노동력의 강제 동원, 군수 농작물의 강제 재배 등이 강요되었다. 전시체제 하에서 인플레이션의 진행, 생필품 가격의 폭등과 결핍에 따라 전반적으로 생활이 악화되면서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전시동원체제 분위기에서 노동자들은 전쟁을 반대하는 구호를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태업이나 집단 탈주, 기계 파괴, 공사 방해, 방화 등의 형태로 반일·반전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일제하의 노동운동은 일제에 의한 식민지적 착취와 종속에 반대하는 경제적 성격과 아울러 민족차별에 반대하고 반일민족 해방을 지향하는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농민조합은 농민운동으로서 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1926년에 각 지역 단위로 조직화되어 일제의 탄압과 강제 해산으로 1935년에 종결되었다. 농민조합은 소작인들이 모인 조합에서 비롯되어 전체 농민을 아우르는 농민운동으로 발전한 것으로 단순히 경제투쟁에 그치지 않고 일제를 상대로 한 정치투쟁이기도 하였다. 고성지역도 농민의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고성농민조합이 창립되었다.

경남 고성청년회에서는 1926년 1월 고성청년회관에서 정기대회를 개최하고 구종근의 사회로 의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선출된 집행위원은 집행위원장 천두상, 사회부 김상옥·구종근·천병락, 문예부 황응도·전갑봉, 경리부 최상조·정상준, 소년부 황응도·최봉기·박점련, 서무부 전갑봉·하운한·김우세였다. 결의사항은 회관건축비에 관한 건, 학원에 대한 건, 남선정구(南鮮庭球)대회에 관한 건, 월연금(月捐金) 납부일에 관한 건, 진력으로 고성농민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준비 작업을 천두상·구종근·천병락에게 맡기기로 하였다.<sup>109)</sup>

이와같은 모임 이후 고성지역의 농민조합은 천두상의 발의로 지역인사들이 참여하여 발기회를 갖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1926년 10월 22일 고성군 성내동 時代日報 고성지국내에서 ‘농민생활 향상의 목적’으로 발기회를 열었다. 발기회에서는 강령주장 및 규약기초(規約起草), 회원모집방법 및 위원선거, 창립일 결정과 이에 대한 준비에 관한 건, 창립일자는 10월 31일로 하고 장소는 고성청년회관으로 할 것 등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창립준비위원으로 이상의(李相義)·천성락·천두상·구종근·전갑봉·김상옥을 선출하고, 창립비일체는 발기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고성농민조합은 발기준비회를 거쳐 마침내 10월 31일 창립대회를 열었다. 여기서 채택된

109) 『동아일보』 1926년 1월 23일.



강령과 주장은 단결의 위력과 상호부조의 조직으로써 생활향상과 지식계발과 산업발달을 기약하고, 단호한 용기와 유효한 전술로써 경제적 평등과 농민의 계급에 적당한 신사회 건설을 기약하였다. 그리고 창립대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① 메이데이 엄수(嚴守) ② 농민야 학교 설립 ③ 농사개량 ④ 부업장려(副業獎勵), ⑤ 소작권 이전 방지 ⑥ 소작료 5할제도 실시 ⑦ 지세 공과금 지주부담 ⑧ 부정 두량(斗量) 철폐 ⑨ 두세(斗稅)철폐 ⑩ 1리 이상 소작료 운반비 지주 부담이었다.<sup>110)</sup>

한편 집행위원회도 구성되었다. 총무부 천두상·황응도, 교육출판부 전갑봉, 산업연구부 신봉식(辛奉植)·황상한(黃祥翰), 조사쟁의부 천성락·구종근·김상옥·황상한·최필관(崔必觀)·김준석(金準錫)·김창준(金昌俊), 조직선전부 김태호(金台鎬)·이상신(李相申)·구종근, 회계 김종배(金宗培), 회계감사 이운춘(李允春)·이재홍(李在洪), 상무집행위원 황응도·천두상·전갑봉·천성락·이상신·구종근이 선임되었다.

고성농민조합은 농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각 면에 농민조합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책임위원을 파견하였다. 또한 농민의 ‘교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민야학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1926년 11월에는 성내동 사무소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의장에 천두상, 서기에 전갑봉을 선출하였으며, 회비 징수·회원 모집·주장 선포·규약 인쇄·쟁의 조사를 결의하였다. 특히 회원모집을 위하여 집행위원이 야간에 각 동리를 찾아 농민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취지를 설명하고 농민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12월 9일에는 성내동 임기동(林基東)의 집에서 상무(商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농한기를 맞이하여 회원모집과 함께 조합원의 회비징수에 징수위원들이 적극 나서 독려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고성농민조합 결성을 계기로 농민과 소작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주들은 이에 대한 대응마련에 고심하게 되었다. 고성지주회에서는 1927년 3월 지주 30여 명이 모여 현재의 소작 관행 중 개선할 사항, 소작료 수납기에 실행할 사항, 농사 개량상 지주의 취할 사항, 우량 품종의 보급 및 품종 통일을 도모할 사항, 농사 개량 저리 자금에 관한 사항, 자운영 및 청예(靑刈)·대두(大豆) 재배에 관한 사항, 현미 조제 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행동을 통일할 것을 결의하였다.<sup>111)</sup>

농민조합과 지주들 사이에 상호 대응책이 강구되는 가운데 1927년 4월 4일 고성농민조합에서는 제2회 정기대회를 서외동 사무소에서 개최하였는데 6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집행부 천일호, 전갑봉(全甲奉)을 선정하고 회록낭독과 경과보고, 규약을 개정하였다. 봄과 가을 2회로 있던 정기대회를 춘계 1회로 하고 조합장제를 두는 것 등을 만장일치

110) 『동아일보』 1926년 11월 4일.

111) 『동아일보』 1927년 3월 29일.

로 가결하고 임원을 개선하였다. 선출된 임원은 중앙집행위원으로 천일호(千一乎)·황응도(黃熊度)·진갑봉·구종근(具鍾根)·김창준(金昌俊)·이상신(李相申)·조영수(趙永守)·김화준(金化俊)·유한수(柳漢洙)·문성률(文性律)·이진옥(李鎭瑱)·허관(許觀)·이민기(李民基)·유학조(柳學祚)·최종렬(崔鍾烈)·임형규(林亨圭)·유계진(劉桂辰)·김상욱(金相煜) 등이었다. 이후 황상한(黃庠瀚)의 농사강화(農事講話)와 구종근의 대회소감 발표가 있었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소작문제와 관련하여 정금주(鄭金注)·최동호(崔東護)·김덕보(金德甫)·복부원차랑(服部源次郎) 대(對) 김은옥(金銀玉), 이민기(李民基)·이무용(李武用)·황우연(黃右淵)·황근(黃根)에 대한 소작권문제를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상무집행위원회에 보고할 것과 남상국(南相國) 외 6명의 임직원 수리를 결의하였다.<sup>112)</sup>

1928년 9월 고성농민조합에서는 적극적으로 농민운동에 주력하고자 각 면단위로 농민조합의 설치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책임위원을 나누어 파견하여 농민대중 교양문제에 대하여 장시간 토의한 결과 각 지역에 농민야학교를 설치하기로 노력하되 이미 설치된 6곳에는 위원을 파송하여 조사 감시 또는 지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조합의 발전을 위해 위원 보선에 관한 건, 회비징수에 관한 건, 조직선전에 관한 건, 농민대중 교양에 관한 건, 남조선각희대회(南朝鮮脚戲大會)에 관한 건, 고성노동야학교 경영난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고성농민조합에서는 고성학회에서 청년회사업으로 경영하던 고성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경영이 어려운 고성학원을 고성노동조합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청년동맹에서 다시 인수하였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고성농민조합에서는 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때 구성된 후원회는 회장 황응도(黃熊度), 학감 구종근(具鍾根)·김상욱(金相煜), 교감 천성락(千性洛)·임형규(林亨奎), 재무 문성률(文性律) 등이 참여하였다.<sup>113)</sup>

고성농민조합에서는 소작쟁의에도 적극 개입하여 농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1928년 11월에는 旱災로 인하여 소작료 납부시기에 일어나는 쟁의가 많아 농민대중의 이익획득 또는 조합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쟁의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위원을 파송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원을 배치하고 있다. 이때 구분된 구역과 조사위원은 제1구 동척(東拓) 관련 황응도·천성락, 제2구 매척지(埋拓地) 관련 구종근·문성률, 제3구 각 지역 백만기(白萬圻)·임형규, 제4구 대평지역 유한수(柳漢洙)·이영실(李英實), 제5구 송산 지역 허관(許觀), 제6구 우산(牛山)지역 이진옥(李鎭瑱)·최종렬(崔鍾烈), 제7

112) 『동아일보』 1927년 4월 9일.

113) 『동아일보』 1928년 9월 17일.

구 가려(佳麗) 지역 이민기(李民基), 제8구 교사(校社)·무량(武良)지역 천성락·구종근이었다.<sup>114)</sup> 이와 함께 소작문제, 회비징수문제, 각회대회 청산에 관한 건, 야학 유지에 관한 건도 결의하였다.

고성농민조합에서는 1929년 3월 고성청년동맹회관에서 제3회 대회를 열었는데 1백여 명의 회원 출석과 방청객 50여 명, 다수 경찰관이 참석하였다. 이 대회에서 황응도가 과거 2년 동안 있었던 소작쟁의와 신사업경영의 일체 경과보고가 있었고, 전갑봉의 전국 농민운동 정세보고가 있었으며, 구종근의 군내 농민생활 상황보고 등이 있었다. 이어 삼총해금동맹(三總解禁同盟) 출현에 관한 건, 통계표 작성에 관한 건, 노동조합 부흥에 관한 건, 조합 야학유지에 관한 건, 지부 설치에 관한 건, 각 촌락 농민야학설치에 관한 건, 유급서기 채용의 건, 채종기(採種期) 쟁의조사에 관한 건, 철성의숙 문제에 관한 건 등을 토의하였으며, 신입위원으로 위원장 황응도, 서기 전갑봉, 위원 천성락·김상옥·구종근·박맹룡·백남기·공근조·유한수·이영실·조영수·이진옥·황상택·천상봉, 감사위원 천두상·임형규·문성율이 선임되었다.<sup>115)</sup>

7월 중에는 제2회 집행위원회를 서외동사무소에서 개최하고 지주 김화여(金化余)·박내춘(朴乃春)에 관한 소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화여 건은 위원 천두상·천상봉을 해당 지역에 파견하여 해결하기로 하고 박내춘 건은 조사쟁의부(調查爭議部)에 일임하여 조사해결하기로 하는 등 소작쟁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11월에는 한재로 인한 이재민의 참상이 겨울을 앞두고 심각해지자 8만 여명의 이재민이 있는 고성의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중에 고성농민조합에서는 조합에서 수립한 대책을 14면을 5구(五區)로 나누어 순회하며 선전 연설하기 위해 결의하였다. 구성 대원과 순회지역은 구종근·임형규는 고성·상리지역, 김갑봉·김철동은 삼산·하일·하이지역, 천두상·오만수는 대가·영현·영오 지역, 황응도·천상봉은 회화·구만·개천 지역, 김상옥·김종원은 마암·거류·동해지역을 맡아 순회하는 것으로 하였다.<sup>116)</sup>

1930년 3월에는 제4회 정기대회를 열고 위원장 황응도, 서기 전갑봉, 위원 구종근·김상옥·천상봉·박맹룡·최봉기·공근조·이영실·이민기, 감사 천성락·임형규·김철동을 선출하고, 메이데이 축하의 건, 주장실시(主張實施)의 건, 소비조합 지지의 건, 부락 소비조합 설치의 건, 회원모집의 건, 조합원 정리의 건, 재민구제(災民救濟)의 건, 회비 징수의

114) 『동아일보』 1928년 11월 18일.

115) 『동아일보』 1929년 4월 3일

116) 『동아일보』 1929년 11월 18일

건, 비료구입의 건 등을 토의하였다. 같은 달 제5회 대회에서는 작권(作權) 이동의 건, 도 연합회에 관한 건, 농조에 관한 건, 아학유지에 관한 건, 수리조합설치 반대의 건, 소비조합설치에 관한 건 등이 제안되어 토의하였다.

1931년 6월 고성농민조합은 하일면에 지부를 설치하기 위해 대회 개최준비와 함께 170여 명의 회원에게 통지하였다. 그런데 대회 개최 예정 당일에 경찰관주재소에서 고성 본서의 회보(回報)를 받아보아야 한다며 대회를 열지 못하게 하고 당일에 실시하려던 조합원모집까지도 금지하였다. 또한 이미 모였던 120여 명의 조합원에게 설치 대회를 열지 못하게 된 이유를 알리는 것조차 금지하여 결국 지부 설치대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해산되고 말았다. 이에 고성농민조합에서는 하일면지부를 설치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고성경찰서에 집회 신청을 제출하였지만 서류미비와 도 경찰로부터의 회신이 없음을 이유를 들어 불허하였다.

고성농민조합과 경찰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1931년 11월 지주 정만규(鄭晩奎)와 소작인 서응수(徐應洙) 사이에 소작쟁의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농민조합집행위원장 권순학(權淳學)을 비롯하여 이효율(李孝律), 이진하(李鎭河), 이진영(李鎭永), 이상모(李相模), 박우상수(朴又尙守), 손상국(孫尙國), 허경룡(許景龍), 허종필(許宗必)을 검거하여 구속하고, 대가면과 영현면의 농민 40여 명을 호출하여 조사하였다. 구속된 고성농민조합원 9명은 고성경찰서에서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 검사국으로 송치되어 조사를 받았다.<sup>117)</sup> 이들 가운데 허경룡은 11월 18일 석방되었고, 11월 28일에 이진영, 손상국, 허종필은 불기소로 석방되고 나머지 5명은 공판에 회부되었다.

경남 고성경찰서에서는 12월에 들어서도 읍내에서 고성농민조합 간부 최숙환(崔壽煥)을 검거하는 한편 송목(松木) 경찰서장이 형사를 대동하고 하일면 학림리의 주재소와 협력으로 가택 여러 곳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온문서를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농민조합원 최재원(崔載元), 최진환(崔鎭煥)을 검거하여 취조하였다. 또한 최창조(崔昌祚) 외 20여 명의 농민조합원을 소환하여 취조를 계속하였다. 이들 중 최숙환, 최재원, 최진환은 12월 28일 통영검사국으로 송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편 1931년 현재 고성군에 설치되어 있던 권농공제조합(勸農共濟組合)은 모두 17개였다. 거류면과 동해면에는 2곳씩 설치되었고, 나머지 면에는 각각 1곳씩 설치되어 있었다. 권농공제조합의 소재지와 조합원수, 보도위원의 인적사항, 설립년월일 등을 정리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117) 『동아일보』 1931년 11월 17일.

<1931년 현재 고성군에 설치된 권농공제조합 현황><sup>118)</sup>

조합명	소재지	조합원수	輔導委員			설립년월일
			씨명	연령	직업	
梧東	영오면	30	徐廷煥	-	농업	1928년 8월 17일
大坪	고성면	30	柳漢洙	30	"	"
佳麗	거류면	30	黃宗桂	52	"	"
石芝	하이면	30	朴相潤	35	"	"
봉림	영현면	28	尹丁成	52	面協	1929년 5월 17일
石馬	마암면	30	李相大	38	"	"
鹿鳴	회화면	29	鄭碩權	51	區長	"
烏山	상리면	30	陳亨純	36	"	"
龍臥	구만면	29	李範洙	35	농업	"
龍台	하일면	30	李庭聽	57	"	"
岩田	대가면	28	李晦淵	41	"	"
佳川	개천면	26	崔正禧	64	"	"
屏山	삼산면	28	李起洪	44	"	"
章基	동해면	24	田長水	41	"	"
外谷	동해면 외곡리	30	崔尙德	31	"	1931년 1월 8일
寶田	마암면	25	辛季植	30	"	"
銀月	거류면	30	金水元	43	"	"

다음으로 1930년대와 1940년대 고성군농회의 조직과 구성원을 정리하였다. 먼저 1933년 고성군농회 조직은 아래와 같다.

회장 : 송찬도(宋燦道)

부회장 : 박남극(朴南極)

간사 : 국영친사(菊永親司)

서기 : 최한열(崔漢烈) ★基漢

118) 경상남도, 『慶尙南道社會事業施設概要』, 1931.

기수(技手) : 교본청삼(橋本晴三) · 정한규(鄭漢圭) · 정규삼(鄭圭三) · 김형학(金炯鶴) ·  
정효근(鄭孝根) · 김은천(金垠千) · 정성양(鄭性陽) · 최찬열(崔贊烈).

비료지도원(肥料指導員) : 변재규(卞在珪)

재상지도원(栽桑指導員) : 김형식(金炯植)

경남 고성군농회에서는 1934년 회칙 제34조에 의거 평의원을 개선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고 개선하려고 하였지만 경비 등의 관계로 부득이 서면(書面)으로 이를 행하여 7월 5일 개찰일시(開札日時)까지 도착한 투표를 동일 오후 4시에 송찬도 회장이 이사 복도(福島)와 서기 최한열의 입회로 개찰한 결과 다음과 같이 여러 사람이 당선되어 피선된 자들에게 당선 통지를 발송하였다.<sup>119)</sup>

고성 : 당선 이정식(李正植), 차점 김형규(金炯奎)

삼산 : 당선 이기재(李起在), 차점 박상중(朴尙鍾)

하일 : 당선 최관모(崔權模), 차점 이호기(李顥基)

하이 : 당선 최재황(崔載滉), 차점 송계필(宋季弼)

상리 : 당선 이용년(李鎔年), 차점 이진○(李鎭★)

대가 : 당선 이한규(李한★奎), 차점 이쾌규(李快奎)

영현 : 당선 정형규(鄭炯奎), 차점 김형복(金炯福)

영오 : 당선 주재식(朱載植), 차점 김문규(金文奎)

개천 : 당선 최정갑(崔正甲), 차점 박성명((朴聖乘)

구만 : 당선 최락현(崔洛顯), 차점 최병호(崔炳鎬)

회화 : 당선 김윤명(金允明), 차점 무(無)

마암 : 당선 최세열(崔世烈), 차점 허우중(許羽中)

1938년 현재 고성군농회와 고성군미곡통제조합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sup>120)</sup> 5년 전과 비교하여 구성원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고성군농회

회장 : 노태식(盧台植)

119) 『매일신보』 1934년 7월 12일.

120) 경상남도, 『慶尙南道職員錄』, 1938.

부회장 : 이갑용(李甲用)

간사 : 하도율(河道律) · 대평정부(大坪貞夫)

서기 : 하갑룡(河甲龍) · 진우실(陳又實)

고원(雇員) : 천두범(千斗凡)

기수 : 길천삼랑(吉川三郎) · 정규삼(丁圭三) · 변재규(卞在珪) · 박우경(朴雨璟) · 김해생(金亥生) · 태전구평(太田久平) · 김형식(金炯植) · 김영수(金榮洙) · 이광수(李光洙) · 권병현(權丙鉉) · 박증몽(朴曾蒙).

징수원 : 최락완(崔洛完)

채비돈지도원(採肥豚指導員) : 이기훈(李璣薰)

양잠지도원 : 김서분(金瑞分)

축우생사지도원(畜牛生飼指導員) : 정귀동(鄭貴童)

면작지도원 : 김봉수(金奉守) · 김용수(金龍水) · 김옥이(金玉伊)

#### ◇ 고성군미곡통제조합

조합장 : 노태식

부조합장 : 이갑용

주사 : 하도율 · 대평정부(大坪貞夫).

서기 : 이시환(李時桓)

1943년 당시 고성군농회는 고성을 성내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각 읍면 단위까지 조직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21)</sup>

회장 : 김학성(金學成)

부회장 : 이갑용

간사 : 최동룡(崔東龍) 수전일출회(守田日出輝)

서기 : 김성포(金成布) 구태옥(具太玉)

기수 : 이우수(李宇洙) · 유재화(柳在和) · 최락완(崔洛完) · 김기대(金基大) · 김필조 · (金弼祚) · 이상문(李相文) · 박상하(朴相河) · 김재룡(金再龍) · 구대회(具大會) · 김홍엽(金洪燁) · 권영석(權寧碩) · 김용주(金鏞柱) · 하정식(河貞植) · 진동헌(秦東憲) · 김영준(金英俊) · 이수대(李壽大) · 이상의(李相義)

121) 경상남도, 『慶尙南道職員錄』, 1943.

고성읍주재 김재유(金在裕)

삼산면주재 서종열(徐宗烈)

하일면주재 배현규(裴鉉奎)

하이면주재 박정회(朴鉦會)

상리면주재 황훈익(黃薰益)

대가면주재 이정수(李丁洙)

영현면주재 김달용(金達用)

영오면주재 김효일(金孝一)

개천면주재 최인환(崔仁煥)

구만면주재 최락형(崔洛馨)

회화면주재 김상문(金相文)

마암면주재 정수영(鄭洙榮)

동해면주재 이문도(李文道)

거류면주재 이상주(李相柱)

식량축탁 : 이압우(李鴨雨)

고원 : 윤봉균(尹鳳均) · 강○래(姜★來)

전작(畑作)지도원 : 최권림(崔權林) · 배상찬(裴相贊).

면작지도원 : 최락부(崔洛富) · 문○조(文★祚) · 김봉수(金奉守) · 김재순(金再順).

재상(栽桑)지도원 : 김종열(金宗烈)

징수원 : 정귀동(鄭貴童) · 이수일(李秀一).

축산개량지도원 : 이상호(李相瑚)

양돈개량지도원 : 정서옥(鄭瑞玉)

## 제 6절 고성 지역의 신간회 운동

1919년 3·1운동 이후 제한적이거나 언론·결사의 자유 등이 완화되자 각종 사회단체와 신문·잡지가 발간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민족운동가들은 반일민족의식의 고취와 실력양성론의 선전 등 계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1920년 이후 민족해방운동은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 일제는 1925년 치안유지법을 시행하면서 사회주의 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을 탄압하였다.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즉각



독립론과 외교독립론을 두고 우파와 좌파로 나누어지는 형세가 되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1926년 6·10만세운동과 정우회(政友會) 선언을 계기로 민족협동전선 결성이 재개되었다. 사회주의 사상단체인 정우회는 종래의 경제적 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방향전환을 주장하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의 공동전선 결성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이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1927년 2월 좌우합작 단체인 신간회의 창립이 이루어졌다.

1927년 2월부터 1931년 5월까지 존속한 신간회는 일제 강점하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반일사회운동단체였다. 신간회의 창립은 전체 민족해방운동 세력에게 엄청난 파급력으로 영향을 미쳤다. 신간회 창립시 민족주의계, 기독교계, 천도교구파, 불교계, 사회주의계 등 민족운동의 거의 모든 계열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신간회의 강령은 ①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②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③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제 배격함을 채택하였다. 신간회는 창립 이후 각 지방에 지회 설립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지회 설립을 위해서는 지회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3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뒤 신간회 본부에 설립 신청을 해야 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1927년 말까지 설립된 지회는 전국에 104개였으며, 신간회가 해소된 1931년 5월까지 모두 149개의 지회가 설립되었다.<sup>122)</sup>

신간회는 1920년대 후반 국내와 일본의 민족운동을 주도하면서 그 기반을 확대시켜 나갔다. 그러나 창립 당시부터 좌우익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활동하던 신간회는 일제의 강력한 탄압으로 인해 내부의 분열이 점차 심해지게 되었다. 분란이 계속되던 신간회는, 1931년 5월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에서 제2차 전체대회에서 표결에 부쳐져 결국 4년 만에 해소되고 말았다. 신간회 해소 이후 국내 민족주의자들의 운동은 조직과 중심점을 잃은 채 점차 개량주의화하고, 민족운동에서 탈락하여 친일화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사회주의자들은 농민조합, 노동조합을 개편하여 대중적 성격의 조직에서 이념적 성격의 조직으로 바꾸고, 운동방향도 강경한 노선을 채택하였다.

경상남도 신간지회연합회는 처음 자연발생적으로 경남신간운동자간담회라는 이름으로 김해지회의 주도 아래 추진되었다. 김해지회는 일제가 신간회 전체회의를 금지하자 정기대회에서 지방적 회합을 통해 운동방침으로 정하고 연락을 취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경남신간운동자간담회를 발기해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김해지회는 이 발기안에 대해 도내 여러 지회들에게 찬동을 구하였다. 이에 부산, 동래, 양산, 울산, 밀양, 하동, 진주, 고성지회가 적극적으로 찬동하였다. 마침내 김해지회를 비롯하여 경남지역 8개 지회들이 1929년 4월 20일 회합하여 발기대회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일제 김해경찰은 4월 19일 돌연 김해지회장 배중철(裴鍾哲)을 경찰서로 불러 상부의 지시라고 하며 집회 금지를

122)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참조.

통고하였다. 이에 김해지회 등은 명칭을 바꿔 경상남도신간지회연합회를 설립하기로 발기하고 발기대회를 마산에서 개최하려 하였으나 마산경찰서에 의해 금지 탄압을 당하였다. 김해지회에서는 다시 발기대회를 김해에서 개최한다는 공문을 1929년 10월 11일 각 지회들과 사회단체들에게 발송하였다. 일제는 9월 30일 갑자기 김해지회 위원장을 경찰서로 호출하고 공문 발송 정지를 명령함과 동시에 공문 서류들을 모두 압수하였다. 이후 김해지회는 11월 10일 다시 발기회를 열기로 했다가 또다시 금지 당하였다. 결국 경상남도 신간지회연합회는 공식 단체는 되지 못하고 비공식단체로 긴밀한 상호연락을 실행하였다.<sup>123)</sup>

고성의 신간회 설립은 1927년 10월 17일에 이루어졌다.<sup>124)</sup> 이날 설립대회 축하의 대형 아치가 세워지고 고성청년동맹회관의 기념식장에는 ‘전민족적단일당을 결성하자’, ‘모든 힘은 신간회로 집중하자’ 등의 2대 포어를 게시하였다. 이날 거리에는 악대(樂隊)를 선두로 수천 명의 전단지가 뿌려졌으며,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오후 2시 50분부터 고성청년동맹회관에서 설립대회가 개최되었다. 경과보고와 취지설명, 강령규약을 통과하고 나서 임원선거에 들어가 4명의 전형위원에게 위임하고 잠시 휴회하였다가 3시 35분에 속개되었다. 선출된 임원으로 지회장 천두상과 여러 사람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경성지회와 마산지회, 기타 단체로부터 보내온 축전과 축문이 낭독되었다. 신간회사무소는 고성청년동맹회관에 두기로 결정하고 오후 4시 10분에 만세삼창으로 끝으로 설립대회가 마무리되었다.

이후 신간회 본부에서 고성에 내려 온 안재홍과 홍명희 두 사람을 초청하여 밤 8시부터 기념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강연회에서 홍명희는 ‘민족문제의 일종(一種) 비판’ 을 안재홍은 ‘금후(今後)의 운동’ 이란 주제로 열변을 토하였다. 이때 일제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며 강연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중들은 극도로 긴장하여 일언일구(一言一句)에도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집중시켰다. 강연회는 10시 10분에 종료되었고, 이후 읍내 공영관(共榮館)으로 자리를 옮겨 홍명희와 안재홍을 환영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신간회 고성지회는 일반인들의 지지와 격려를 힘입어 매주 한 차례씩 모임을 갖고 인식문제, 조직문제, 내외전선통일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11월 26일에는 간사회를 소집하여 정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위원으로 황웅도(黃熊度)·천성락(千性洛)·최봉기(崔奉琪), 의안작성위원으로 천두상(千斗上)·박맹룡(朴孟龍)·전갑봉(全甲奉) 등을 선출하였다.<sup>125)</sup> 고성 신간회는 12월 31일 오후 4시부터 고성청년동맹사무소에서 제1회 정기대회를 개최하고, 의장 천두상(千斗上), 서기 전갑봉(全甲奉)의 임시

123) 신용하, 앞의 책, 127~128쪽 참조.

124) 『동아일보』 1927년 10월 21일.

125) 『동아일보』 1927년 12월 9일.

집행하에 앞서 있었던 회의록과 각 부의 경과보고를 마치고 임원개선에 들어가 규약에 따라 임원 정수의 배수를 전형위원으로 선출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전형위원은 전갑봉 외 19명이었는데, 무기명 투표의 결과는 회장 천두상 15표, 부회장 박맹룡(朴孟龍) 9표, 간사 김철동(金鐵同) 14표 등의 결과가 나왔으며, 192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수입·지출 각 230원 90전의 내역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본부 대회에 출석할 대표회원으로 천두상과 전갑봉을 투표로 선출하였다. 이후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을 비롯하여 일본 및 국내 각지에서 보내온 축문과 축전을 낭독하고, 세계정세와 국내정세에 대한 보고가 있는 후 토의에 들어가 안건을 결의하였다.

먼저 본부대회에 건의할 내용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획득에 관한 건, 재만(在滿) 동포 구축(驅逐)대책에 관한 건, 기관지 발행에 관한 건, 동척(東拓) 및 기타 이민반대(移民反對)에 관한 건, 대중의 교양기관설치에 관한 건 등 5개 조목을 간사회에 일임하여 동부대회에 제출할 모든 조건을 구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특수사정과 관련하여 농업학교 기성회에 관한 건, 수리조합에 관한 건, 노동자 교양에 관한 건 등을 해결하되 간사회에 일임하여 그 정책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이때 간사회도 개최되었는데 부문별로 담당자로 서무·재정부총 전갑봉, 정치·문화부총 황판석(黃板石), 조직·선전부총 이총수(李總洙), 조사·연구부총 황웅도(黃熊度)로 정하였다.<sup>126)</sup>

1928년 1월 14일에는 1928년 제2회 간사회를 서외동에 있는 사무소에서 개최하고 입회원 수리와 본부대회 대의원과건 여비 기채문제(起債問題)에 대하여 장시간 토의를 진행하였고, 신간회가 민족단일당인 것과 신간회의 취지를 선전하고 각 계급을 망라하기 위해 회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고성군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간사가 각 구역을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

거류·동해면 : 김철동(金鐵同)

마암·회화·구만면 : 천두필(千斗必)·김갑봉(金甲奉)

개천·영오면 : 황판석(黃板石)·심희조(沈熙祚)

영현·대가면 : 천두상(千斗上)·최봉기(崔奉琪)

삼산·고성·상리면 : 황웅도(黃熊度)

하일·하이면 : 박맹룡(朴孟龍)·이덕수(李德洙)<sup>127)</sup>

1월 25일에는 긴급 간사회를 열고 2월 15일의 창립기념에 대한 것과 대표회원 여비를 마련하는 것과 보통학교생도의 피타(被打) 사건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26) 『동아일보』 1928년 1월 4일.

127) 『동아일보』 1928년 1월 17일.

첫째, 2월 15일의 창립기념일에는 빠라를 살포하고, 오후 2시를 기하여 기념식을 거행하고 기념강연을 진행하는데 연사는 황응도, 김철동, 황관석, 천두필, 박맹룡의 5인으로 선정하고 준비사무까지 일임하기로 함

둘째, 본부 대회의 대표회원 2인분의 여비마련 방안에 대하여는 간사 10인이 각기 5원씩을 2월 7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함.

셋째,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 생도가 작당하여 보통학교생도를 구타한 사건에 대하여 생명절망(生命絶望)이라고 의사가 진단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과 학부형회에서 하등(何等)의 진지한 성의가 보이지 않을뿐더러 일인 생도가 조선인 생도를 작당하여 구타한 사실은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으므로 우선 양 학교에 문책하여 민족문제로서의 적극적 전개를 기약함.<sup>128)</sup>

신간회고성지회에서는 2월 18일에는 간사회를 열고 이진만(李鎭萬) 외 2인의 입회원서를 수리한 후 서무재정부 상무간사 천두필(千斗必)의 사면(辭免)에 대하여 이형황(李滢橫)을 보선(補選)하였고, 회원 중 유재현(劉在炫)이 옥천사(玉泉寺) 주지(住持)로 선정되었는데, 신간회 운동에 지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서무재정총무간사 전갑봉을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2월 25일에는 오후 8시에 총무간사회를 서외동사무소에서 열고 신병진(申秉珍) 외 3인의 입회원서를 수리한 후 오만수(吳萬壽) 외 3인의 월의무금(月義務金)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거처가 불명한 권사문(權士文)을 제명한 후 옥천사(玉泉寺) 주지 유재현(劉在炫)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출한 탈회원서(脫會願書)를 수리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정하였다.

신간회고성지회에서는 1928년 12월 30일 제3회 정기대회를 청년동맹회관내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모든 준비는 위원 6명을 선거하여 일임(一任)하였고, 전국대회 건의안과 지회대회 건의안의 초안(草案)을 작성하였으나 당국의 검열을 거치게 되었다. 정기대회는 예정대로 개최되어 사무보고와 세칙통과(細則通過), 예산안통과는 무사하게 진행되었으나 지방정세 보고와 전국대회 건의안과 토의사항 일체는 검열과정에서 금지 당하고 폐회하게 되었다.<sup>129)</sup> 신간회의 활동에 대해 일제는 검열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에 있었다.

1929년에 4월 13일에는 조선일보 고성지국내에서 제4회 간사회를 개최하고 박맹룡을 의장, 천두상을 서기로 선출한 후간사정리에 관한 건, 회원정리에 관한 건, 회비징수에 관한 건, 원유회(遠遊會) 주최에 관한 건, 철성의숙 복교운동에 관한 건 등의 사항을 의결하고

128) 『동아일보』 1928년 1월 30일.

129) 『동아일보』 1929년 1월 3일.

다음날 새벽 1시에 폐회하였다.<sup>130)</sup> 신간회 고성지회에서는 고성지역 사회운동자의 원유회를 통영의 안정사(安靜寺)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만반의 준비를 진행하였는데 경찰당국으로부터 본부(本部) 대회를 금지당한 지회에서 개최하는 것이어서 불온(不穩)하다는 이유로 금지당하였다.

8월 11일에는 고성청년동맹회관에서 모임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일반인의 방청을 금지시키고 정사복 경관 여러 명이 엄중하게 경계하며 모임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맹룡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천두상이 전국운동 상황보고를 하기 위해 강단에 오르는 것부터 경찰로부터 제지당하고, 또 시국문제에 대해서도 일체 토의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이에 대한 모든 것을 신임집행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간부 개선에 들어가 집행의장으로 천두상을 선출하고 오후 4시에 폐회하게 되었다. 이때 선출된 임원은 서기장 전갑봉, 회계 황응도, 서무부장 전갑봉, 재정부장 황응도, 조직선전부장 박맹룡, 조사부장 구종근, 교육출판부장 황관석, 감사위원장 김상욱, 감사위원 이재홍·문성률·심희조 등이었다.<sup>131)</sup> 8월 17일에는 제1회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신간회 경남도지회 연합회를 마산지회와 합동 발기할 것과 분회설치(分會設置) 건을 토의 결정하였다.

고성신간회는 1929년 12월 중에 정기대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지만 경찰 당국의 금지로 무산되었다. 이후 1930년에 들어 금지조치가 풀려 1월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고성청년동맹회관에서 제3회 정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정기대회가 열렸지만 경찰로부터 전국적운동과 시국문제는 일체 상정하지 말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집행부 전갑봉과 박맹룡이 경과보고와 결산 및 예산안을 상정하고 세칙통과가 가결된 후 위원개선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각지에서 보내온 축전과 축문 낭독이 있었는데 3통은 경찰에게 압수당하기도 하였다. 선출된 임원은 위원장 전갑봉, 위원 황응도·황관석 외 8인이었고, 토의사항은 지회연합회 조직에 관한 건, 본부회관 건축에 관한 건, 신간잡지발행 불인(不認)에 관한 건, 신간회 세력 확충에 관한 건 등이었다.<sup>132)</sup>

5월에는 고성·통영 양군 운동자 간담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고성경찰서에는 불온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금지시켰다. 일제는 신간회를 비롯하여 각 사회단체의 활동을 억압하거나 아예 금지시키는 조치를 수시로 단행하였다. 즉 지방 지회 간부들의 검거와 투옥, 지방 대회와 집회의 참가 금지, 회의장에서의 '토의' 금지, 결의문이나 성명서 발표 금지, 강연회 개최나 강연 금지 등 다양한 형태로 탄압하였다.

130) 『동아일보』 1929년 4월 17일.

131) 『동아일보』 1929년 8월 19일.

132) 『동아일보』 1930년 1월 20일.

고성신간회의 활동은 순탄하지 않았다. 1930년 12월에 개최하려던 제4회 정기대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기되어 해를 넘겨 1931년 1월에 성사되었다. 1월 11일 오후 1시 20분에 신간회회관에서 개최되었는데 회의장에 참석한 경찰의 수가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엄중한 감시하에 진행되었다. 집행부 의장에 황응도, 서기 박맹룡을 선출하여 진행되었으며 경찰로부터 주의를 받은 국제 및 국내정세보고와 신간회 활동 보고가 있는 후 임원개선이 있었고, 각지로부터 도착한 축전과 축문의 낭독이 있었는데 부산신간지회와 부산청년동맹에서 보내온 축문은 경관으로부터 압수당하였다. 특히 신간회 해소문제(解消問題)에 있어서는 갑론을박으로 장시간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신임위원회에서 해소론을 성문(成文)하여 공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재정문제 건, 모집문제 건, 본부 제의안(提議案) 작성 건, 사회운동자 신년 간친회(懇親會) 개최 건 등을 토의 결의하고 폐회하였다. 개선된 임원은 위원장 김갑봉, 위원 황응도·천상봉·박맹룡·임기홍(林基弘)·오광수·김천원(金泉元), 감사위원 구종근(具鍾根)·김철동(金鐵同)·심자원(沈子元)이었다.<sup>133)</sup> 그리고 이날 집행위원회가 열려 다음과 같이 부문별로 임원을 정하였다.

서기장 황응도, 회계 천상봉(千翔鳳)

서무부장 황응도, 부원 임기홍

재정부장 천상봉, 부원 김천원(金泉元)

조직조사부장 오광수, 부원 박맹룡

1월 15일에는 제4회 정기대회에서 결의한 고성사회운동단체 신년간친회를 청년동맹회관 내에서 전갑봉의 사회로 개최하였다. 참가한 단체는 신간지회, 농민조합, 노동조합, 청년동맹, 소년동맹의 5개 사회단체이며, 참석한 회원은 50여명에 달하여 일대 성황을 이루었다. 이 간담회에서 토의한 중요 안건은설치하려는 수리조합문제, 전기료 감하(減下) 문제, 물가 인하 운동 개최의 건, 각 단체회관인 청맹회관 수리의 건 등이었으며 실행위원으로 신간회지회의 전갑봉·구종근, 농민조합의 황응도·박맹룡, 청년동맹의 김종원(金宗元)·임기홍(林基弘), 소년동맹의 정찬주(鄭贊柱)·박희상(朴希祥), 노동조합의 김우열(金又烈)·안순조(安順祚)가 선출되었다.<sup>134)</sup>

일제는 1927년 신간회를 합법적 사회단체로 허가한 후 수개월 뒤부터 이를 후회하고 신간회 해체를 위한 여러 가지 공작을 진행시켰다. 서울과 각 지방 지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근거도 없이 간부나 회원들을 수시로 검속하거나 집회를 금지시키는 등 신간회 해체를 위한 각종 탄압을 가하였다. 그러나 각 지방 신간회지회의 활동은 위축되지 않았고, 더

133) 『동아일보』 1931년 1월 16일.

134) 『동아일보』 1931년 1월 19일.

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런데 1930년 12월 신간회 부산지회 제5회 정기대회에서 신간회 ‘해소(解消)’ 문제가 정식으로 표면화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이후 신간회 해소론은 각 지회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1931년 1월 11일 신간회고성지회 제4회 정기대회에서 논의된 해소론도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나타난 것이다.

신간회 해소 또는 해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신간회 중앙본부는 5월 15~16일 전국전체대회를 열기로 하고 의안으로 ① 해소문제 비판의 건, ② 행동강령 확립의 건, ③ 조직 및 연락방침의 건, ④ 재정방침 확립의 건, ⑤ 회관 건축의 건, ⑥ 침체지부 부흥의 건 등을 설정하였다. 신간회 전국전체대회는 예정대로 개최되었지만 지회를 다수 장악하고 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해소파는 이 대회에서 기필코 신간회를 해소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조직적으로 준비하였다. 대회 둘째 날 ‘해소문제 비판의 건’이 상정되어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43표와 반대 3표로 해소안이 가결되었다. 이후 해소된 이후의 활동방침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려고 하였으나 일제 경찰은 신간회는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다른 의안의 토의는 모두 금지한다고 통고하고 해산을 명령하였다. 1927년 2월 15일 창립되어 민족운동사에서 커다란 성과를 낸 신간회는 1931년 5월 16일 아쉽게도 해소되고 말았다. 신간회가 해소된 후 한국인의 민족운동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노동운동과 농민운동도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받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 제 7절 고성의 여성 운동

일제강점하의 여성운동에 대한 자료는 다른 분야에 비해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빈약하다. 1919년 3·1만세운동 이후 고성지역에서 민족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여성운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제안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결실이 맺어지는 것은 1920년대 중반 이후였다.

1925년 고성청년회를 중심으로 통영과 사천, 남해의 4개 군 연합사상 운동자 간담회 개최가 준비되는 가운데 의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노동운동에 관한 건, 여성운동에 관한 건, 형평운동에 관한 건, 청년운동에 관한 건, 교양문제에 관한 건, 사회국면에 관한 건, 연합기관에 관한 건 등이었다.<sup>135)</sup> 주목되는 것은 노동운동에 이어 여성운동이 두 번째 안건으로 제시될 정도로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26년에는 사상단체인 혁진회(革進會)가 경남 고성서 창립되었다. 혁진회에서는 3월 15

135) 『시대일보』 1925년 11월 14일.

일 동아일보사 고성지국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하였다.

#### 결의사항

1. 全固城 사회운동자대회 개최에 관한 건
1. 월례회에 관한 건
1. 사회운동방향에 관한 건
1. 여성교양에 관한 건
1. 여성단체조직축성에 관한 건
1. 反宗教운동에 관한 건
1. 임시강좌 개최에 관한 건<sup>136)</sup>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활동방향을 설정한 것 이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교양과 여성단체조직 축성에 관한 건으로 확인된다. 고성지역의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여성교육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행에 옮기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고성청년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주관으로 5월 9일 정종명(鄭鍾鳴), 강(姜)아근이아가 고성에 온 것을 기회로 여성 대강연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정종명은 1920년대 초반부터 여성의 교육기회 부여, 여성의 사회운동 참여 등을 주장하며 민족주의계의 영향을 받으며 활동하다가 이후 사회주의계로 전환하여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1925년 5월 동지 박원희(朴元熙)·김필애(金弼愛)·정칠성(丁七星)·허정숙(許貞淑)·주세죽(朱世竹)·오수덕(吳壽德) 등 20여 명과 함께 사회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한 최초의 여성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朝鮮女性同友會)를 서울에서 조직,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나중에 근우회(槿友會)를 조직하여 항일과 계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인사를 초청하여 개최하려던 강연회는 당국으로부터 시사문제(時事問題)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구실로 허가를 받지 못해 부득이 좌담회 형식으로 변경하여 열리게 되었다. 대강연회가 좌담회 형식으로 축소되었지만 무려 천여명에 달하여 많은 청중이 시작 전부터 운집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좌담회는 구종근(具鍾根)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아근이아가 러시아에 있는 여성의 생활을 비롯하여 교육방법과 단결이 많은 것을 설파(說破)하였고, 이어서 정종명이 등단하여 원시공산(原始共產)시대로부터 모권(母權)시대 현하(現下) 자본주의시대까지 변천하는 동안의 여성에 대한 일체를 빠짐없이 설파하여 청

136) 『시대일보』 1926년 3월 19일.



중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에 좌담회에 참석하여 감시하고 있던 사복경관이 연설을 중지시키자 연사는 “사복한 사람이 중지를 시킴은 불법이다” 하여 항의하자 정복(正服)의 경관이 갑자기 나타나 중지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후 연사와 청중은 좌담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중지시키는 일경에 대해 비난과 항의를 계속하다가 해산하게 되었다.<sup>137)</sup>

고성군에서는 여성해방운동단체가 없어 여성계에서는 물론이고 일반사회에서는 큰 유감으로 여기고 있는 중에 이영순(李英順), 주소남(朱小南) 외 많은 여성들의 발기로 고성여자청년회의 조직을 준비하였다. 여성단체 조직 작업에 들어간 후 1926년 5월 14일 동외동(東外洞) 이영순의 집에서 발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의장 이영순의 사회로 창립총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5월 17일 오후 8시 고성청년회관에서 고성여자청년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규약과 강령제정위원으로 이영순, 주소남을 선정하였다.<sup>138)</sup> 고성여자청년회에서는 5월 22일 오후 10시에 동외동 이영순 집에서 제2회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시의장 이영순의 사회로 다음과 같은 결의가 있는 후 동 10시 40분에 폐회하였다.

#### 결의내용

1. 교양문제(자체교양, 대외교양)
1. 선전문제(출판, 언론)
1. 일반운동에 관한 건
  1. 사회운동을 목표로 하고 창립된 고성여성각성회와 제휴하여 보조를 같이 할 것
  1. 집행위원 증선(增選) : (서무부 천두능(千斗能), 교양부 원필년(元必年), 조사부 김우희정(金又喜正))
  1. 본회의 월례회를 오는 6월 2일 오후 8시에 개최할 것<sup>139)</sup>

고성여자청년회에서는 활동범위와 내용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운동을 목표로 창립된 고성여성각성회와 제휴하여 보조를 같이할 것을 결의하고 있는 내용이 주목된다.

고성지역에서는 고성여자청년회 이외에 고성여성각성회가 조직되었다. 고성여자청년회가 설립된 후 회원자격을 두고 퇴기(退妓)는 가입할 수 없다고 하여 별도의 단체를 조직한 것이 고성여성각성회이다. 고성여성각성회에서는 5월 22일 오후 9시에 성내동 정진남(鄭鎭

137) 『시대일보』 1926년 5월 16일.

138) 『시대일보』 1926년 5월 17일.

139) 『시대일보』 1926년 5월 26일.

南) 집에서 제2회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장 길혜성(吉慧星)의 사회로 진행하여 집행위원 서무부 명복수(明福守), 김남룡(金南龍), 조사부 정계향(丁桂香)을 선출하고 오후 1시에 폐회하였다.<sup>140)</sup>

고성여성각성회에서는 1926년 5월 25일 오후 9시부터 회관 건축을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성청년회관내에서 활동사진을 영사하였고, 만장(滿場)한 관중들로부터 많은 동정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시대일보 1926년 5월 29일》

이후 고성여성각성회는 고성여자청년회와 별도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인산일(因山日)에 고성의 각 지역에서도 봉도식(奉悼式)이 거행될 때 여성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관공서 일동은 고성군청 뜰에서, 시민 일동은 고성의 미시장(米市場:객사마당)에서, 학교직원과 생도 일동은 학교 교정에서, 여성각성회 회원들은 남산에서 각각 봉도식을 거행하였다.<sup>141)</sup>

6월 22일에는 혁신회 회원 구종근(具鍾根), 김상옥(金相煜), 전갑봉(全甲奉) 3인을 초빙하여 오후 9시 30분에 성내동에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좌담회에서 구종근은 ‘민족, 사회, 공산 3주의에 대한 운동성질’을, 김상옥은 ‘대중운동의 반동분자를 퇴치하고 끝까지 굳세게만 나아가면 결국에는 우리의 이상대로 되리라’는 내용을, 전갑봉은 ‘3조목의 강령해설과 현재의 운동상황을 들어 장래의 발전성’을 설명하는 등 밤 12시까지 이어지는 열기가 있었다.<sup>142)</sup>

여성단체의 활동에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던 고성경찰서에서 7월 11일 여성각성회의 문서들을 갑자기 압수한 후 7월 13일에 위원 박정숙(朴貞淑), 길옥(吉玉), 김달수(金達水), 주북실(朱北實), 정계향(丁桂香) 5인을 호출하여 종일토록 취조하고 매인에게 벌금(罰金) 5원씩에 처벌하였다. 이 사건은 여성각성회에서 창립 초기부터 회관을 건축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방책을 강구하던 중 영화를 상영하여 동정금 약 1백원을 모금하게 되었는데 경찰서에서는 무조건 동정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여성각성회에서는 동정금 모금이 불법이라는 것에 불복하고 여러 명으로부터 동정금을 접수하였는데, 이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법률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동정금을 영수(領收)한 자를 처벌하는데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고성지역 여러 단체에서는 경찰의 가혹한 처벌을 비난하며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여성각성회에서는 정식으로 항의할 것을 준비하였다.<sup>143)</sup>

1927년에는 각종 사회운동의 방향 전환이 모색되고 합동통일로 진전되어가는 추세에 있

140) 『시대일보』 1926년 5월 27일.

141) 『시대일보』 1926년 6월 14일.

142) 『시대일보』 1926년 6월 26일.

143) 『시대일보』 1926년 7월 17일.

었다. 이러한 가운데 고성지역에서는 1927년 1월 15일 고성청년회관에서 고성사회단체 대표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고성청년회를 비롯하여 10개 단체에 45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열기를 띠었으며 사상운동, 청년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형평운동(衡平運動), 여성운동, 소년운동, 일반문제, 정우회(正友會)선언에 관한 건, 실행위원선거에 관한 건 등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1월 16일 고성청년회관에서 개최된 고성사회단체대표간담회 실행위원회에서는 여성단체 합동에 대하여 오는 음력 15일에 양 단체 합동위원회를 개최케 하여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케 할 것, 소년문제는 의회집행위원회를 소집케 하고 실행위원이 출석 해결케 할 것, 일반문제인 실업학교 설치에 관하여 시민대회를 소집하되 일후에 다시 실행위원회를 모아서 구체적 방침을 취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sup>144)</sup> 이 시기에도 여성운동이 여전히 청년이나 농민, 노동, 형평운동과 같이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고성여자청년회와 고성여성각성회의 통합도 모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성청년동맹에서 경영하던 고성야학교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1927년부터 고성노동조합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고성야학교는 고성군민의 교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으며, 1928년에는 야학생 모집규약을 보완하여 학생을 모집하였다. 입학대상자는 8세 이상의 농민 자제로 모집정원은 약 50명과 2, 3학년 보결생 약간명이었다. 이와 함께 여자야학을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고성여자야학교는 농촌여성의 문맹퇴치에 많은 공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성군내에서도 한 곳 뿐이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sup>145)</sup>

일제강점기 여성운동은 근우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19년 3·1운동 직후에 조직되었던 많은 항일 여성단체들은 일제의 강력한 탄압으로 해체되었다. 이후 여성운동은 교육운동과 민족경제 진흥운동, 종교계 여성단체를 통한 신앙운동이나 생활향상 계몽운동으로 전환되어 갔다. 이와 같은 여성운동은 1924년 이후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조선여성동우회가 조직되면서 민족주의적 방향과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분열된 국내외의 항일민족운동을 통합해 보다 강력한 민족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1927년 2월 신간회(新幹會)가 조직되었으며, 여성계에서도 여성운동의 통합론이 일어나 분위기가 조성되어 마침내 1927년5월 근우회가 조직되었다.

근우회의 주요 활동과 사업 가운데 사회운동의 실태 조사와 참가를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28년 고성보통학교 학생 이용진이 일본인 학생들에게 구타당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진상을 조사하여 성토하는 등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고성공립보

144) 『동아일보』 1927년 1월 20일.

145) 『중외일보』 1928년 3월 22일.

통학교 학생타살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1927년 12월 23일에 고성공립보통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성내동 이성중의 3남 이용진(李龍振)이 동교 4학년 박종열, 차동지 등과 함께 학교에 갔다가 나와서 동네에 있는 소학교 부근에서 놀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놀던 땃가지가 소학교 운동장에 떨어져 그것을 주우려고 들었다. 그런데 소학교 학생 수명이 돌연히 달려들어 이용진을 붙잡고 꼼짝 못하게 하여 발로 옆구리와 등을 차며 무수히 때려 정신을 못차리게 만들어 두고 달아나 버렸다. 이용진은 겨우 정신을 차려 돌아온 후 전신에 열이 오르기 시작하고 옆구리에서 고름이 나며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용진은 곧바로 고성읍내 대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원장 이종완(李鍾完)은 진찰 후 “그 애 병은 요척주(腰脊柱)카리에스라는 것인데, 이 병이 생기는 동기가 여러 가지로 있으나 강한 자극을 받아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여하간 이용진의 회생은 절망이외다. 그러나 철도국병원(鐵道局病院)같은 설비가 충분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하여 다행히 낫는대도 1년, 2년이라는 한정 없는 시일이 걸릴 것이외다.” 라는 절망적인 소견을 내렸다.<sup>146)</sup>

신간회 고성지회에서는 이용진 학생을 소학교 학생이 작당하여 구타한 결과 피해 학생이 회생할 가망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것을 심상하게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긴급 간사회를 열었다. 이용진은 그 후 진주도립 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다가 1월 28일 오후 7시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시신은 곧바로 고성에 있는 본가로 운반하였으며, 고성보통학교 부형회에서는 천두상(千斗上)을 진주로 급파하여 동 병원에 부상 정도, 기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상세히 조사하게 하였다. 당국에서도 만일을 염려하여 도처에 인력을 배치하여 경계하였고, 고성의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모종의 대책을 강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

고성공립보통학교 생도 이용진의 장례식은 1928년 1월 30일에 수천 군중이 모여긴장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장례식에 따라갔던 보통학교 5, 6학년 생도 전부는 돌아오는 길에 가해자가 있는 일본인 소학교에 몰려가서 교장에게 “이용진을 죽게 한 이유를 말하라! 죽도록 때린 생도의 이름을 알려라! 우리 ××××다!” 하며 소동을 일으켰다. 또한 고성 관내 일반인의 분위기매우 험악하므로 경찰 당국은 즉시 비상소집을 하고 서장 이하 전 서원이 출동하여 각 면 주재소 순사를 비상소집하여 시내 요처마다 경계를 강화하는가 하면 관공리(官公吏)들까지도 일제 출동하여 학생이나 또는 일반인들의 시위가 있을 것을 대비하였다. 그리고 신간회지회의 천두상, 농민조합의 황응도, 노동조합의 임형규 3인을 30일 저

146) 『중외일보』 1928년 1월 26일.

덕부터 다음날까지 취조를 하는 동시에 각 단체 책임자를 소환하여 소학교 보통학교의 질문까지도 못하게 하며, 이용진 사건으로는 어떠한 회합이라도 금지를 선언하여 일체 단체적 행동은 못하게 하였다. 또한 각 신문기자를 소환하여 주의를 시키는 등 아무것도 못하게 하였고, 가해자 가족들은 어디로인지 피신하고 집을 비어두어 버렸으며, 길가에서는 소학교 생도의 왕래를 볼 수가 없었으며, 왕래하는 아동은 선생의 호위로 겨우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험악한 상황이 전개되었다.<sup>147)</sup>

이러한 상황에서 근우회 중앙본부에서는 2월 1일 정기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성보통학교 이용진 학생 피타사망 사건에 대하여 ‘조선사람 전체가 ××할만한 사실이므로’ 재경 각 단체와 연합하여 성토강연회를 열기로 하고, 또한 성토 전단지 제작하여 살포하고 사망한 이용진 학생의 가족에게는 조위문(弔慰文)을 작성하여 보내기로 결의하여 정치부 의원 전부와 그 외 황신덕, 김선, 이현경 등을 위원으로 선정하였다.<sup>148)</sup> 이용진 학생이 일본 학생들에게 집단 구타당하여 사망한 사건은 고성군 관내 각 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중앙의 여러 단체들을 결속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용진을 구타하여 사망하게 한 소학교 학생 6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려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하였지만 고성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한편 1929년 6월에는 고성에서 근우회지회가 설립되었다. 근우회는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계 여성단체와 1924년 최초 사회주의 여성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女性同友會) 등의 사회주의계 여성단체를 통합한 여성운동조직이다. 근우회는 가부장제의 폐습과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여성운동의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교양부 중심의 여성 계몽운동으로, 부인강좌와 순회강연, 각 지회에서 야학운동 등으로 여성들의 문맹을 퇴치하고, 여성으로 하여금 남녀평등의 사회의식과 자주적 민족의식을 깨우쳐 민족운동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고성에서는 근우회를 설립하기 위해 신간회고성지회에서 천두상(千斗上)을 알선(斡旋)위원으로 하여 준비한 결과 5월 26일 고성의 신진여성 10여 명이 고성청년동맹회관에 회합하여 협의한 후 즉석에서 설치준비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준비위원회에서는 6월 1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내에 야치 등을 설치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일반인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당일에는 근우회 간부 박호진(朴昊辰)을 초청하여 강연하는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하였다.<sup>149)</sup>

147) 『중외일보』 1928년 2월 1일, 2월 6일.

148) 『중외일보』 1928년 2월 3일.

149) 『중외일보』 1929년 6월 11일.

고성에 근우회지회가 설립되기까지는 1년여의 준비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1928년 5월 『중외일보』 기사에는 고성사회단체 운동력은 경남 일대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 설립된 사회단체로 신간회지회청년동맹, 신흥과학연구회, 농민조합, 노동조합 등의 단체가 있으며, 근우회지회 설립은 관련 인사들에 의해 준비중이라 하여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각 단체의 중요 간부도 소개하고 있는데, 신간회지회의 박맹관(朴孟寬)·이덕수(李德洙)·전갑봉·최봉기(崔奉琪), 청년동맹의 김철동(金鐵同)·오광수(吳光壽)·천경준(千景遵), 신흥과학연구회의 오만수(吳萬壽), 농민조합의 천두상·황응도·문성율(文性律)·구종근, 노동조합의 임형규·이재홍(李在洪)·조길윤(趙吉允)·이명조(李命祚)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sup>150)</sup> 이들은 고성의 여성운동을 주도할 근우회지회 설립을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1929년 들어 고성근우회지회에서는 매월 음력 15일마다 정기 강좌를 열고 회원과 일반부녀에게 사회적 의식을 넓히기로 하고 7월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7월에 한하여는 양력 15일부터로 하고, 회원이 아닌 일반 부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강사는 신간회 고성지회의 천두상을 초청하여 개최하였다.<sup>151)</sup>

고성근우회지회에서는 한여름 농번기를 맞아 농사에 땀을 흘리며 애쓰는 농민부녀(農民婦女)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납량가극회(納涼歌劇會)을 열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sup>152)</sup>

1929년 11월 11일 근우회 고성지회는 고성청년동맹회관에서 조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를 열고 집행위원장 김경신(金敬信)의 사회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 결의 사항

1. 고성여자소비조합 발기의 건
1. 한재(旱災) 대책에 관한 건
  1. 임시대회를 15일 오후 8시 청맹회관에서 개최할 일
1. 위원보선의 건
1. 회원정리의 건<sup>153)</sup>

150) 『중외일보』 1928년 5월 17일.

151) 『동아일보』 1929년 7월 12일.

152) 『동아일보』 1929년 7월 19일.

153) 『동아일보』 1929년 11월 16일.

이러한 상황에서 고성여성각성회의 주축이 되고 있던 고성권변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며 동맹파업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당시 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남 고성에는 작년에 비롯 처음으로 천모(千某)의 진력으로 고성권변(固城券番)이라는 것이 조직되고 이래 천모 외 수씨가 주무하여 나오던 중 종종 기생을 전체적으로 하는 행동이 많다하여 불평의 소리가 들리더니 지난 18일부터는 기생 전부가 출석하지 않고 남자임원을 배척한다는데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듣건대 남자 임원은 기생을 인간같이 대접함이 없고 권변일도 남자 독재주의로 하여 오던 중 지난 19일에는 권변 일동이 천유희(천유희)를 하게 되었는데 바 총무 천모는 술이 취하여 기생을 구타하며 입으로 차마 하지 못할 욕설을 함부로 하여 괴상망측한 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모욕을 받은 기생 이십여 명은 그 자리에서 굳게 결속하여 반항하며 ‘우리의 일은 우리의 손으로 하겠으니 남자 임원은 총사직하라’ 하여 결국 19일에는 남자 임원 조합장 김성오(金性五) 이하 전부가 총사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총사직 하는 동시에 그들의 부정사실이 폭로되었으니, 즉 그 권변의 현금을 비밀리에 백원 가량을 대부한 일이 있으며, 또 어떠한 포목상에 권변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물품을 가져온 일 등이 발로된 것이라는데 이 문제가 차차 확대될 듯하다더라.<sup>154)</sup>

고성권변의 기생이 남자 간부에 대항하여 동맹파업을 하자 경찰서까지 간섭하게 되어 관련 문서와 현금 등을 압수하는 동시에 남자 간부 3인을 검거하여 조사한 후방면하였으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였다. 고성경찰서에서는 5월 26일 고성권변의 기생 전부를 호출하여 경찰서 구내에서 임시총회를 열게 하고, 간부 전부를 투표개선하게 하여 기생들의 의사에 따라 개선하여 사태를 일단락 짓고자 하였다. 이 사건으로 고성권변의 기생과 남자 간부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면서 두 파로 나뉘게 되었고, 그 중 일파에 소속한 김준석(金準錫)과 사람이 전부 개선되었기 때문에 다른 한쪽의 천상욱(千相旭) 파에서 그대로 묵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파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때 개선된 간부는 다음과 같다.

취체역(取締役) : 김준석(金準錫)

부취체역 : 김개이(金介伊)

감독 : 윤계수(尹桂秀)

회계원 : 이평원(李平源)

평의원 : 이옥주(李玉珠) · 이홍도(李紅桃) · 김해중월(金海中月)<sup>155)</sup>

154) 『중외일보』 1927년 5월 24일.

고성권번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고성권번 기생 일동은 남자 간부를 배척하기 위하여 수일을 두고 과업한 결과 최초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권번내에서는 두 파가 갈라진 이후에 서로 반목함이 증폭되었다. 취체역으로 당선된 김준석과 감독으로 당선된 윤계수 2명에게 발신인 없는 편지 한 장이 왔는데, 그 내용은 “아무 죄가 없는 천 상옥을 권번에서 쫓아내어 보내고 너희들은 그대로 권번에서 일하고 있으면 죽인다.” 라는 협박문이었다. 이에 두 사람 모두 사직하는 사태에 이르러 고성권번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처지가 되었다.<sup>156)</sup>

고성지역의 여성운동은 근우회 지회와 고성여성각성회를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운동참여, 권익주장, 여성농민의 지원 등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 제 8절 고성지역 청년운동

고성청년단의 창립의 배경은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가 표면적으로나마 식민지정책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고성의 청년운동이 전개되는 요인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족문제의 각성과 지식인사회에서의 움직임에서 구체화되었다.

고성에서는 1914년 개화 지식인 박거수(朴居洙)가 설립한 철성의숙(鐵城義塾) 졸업생들의 활동에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사회운동가의 등장과 단체, 그리고 인근 진주지역을 통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사상적 모색으로서 사회주의의 도입을 꾀할 수 있다. 각 지역의 대중운동은 지역에서 성장한 사회세력으로부터 그 운동의 기반을 찾아야 할 것이다. 3·1운동은 계층과 세대를 불문하고 민족적 자각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 특히 각 지역에서 청년단체가 사회 운동 단체로서 조직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게 되자 고성지역에서도 크게 자극을 받게 되었다.

고성청년단의 창립에 관한 기존의 견해를 보면 1920년 12월 2일 조선청년연합회 창립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권정현(權正鉉) 등에 의해 태동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성 지역의 청년운동은 1920년 2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청년연합회 창립 목적은 첫째, 조선인의 각 청년단체를 연합하고, 둘째, 각지에 여러 청년단체를 조직 발달 시킴을 목적으로 하였다.

155) 『중외일보』 1927년 5월 30일.

156) 『중외일보』 1927년 5월 31일 ; 6월 10일.



고성지역 청년단체는 1920년 12월 조선청년연합회 창립총회 이전에 창립되었다. 그러나 당시 신문 보도에 나타난 창립시기와는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경남 고성군청년단에서는 내10월 5일에 창립기념축하식을 거행하고 여흥으로 추기청년대 운동회를 개최하고 동일 야(夜)에는 토론회가 있는데 논제 급 연사는 여좌하다고.

논제 : 현대의 급무는 산업이나 교육이나

산업편(産業便) : 이갑상(李甲祥) 김갑성(金甲聲)

교육편 : 황응도(黃熊度) 배기돈(裴琪敦)

비판 : 김종주(金鍾注), 오덕근(吳德根), 정규훈(丁奎勳), 이귀수, 천두상(千斗上)<sup>157)</sup>

경남 고성청년단에서는 기보(既報)와 같이 제5주년 창립기념축하식을 거(去)5일 오전 10시에 동 회관에서 단장 오덕근(吳德根)씨 식사(式辭)로 개최하여 내빈 제씨의 축사가 유한 후 동 11시에 폐회하고 인속(引續)하여 정오부터 동 운동장에서 명랑한 음악리(音樂裡)에 추계대운동회를 개하였는데 동 학원 주야학생(晝夜學生) 백여명의 민활(敏活)한 행동과 일반단원의 용감스러운 자세는 관중 천여 명에게 막대한 쾌거(快擧)를 주었으며 동야(同夜) 8시부터 현상토론회(懸賞討論會)가 있어 일반연사의 열렬한 웅변을 토하였는데 연제(演題)와 수상자는 여좌(如左)하다고.

우리의 급무(急務)가 산업이나? 교육이나?

1등 배기돈(裴琪敦), 2등 황응도(黃熊度) 이상조(李甲祚), 3등 조정권(曹正權) 배만두(裴萬斗) 김갑성(金甲聲) (고성)<sup>158)</sup>

고성지역은 인근의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1919년 10월 5일 청년단이 조직되었다. 고성청년단의 창립일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신문기사가 창립기념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고성청년단 창립일은 10월 5일, 또는 음력 9월 9일과 12월 5일 등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성청년단의 초기 활동이 미진하였던 것과 1922년에 창립기념일을 음력 9월 9일로 정하고 제1회 기념식을 거행하면서 나타난 문제로 보고 있다. 즉 창립기념일과 달리 기념식을 거행한 날짜가 달라진 것과 창립 때와 비교하여 상황이 변화하면서 창립일을 새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이라고 할 수 있다.<sup>159)</sup> 분명한 것은 고성청년단이 1919년 10월에 조직된 것이다.

157) 『시대일보』 1924년 10월 2일.

158) 『동아일보』 1924년 10월 8일.

고성청년단의 조직 구성은 단장 아래 부단장, 총무, 서기, 지육부, 덕육부, 사찰부 사교부, 회계부(재무부), 평의회를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직은 경상남도지역 청년단의 조직 구성과 거의 유사한 체제였다. 고성청년단의 조직의 특징 중 하나는 산업부가 없는 대신에 다른 지역에서는 사례가 드문 사찰부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고성청년단이 1919년 창립될 때 단장은 이성중이었고, 발기인은 박윤재·김상욱·안태원·황관석 등이었고, 권정현·임진돈·김종주 등이 중요한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고성청년단의 구체적인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는 1920년 6월 30일 제4회 정기총회에 대한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성공립보통학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임원진이 개선되었는데 단장에 권정현, 부단장에 임진돈, 총무에 박윤재·김종주 등이 선출되었다. 고성청년단은 당시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에서 부분적인 임원개선과 활동 방향·과제 등에 고심하였지만 내놓을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성청년단은 1921년 11월 조직을 대폭 개편하면서 청년단의 부흥을 기치로 내세웠다. 이때 선출된 임원은 단장 박정수(朴琺洙), 부단장 김상욱(金相煜), 총무 배기돈(裴琪敦)·황종익(黃鍾益), 서기 김갑성(金甲聲)·정석룡(丁石龍), 지육부장겸평의장 김종주(金宗注), 덕육부장 박기수(朴琪洙), 체육부장 이우철(李又鐵), 사찰부장 박효진(朴孝鎭), 사교부장 신병진(申秉珍), 회계부장 김태호(金台鎬), 기타 각 부원 2명씩, 평의원 각 2명씩, 평의원 9명씩이었다.

고성청년단은 1923년 제1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임원 개선이 있었다. 단장 김종주, 부단장 김상욱, 총무 천두상 김백세, 지육부장 임진돈, 덕육부장 김태호, 체육부장 천두상(겸임), 재무부장 김재만, 사교부장 천성락, 사찰부장 김갑성, 평의장 이향수, 서기 정석룡 황우도가 선출되었다. 고성청년단의 창립 때부터 1923년 제10회 정기총회가 있기까지 임원진의 조직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성청년단 임원 현황(창립~1923)>

임원 \ 시기	창립시	1920년6월	1920년12월	1921년11월	1923년 1월
단장	이성중	권정현	임진돈	박정수	김종주
부단장		임진돈	오덕근	김상욱	김상욱
총무		박윤재 김종주		배기돈 황종익	천두상 김백세

159) 일제 강점하 고성지역 청년운동에 대해서는 박용국, 「1920년대 고성지역 청년단체의 사회 운동」 (『경남지역 국권회복운동 조사·연구(II)』, 남명학연구소, 2012)을 많이 참고하였다.

서기			김갑성 정석룡	정석룡 황응도
지육부장			김종주	임진돈
덕육부장			박기수	김태홍
체육부장			이우철	천두상(겸임)
사찰부장			박효진	김갑성
사교부장			신병진	천성락
회계부장			김태호	김재만
평의회장			김종주(겸임)	이향수

고성청년단의 조직은 단장과 부단장 아래에 9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지덕부와 덕육부가 문화운동을 주도하였다. 인적 구성은 당시 고성면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 철성의숙 졸업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28년경에는 인근의 청년회를 통합하면서 회원이 28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초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창립 후 2년이 지난 1921년 12월 신문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160)</sup>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성청년단의 활동은 강연과 토론, 회관 신축과 입학난을 겪고 있는 아동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고성청년단의 지육부와 덕육부는 1920년 3월부터 회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 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상호 지식을 교환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의 구체적인 모습이 확인된다.

1920년 4월 26일 고성청년단 지육부에서는 동아일보 통영분국장 여병섭씨를 초청하여 고성 예수교회당에서 ‘현대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2시간의 강연을 실시하였고, 단원 중 안태원이 동아일보 창간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였는데 청중이 수백 명에 이를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1920년 8월 1일에는 제24회 토론회를 열고 ‘사회 유지는 도덕호아, 법률호아’라는 주제로 임진돈·서동조와 박윤재·김백세가 각각 가편(可便)과 부편(否便) 연사로 나와 백여 명의 청중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고성청년단이 매주 토요일 개최하고자 했던 토론과 강연은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서 독립된 회관 건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회관 건축에 대한 논의는 1921년 7월에 있었던 정기총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고성청년단의 회관 건축은 회원들의 열성과 지역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1922년 5월 30일 지금의 고성초등학교에 자리를 잡고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6월 12일 상량식이 거행되는 등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어 7월 초순에 완공을 보게 되었다.

이와 함께 청년단의 활동은 문화계몽 분야를 비롯하여 지역의 어려운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1920년 8월 고성지역에 콜레라가 발생하자 방역활동을 포함하여 전염예방과 환자의 격리 및 간병 등 목숨을 건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고성지역은 콜레라가 발생한 지 1개월

160) 『동아일보』 1921년 12월 3일.

만에 사망한 자가 적지 않았고, 병상에 누운 자가 257명에 이를 정도로 주민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청년단에서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구제방침을 논의한 후 경찰서와 협의하고 곧바로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고성청년단이 경찰서와 콜레라의 방역을 위해 협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각 구역에 호역방비대(虎疫防備隊)를 설치하여 청년단원이 이를 감시하고 여행자 검역(檢疫)을 행할 것. 둘째, 경찰당국과 협의하여 일반인민에게 예방주사를 실시할 것. 셋째, 단원을 격리한 병원에 파송하여 일반 환자의 간호에 종사하게 할 것. 넷째, 각 부락을 순회하여 조사한 후 환자는 즉시 격리 병원에 입원하게 할 것. 다섯째, 단원 중 감독원(監督員)을 선정하여 매일 3회 이상 순감(巡監)할 것 등이었다.

1922년 5월 10일 고성청년단총임원회를 열고 부단장 김상욱의 사회로 회관 건축공사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있었던 경과보고와 함께 지방유지 여러 명의 동정(同情)금액 보고, 재목운반의 건, 위치결정의 건 등을 논의한 후 오후 11시 반에 산회하였다. 이날 결정된 안건으로 회관 위치는 서외동 고성공립보통학교 동편으로 정하고, 회관의 정원(庭園)은 약 7백평 정도이고, 건평은 41평, 와가반양제(瓦家半洋製)로 하되 빠른 시일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결의하였다.

고성청년단 회관 건축 공사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모금에 힘입어 1922년 5월 30일에 착수하였다. 서외동(西外洞) 일반인사는 40여명의 인부(人夫)를 동원하여 회관부지를 정돈하였다. 고성청년단에서는 1922년 6월 15일 오후 8시에 성내동(城內洞) 임시사무소에서 제7회 집행임원회를 열고 부단장 김상욱의 사회로 건축에 대한 위원의 보고, 건축위원 1명 개선, 체육부 사천원정(泗川遠征)에 대한 건, 건축 준공 후 위로회 비용의 건, 제9회 정기총회일자 결정의 건 등을 협의하였다. 고성청년회는 1922년 10월 1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관건축비 미불금(未拂金) 처치방침, 제수입금(諸收入金) 징수위원선거(15명), 노동야학설립의 건, 토요일마다 강연과 토론회를 계속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고성청년단은 1922년 12월 7일 입학연령의 초과로 입학치 못한 아동을 위하여 講習部를 설립하고 입학아동의 학부형과 일반간부가 회합하여 개학식을 거행하였다. 입학아동의 연령은 만7세 이상으로 만16세까지로 하고 형편에 따라서는 16세 이상이라도 입학을 허가하기로 하였는데, 당일 출석한 아동은 30여 명에 이르렀다.

1924년 10월 5일 제5주년 창립축하 기념식을 거행하였고, 체육대회 및 현상(懸賞)토론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낮에는 체육대회가 있었고, 밤에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학생 백여 명과 일반 관중 천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토론 주제는 ‘우리의 급무(急務)가 산업이나 교육이나?’ 였다. 산업편 연사는 이갑조(李甲祚)와 김갑성(金甲聲)이 맡았고, 교육편 연사는 황응도와 배기돈이 맡아 발표하였으며 김종주(金鍾注)·오덕근(吳德根)·정

규훈(丁奎勳)·이향수(李鄴洙)·천두상(千斗上)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현상토론회 결과 1등은 배기돈, 2등은 황응도·이상조, 3등은 조정권·배만두·김갑성이 차지하였다.

고성청년단은 회관 건축과 함께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동들을 수용하여 주야간으로 교육교수활동을 전개하였다. 교육계에 공헌이 많은 김종주가 지방 인사의 찬성으로 수년 전에 조직한 고성학회는 청년회관에서 주간학생 62인과 야간학생 86인을 수용하여 황응도가 교사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청년회 회원들은 고성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월 또는 1년 단위로 출연하여 격려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활동은 전반적인 경제여건의 악화와 무산자 자제들의 생활 곤란으로 인한 결석하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각 면의 유지들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 임원들을 중심으로 순회대(巡廻隊)를 조직, 파견하여 경제적 난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고성청년단에서는 임시 활동사진대를 조직하여 고성군 관내 여러 면을 순회하면서 토산장려와 문화선전을 위한 활동사진을 상영하여 가는 곳마다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1923년 4월 개천면, 영오면, 영현면, 상리면, 삼천포, 하이면, 거류면, 동해면, 삼산면, 고성면 등을 순회한 활동사진대는 각 지역으로부터 매우 열정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기부받은 동정금(同情金)은 1,780여원에 달하였다. 1925년에는 고성청년단 학원의 운영 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사진대를 조직하여 개천면, 영오면, 대가면, 하일면 등을 순회하여 많은 후원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한편 고성청년회에서는 1926년 5월 12일에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영국노동자파업 후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하였다.

#### 결의사항

##### 1. 노동야학 유지에 관한 건

12일에 음악무도대회를 주최하여 해당 수입으로 경비에 보충할 것

##### 1. 영국노동자파업 후원에 관한 건

(가) 본회에서 정신과 물질적으로 후원하도 우선 오는 19일에 보고연설회를 개최할 것

(나) 연설회 연사로 김상욱, 구종근, 천두상 3씨를 선출함

##### 1. 위원장 사면(辭免)에 관한 건

천두상군 대신으로 김상욱 군을 선거함<sup>161)</sup>

161) 『시대일보』 1926년 5월 16일.

고성청년단 학원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갈수록 악화되었다. 결국 1926년 3월 15일 고성청년회 집행위원회에서는 청년학원의 해산 등 4개항을 결의하였다. 이어 3월 19일에는 고성청년단 학원의 폐쇄를 선언하게 되었다. 이후 고성지역의 무산자 자제의 교육은 고성노동조합에서 이어받아 1년간 운영되었다. 고성노동조합에서는 노동야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귀극(埋鬼劇)’을 주최하여 경비를 마련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1928년 봄에 이르러서는 고성청년동맹이 이를 맡아 운영하였지만 역시 경영 곤란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무산자 자제를 비롯한 아동교육에 대한 고성지역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다. 1928년 9월 고성농민조합에서는 청년학원을 인수하고 후원회를 조직하여 정상화하였다. 후원회 회장으로 황웅도, 학감에 구종근·김상옥, 교감에 천성락·임형규, 재무에 문성률이 선출되었다.

일제 경찰은 고성농민조합에서 운영하는 고성농민야학회를 불허하는 등 고성지역의 자립적 교육기관을 일체 허가하지 않았다. 이때 허가를 받지 못한 강습소는 고성농민야학회를 비롯하여 철성의숙야학회, 교동(校洞)야학회, 무량(武良)야학회 등이다. 1928년 10월 고성지역의 교육기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고성군의 교육기관>(1928년 10월)

교육기관명	설립일	설립자	설립시 생도수	현재 생도수	교원 수	기관장
고성농민야학회	1920.10.23.	황웅도	37	123	3	黃熊度
양화학술강습소	1928.4.5.	이진식	7	18	1	李鎭植
사교농민야학회	1927.9.1.	이만규	18	34	2	李萬奎
사교야학회	1928.10.20.	공근조	12	36	2	李正浩
고성대평야학회	1919.10.3.	이영실	30	40	2	黃鶴喜
철성의숙야학부	1919.10.10.	박거수 (박맹룡)	15	47	3	朴曝洙
창명강습소	1920.2.3.	김재홍	25	56	2	金在洪
상리공보교	1921.3.25.		80	222	6	長川野愛治
당동공보교	1926.4.21.		57	168	4	篠崎善左右門
개천공보교	1923.5.1.		58	116	4	金正喜
하일공보교	1922.5.1.		38	143	4	山崎縞彦
송계공보교	1920.10.13.		65	175	6	徐鶴祚
하이공고교	1927.4.1.		75	99	3	長兼廣優
고성신명유치원	1920.4.1.	김순남	2	40	1	崔尙林
영현공보교	1928.5.1.		50	66	1	兒玉流彦
마암공보교	1928.5.15.		80	72	1	片山房治

1925년 고성청년단은 조직과 인적구성에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25년 5월 정기총회에서 구 관습을 혁신하고자 하는 건의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당시 고성청년단의 혁신의 기치를 내걸었던 것은 단장제를 위원제로 할 것과 연령제한 등 여러 부분에 걸친 것이었다. 그러나 소수의 혁신안은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승인을 얻기까지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천두상, 정규훈, 황용도 등이었다. 이들은 국권회복운동의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였던 자들로서 일제의 감시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고성청년단의 활동에 예의주시하고 있던 일제경찰은 암암리에 단원들의 활동을 방해하였고, 다수 단원들의 소극적인 참여가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청년단은 조직개편과 함께 인적구성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같은 해 6월 13일 제 15회 정기총회에서 기존의 단장제를 위원제로 변경하고, 조직도 위원장, 서무부, 선전부, 소년부, 문예부, 경리부로 개편하였다. 집행위원으로는 위원장 김상옥, 서무부 천진남(千鎭南)·정규훈·이재홍(李在洪)·최차범(崔次凡), 선전부 김성길(金成吉)·손상린(孫尙麟)·정치용(鄭致用), 소년부 천두상·황용도·최봉기(崔鳳琪), 문예부 전용봉(全用奉)·이윤춘(李潤春)·이전수(李填洙), 경리부 최상조(崔尙祚)·김남도(金南道) 등이었다.

청년단체 가입 연령의 제한 문제는 혁신운동의 중요한 안건이었다. 조선청년총동맹에서는 청년단체의 연령 제한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히 조사연구위원회를 설치할 정도였다. 이것은 각 지역 청년단체의 혁신운동에서 연령 제한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고성지역의 경우 1928년 4월 경남도연맹에서 25세와 30세를 두고 논쟁할 때 회원 청년단체 가입 연령을 25세로 정하여 조선청년동맹 전국대회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고성청년회의 활동에서 주목할 점은 4군청년연맹(四郡靑年聯盟) 결성에서 중심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고성청년회와 통영총운동동맹이 주도한 고성·통영·사천·남해 4개 군의 청년운동을 통일하기 위한 움직임은 1925년부터 9월부터 진행되었다.

#### 4군청년연맹(四郡靑年聯盟) 내월 중순 통영서 창립

고성청년회와 통영운동동맹에서는 고성, 통영, 사천, 남해 4군의 청년운동의 통일을 목적으로 약 1개월 전부터 통영총운동동맹과 고성청년회간에 4군 청년연합기관조직에 대하여 상의가 진행되었다. 10월 20일 오후 8시부터 양 단체의 간부가 조선일보 통영지국에서 회합하여 협의한 결과 준비위원을 선정하고 4군내에 산재한 각 단체는 빠짐없이 가맹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위원 김상옥은 옥지도, 김재학(金在學)과 고봉윤(高奉允)은 거제도, 천두

상은 사천·고성 일원과 곤양·삼천포·남해 등 각지로 파견하였다. 모임에서 토의한 사항은 청년운동 근본방침에 관한 건과 노동운동에 관한 건이었다. 그리고 연맹 설립은 11월 7~8일에 걸쳐 통영청년단회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결의사항과 선출된 준비위원은 다음과 같다.

결의사항

- 1. 가맹단체자격은 4군 내에 재(在)한 운동단체로 할 것
- 1. 창립총회에 출석대표는 매 단체 2인 이상으로 할 것
- 1. 대표자에게는 해회(該會)에서 필히 대표증(代表證)을 발행할 것
- 1. 가맹금은 매 단체 1원으로 할 것

준비위원

양재완(梁在完)·천두상·김상욱·박태근(朴泰根)·정규훈·고봉윤(高奉允)·황응도·김재학(金在學)·강희영(姜喜榮)<sup>162)</sup>

4군청년연맹을 결성하는데 준비위원 10명이 선출되었는데, 이 가운데 고성에서는 천두상·김상욱·정규훈·황응도 등 4명이 포함되어 있어 고성청년회가 경남청년연맹 결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통영총운동동맹회와 고성청년회 주최로 통영의 대화정(大和町) 청년회관내에서 통영, 고성, 사천, 남해 4군 연합 사상운동자 간담회 개최도 진행하였다. 간담회 발기단체는 통영총운동동맹과 고성청년회로 하여 4군 내의 각 세포단체 또는 개인이라도 다수 참가하도록 방향을 정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간담회의 소집규정을 마련하고, 간담회 때 토의 문제 범위를 정하여 관련 지역에 통지하였다.

o 간담회 소집 규정

- 1. 시일은 11월 7일 하오 2시부터 익 8일 상오 12시
- 1. 장소는 통영 대화정 청년회관
- 1. 단체참가자격은 4군내에 재한 형평(衡平), 노동, 청년, 여성, 사상의 하단체(何團體)를 물론하고 대표 3인까지
- 1. 개인참가는 4군내 모 단체의 소속이나 혹은 무소속이면 단체의 보천(保薦)을 요함(인원은 무제한)
- 1. 참가신청접수기는 11월 6일 하오 7시까지
- 1. 참가신청 장소는 4군 연합운동자간담회 준비위원회(통영 대화정 조선일보지국)

162) 『동아일보』 1925년 10월 24일, 『시대일보』 1925년 10월 26일.



1. 참가방법은 참가신청 시에 단체대표인은 해(該) 단체상황 일람표와 참가비 매단(每團) 금(金) 1원을 첨부 제출할 일
  - 가. 개인은 신청서와 참가비 50전으로 함
  - 나. 단체대표인은 대표증을 반드시 휴대할 일
  - 다. 자격심사회에 출석시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반드시 경(經)할 일

○ 토의 문제 범위

1. 노동운동에 관한 건
  1. 여성운동에 관한 건
  1. 청년운동에 관한 건
  1. 형평운동에 관한 건
  1. 소년운동에 관한 건
1. 사회운동 전 국면에 관한 건
  1. 무산계급노동교육에 관한 건
  1. 상설적 연합기관에 관한 건
  1. 기타<sup>163)</sup>

고성, 통영, 사천, 남해 4군 연합사상운동자 간담회는 경찰의 불허로 당초 계획했던 7~8일 보다 하루 늦은 9일에 개최되었다. 사상운동자 간담회에 사천과 남해군은 수확기와 겹치고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참가하지 못하고 통영총운동동맹, 고성청년회, 삼산청년회, 당동청년회, 형평분사, 통영청년동맹, 인쇄직공친목회, 형평사 등 12 단체 대표와 개인 참가 70여명 등 많은 방청객이 모인 가운데 의장 김상현의 사회로 개최하고, 주최측 양재완(梁在完)의 경과보고와 각 단체 대표로 의안작성위원 10인을 선거하고 의안을 작성하였다. 의안은 노동운동에 관한 건, 여성운동에 관한 건, 형평운동에 관한 건, 청년운동에 관한 건, 교양문제에 관한 건, 사회국면에 관한 건, 연합기관에 관한 건 등이었다.<sup>164)</sup>

한편 고성청년회 사회부는 군내에 산재해 있던 청년단체를 연합하여 하나의 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모임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25년 11월 고성지역 내 청년단체 대의원들이 연합하여 고성청년연맹을 결성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고성청년단의 혁신운동은 고성청년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고성군내 청년단체를 통일하여 고성청년연맹을 결

163) 『시대일보』 1925년 11월 4일.

164) 『시대일보』 1925년 11월 14일.

성하기에 이르렀다.

고성청년운동의 중심기관으로 발전한 고성군청년연맹에서는 1926년 7월 4일 제1회 정기대회를 고성청년회관에서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회보를 발행하기 위해 기존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1. 위원개선의 건

총무부 : 김상옥

서무부 : 전갑봉, 공룡석, 김달수(金達水)

조직부 : 구용근(具龍根), 박지호(朴辰浩), 김재홍(金在洪)

교양부 : 이상갑(李相甲), 임생호(林生浩), 이영순(李英順)

선전부 : 이재홍(李在洪), 길옥(吉玉), 박문호(朴文浩)

검사위원 : 서정훈(徐正埴), 정금(鄭金)

2. 예산편성에 관한 건

위원을 선거하여 군내 각 면의 구역을 나누어 유지가로부터 동정을 얻기로 하고 위원은 각 가맹단체로부터 2명씩을 선출하되 고성청년회만은 5명으로 하여 7월 20일에 고성청년회에서 집합기로 할 일

위 통할위원(統轄委員) 전갑봉

3. 규약개정의 건

규약 제16조의 부담금 1원을 삭제할 일

4. 농민조합의 건

5. 청년단체조직에 관한 건

6. 편집부 설치에 관한 건

현재의 각 부 외에 편집부를 설치하고 등사관을 구입하여 회보(會報)를 발행할 일

7. 소년회 지도에 관한 건

8. 중앙협의회 대표 파견에 관한 건<sup>165)</sup>

고성지역 청년운동은 192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그 활동 영역을 농민의 생활 향상에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고성청년연맹의 천두상·황용도 등은 고성농민조합을 창설하여 농민의 경제적 이득만이 아니라 식민지배체제의 모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1927년 고성에서는 사회운동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고성사회단체 대표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 고성청년회 외 10개 단체 대표 45명이

165) 『시대일보』 1926년 7월 8일.

참석한 가운데 사회운동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일제의 경찰은 이러한 모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참석자와 토론 주제 등에 대해 검열을 가하였다. 6월에는 고성청년회에서 퇴락(頹落)한 회관을 수리하기 위하여 1개월 전부터 동정금 모집에 착수하였지만 목표한 경비 380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170원 정도만 모금되었다. 이에 부족한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대회를 개최할 것과 수리할 내역은 본관의 토벽판환(土壁板換) 수리와 집회실(集會室)의 필요물품 비치 등을 비롯하여 기타 부속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되 모든 사업진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내 인사의 많은 찬동과 원조를 호소하였다.

1927년 고성의 청년운동에서 큰 변화는 회화면 배둔리를 중심으로 회화청년회가 결성된 것이다. 배둔리는 예로부터 고성을 다음으로 변화한 큰 동리로서 의기있는 청년인사들도 상당히 모여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수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는 청년단체를 조직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중 창립대회를 갖기로 결정하고 발기회를 개최한 후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준비위원으로서 김동기(金東琪)를 비롯하여 4명이 선출되고, 창립일에는 고성청년회에서 전갑봉, 천두상 등이 참석하여 청년회의 운동방향 등을 협의하고 강연회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성청년회에서는 6월 12일 임시총회를 서외동(西外洞) 회관에서 개최하고, 김갑봉의 사회로 회관 수리에 관한 건, 공사책임자 선정에 관한 건, 회화청년회 창립에 관한 건, 군연맹의안(郡聯盟議案) 작성에 관한 건 등을 결의하였다. 고성청년회에서도 회화청년회의 창립에 매우 고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sup>166)</sup>

마침내 6월 19일 정오 12시에 배둔리 노동야학교에서 김동기의 개회사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임시집행부로 의장 김해동, 서기 유정식이 등단하여 경과보고와 취지설명이 끝난 후에 강령 및 규약을 통과하고 집행위원을 선거한 뒤에 토의사항이 있었다. 이후 축문과 축전 낭독순서에 이어 고성청년회에서 파송한 이상신(李相申), 전갑봉, 천두상 등 3인의 의미 깊은 축사를 끝으로 창립대회를 마쳤다. 창립대회에서 이루어진 토의사항은 무산계급의 의식적 교양과 훈련을 하기 위하여 농촌야학을 경영할 일, 배둔친목회를 본회에 연합하도록 노력할 일, 고성군청년연맹에 가맹할 일, 사무소는 배둔노동야학교에 교섭사용할 일 등이었다. 창립대회를 마친 이후에는 곧바로 제1회 집행위원회를 야학교에서 개최하고 위원장 정종명(鄭宗明), 서무부 김동기 외 2인, 교양부 서종엽(徐宗燁) 외 2인, 조사부 김갑록(金甲錄) 외 2인 등을 선출하여 연맹대회의 대의원에 관한 건 등을 결의하였다.

1927년 6월 26일에는 고성청년회관에서 제3회 정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총무부위원 전갑봉의 개회사 이후 회화(會華)청년회의 가맹원서를 수리하고, 임시집행부로서 천일호(千一乎), 전갑봉 두 사람을 선출한 후에 각 대의원의 자격을 심사한 결과 26명이 출석하였다.

166) 『동아일보』 1927년 6월 10일.

먼저 연맹 및 각 세포단체의 경과보고가 있는 후에 규약개정에 들어가 집행위원회에서 제출한 7개 조목의 변경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결의하고 위원개선과 조선운동 상황보고가 있었다. 다음으로 예산안 및 제의안(提議案)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날 결의안은 세포단체인 고성청년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경찰로부터 삭제당한 조목 외에는 모두 통과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의 사항은 정치부문에서 언론집회 출판 결사 자유와 동척(東拓)회사 등 이민반대, 경제부문에서는 소작의 합리화, 단결과업 기관단체 계약권 확립, 최저임은제(最低賃銀制)의 확립 등 4조목이었고, 사회부문에서는 봉건적 허례 등 타파, 가족제도개량 외 4조목이었으며, 교육부문에서는 조선인 교육에 조선어 사용과 조선역사 교과실시, 남녀교육평등 외 5조목이었고, 소년운동 부문에서는 어린이날 경정(更定) 외 4조목이었다. 당면문제로 조선민족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전 민족적 단일당(單一黨) 수립을 촉진하며 현 신간회(新幹會)로 하여금 전 민족적 단일당이 되게 하는 동시에 대립적 형태로 출현하는 단체 배격 강연·강좌의 수시 개최 외 4조목이었다.<sup>167)</sup> 이와같은 내용을 통해 1925년 이후 고성청년회의 활동이 국권회복운동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20년대 후반 고성군에 조직되었던 각종 사회단체를 정리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고성청년동맹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단체의 성격과 설립시기, 회원 수, 지역 인물 등을 살펴볼 수 있다.

<1920년대 후반 고성군 사회 단체 현황> (1928년 10월 현재)

사회단체명	창립시기	창립시 회원 수	1928년 10월 회원수	단체장
新幹會固城支部	1927.9.27.	30	63	朴孟龍
固城青年同盟	1919.12.5.	30	280	金洪同
固城農民組合	1926.10.5.	35	286	黃態度
固城勞動組合	1926.2.18.	28	156	林亨奎
固城新興科學研究會	1927.10.1.	40	53	吳萬壽
固城靑盟固城支部	1927.10.27.	55	74	朴樺洙
固城青年同盟三山支部	1927.12.5.	25	20	林生浩
固城青年同盟巨東支部	1927.9.21.	35	40	朴鎭浩
鶴林讀書俱樂部	1928.4.5.	20	37	崔鍾煥
下二小作相助會	1925.3.1.	38	153	朴桂春

167) 『동아일보』 1927년 6월 30일.

고성청년동맹은 1927년 8월 군내 청년단체를 통일하기 위해 상무집행위원회와 임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성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삼산(三山)청년회, 거동(巨東)청년회, 회화청년회, 고성여자청년회 등 4개 단체를 고성청년회에 통합하여 고성청년동맹을 결성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모임에서 임시집행위원으로 전갑봉 외 5명을 선거하여 모든 부서변경과 금후의 방침수립에 대한 일체사무를 전임(傳任)하도록 하였다.<sup>168)</sup> 이후 9월 2일 고성청년동맹 제1회 임시대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당일 날씨의 불순으로 인해 부득이 유회(流會)되고 말았으며, 개혁축하식까지도 연기하게 되었다. 미리 예정되었던 축하식일이었기에 공주청년회, 경성(京城) 신간지회(新幹支會) 등으로부터 의미 깊은 축문, 축전도 많이 도착하였다.<sup>169)</sup> 당초 계획하였던 임시대회는 무산되었지만 같은 날 오후 9시에 제2회 임시집행위원회를 동맹회관에서 개최하고 6조목의 기초규약을 개정하고, 이어서 지부규칙을 통과한 후 새로운 가맹원서(加盟原書)를 수리하였다. 그리고 향후 제13회 국제청년데이 기념식을 거행할 것과 동맹조직을 확대 강화하는데 가장 먼저 회원모집에 주력하기로 하고 18세 이상 30세 이내의 군내(郡內) 청년들의 동맹가입을 독려하였다.

고성청년동맹 임시대회는 순연되어 9월 10일로 미루어졌다. 추석날이기도 하였던 임시대회 당일 오후 3시 동맹회관에서 천일호, 전갑봉의 임시집행으로 회록 낭독 과 경과보고를 마치고 강령규약 통과에 들어가 규약 제3조 연령제한 25세에 이르러 다소간 논의가 있었으나 과거의 청년적청년단체(青年的青年團體)로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조직, 전환하여야 된다는 청총안(靑總案)에 의거 37조목의 규약 전부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연령제한으로 인해 당연히 정리될 회원 黃熊度 외 18명을 제명하고 임원을 선출하였다. 선거방식은 전형식(銓衡式)으로 전형위원 천일호(千一乎), 전갑봉, 이상신, 오만수 4씨를 구두로 천거하여 위원장 이하 22명의 위원을 전형케 하였다. 전형된 위원은 위원장 천일호, 감사위원장 공용석(孔龍碩), 동 위원 서정훈(徐正垣)이고, 집행위원은 전갑봉 외 17명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하동청년동맹회원 김계영(金桂影)의 축사가 있는 후 만세삼창으로 폐회하였다.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 50분에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부문별로 직임을 맡도록 하였는데, 서무재정부에 전갑봉·김상갑(金尙甲)·이판재(李判宰), 문화선전부에 이상신(李相申)·박진호(朴辰浩)·이용만(李龍萬), 연락조직부에 길혜성(吉慧星)·임생호(林生浩), 체육부에 김봉근(金奉根)·김평수(金平水) 외 1인, 여자부에 이영순(李英順)·김부금(金富錦)·원필연(元必年), 소년부에 오만수(吳萬壽)·김철동(金鐵同)·강대흥(姜大興)이 선출되었다.<sup>170)</sup>

168) 『동아일보』 1927년 9월 3일.

169) 『동아일보』 1927년 9월 6일.

경남청년연맹 결성에 힘입어 고성청년동맹은 일제의 탄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1928년 3월로 예정된 정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제3회 집행위원회를 서외동(西外洞)회관에서 개최하고 경남 도청년연맹의 경과를 보고하고 지부설치에 대하여는 면(面)에 면준비위원을 선거하고 청년동맹에서는 지도위원을 선거하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영현면 강대흥(姜大興)·강상국(姜相國)·윤영환(尹榮煥), 삼산면 서정훈(徐正垣)·임생호(林生浩)·이판재(李判宰), 회화면 김동기(金東琪)·구창희(具昌會)·정종명(鄭宗明), 거류면 공용석(孔龍碩)·박문주(朴文柱) 등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청년동맹 본부에서는 전갑봉, 박진호(朴辰浩), 김철동, 오만수(吳萬壽) 네 사람을 선정하여 정기대회까지 지부 설치를 완료하기로 결정하였다.<sup>171)</sup>

고성청년동맹은 활동영역을 더욱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대중들을 조직화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경남청년연맹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 도내 청년운동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단체 간담회 개최를 준비하였다. 일제 경찰은 조직 발기 준비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던 천두상을 소환하여 협박하고, 서면대회(書面大會)조차 금지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공작을 가하였다. 그러나 고성청년동맹의 활동은 위축되지 않았다. 경남청년연맹의 창립을 발기하고 결성을 준비한 끝에 1928년 2월 25일 고성의 호남여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연맹의 결성을 이루었다. 경남청년연맹이 결성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던 고성청년동맹의 전갑봉은 경과보고를 맡았고 천두상은 창립총회 의장과 집행위원장을 맡는 등 경남청년연맹을 핵심역할을 하였다. 경남청년연맹의 위치는 부산·마산·진주·고성을 두고 논의한 결과 진주가 교통이나 운동현황에서 경남의 중심지라고 하여 진주로 정해졌다.<sup>172)</sup>

고성청년동맹은 1928년 3월 제1회 정기대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위원으로 전갑봉, 오만수를 선출하고 경과보고, 회관증축 준공 보고, 지부 상황보고 등의 순서에 이어 전국청년운동 상황보고가 있었고, 정치·경제·사회·교육·농민·노동·형평(衡平)·여성·소년에 대한 여러 문제를 토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고성청년동맹을 비롯하여 경남청년연맹의 활동이 확대되어가자 일제는 적극적으로 탄압을 가하였다. 1928년 5월 5일 고성경찰서는 4월 29일 진주에서 열렸던 경남도청년연맹에 대의원 자격으로 출석하였던 천두상·전갑봉·김철동·오만수·박희수·김평수·이향수·황응도의 집을 수색하여 도연맹대회에서 결의한 의안 등을 압수하고, 이와 관련하여 천두

170) 『동아일보』 1927년 9월 15일.

171) 『동아일보』 1928년 2월 23일.

172) 『동아일보』 1928년 2월 29일.

상·전갑봉을 구류하였다.<sup>173)</sup> 또한 경남청년연맹이 경남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순회 강연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금지하였다. 일제는 경남청년연맹 정기대회의 의안(議案)을 불온하다고 하여 출판법 위반으로 최돈·강수영·전혁·배상현·김계영·김태순·천두상·전갑봉 등을 11일 동안 구류하였다가 기소하였다. 고성지역의 전갑봉은 징역 10개월을 받아 상고하였고, 천두상은 무죄를 받았다. 일제는 청년연맹에서 실시하려고 계획하였던 순회강연을 금지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경남청년연맹이 창립 절차와 방법이 틀렸다는 구실로 연맹 조직 창립을 부인하는 한편 일체의 집회를 금지시켰다.

고성청년동맹의 활동에 대해 일제 경찰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중에도 청년운동의 결속을 위해 노력하였다. 1929년 3월 31일 동맹회관에 30여명의 대의원 출석과 1백여 명의 방청객이 모인 가운데 대회집행부로 의장 김철동, 서기 이규택(李圭澤) 등을 선임하고, 지난 1년간의 활동상황 보고와 오광수의 지부상황 보고, 김철동의 전국운동 정세보고, 임원 개선, 의안상정과 토의가 있었다. 이때 논의된 중요 안건과 토의사항은 조직방침에 관한 건, 교양방침에 관한 건, 행동방침에 관한 건, 미조직청년조직에 관한 건, 삼총해금(三總解禁)에 관한 건 등이었다.<sup>174)</sup> <☆동아일보에 사진 있음 : 고성청년동맹대회대의원>

이후 11월 16일에는 고성지역 사회운동의 부진함을 개탄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재고성 사회단체 연석회를 주최하여 대표 20명의 출석으로 오만수의 의미심장한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갑봉이 의장이 되어 고성운동의 일반적 현세(現勢)와 장래방침, 각 단체의 유기적(有機的) 연락에 관한 건, 전위양성(前衛養成)에 관한 건, 당면문제 등을 토의, 결정하며 세력을 만회하기 위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sup>175)</sup>

고성청년동맹 고성지부에서는 1930년 4월 27일 제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김종원(金宗元)의 사회로 경과보고와 고성청년동맹운동 상황보고가 있는 후 임원개선과 동맹대회에 파견할 대의원 선거가 있었다. 선출된 임원으로 집행위원장에 김종원, 위원은 천경택(千景澤)·신창현(申昌賢)·정중호(鄭鍾鎬)·하복룡(河福龍), 대의원은 유계조(劉桂祚)·김평수(金平水) 외 10명이었다. 5월 20일에는 고성청년동맹 제1회 임시집행위원회 개최하고, 경과보고의 건, 중요사항 승인의 건, 경남도청년연맹 제1회 임시대회 금지경과 보고의 건, 도연맹 서면대회의 건, 도맹(道盟) 공문 승인의 건, 하계강좌 개최의 건, 위원 보선의 건, 맹원 정리의 건 등을 토의하였다.<sup>176)</sup>

고성청년동맹은 1920년대 이후 사회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농민운동과 노동

173) 『동아일보』 1928년 5월 8일.

174) 『동아일보』 1929년 4월 5일.

175) 『동아일보』 1929년 11월 21일.

176) 『중외일보』 1930년 5월 1일.

운동의 연결고리로서의 대중적 역량을 지니고 있었다. 고성청년동맹은 지부를 설치하는가 하면 인근 지역의 사회단체와 연합하여 사회운동을 전개하여 대중의 계몽과 민족운동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 제 9절 고성지역 소작형태와 소작쟁의

소작제도는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경작시키는 대가로 지대(地代)를 받는 경작제도이다. 조선시대의 소작제도에는 병작법과 도작법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병작법은 매년의 수확량을 미리 정한 소작료율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다. 소작료율은 고정되어 있었지만 소작료액은 농사의 풍흉에 따라 증감되었다.

병작법의 소작료율은 일반적으로 생산물의 50%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것을 ‘절반법(折半法)’ 또는 ‘반작법(半作法)’ 이라고도 불렀다. 한편, 도작법은 도조법(賭租法)·도지법(賭地法)이라고도 하며, 원칙적으로 소작료액을 미리 협정하여 매년 농사의 풍흉이나 수확량에 관계없이 정해진 소작료를 징수하는 소작제도이다.

소작료율은 소작제도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병작법은 ‘절반법’으로 불릴 만큼 대부분의 경우 생산물의 50%가 소작료율이었다. 병작법의 가장 일반적인 부담내용은 소작료를 생산물의 50%로 하여, 지세(地稅)는 지주가 부담하고 종자는 소작인이 부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지세와 종자의 부담관계는 지방에 따라 다양하였으며, 소작인의 실제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한편 도작법의 소작료율은 그 별명이 삼분법(三分法)이라고 불릴 만큼 생산물의 3분의 1이 지배적이었다. 도작법은 대체로 병작법보다 그 소작료율이 낮았기 때문에 종자뿐만 아니라 지세도 소작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료형태는 대부분이 현물이었고, 도조법이 적용될 경우 금납(金納)이 행해지기도 하였지만 드문 형태였다. 일반적으로 소작기간은 미리 정하는 예는 드물고, 소작료 납부가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한 수 년 또는 수십 년 계속되었고, 대를 이어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소작제도와 관련하여 고성에는 병경(并耕)이라는 형태의 소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소작형태는 진주군 금곡면(金谷面)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병경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더불어 경작한다는 뜻으로, 부담액에 차이가 있지만 지주와 작인이 각자 출자하고 경작하여 수익을 나눈다는 뜻이다. 이러한 소작 관행은 특히 영오면(永吾面), 영현면(永縣面), 개천면(介川面) 등의 지역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병경의 기원에 대해서는 연혁이 오래되어 상세히 알 수는 없고 다만 구전으로 전해진 것을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병경의 소재지인 진주군 금곡면과 고성군의 영오면, 영현면, 개천면 등의 각 면은 예전부터 경작지가 비교적 적어 항상 소작권 획득에 대한 경쟁이 있었다. 작인의 교체가 빈번하여 소작농민은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작인은 영구히 소작권을 얻기 위해 지주가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미리 지주와 계약을 하여 地代의 일부를 부담하였다. 예를 들어 1두락에 120냥 하는 논을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지주는 90냥 내지 100냥 정도를 부담하고, 작인은 20냥 내지 30냥 정도를 부담하는 정도였다.

이와 같이 지대의 일부를 부담하고 토지의 영구적인 소작권을 획득하는 것이 점차로 많아졌는데, 그 소작관계를 병경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병경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소작하려는 자가 지주에게 소작권을 매수하거나, 사전에 지주와 계약을 맺어, 지주가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지대의 일부를 작인이 부담하고, 그 대가로 영구히 그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관행이다.

이러한 종류의 소작관계는 당초 작인이 지주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작권을 매수하거나 지주와 계약하여 지주가 토지를 매수할 경우 지대의 일부를 부담해서 그 권리를 얻는 것으로서, 보통 소작에서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와는 권리관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지주에 대하여 작인을 병경답주(并耕畝主) 또는 병경 전주(田主)라고 부르고, 그 소작관계를 병경이라고 불렀다. 병경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밭 또는 논에서 행해지지만 대부분은 논에 적용되었고, 밭에서 병경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병경의 계약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통례로서, 구두로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형식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작인이 지주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설정한 경우에는 토지매매의 형식에 따라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지주가 토지를 구입할 때 작인이 지대의 일부를 부담하여 소작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주가 이러한 취지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병경주(并耕主)인 작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통례이다. 병경주의 권리는 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또 임의로 그것을 매매하거나 전당으로 할 수 있고, 권리를 계승한 사람은 당연히 이것으로 지주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병경주가 그 권리를 매도하거나 전당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건을 작성하여 매수인이나 전당권자(典當權者)에게 교부하고, 옛 문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첨부하는 것이 관례이고, 구두만으로 매도하거나 전당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

지주가 도지(賭地)를 매각할 경우에는 방매문건(放賣文件)에 친답주(親畝主) 또는 친경답주(親耕畝主)라고 쓰고, 병경주인 작인이 도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병경답주(并耕畝主) 또는 도지답주(賭地畝主)라고 써서 토지소유자와 도지권자(賭地權者)인 병경답주를 구별하는 것이 관례이다. 병경주는 경작을 위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轉貸)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지만, 실제로는 병경자 스스로 경작하는 것이 관례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병경주인 작인이 갖는 권리인 도지권은 영구적인 것이므로, 지주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이를 소멸시키려면 작인과 협정한 병경가(并耕價)를 지불하여 매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킬 수 없다.

병경의 소작료는 정액제로 하거나 미리 소작료액을 정하지 않고 매년 지주와 소작인이 입회하여 작황을 감평(監評)해서 소작료액을 정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있다. 후자의 경우 그 비율은 예상 수확고의 반액으로 한다. 따라서 병경에서 이루어지는 소작료는 보통 소작과 다른 점이 없고 벼로써 소작료를 정하는 것을 관례이지만 때로는 보리나 기타의 곡물로 정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소작료의 지불시기 및 지불장소 등도 보통 소작과 다른 점이 없다. 조세는 이모작(二毛作)의 토지에서는 병경주가 부담하고, 일모작의 토지에서는 지주와 병경주가 분등하여 부담한다. 또 토지의 정리와 수선(修繕)이 이루어질 때 소규모의 것은 병경주가 부담하고, 대규모의 경우 병경주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지주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례였다.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는, 병경주인 작인은 언제라도 해약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반하여 지주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특약으로 계약해제의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이다. 병경주는 토지구입 시 지대의 일부를 부담하고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으므로 임의로 그 권리를 매매하거나 전당으로 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매매를 도지매매(賭地賣買)라고 하였고, 마침내는 소작권 매매의 관행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로서는 병경가 또는 도지전(賭地錢)이라고 하는 작인이 협정한 금액을 받고, 도지매매의 형식에 의한 권리를 용인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경우를 병경이라고 해서, 병경의 관습이 점차 성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병경이 지주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권리를 매수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해 갔다. 병경의 관행은 점차 감소하여 없어졌지만 1910년대 초반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외에 구만면, 마암면, 대가면, 상리면 등의 지역에서도 도지 또는 물도지(物賭地)라고 하여, 소작인이 문건을 작성하여 사사로이 소작권을 매매하는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도 병경이라고 하지만 이들 소작권은 영오·영현·개천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당초 작인이 지주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대의 일부를 부담하여 권리를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부터 정당한 권리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병경과 같은 형태의 소작권 매매가 행해졌지만 지주가 이를 금지하여 이러한

관행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sup>177)</sup>

소작제도는 1894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갑오경장과 함께 양반신분제도 폐지와 사노비혁파에 의한 노비해방이 이루어지면서 지주의 소작인에 대한 신분적·경제외적 강제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소작제도에서는 신분적·경제외적 강제는 완전히 철폐되고 그 유제(遺制)만 남게 되었다. 소작제도는 1894년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봉건적 소작제도이고, 그 이후는 반봉건적 소작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도 소작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제는 1910~1918년 사이에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하였으나, 조선 말기의 반봉건적 소작제도를 개혁하거나 변혁시키지 않았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시대에 확립된 토지소유권을 신고주의(申告主義)의 방법으로 재법인하여 등기시켰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겼다. 일제는 소작제도와 관련하여 소작농의 권리인 경작권·도지권·개간권·입회권 등의 모든 권리를 소멸시키고 일방 지주의 권리만을 강화시켜주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지주계급을 옹호하여 식민지통치의 기반을 지주계급에서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즉 한국인 지주계급과 구조적으로 유착하는 한편 일본 자본이 토지를 점유할 때의 편리와 지배권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조선 말기의 지주제도는 그대로 이행(移行)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인 지주와 토지조사사업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일본인 지주의 권한은 크게 강화된 반면, 소작농은 사회·경제적 권리를 잃고 더욱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자작농 및 자작 겸 소작농이 완전한 소작농으로 몰락하게 만들었으며, 소작농의 생활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일제 강점하의 소작제도는 일반소작과 특수소작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소작은 소작농의 여러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던 소작제도를 말하며, 특수소작은 도지권 등 소작농의 권리가 주어지거나 고지제도가 주어진 소작을 일컫는다. 일반소작은 다시 기본적으로 소작료 징수 방법의 차이에 따라 정조법소작(定租法小作)·타조법소작(打租法小作)·집조법소작(執租法小作)의 세 종류로 나뉘었다. 이는 조선시대의 병작법이 타조법으로 바뀌었고, 도조법이 정조법과 집조법으로 나뉘진 것이었다.

정조법은 농민들에 의하여 보통 도지(賭只)·정도(定賭)·지정(支定)·정도지(定賭只) 등으로 불리던 소작제도로써, 소작계약 체결시에 지주와 소작인이 일정한 소작료액을 협정한 다음 원칙적으로 그 해의 풍흉에 관계없이 해마다 일정한 소작료를 징수하는 소작제도다. 정조법은 비교적 수확량의 변화가 적은 소작농지에서 행해졌는데, 주로 밭에서 많이

177) 중추원조사자료, 소작에 관한 관습(1930) 특종소작 진주와 고성에서의 并耕.

행해지고 논의 경우에는 이른바 수리조합소작지(水利組合小作地)에서 주로 행해졌다.

타조법은 농민들에 의하여 보통 타작(打作)·병작·반작(半作)·반조(半租) 등으로 불리던 소작제도이다. 타조법에서는 소작료율은 변동하지 않았으나 소작료액은 고정되지 않고 해마다 풍흉에 따라 크게 변동하였다.

집조법은 농민들에 의하여 보통 집수·간수(看穗)·간평·검견(檢見) 등으로 불리던 소작제도이다. 수확 전에 소작지의 작물이 토지에 서 있을 때 지주 또는 그 대리인이 소작인 입회하에 작황을 검견·간평 또는 평예(坪刈) 등의 방법으로 수확예상량을 추정해서 약정한 소작료율에 따라 소작료를 징수하는 소작제도이다. 집조법은 토질이 불량하고 재해가 심하면 검견이 어려우므로 비교적 토질이 양호하고 재해가 적은 소작지에서 행해졌다.

조선농회(朝鮮農會)가 편찬한 『조선의 소작관행』이라는 조사 자료에 의하면, 1920년경 전국적으로 논에는 정조법이 24.2%, 타조법이 50.8%, 집조법이 25.0%의 비율로 행해졌으며, 밭에는 정조법이 50.9%, 타조법이 46.4%, 집조법이 2.7%의 비율로 행해졌다.

지주는 그가 농촌에 거주하는가 않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재지주(不在地主)와 재촌지주(在村地主)로 구분되었다. 대지주와 중지주는 대체로 도시에 거주하면서 소작지는 마름[畝音]에게 관리시키는 부재지주였다. 일본인 지주들도 거의 모두가 부재지주로, 직접 농업경영에 참가하거나 경작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수확 후에 소작료만을 징수해가므로 때로는 이를 기생지주(寄生地主)라고도 불렀다. 재촌지주는 또한 경작지주(耕作地主)와 불경작지주(不耕作地主)로 구분된다. 경작지주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자기의 토지의 일부는 머슴을 고용하여 경작하고, 다른 일부는 소작인에게 소작을 주는 지주이다.

불경작지주는 비록 농촌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경작에는 전혀 참가하지 않고 자신의 토지 전부를 소작을 주는 지주였다. 재촌지주는 대체로 소지주인 경우가 많았으며, 따라서 소작지를 관리할 때에도 따로 마름을 두지 않고 직접 소작지를 관리하며 징수하는 게 보통이었다.

일제하의 소작제도는 소작지에 대해서 토지개량과 농업경영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기생지주인 것이 큰 특징이었다. 일제강점기의 소작제도에서 소작료율은 모두 두드러지게 상승하였다. 조선 말기 도조법의 소작료율은 생산물의 약 33%였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도조법의 정도법이 분화되어 정립된, 정조법소작에서는 소작료율이 생산물의 55~60%에 달하게 되었다. 타조법소작에 있어서는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소작료율이 생산물의 50%였으나, 이른바 수리조합소작지에는 수리비(水利費)를 지주가 부담한다는 이유로 소작료율이 약 55%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소작제도의 소작료율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 평균 생산물의 55~60%의 범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 말기의 소작료율인

33~50%보다 훨씬 증가한 것이었다.

소작료 형태는 1920년경, 현물소작료가 94.6%, 화폐소작료가 5.4%의 비율로 행해졌다. 1930년경에는 논외의 경우 현물소작료가 93.9%, 화폐소작료가 6.1%의 비율로 행해졌다.

이 화폐소작료 중에서 순수한 금납(金納)이 2.3%였고 대금납(代金納)이 3.9%였다. 밭의 경우에는 현물소작료가 92.1%, 화폐소작료가 7.9%의 비율로 행해졌으며, 이 화폐소작료 중에서 금납이 3.9%였고 대금납이 4.0%였다. 따라서 화폐소작료의 비중은 조선시대와 비교할 때 약간 늘어났지만, 소작료형태의 화폐화 경향은 매우 완만하고 미미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소작계약의 형태에 있어서 1930년경에는 구두계약이 약 73%였고, 문서계약이 약 27%의 비율로 행해졌다. 구두계약은 보통 소작을 희망하는 소작인이 지주 또는 마름을 찾아가서 지주측에서 제시하는 계약사항을 소작인이 받아들임으로써 성립되었다. 문서계약은 주로 정조법소작에서 많이 행해졌다. 소작료 형태에서 보면, 화폐소작료가 문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주의 종류로는 재촌지주보다 부재지주의 경우 문서계약이 많았다.

소작기간은 미리 수 년 간의 소작기간을 정하는 정기소작은 1930년경에 논외의 경우 19%에 불과하고 나머지 81%가 소작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는 부정기소작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계약상 소작기간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주나 마름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소작계약이 해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편 조선시대의 소작제도에는 관습적으로 소작농의 경작권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는 토지조사사업으로 경작권이 부정된 결과, 소작농은 자기의 소작지에 대한 소작권을 갖지 못하였다. 그 결과 소작농의 지위는 극도로 불안정해졌으며, 지주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소작계약을 해제당하고 소작지에서 쫓겨나기도 하였다. 1930년대 초반까지 소작쟁의의 초점은 소작료가 높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도 있지만 소작기간의 단기성과 부정기성이 더 큰 문제였다.

고성지역의 소작문제도 1920년대 들어서면서 쟁의가 크게 증가하였다. 1921년 4월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소유한 전답의 소작료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농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이 확인된다. 소작료율이 총수확량의 6할 내지 7할까지 이르러 이익은 고사하고 농비(農費)조차 부족하다며 저항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1921년에는 고성소작지회가 조직되었다. 서울에서 채기두(蔡基斗), 이계호(李啓浩)가 고성에 오자 지역 유지 여러 명이 발기하여 6월 25일 5, 6백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취지를 강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곧바로 고성지회를 조직하였다. 선출된 임원은 회장 허선(許宣), 부회장 황상한(黃祥瀚), 이사 박중근(朴重根), 배기돈(裴琪敦), 임진돈

(林鎮敷), 천성락(千性洛), 김사수(金仕守), 이학상(李學相), 감사 박남택(朴南澤), 김상욱(金相煜) 등이었다.<sup>178)</sup>

1922년 11월 5일에는 고성지역 지주 40여명이 고성군청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소작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사항을 결의하였다. 첫째, 소작계약기간은 7개년 이상 15개년 이내로 하고 토지를 개량하는 동시에 소작인의 안심을 도(圖)할 것. 둘째, 소작료는 계약당시의 실확(實確)한 총수확의 반분(半分)으로 하고, 두세(斗稅) 기타는 전부 폐지함. 셋째, 지세(地稅)는 전부 지주가 부담함. 넷째, 소작료 운반비는 1리(里) 이내는 소작인이 부담하고 1리 이상은 소작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여(與)할 것. 다섯째, 양기(量器)는 법정(法定)한 도량기로서 평두(平斗) 십두(十斗) 일석(一石)으로 할 사(事). 여섯째, 소작권 이동기(移動期)를 구력(舊曆) 2월말일 이내로 할 것 등이었다.<sup>179)</sup>

지주들 가운데 소작료의 인상이나 소작권 이동없이 일관되게 소작관계를 유지하거나 지세나 공과금을 소작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던 미담의 주인공들도 있었다. 『동아일보』 1924년 2월 5일자에는 마암면 장산리의 허종택(許宗澤), 대가면 송계리의 이진억(李鎭億), 상리면 가슬리의 김영배(金泳培)가 인심 얻는 지주라고 소개하고 있다.

소작인들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다른 지역의 소작분쟁에 대해서도 상호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1924년 8월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하이소작인조합(下二小作人組合)에서는 암태소작회(岩泰小作會) 소작쟁의사건에 대해 동정금 6원을 마련하여 발송하기도 하였다.

1925년 3월 고성면 죽계리(竹溪里)와 마암면 두호리(頭湖里)에 거주하는 소작인들은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동척회사가 죽계리에 토지개량부락을 설치하고 다른 지방으로부터 이주민을 모집하여 부락에 거주하게 하고 이들에게 소작권을 이동시킨 것이다. 죽계리와 두호리의 주민들은 동척회사의 전답을 소작하면서 비싼 소작료에도 불구하고 소작권을 이동시킬 것을 우려하여 불평 한마디 못하고 소작료를 기일에 맞게 납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 통보도 없이 소작인들의 전답을 빼앗아 이주민에게 경작하게 하므로 겨우 5~6두락에 목숨을 이어가던 자들은 눈물만 머금고 부모처자와 남부여대로 각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이들 주민들은 농감(農監) 금영박(金永博)에게 이주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호소하였지만 거부당하고, 군수에게 사정을 진술하고 처분을 기다리며 향후의 생활난을 비관하는 울부짖음이 거리에 가득했다.<sup>180)</sup>

이 지역의 소작문제는 해를 넘겨서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신한민보 1926년 4

178) 『매일신보』 1921년 7월 4일.

179) 『동아일보』 1922년 11월 10일.

180) 『동아일보』 1925년 3월 16일.

월 8일자 기사에는 동척회사가 고성면 죽계리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무도하게 욕심만 채워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동척회사는 죽계리의 토지개량부락에 30호를 이주시킬 예정이었으나 17호만 확보되어 부족한 13호를 추가로 모집하려고 하였다. 1년이나마 13호가 채워지지 않아 한시적으로 소작을 짓던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암담한 현실 그대로였다.

1927년 2월에는 거류면 송산리(松山里) 주민들이 동척회사의 소작권 이동에 따른 불만을 고성경찰서와 고성청년회, 동척출장소에 탄원서를 발송하며 호소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십수년 이래로 동척회사의 토지를 소작하여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여 왔는데 갑자기 동리에다 이민촌(移民村)을 설치하는 동시에 소작료 미납이란 구실을 앞세워 소작인 정갑권(丁甲權) 등 21명이 경작하던 50여 두락 논외 소작권을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주었다. 이에 소작권을 다시 돌려달라는 하소연을 탄원소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3월 24일에는 고성군농회 주최로 고성지주회를 개최하고 30여명의 지주가 참석한 가운데 ① 현재의 소작권행 중 개선을 요할 사항, ② 본년 소작료 수납기(收納期)에 실행할 사항, ③ 농사개량상 지주의 취할 사항, ④ 우량품종의 보급과 품종통일을 계(計)할 사항, ⑤ 농사개량 저리자금에 관한 사항, ⑥ 자운영(紫雲英) 및 청예(靑刈), 대두(大豆) 재배에 관한 사항, ⑦ 현미조제(玄米調製)실시에 관한 사항 건 등을 협의하였다.<sup>181)</sup>

이와 같은 모임이 있는 후 10월 28일 추수기에 지주간담회가 개최되어 소작제도의 관습상 개선하거나 시행해야 할 사항을 협의하였다. 먼저 현행 소작권행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① 소작 계약기간은 되도록 장기로 할 것, ② 소작료는 되도록 정조(正租)로 할 것, ③ 지세 기타의 부과금은 지주측에서 부담할 것, ④ 소작료운반에 대하여 원거리가 될 때에는 그 운반비 일정 부분을 지주가 부담할 것 등이었다. 이러한 사항은 구두로서 소작인에게 지시하거나 서면으로서 계약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소작료 수납기에 실행할 사항으로 소작료 수납에 당하여서는 필히 개정 도량형기를 사용할 것, 사음(舍音)의 수수료 및 두세(斗稅)는 소작인으로부터 징수케 하였다. 다음으로 농사개량상 지주가 취할 사항으로 소작인에서는 우량품종을 재배케 할 것, 품질 및 건조우량한 소작인(小作粃)을 납입한 소작인에 대하여는 우상(優賞)할 것, 소작인 및 토지를 애호할 목적으로서 지주로부터 비료와 개량농구 등을 구입 대부(貸付)할 것, 자운영과 청예(靑刈)와 대두 등 녹비재배를 장려할 것 등을 협의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농사개량 저리자금의 융통을 받도록 하였다.<sup>182)</sup>

181) 『동아일보』 1927년 3월 29일.

182) 『동아일보』 1927년 11월 1일.

또한 우량품종의 보급과 품종의 통일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우량품종 이외의 벼는 소작료로서 징수하지 말 것, 소작료를 품종별로 징수하고 미곡상과 연락을 취하여 유리하게 판매할 것, 건조 우량한 벼도 같은 형태로 할 것을 정하고, 현미조제를 하여 미곡상과 연락하여 유리하게 판매할 것 등을 협의하였다. 이 가운데 매우 민감한 소작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기간이 1년, 3년, 5년, 10년 혹은 영년(永年)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5년 이상으로 실행하도록 하고, 소작료 운반거리는 1리 이상으로 결의하였다.

1928년 8월 29일 고성농민조합에서는 조선일보 지국내에서 중앙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해 전반기에 있었던 소작쟁의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총무부 상무위원 황웅도(黃熊度)가 보고하고, 쟁의사건 보고 수리에 관한 건, 상무위원 보선에 관한 건, 중앙총위원회 소집에 관한 건, 남조선 각회대회 개최에 관한 건 등을 결의하였다.

10월 5일 고성군농회 주최의 지주 및 미곡상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청년동맹회관에서 간담회가 개최되어 소작관계, 소작료운반, 종자개량 등 수십조 내용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재해로 인하여 평년작에 비하여 수확고가 2할 이상 감소한 경우는 소작료를 일부 감면하기로 협의하였다. 즉 8분작(八分作)은 소작료 1할감액(一割減額), 7분작은 소작료 2할 감액, 6분작은 소작료 4할 감액, 5분작은 소작료 6할 감액, 4분작은 소작료 8할 감액, 3분작은 소작료 전부면제로 하였다.

1928년에는 한재로 인한 소작쟁의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고성농민조합에서는 11월 14일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흉작으로 인해 소작료 납부기간에 일어나는 쟁의가 적지 않으므로 농민대중의 이익획득과 조합의 주장을 철저히 관철시키도록 하고, 소작쟁의가 있는 곳에는 즉시 위원을 파송하여 조사하고자 각 구별로 조사원을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제1구 동척(東拓)지역은 황웅도와 천성락, 제2구 매척지(埋拓地) 지역은 구종근과 문성률, 제3구 지역은 백만기(白萬圻)와 임형규, 제4구 대평 지역은 유한수(柳漢洙)와 이영실(李英實), 제5구 송산 지역은 허관(許觀), 제6구 우산(牛山) 지역은 이진옥(李鎭頊)과 최중렬(崔鍾烈), 제7구 가려(佳麗) 지역은 이민기(李民基), 제8구 교사(校社)와 무량(武良) 지역은 천성락과 구종근을 배치되어 활동하였다.<sup>183)</sup>

1929년에도 한재가 계속되어 수많은 농민들의 생활이 크게 곤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1월 8일 이재민 구제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지주간담회가 개최되어 군수의 한재상황 보고와 도내를 순시중인 경남 도참여관(道參與官) 이범옥(李範域)이 ‘한재민(旱災民) 구제와 농사개량의 필요’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소작자의 구호대책으로 지세 면세지는 소작료를 모두 면제할 것, 면세지 이외 토지에는 수확량에 따른 소작료를 감해 줄 것, 본

183) 『동아일보』 1928년 11월 18일.



년(本年)은 특종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평작 이상의 수확이 있다하여도 소작인의 생산비는 예년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으므로 상당한 장려곡(獎勵穀)을 교부하거나 또는 동액의 소작료를 감할 것, 이듬해 4, 5월 이후 소작인의 식료는 대부분 대맥(大麥)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맥작(麥作)을 장려하여 소작인이 맥작을 희망할 경우 자진(自進)하여 이를 작부(作付)시키고 종자가 부족할 때는 지주가 이를 대여할 것, 한해가 있는 소작인에게는 다음 해의 종자인(種子糶)을 무상으로 지주가 대여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1931년에는 수리조합설치를 둘러싸고 지주와 소작인간에 큰 갈등이 발생하였다. 고성에도 수리조합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합창립위원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전개하면서 대다수 지주의 동의를 얻어 인가수속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당초 설치동의서에 날인한 지주도 처음에는 수리조합이란 어떠한 성질의 조합인지 또 사실에 있어서 수리조합이 되는지 금융조합이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관계 당국원의 권유에 의하여 승낙하였던 것이 비로소 수리조합이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고, 더욱이 고성수리조합을 설치하는데 있어 이해타산도 검토한 결과 조합설치를 용인할 수 없다며 몽리구역(蒙利區域)에 있는 지주들이 경상남도 와 총독부 당국에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하여 상황이 반전되었다. 이에 고성군 덕선면 대평리, 대가면 암전리에 거주하는 지주와 소작인 3백여 명이 연서 날인하여 곧 제출키로 되어 있었다. 이때 진정서를 제출하면 효력은 있으나 이에 도장을 받으러 다닌 사람은 징역을 살게 될 것이라는 풍문이 돌면서 수리조합설치를 주도하던 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연서 날인한 문서를 몰래 태워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알게 된 인근 주민과 지주들의 원성과 불만이 팽배하여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sup>184)</sup>

고성지역의 지주와 소작인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1931년 3월 경비 약 25만원으로 고성수리조합 설치 신청이 인가되었다. 이후 이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어 5월 31일 고성면 덕선리(德仙里) 저수지(貯水地)에서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이 공사는 경성녹도조(京城鹿島組)에서 맡게 되었다.<sup>185)</sup> 이즈음 고성수리조합 공사와 각종 구제사업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토목공사 및 고성간이수도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고성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조합 발회식(發會式)은 1931년 7월 18일 고성면 덕선리 고성수리조합 공사현장에서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고성면장, 고성군수, 만강(滿岡) 경찰서장, 면협의회원, 수리조합장, 부근 각 면장, 녹도조 대표자, 신문기자 등 백수십명이 참석하였다.<sup>186)</sup>

고성수리조합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경성녹도조는 인부 약 3백명을 모집하기

184) 『동아일보』 1931년 4월 10일.

185) 『매일신보』 1931년 6월 4일.

186) 『매일신보』 1931년 7월 29일.

위해 부산직업소개소에 이를 의뢰하였다. 부산직업소개소에서는 경상남도 내무국 사회과에 이에 대한 협조를 의뢰하고, 충청북도에도 의뢰하였다. 모집하는 인부는 주로 저수지공사에 투입될 담군(擔軍)과 토공인력이었고, 임금은 노력과 능률에 따라 차등을 두되 40전 내지 50전 정도로 책정되었다.<sup>187)</sup>

11월에는 소작쟁의가 있는 논을 공동경작한 일로 농민조합 간부가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영현면의 지주 정만규(鄭晩奎)와 소작인 서응수(徐應洙) 사이의 소작쟁의가 발생하였는데 10월 31일 밤에 고성농민조합 신전반(新田班)과 대법반의 반원이 총동원되어 쟁의가 된 논에 보리를 공동경작한 사건으로 경찰의 검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성경찰서에서는 11월 3일 송본(松本) 서장이 정사복 경관 수명을 대동하고 대가면 송계리에 출장하여 조사를 실시하더니 다음날 새벽부터 고성농민조합 간부와 청년 수명을 검거하여 자동차로 본서에 압송하였고, 대가면에 있는 대가소비조합 사무소를 비롯하여 여러 곳의 가택을 수색하여 약간의 문서와 서적 등을 압수하였다. 또한 대가면과 영현면 사이에 정사복 경관으로 엄중한 경계를 하는 한편 읍내에서는 고성농민조합집행위원장 권순학(權淳學)을 검거하여 유치하고 엄중한 취조를 가하였다. 7일에는 배(裴) 사법주임이 형사를 대동하고 대가면과 영현면에 출장하여 두 곳 주재소에서 약 40명의 농민을 소환하여 9일까지 계속 취조하고 이후에도 매일 수십명씩의 농민을 호출하여 엄중한 취조를 진행하였다. 12일에는 고성경찰서 고등계원과 형사대가 총동원이 되어 읍내 사회단체 회관을 비롯하여 각 단체 간부 가택을 수사하여 문부와 서적 등을 압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때 검거된 인물들은 권순학, 이효율(李孝律), 이진하(李鎭河), 이진영(李鎭永), 이상모(李相模), 박우상수(朴又尙守), 손상국(孫尙國), 허경룡(許景龍), 허종필(許宗必) 등 9명이었다.<sup>188)</sup>

영현면에서 발생한 소작쟁의로 농조간부의 검거와 검사국으로 송치하여 분위기가 험악해진 가운데 지주 김재기(金在基)와 소작인과의 쟁의가 또다시 일어났다. 지주 김재기는 영현면에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종래부터 소작료가 비싸다는 불평이 많았다. 그런데 재해가 심하여 대부분의 지주들이 소작료를 감액하였지만 그는 예년과 같은 소작료를 받으려고 하므로 소작인 20여 명이 굳게 결속하고 내용증명으로 지주에게 반조(半租)를 주장하는 한편 소작인들은 서로서로 타작하는 곳에 입회하고 실제 수확량을 기록하는 등 지주의 행태에 반발하였다.<sup>189)</sup>

같은 시기에 영오면 오서리에 있는 지주 김기태(金琪泰)의 소작인 50여 명도 굳게 결속

187) 『매일신보』 1931년 10월 7일.

188) 『동아일보』 1931년 11월 17일.

189) 『동아일보』 1931년 11월 22일.

하고 소작료 감하운동을 일으켰다. 11월 19일 지주 김기태가 수확하는 현장에 오게 되자 소작인들은 점심도 굶고 단판하였으나 해결을 짓지 못하였다. 김기태가 떠나려고 하자 그가 탄 자동차를 소작인들이 포위하고 교섭하려 하였지만 끝내 해결을 짓지 못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소작료를 둘러싼 쟁의는 시간이 갈수록 지역마다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그 이유는 토지는 줄었으나 반면에 소작료는 변하지 않거나 도리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1931년 11월 26일자 기사에는 영현면 대법리와 대가면 신전리에 논을 가진 지주 강효순(姜孝淳)의 사례를 거론하고 있다. 강효순은 이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논에 대한 소작료가 예전에는 40석 정도였는데 지금은 소유한 논이 도리어 7, 8두락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작료는 전에 비하여 거의 두 배로 불어 70여 석이 된다며 이를 통해 지주 계급이 가혹하게 소작료를 징수하는 것과 소작인의 고통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2월에도 소작료를 둘러싼 쟁의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전개되었다. 11월에 영현면에서 있었던 쟁의로 검거된 9명은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검사국으로 넘겨져 취조를 받다가 11월 28일 3명은 석방되고, 5명은 공판에 부쳐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월 2일 하일면 학림리에서는 고성읍내 이시영(李始榮)의 대리인 김정홍(金正洪)이 소작료 징수를 하면서 정해진 두개(斗概)를 사용하지 않고 근수(斤數)가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수십명의 소작인이 극도로 분개하여 소리를 치며 일제히 쫓기하자 김정홍은 하일면 주재소에 피신하였다가 겨우 빠져나갔으며, 소작인들은 결속을 굳게 다짐하고 소작료 감하(減下), 두개(斗概)를 사용할 것, 근수제(斤數制)를 철폐할 것, 입폐지(入廢止)할 것 등 4개 조항을 요구하며 쟁의를 계속하였다.

영현면 대법리와 대가면 신전리에 있는 지주 김재계(金在桂)의 소작인 30명은 소작료가 종래부터 너무 많아서 불평이 끊이지 아니하였는데 흉년으로 인해 수확이 2, 3할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와 같은 소작료를 받으려 하자 소작인들이 연명으로 김재계에게 소작료 감하 진정서를 보냈다. 이에 지주로부터 대표를 보내라고 하여 곧 대표를 보냈지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고, 김재계가 소작료를 징수하려 당지에 온다고 하자 소작인들은 초지를 관철할 목적으로 협의를 거쳐 대표를 선정하여 소작료를 5할로 정하는 것 등의 요구조건을 제출하고 교섭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만에 하나 지주가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까지 항쟁할 것을 결속하였다. 12월 10일에는 김재계와 30여 명의 소작인들이 직접 대면하여 단판을 하였지만 양쪽이 강경하게 의견을 주장하여 결국 해결을 보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다.<sup>190)</sup>

이러한 과정에서 소작계약 당시 소작인으로부터 매 두락에 20전 내지 50전의 금전을 징수한 사실이 있다는 것도 알려져 소작인의 요구조건 중에 이를 반환하라는 것도 포함되어 쟁의사건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 예상되었다. 11일에는 지주 김재계가 소작인의 요구조건을 일축하여 교섭은 좌절되고, 소작인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소작료를 바치지 않겠다고 하고 곡식을 한자리에 쌓아두고 대치하는 형세가 되었다. 이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지루하게 진행되었다. 11월 28일에는 지주 김재계의 대리인 鄭用吉이 고성으로 와서 1할을 감하겠으니 소작료를 납부하도록 제시하며 경찰서에 조정을 요구하여 소작인대표 박진학(朴鎭學), 손상국(孫相國) 외 2명과 송목(松木) 경찰서장이 한자리에 모여 협의하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해를 넘겨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1932년에는 영오면에서도 소작쟁의가 크게 일어났다. 지주 고운수(高雲壽)의 전답 1백여 두락이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에 거주하는 새로운 지주 방병국(方柄國)의 소유가 된 후 소작료를 둘러싼 쟁의가 발생하였다. 앞서 고운수가 소유하였을 때 대풍작인 해에도 94석을 간평하였는데, 방병국의 소유가 된 후 흉년으로 3, 4할 이상 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7석을 간평하였으므로 일반 소작인들은 지주에게 반항하는 동시 소작료 고지서를 그의 사음(舍音)인 천용기(千容基)에게 전부 반환하고 지주와 각 주무관청에 탄원서를 제출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방병국 지주로부터 소작료를 감하한다고 통지할 때까지는 소작인 모두 소작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동맹하고 끝까지 결속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1932년에는 고성수리조합이 창설되고 몽리구역내에 있는 전답은 수세가 부과되었다. 수세 부담률에 대해 지주와 소작인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주들과 일본인들은 소작료를 인상하거나 소작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수리조합의 설치에 따른 농비감소와 소출증가가 있더라도 그 이익은 고스란히 지주들에게 돌아가는 형세가 조성되었다.

1933년 고성관내 수리조합은 두 곳이 있었다. 고성면에 있던 고성수리조합은 조합장 덕원안웅(德元安雄), 이사 정상의웅(井上義雄), 서기 고천정부(古川正夫), 기사(技士) 사전박미(砂田博美)가 임원으로 있었다. 동해수리조합은 조합장에 이채갑(李采甲), 서기는 이찬근(李燦根)이 맡고 있었다.

1934년 12월에는 농지령 발표 후 제1회 고성소작위원회가 고성군청에서 개최되었다. 고성군수를 비롯하여 위원 국영친사(菊永親司)·덕원충삼(德元忠三)·오봉수(吳鳳壽) 등이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안건을 조정하여 해결하였다.

1. 신립인(申立人) 구만면 화림리(華林里) 최낙찬(崔洛贊) 대(對) 통영군 길야정(吉野町)

190) 『동아일보』 1931년 12월 13일.

김영기(金營琪)의 소작료 감액쟁의사건은 기정(既定) 소작료 5석 5두를 4석 2두로 조정 성립

2. 신립인 대가면 유흥리(柳興里) 정한진(鄭翰振) 대 같은 지역 최동진(崔東鎭) 소작권 취상(取上)사건은 최동진이 자작(自作)의 목적으로서 전(前) 지주로부터 금년 봄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소작권을 취상하려고 하므로 위원회에서는 조정의 결과 이후 1개년간 종래와 같이 소작시키도록 해결.<sup>191)</sup>

1935년 4월 고성수리조합에서는 조합회의실에서 정기총대회를 개최하고 이갑용(李甲用), 사전원일(砂田源一), 박창순(朴昌淳), 도산(島山)의 김종주(金鍾注), 동척회사 김사수(金思綬), 고성면 이택이팔(伊澤利八), 이택부언(伊澤富彦) 이판수(李判洙) 이석희(李石喜), 삼평(三坪)의 덕원충삼(德元忠三), 보충원(補充員) 임병기(林炳璣) 외 13명 등 평의원을 개선하였다.<sup>192)</sup>

소작쟁의는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빈발하는 추세에 있었다. 1935년 5월 고성지방에서는 이양기를 앞두고 물대기에 한창 바쁜 때에 소작쟁의가 격증하였다. 고성군 소작위원회에 신청한 소작조정건수가 30건에 이르렀고, 소작위원회에서는 지주와 소작인의 쟁의를 조정하여 일부 해결을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양기에 지주나 마름들이 중간에 농간을 부려 소작권을 이동하여 농촌의 인심을 악화시키면서 소작쟁의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9월 19일에는 고성경찰서 연무장에서 지주간담회를 개최하고 노태식(盧台植) 군수의 사회로 8월 8일 개정 발표하여 10월 1일부터 실행하게 된 조선곡물검사령규정에 따른 곡물검사를 두고 장시간 토의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조선에서 사용하는 섬 [俵] 은 검사에 불편하므로 가마니 [叭] 를 사용하되, 가마니 한 개에 대하여 5전씩 소작인에게 보조하자는 것과 검사한 나락 [租] 으로서 소작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검사수수료와 검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주가 분담하는 것 등을 협의하였다.

1936년 6월에는 마산에 주소지를 둔 산본이삼랑(山本伊三郎)이 고성읍내 수남동 해안을 매축하여 수백 두락의 논을 기정하여 오던 중 수년 전에 고성면에서 상수도를 설치하자 이 수원지가 자신의 水田灌溉에 피해가 된다는 구실로 1천 수백호 주민의 식수문제를 불고하고 공연히 면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를 당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고 소작인 등 70여 명을 소집하여 상수도 수원지 보(洑)를 개축한다는 이유로 상수도의 철관 등을 파괴하고 고성군청에 몰려가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고성경찰서에서 출동하여 즉시 군중은 해산을 시키고, 6월 20일에는 문제의 인물 산본이삼랑과 주동자 5명을 유치시키고 밤낮으로 엄중한 취조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10여 일간 모두 11

191) 『매일신보』 1934년 12월 17일.

192) 『매일신보』 1935년 4월 16일.

명을 검거 취조한 결과 7월 1일 2명은 석방하고, 산본이삼량 외 8명은 수도과괴,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죄명으로 4, 5명의 경관이 압송하여 통영검사국으로 넘겼다.<sup>193)</sup>

수리조합설치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으로 운영되고 지주와 마름들의 농간이 없을 경우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 1937년 8월 오랜 기간 한밭이 계속되어 흉작을 우려하던 회화면 삼덕리 지방은 수리조합만 설치된다면 몽리구역 3백여 정보가 옥도화되어 한재의 염려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주 3백여 명과 소작인 6백여 명은 수년간 현안 중에 있는 수리조합설치를 관계 당국에 진정하여 성사시키려고 하였다.

1937년 9월 30일 고성군농에서 주최한 지주간담회에는 70여 명의 대지주들이 모여 ① 수도 우량품종 보급에 관한 건, ② 수도 신품종의 보급에 관한 건, ③ 인(粃) 건조(乾燥) 개선에 관한 건, ④ 인 공동판매 확충에 관한 건, ⑤ 비료공동구입 배합비료 보급에 관한 건, ⑥ 소작인 소득에 관한 건, ⑦ 맥작개선에 관한 건, ⑧ 녹비재배 장려에 관한 건, ⑨ 면작 장려에 관한 건, ⑩ 농촌진흥운동에 관한 건 등 10가지 사항을 협의하여 통과시켰다.<sup>194)</sup>

1938년 1월에는 고성 수남동에 많은 간척지를 소유한 산본이삼량이 고성면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불암천 개수공사를 구실로 소작인을 출동시켜 시설물을 파괴한 일로 투옥되었다 풀려난 뒤 소작인 박금석(朴今碩) 외 49명에게 3백 두락의 소작권 이동 통지를 하는 쟁의가 발생하였다. 청천벽력같은 통지를 받은 소작인들은 군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을 신청하고 당국의 처분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하는 처지가 되었다. 고성군 소작위원회와 산본이삼량 사이에 소작인들의 진정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연기되었다.

1940년 2월 29일 고성군청 회의실과 고주심상소학교(固州尋常小學校)에서 각 읍면장과관계자 및 지주 등 2백여명을 모이게 하여 지주간담회와 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1939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소작료통제령 취지에 대한 설명과 증미계획 실시에 대해 독려했다. 이 자리에서는 종래 지주측에서 과중한 소작료를 요구하거나 마름으로부터 무리한 착취를 하는 등의 악습을 제거하고, 지주와 소작인간에 적정한 소작료를 결정하여 상호간에 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것 등에 논의하였다.<sup>195)</sup>

1943년 고성에는 4개 지역에 수립조합이 조직되어 있었다. 고성읍에 있던 고성수리조합은 조합장 중도미칠(中島彌七), 이사 정상의웅(井上義雄), 서기 조능대(曹能大), 고원 권영숙(權寧壽★)·황갑용(黃甲容)·김순도(金順道)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3) 『동아일보』 1936년 6월 24일.

194) 『동아일보』 1937년 10월 8일.

195) 『동아일보』 1940년 3월 14일 ; 『매일신보』 1940년 3월 5일.

동해면에 있던 용문(龍門)수리조합은 조합장 이채갑(李采甲), 서기 이기훈(李基훈★) 맡고 있었다. 거류면에 있던 은월수리조합은 조합장 이진홍(李震弘), 촉탁출납역 황성옥(黃性沃), 촉탁서기 황천익(崔千益)이 맡고 있었다. 동해면에 있던 봉암(鳳岩)수리조합은 조합장 임병은(林炳殷), 촉탁출납역 김경수(金敬守), 촉탁서기 김종윤(金鍾潤)이 맡고 있었다.

## 제 10절 3·1운동의 전개와 고성

1919년 전국적, 거족적으로 전개된 3·1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의 분수령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 운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이어져 우리 민족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1919년 독립만세운동은 권동진 오세창, 최린이 천도교 교주 손병희를 만나 독립선언과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손병희가 이를 적극적으로 허락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나갔다. 독립운동의 방향은 대중화하여야 할 것, 일원화해야 할 것, 비폭력으로 한다는 원칙을 결정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준비과정에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의 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민족대표가 구성되었다. 종교계 인사들이 독립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일제에 의해 모든 사회단체가 해산당하였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되어 다른 조직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 해외로 망명하거나 피신하였으므로 국내의 대중들과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조직은 종교단체와 학교가 있는 정도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단체는 종교계와 함께 민족대연합전선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학생들은 3·1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 33인의 민족대표는 천도교에서 손병희·최린·권동진·오세창·권병덕·양한묵·이종일·이종훈·홍병기·김완규·임예환·나인협·홍기조·나용환·박준승 등 15인이 선정되었고, 기독교계에서는 이승훈·김병조·이명룡·길선주·양전백·유여대·이갑성·신호식·박희도·이필주·신석구·오화영·김창준·정춘수·최성모·박동완 등 16인으로 정해졌고, 불교계에서는 한용운·백용성 2명이 선정되었다.

### 경남지역 만세운동 전개 양상

경남 지역의 3·1운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지만 대단히 완강하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 지역의 만세운동은 고종 황제의 인산(因山)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가져와 운동을 주도하거나 서울의 학생 대표들이 내려와 시위를 주도하였다. 또한 민족대표가 소속된 종교단체를 이용하여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면서 시작되었다.

먼저 3월 3일 부산과 마산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서울의 만세시위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만세운동이 일어난 시기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3월 초순부터 4월까지 계속되었다. 경남에서 가장 먼저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은 함안이었다. 3월 9일 함안 연개장터에서 시작된 시위는 이후 3월 11일 부산, 3월 13일 동래·창원·밀양·사천·양산·하동에서 일어났고, 3월 14일에는 의령, 3월 18일에는 함천·진주·통영으로 확대되었다. 울산과 남해·창원지역은 다른 곳과 비교하여 조금 늦은 4월 상순에 시위가 시작되었다. 경남 지역의 만세운동은 3월 중순과 4월 초순 시기에 절정에 달하였고, 4월 중순 이후로는 일제가 강력한 탄압과 더불어 병력을 증강 배치하면서 차츰 약화되었다.

경남의 운동을 조직하고 주도해 간 사람들은 이 지역의 지식인, 청년 학생, 유생 등 지역 사회의 식자층이었다. 각 지역에 설립된 사립학교는 시위의 거점이 되었다. 그리고 지역의 명망가로 대중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유생들이 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농민,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민중이 만세운동의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시위가 확산되어 가자 일제의 탄압 방식도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만세 시위운동은 보다 조직적, 계획적으로 준비되어 전개되었다. 경남지역 시위운동의 특징 중 하나는 초기부터 민중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폭력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민중들은 일제의 각종 식민지 지배기관을 습격하여 파괴하는 등 지방 행정을 일부 마비시키기도 하였고, 일본인 지주, 상인, 자본가와도 맞서 싸웠다. 일본인에 대한 고용거부, 일본 상품 불매운동, 소작료 지불 거부 등의 경제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경남 지역은 도내 21개 군 모든 곳이 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였으며, 단화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회 내지 연속적으로 전개하는 곳이 많았다.

## 고성의 만세 시위운동

### 1) 고성읍 만세

1919년 고성에서도 만세시위 운동이 전개되었다. 1919년 3월 15일 밤 철성의숙으로 진주 사람 이주현이 찾아왔다. 그는 의열단원으로 제1차 일본인 고관암살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인물로서 朴居洙와 朴鎭完에게 고성에서도 독립만세를 거행할 것을 설득하고 독립선언서를 전달한 후 돌아갔다. 이에 박거수와 박진완은 裴萬斗·李相銀·金相燬 등과 함께 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실행 계획을 상의하고 3월 17일을 거사일로 정한 후 박거수 집과 철성의숙



에서 태극기를 만들었다.

고성의 철성의숙은 고성읍 무량리에 거주하는 박거수가 1908년 사재를 털어 덕선리 선동 마을에 설립한 학교로 1930년 폐교될 때까지 22년간 민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철성의숙은 國恩·師恩·父恩을 기반으로 한 애국애족 정신으로 나라를 되찾고 조국의 완전독립을 꾀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았다. 학생들에게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 학교 주변에는 무궁화를 심는가 하면 개천절에는 대운동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들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에 열중하였다. 1929년 4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교될 당시 신간회 고성지회는 학교 측이 폐교를 결정하고 그 재산을 학교비(學校費)에 기부하기로 한 무성의한 조치를 비난하면서 철성의숙을 복교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일제는 이를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철성의숙은 1930년 9월 폐교되기에 이르렀다. 철성의숙은 일제시기 고성의 중요한 사립교육기관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1919년 3·1만세운동의 첫 시발점이기도 하였다.

고성의 만세시위 거사방법으로 제1차는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으로 하되 배만두가 책임지기로 하고, 제2차는 기독교인을 동원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이상은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제3차는 농민을 동원하는 것은 김상욱이 책임을 맡는 것으로 하였다. 만세운동은 마산가도, 통영가도, 진주가도, 대가가도 등 네 가도에서 한꺼번에 일으켰다가 장터에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거리를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철성의숙에서 읍내로 가는 도로인 대가가도에서 일으키려던 거사는 사전에 누설되면서 3월 17일 새벽 일본 헌병들이 배만두의 가택에 갑자기 들이닥쳐 수색한 후 그를 검거하면서 계획했던 만세운동은 아쉽게도 무산되고 말았다.

만세시위 주동자인 배만두가 구류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고성지역의 기개는 꺾이지 않았다. 이즈음 일본 東京正則英語學校를 졸업하고 고성읍에 와 있던 安太元은 귀향 중에 있던 부산상업학교 학생 徐周祚와 협의한 후 고성공립보통학교 학생들과 비밀회합을 여러 차례 가졌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지금 각지에서는 일개 농부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고성은 무엇 때문에 이를 결행하지 않는가? 지금이야말로 수수방관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하여 학생들에게 독립만세운동에 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마침내 안태원·서주조를 중심으로 하여 학생 약 2백명은 3월 22일 정오 고성읍 시장(객사마당:현 문화의 집)에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한 후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만세시위는 경찰의 탄압과 주동 인물들의 검거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으나 일반 민중들에게 커다란 자각과 용기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후 4월 1일 장날에는 앞서 있었던 만세운동보다 규모가 큰 시위가 일어났다. 이날 오

후 4시 30분경 고성읍 쌀시장(객사마당:현 문화의 집)에서 金鎭萬·文祥範 등은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자 수백명의 군중들이 호응하며 독립만세를 크게 연호하였다. 이날의 만세시위는 삼산면 천도교도와 읍내 노동자 약 60명이 주도하며 전개되었다. 이들은 처음에 쌀시장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한 후 곧이어 시위로 들어가 김진만·문상범을 선두로 하여 어시장을 돌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에 놀란 고성헌병분견소에서는 사천에 있는 일본군 헌병분견대원과 고성의 일본군 재향군인 분회원·소방대원들의 협력을 얻어 총검으로 탄압하였고, 이에 군중들은 해산하게 되었다.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였던 7명이 체포되어 마산으로 압송되었다. 김상환, 경상남도의 3·1독립만세 운동, 경인문화사, 2012, 167~168쪽, 고성군지, 337~340쪽,(매일신보 1919.4.6)

## 2) 구만면 국천 사장(沙場)과 회화면 배둔리 시장 만세

구만면에서는 고종황제의 인산에 갔다가 서울에서 3·1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최낙중·崔正元은 고성으로 돌아와 허재기·崔正周·崔洛僖 등의 인사들과 비밀리에 회합하여 동지들을 규합하며 만세운동을 준비하였다. 거사일을 3월 30일로 정한 그들은 나팔소리가 나면 이를 신호로 구만면을 관통하는 국천 모래사장(현재의 구만천)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국천 모래사장은 국천이 S자 모양으로 굽어져 흐르면서 안쪽으로 모래가 쌓이는 곳인데, 공간이 매우 넓어서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씨름경기를 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만세운동을 주도하던 이들은 한문학자 이종홍(李鍾弘)에게 부탁하여 독립선언서를 요약해서 간략하게 작성한 후 이것을 필사하여 밤중에 12개 동리에 비밀리에 전달함과 동시에 각처에 이를 첨부하였다.

3월 30일 오후 1시경 구만면에서 울려 나온 나팔소리는 각 동리에 퍼져나갔다. 이 나팔소리를 신호로 개천리 마암리를 중심으로 한 시위군중은 국천사장으로 모여 들었다. 먼저 군중 앞에 등단한 최정원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어 허재기는 ‘공약3장’을 지킬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군중의 시위대열은 10리쯤 떨어져 있는 회화면 배둔장으로 향하였다. 이날은 배둔장 장날이었다. 배둔장은 고성의 동북지역 7개 면과 창원 및 함안의 수개 면에 인접하여 장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군중의 시위대열이 배둔장으로 향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고성 헌병분견소에서는 고성에 주재한 헌병과 경찰관을 동원해서 총기를 든 채 도로의 중간을 차단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시위대는 총검으로 무장한 헌병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배둔장터로 향하다가 시위대열의 선봉이 헌병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일본군 헌병은 대장의 명령에 따라 큰 말을 타고 군중의 행렬 가운데로 돌진해 왔다. 이에 격분한 군중은 헌병을 포위하여 크게 꾸짖으며 성

토하고, 나팔수는 헌병이 탄 말의 귀에 나팔을 크게 불며 저항하였다. 이때 국상(國喪)의 평양립(平壤笠)을 쓴 최정주가 당황하는 일본 헌병을 보고 크게 조롱하였다. 일본 헌병은 기백에 눌러 시위대열에서 물러섰다. 군중들의 기세는 더욱 높아졌고, 일본 헌병들의 저지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배둔시장에 도달하였다.

배둔시장에서는 전날 밤 연락으로 서찬실(徐贊實), 김갑록(金甲錄), 김동기(金東琪) 등이 군중과 더불어 태극기 앞세우고 선두로 마중 나왔다. 그 인원은 700~800명에 달하였다. 일본 헌병대에서는 일본 재향군인의 협력을 얻어 전원이 출동하여 주동 인물 색출과 검거에 돌입하였다.

최정주는 이에 강력히 대항하면서 일본 헌병 오장 관원의 엄지손가락을 꺾어 검거된 동지를 구출하기까지 하였으며, 당일엔 희생없이 모두 해산하였다. 그리고 구만면 동지들도 무사히 구만면 사무소로 귀환하였다. 그들은 우선 허재기가 작성한 다음과 같은 ‘한인관리퇴직권고문(韓人官吏退職勸告文)’을 면서기 이재홍으로 하여금 등사하게 하였다.

현재 한인 관리는 일일조속(一日早速) 용퇴하여라! 불원장래(不遠將來)에 후회막급하리라. 대한독립은 우리 한국 자체가 요청하는 것보다 역사적 필연의 단계에 도달되었다. 고진감래와 물극필반(物極必返)은 고금의 통리가 아닌가! 반만년 문화민족으로서 비열한 도이(島夷)의 압박에 신음한 지 범(凡) 기십년(幾十年)이고, 불국 파리에서는 만국평화회의가 개시되고 미국 윌슨대통령으로부터 민족자결주의가 선포되었다. 만장일치로 일본 역시 인도상 찬동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일시적 시도가 아니요, 세계 열방의 공인인 동시에 실로 천재일우(千載一遇)의 만년대계이다.

내(內)로 2천만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상대자의 망상을 좌절시키고, 외(外)로는 천하만국에 호소하여 국제공법(國際公法)의 제재를 가하는 바, 경우에 있어서 일본이 자각한다면 과거는 불문에 付하고 화기애애리(和氣靄靄裡)에 악수 작별할 것이요, 거부한다면 일본은 비인도적 또는 평화의 적으로 세계로부터 전 공세가 집중될 것이니, 이때인즉 일본이 패망하는 순간이요, 우리 한국 문제는 불언가상(不言可想)이라.

금일 吾人은 문호를 개방하고 흉금을 피력하여 군배에게 일언의 충고를 불식(不惜)하노라.

대체로 금번 투쟁의 목적이 최후 1인까지 한정된 이상 군배(君輩) 역시 한국의 1분자(一分子)가 아닌가!

소위 한인 관리라면 일인의 평민을 대항할 수 있는가! 명칭만이요, 그 실은 노예가 아닌가!

우리의 조상 즉 군배(君輩)의 조상들도 일본과 원수였다. 현재도 군배를 사주(使嗾)하여

골육상잔의 음모를 암시(暗試)하지 않는가!

조상에게 득죄도 득죄려니와 종내에 민족 반역자의 처단을 면치 못할 것이니 사실이 사실인만큼 재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요, 기회가 기회인만큼 주저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군 배는 현장(現場)을 탈퇴(脫退)함으로써 한인의 자체에도 손색이 없고 국가독립 후에는 당당한 관리로 등용될 것은 공의와 실정이 증명하는 바이다. 만대의 영욕과 일생의 성패가 좌우되는 기로(岐路)에서 반성하여라. 시기가 절박하였으니 맹성(猛省)하여라.

을미 3월 일 대한독립동맹(大韓獨立同盟)

이러한 내용을 등사한 ‘한인관리퇴직권고문’을 먼저 구만면사무소 정문에 한 장을 붙이고 모두 산회하였다. 다음날 이 권고문을 각 도와 군의 관공서에 발송하였다. 운동 당일 현장에서 주동 인물을 잡지 못한 일본 헌병들은 해당 지역 일본 재향군인들의 협력을 얻어 운동 경위를 세밀하게 조사하여 관련 인물을 검거에 나섰다.

이때 구만면 국천 모래사장의 만세운동과 회화면 배둔리 거사의 주동 인물들인 허재기, 최정원, 최낙중(崔洛鍾), 이정수(李正洙), 문태룡(文泰龍), 구영서, 서찬실, 김동기 등이 검거되었다. 이들 가운데 구영서, 서찬실은 태형 60을 받았고, 김동기는 미성년으로 방면되었으나 나머지는 6월 내지 3년형을 선고 받아 마산 또는 대구형무소에 투옥되었다. 최정주는 검거되었다가 도중에 탈주하여 일본으로 도주하였다. 최낙중은 거사 후 서울로 피신하여 잠시 조선일보기자로 지냈으며 그 후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재일교포를 망라하여 동흥노동동맹(東興勞動同盟)을 창립하고 친일단체인 상애회(相愛會)에 대항하였다. 또한 서상한, 이혁, 변영우 등과 협력하여 노동월간지와 기타 신문과 잡지를 발간하여 해내외에 반포하는 등 항일독립운동에 큰 공적을 남겼다.

특히 검거된 주동 인물 가운데 허재기는 사건 전체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진주재판소로부터 고법까지 올라가 전후 사실을 합쳐서 1년 6월의 선고를 받고, 未決까지 합하여 2년의 형을 받고 대구와 마산형무소에서 징역을 살았다. 권고문을 작성한 허재기는 출옥 후 저런 학당(亭蓮學堂)을 창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일본 경찰의 방해와 탄압으로 1년 남짓 후에 폐쇄당하고 말았다.

### 3) 대가면 송계리 등 만세운동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 사립강습소의 만세시위는 1919년 4월 2일 송계리 주민 약 300명이 참여하였다. 이 만세시위는 대가면 송계리 이진동(李鎭東)의 주도하에 오후 2시경 나팔소리를 신호로 송계의숙(松溪義塾)으로 모여든 주민들은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대대적

인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송계의를 1914년부터 1924년까지 고성지역에서 민족교육을 담당하였던 사립학교로 3·1운동 당시에는 송계리 주민들의 대한독립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던 장소이기도 하다. 만세운동은 곧바로 출동한 일본 헌병과 경찰관 주재소 경관들이 총검으로 위협을 가해오므로 시위대열이 흩어지면서 해산되었다.

이 외에 상리면 오산리에서는 한일동(韓日東)이 진주지역의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나서 돌아온 후 동리 청년들을 규합하여 거사를 논의하면서 만세운동이 준비되어 갔다. 비밀리에 거사를 준비하던 한일동과 한기원(韓琪源)·진택성(陳澤成)·진정성(陳丁成)·진윤성(陳潤成)·진구성(陳九成)·진갑성(陳甲成)·진인성(陳仁成)·진익성(陳益成) 등이 주역이 되어 한지에 ‘독립만세’라고 쓴 깃발을 들고 오산리 삼거리에서 약 50명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때 상리주재소에 파견되어 있던 일본헌병들이 달려와 총칼로 위협하므로 만세운동은 해산하게 되었다. 4월 3일에는 영오면에서도 독립만세시위가 있었다.

고성지역에서 전개된 3·1독립만세운동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월일	장소	인원/횟수	주도세력	운동상황	피해상황		
					사망	부상	체포
3.17.	읍내		청년	사전발각			
3.22.	성내	200	고보생, 예수교	시위			
3.28.	상리	30		시위			
3.30.	회화	500		시위 충돌			
3.30.	개천	500	유림	시위 충돌			
4.1.	읍내	80	천도교도, 노동자	시위	1		7
4.2.	대가	200	이진동 등	시위			
4.3.	영오						
3월~5월	3회	1,500	『한국독립운동지혈사』		30	20	10

#### 4) 철성면(고성읍) 쌀시장터(객사마당:현 문화의 집) 3·1운동 만세시위

일본의 도쿄 정칙영어학교에 다니면서 2·8독립선언 당시 참여하였다가 귀국한 철성면 성내동 출신의 안태원과 고향에 돌아와 있던 부산상업학교 학생 서주조 등은 뜻을 같이하는 여러 동지들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이들은 고성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독립만세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1919년 3월 22일 안태원 등은 고성보통학교 학생 200여 명을 철성면 쌀시장터로 이끌고 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학생들이 앞장서서 태극기를 흔들고 시가를 행진하며 시위를

별이자 장터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일본 헌병과 경찰이 급히 출동하여 총검으로 학생들을 위협하고 주동 인물들을 검거하면서 시위 대열이 흩어지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4월 1일에는 김진만, 문상범 등이 철성면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쌀장터에 사람들이 모이자 김진만 등은 가지고 나온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 어시장으로 향하였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만세시위에 참여하여 진행하였는데, 시위 규모가 점차 커지자 고성 헌병분견소에서는 사천의 일본군 헌병분견대의 지원군과 재향군인, 소방대원까지 동원시켜 총검을 휘두르면서 해산시키려고 하였다. 심지어 일본 상인들까지 협종을 들고 나와 제지하는 상황까지 전개되었다. 이것을 보고 격분한 문상범은 일본 헌병에게 달려들었으나 총검에 맞아 피를 흘리며 어시장 안에 있는 샘물 터에 쓰러졌다. 일본 헌병이 문상범을 체포하여 끌고 가는 등 사태가 위태롭게 되고 만세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게 되자 군중들은 울분을 억누르면서 일단 해산하였다. 이 만세시위로 김진만, 문상범, 김상옥 등 시위를 주도한 인물들은 붙잡혀 가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았다.<sup>196)</sup>

### 5) 옥천사(玉泉寺)와 승려 의거

일제시기 경남지역 애국지사들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옥천사에서도 만세의거가 있었다. 옥천사는 개천면 연화봉 중턱에 자리잡은 옥천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고성의 유서 깊은 사찰로 1208년 진각국사(眞覺國師)가 중창했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39년 학명(學明)과 의오(義悟)가 다시 세웠으며, 1883년(고종 20) 용성(龍城)이 중건하였다. 일제의 강압적인 한일합방 이후 여러 분야에서 구국 독립운동이 전개될 때 직접, 간접적으로 사찰과 승려들의 활동도 적지 않았다. 옥천사의 승려 신화수(申華秀)와 한봉진(韓奉振)은 호국사상이 투철하여 3·1만세운동 전후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애국지사 변상태(卞相泰), 이주현(李周賢), 곽인협(郭寅協), 이조협(李朝協), 선우협(鮮于協) 등의 애국지사 등이 이곳을 드나들며 나라 일을 논의할 때 숙식을 제공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신화수는 1921년 전국의 동지를 규합하여 제2차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면서 승려복을 벗어버리고 농사꾼으로 변신하여 주로 영오면 오동리에 거주하는 서정운을 만나 거사를 논의하였다. 서정운의 가르침과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거사를 결행하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 고향의 친구였던 이경렬(李敬烈)이 일본헌병의 앞잡이로 활동하면서 신화수 등의 계획

196)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부산·울산·경남 독립운동사적지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을 믿고하였다. 일본헌병들이 옥천사에 들이닥쳐 신화수가 은신하고 있는 방문을 열고 “네가 바로 신화수지?” 라고 묻자, 신화수는 “어허 한 발 늦었구려, 신화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쫓기는 듯 황급하게 저 산을 넘어갔다.” 라고 말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다. 이때 일본헌병 앞잡이 역할을 하던 이경열이 신화수를 지목하므로 꼼짝없이 체포되었다. 신화수는 영오면 헌병파출소로 끌려가 모진 고문과 취조를 당하였고,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서정윤 부부가 여러 차례 파출소에 불려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진주에 있는 경상남도 경찰부로 이송된 신화수는 손톱과 발톱을 모두 뽑히는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재판을 거쳐 경성감옥에서 복역하였다.

이 사건을 제2차 독립운동 기도(企圖)사건이라고 하였다. 당시 동아일보에는 ‘제2차 독립운동을 계획하던 김두현 외 12명이 경남 경찰부에 전부 잡혔다’ 는 기사제목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고 있다.

경상남도 경찰부와 진주경찰서에서 재작년 이래로 조선독립을 운동하던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김두현(金斗鉉 : 27세) 외 12명을 검거하였는데 그 내용을 듣건대 김두현은 재작년 3월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난 후에 격렬하게 배일사상을 품고 조선 각지의 부자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여 상해임시정부에 송부할 목적으로 동년 9월중에 오십전짜리 은 메탈에 한편에는 태극기(太極旗)와 독립기념(獨立紀念)이라 새기고 한편에는 민국원년(民國元年)이라 새긴 것을 박경선(朴慶善)이란 사람을 시켜 만든 후 동년 9월 중에는 피고 고광욱(高光旭)과 이근이(李根伊)와 공모하고 하동군 북촌면 방화리 부호 李道植의 집에 가서 전기 은 메탈을 보이고 가정부원(假政府員)이라 칭한 후 군자금 1천원을 내이라 협박하여 사흘 안에 하동까지 가져오라 명령하고 여비로 돈 십원을 받았으며 또 김두현은 피고 김두옥을 통영 자기 집으로 방문하여 독립운동의 방법을 협의한 후 두 사람이 동행으로 부산부 좌천동 오재영(吳載泳)의 집에 가서 군자금 모집에 대하여 협의하였는데 오재영은 일찍이 윤태선이가 보내준 조선임시정부 십삼도총감부(十三道總監部) 명의를 사령서 두 장과 유고문(諭告文) 몇 장을 전기 두 명에게 주었으므로 김두현과 김두옥은 이것을 받은 후 군자금 모집에 종사하였으며 피고 김봉길(金鳳吉)은 재작년 9월 중에 당시 경성 중앙학림(中央學林)에 재학중인 승려 박치오(朴致悟), 박상천(朴相守)의 두 명과 경성 탑골공원에 모였을 때에 박치오 말이 “지금 독립운동하는 대동단(大同團)에서는 금년 10월 1일에 경의선 경원선 경부선의 세 구역으로 구분하여 제2회 독립운동을 시작할터이니 경부선의 선동을 맡아 하여달라” 고 부탁하매 김봉길은 이를 승낙하고 박치오에게서 독립신문 일곱장과 경고문 다섯 장과 경부선 연변의 인민선동을 맡은 위임장과 여비 40원을 받아가지고 통영군 통

영에 가서 어떠한 청년에게 군자금을 내이라 협박하여 여비로 돈 10원을 받고 다시 진주로 향하는 길에 산중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 돈 7원을 받고 진주와 남해 지방으로 돌아다니며 독립운동을 선동하였으며, 피고 김덕봉은 재작년 9월 중에 전기 박치오의 전보를 보고 부산부 영남여관(嶺南旅館)에서 전조선 제2회 독립운동을 선동하라는 위임장을 받는 동시에 독립신문 25매와 경고문 열 장을 받은 후 피고 서상건(徐尙健)과 공모하고 피고 오재영과 김두현에게 독립신문과 경고문을 배포하여 두 사람을 선동하였고 또 피고 강우석(姜佑錫)과 박만선(朴萬善)에게 그것을 배포하여 선동하였으며 기타 피고는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분수한 것이라는 데 검거된 피고의 주소와 성명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 당시 체포되거나 감옥에서 복역 중이던 인물들의 나이와 주소, 직업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97)</sup>

- 金斗鉉(27세) 경상남도 하동군 적양면 우계리(농업) : 체포
- 朴慶善(38세) 경성부 송인동 189(금은세공업) : 체포
- 金斗玉(27세) 경상남도 통영군 통영면 길야정 (칠기제조업) : 체포
- 朴萬善(37세) 경상남도 하동군 동면 두곡리 (목탄상) : 체포
- 李根伊(26세) 경상남도 하동군 동면 두곡리 (목탄상) : 체포
- 高光旭(32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면 상동리 金在永方 (어물행상) : 체포
- 吳哉泳(25세) 경상남도 부산부 좌천동 573 (인삼상인) : 체포
- 金鳳吉(25세)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자동차운전사) : 체포
- 金德奉(24세)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면 남부리 299(잡화상인) : 체포
- 徐尙健(23세)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면 남부리 300 (포목상) : 체포
- 朴致悟(26세) 경상남도 양산군 통도사 (승려) : 소재불명
- 申華秀(25세) 경상남도 고성군 옥천사 (승려) : 경성감옥 복역 중
- 姜佑錫(29세) 경상남도 하동면 하동면 읍내리 (농업) : 대구감옥 복역 중

신화수는 김상옥(金相玉) 등과 함께 혁신단을 조직하고 기관지로 ‘혁신공보(革新公報)’를 발행, 배포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활동을 한 인물이다. 1923년에는 의열단원으로서 폭탄, 권총 등의 무기를 휴대한 채 중국 상하이로부터 귀국한 김상옥에게 군자금 1천 원을 제공해 준 혐의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승려 한봉진은 1919년 무렵 대

197) 『동아일보』 1921년 5월 14일.



한독립단에 가입한 후 1926년 상해임시정부의 지령으로 군자금 모집 밀명을 띠고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던 윤영백과 함께 국내에서의 연락책임을 맡고 있던 객인섭 등과 연결하면서 옥천사를 거점으로 삼아 활동하였다. 그는 윤보한(尹輔漢)의 밀고로 윤영백과 관련된 사건으로 체포되어 1년형을 선고받고 대구감옥에서 복역하였다.

## 6) 진주의거와 고성인의 참여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의 독립만세의 의거 소식은 진주지역 애국청년들의 마음을 더 한층 격동시키면서 만세시위 거사를 준비하게 하였다. 진주 지역의 애국 청년 이강우, 김재화(金在華), 권채근, 강달영(姜達永), 박진환(朴進煥), 박용근, 강상호 등은 비밀회합을 거듭하면서 진주에서도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할 것을 맹약 결의하고 그 시일과 구체적인 거사 방법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먼저 3월 10일 전후 독립선언서와 격문을 만들어 비밀리에 배부하면서 인근 각 면의 유지와 대중을 규합하여 갔다. 전국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가는 상황에서 진주에서도 의거가 일어날 것을 예상한 경찰과 헌병은 경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만세의거의 기미를 알아차린 일제는 각급 학교에 임시 휴교를 명하고 일인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동향을 엄중하게 정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른 지방 학생들에게는 여비를 주어 강제로 귀향시키는 비상조치까지 취하였다. 이와같은 삼엄한 분위기 가운데 이강우를 비롯한 만세시위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거사일을 3월 18일(음력으로는 2월 17일)로 정하고 일본 군경의 눈을 피해 가면서 거사의 공작과 조직을 확대시켜 갔다. 거사일은 진주읍의 장날이었다. 진주읍은 경상남도의 수부로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진주장은 도내에서도 가장 큰 장시로 장날에는 원근 각지에서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드는 곳이었다.

만세시위 주동인물들은 사립 광림학교(光林學校)의 악대대원으로 있다가 졸업한 천명옥(千命玉), 박성오(朴星午), 김영조(金永祚), 이영규(李永圭) 등 4인에게 요청하여 거사 시위행렬의 선두에서 주악토록 부탁하였고, 한편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기독교회 측에는 고성군 출신 김영조가 담당하기로 하고, 각 사회단체는 김재화, 강달영, 박진환 등이 담당하여 교섭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거사 방법은 진주읍을 3개 구로 나누어 거사 당일 오전 11시경 교회의 종소리를 신호로 3개 지역에서 일제히 봉기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구는 옥봉동 부근에 집합하고, 제2구는 재판소 부근, 그리고 제3구는 시장통 부근에 집합하기로 하였다. 교회의 종을 타종하여 의거신호를 해 줄 중책은 김영조에게 맡겼다.

거사일로 약정한 3월 18일은 진주읍의 장날이었다. 이날 각 면, 각 동리로부터 수많은

군중이 진주읍으로 운집해 들어왔다. 타종 책임을 맡은 고성 출신 김영조는 약속된 시간에 진주교회로 달려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교회의 종은 일본 경찰에 의하여 철거되고 없었다. 김영조는 이 사실을 대기하고 있는 3개구에 알리고 비봉산(飛鳳山) 정상에서 나팔소리가 나면 거사하라고 약속을 변경하였다. 그는 고성 출신으로 진주에서 사립학교를 다니며 학교의 악대부원 나팔을 배웠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타종 대신에 다른 신호로 거사를 알릴 방법을 생각한 것이다.

이날 오후 1시 이영규(李永圭)는 비봉산 위에서 힘차게 나팔을 불었다. 3개구에 모인 군중은 일제히 봉기하였다. 학생들은 감추어 둔 태극기를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제2구 즉 재판소 부근에는 수천의 군중과 학생이 모였다. 이에 이강우(李康雨)가 등단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군중이 일제히 여기에 호응하니 독립만세의 함성은 천지를 진동케 하였다. 이어서 군중은 악대를 선두로 애국가를 제창하면서 시위로 들어가 성중을 일주하였다. 김영조는 군중의 선두에서 나팔을 불면서 시위를 주도하였다. 군중의 위세는 당당하고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일본 헌병과 경찰이 출동하여 시위행렬을 저지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드디어 이들은 소방대까지 동원하여 소방차로 더러운 물을 퍼붓고 곤봉으로 군중을 나타 하였으나 군중은 시위를 계속 강행하였다. 오후 4시경 시위군중의 대열이 경상도청 앞에 이르렀을 때 군중은 약 3만명으로 늘어났다. 일군 헌병과 경찰은 시위 군중 주동 인물의 복에 잉크를 뿌려 두었다. 이들은 석양에 이르러서 검거하기 시작하여 관련자 약 3백 명을 검거하였다. 그러나 시위는 그대로 계속되어 야간에도 그치지 않았다. 시위 군중들은 여러 대(隊)로 나누어 곳곳에 웅거하여 봉화를 올리고 독립만세의 함성을 드높였다. 오후 7시에는 돌연 ‘노동독립단’의 군중대열이 나타나 시위를 전개하고 2시간 뒤에는 다시 ‘결연독립단’이 나타나 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다음 날 3월 19일 진주읍내 동포들이 경영하는 상점은 모두 문을 닫고 철시하였다. 민중의 의분은 높아졌다. 오전 11시 읍내에서는 다시 7천명<일본 기록에는 약 5천 명>의 군중이 봉기하여 악대를 선두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연호, 고창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군중들은 도청과 경무부로 몰려들려 하였다. 일 헌병이 총검으로 위협하고 또 시위 군중을 난타하여 부상자는 늘어났다. 오후 3시 참다못해 청년들은 투석으로 맞섰다. 그러나 정세 불리하여 군중은 일시 후퇴하였다. 그러나 1만여 명의 군중은 또다시 시위를 전개하였다.<sup>198)</sup>

19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3·1운동사(하)), 289-291쪽 ; 조현식, 『고성의 독립운동사』, 고성향토사료연구회, 1992, 45-46쪽 참조.

## 7) 재일고성학생독립운동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은 일본으로 하여금 형식적이거나 식민지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일본은 헌병경찰정치를 버리고 이른바 문화정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책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적인 변화도 방법을 달리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식민정책의 목적이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은 문화정치를 표방하였지만 1945년까지 단 한 명의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한 일이 없었으며, 경찰기관과 헌병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1920년대 이후에는 일본 내부에서 일어난 식량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산미증식계획을 세워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식량의 수탈을 위해 토지개량과 이를 위해 각 지역 수리시설을 증가시키고 이를 위해 수리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설과 운영방식에 파생되는 문제와 부담은 결국 한국 농민들에게 져야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민족말살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대륙침략을 위해 우리나라를 병참기지화하는 정책과 식량공급지를 포함하여 상품시장으로 변화시켜갔다. 1925년 이후 경제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업부문에 투자를 늘린다는 명분을 앞세워 경제적 수탈의 수위가 더욱 높아졌으며, 1931년에는 만주사변을 일으켜 대륙침략을 본격화하고 인적, 물적 약탈과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분야의 많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민족운동이 전개되었다. 1923년에 조직된 물산장려회는 일본의 상품구매를 배격하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한편 농민들의 소작쟁의와 노동자들의 노동쟁의도 점점 활발해 졌으며,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1927년에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공동전선을 펴서 민족단일조직으로 신간회가 조직되었다. 신간회는 민족의 단결과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하고 기회주의를 배격하는 강령을 내세우며 민족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한편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한국 민족운동의 특이한 양상의 하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독립시위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3·1운동을 비롯하여 6·1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이 대표적이다. 독립운동이 국내외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독립운동 참여도 크게 확산되었다. 고성지역의 학생들은 국내 여러 지역의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을 포함하여 국외 유학중에서도 민족의식을 각성시키고 세력을 규합하여 독립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었다.

이상만(李相晩 :고성읍 우산리 762번지), 이재관(李在官 : 거류면 은월리 197번지), 이상호(李相浩 : 거류면 은월리 33번지), 심재인(沈載仁 : 고성읍 성내동 336번지) 등은 큰 뜻을 품고 李九喜의 주선에 힘입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심재인은 우도공고등농림학교

(宇都宮高等農林學校), 이상만은 장기현립간조농업학교(長崎縣立諫早農業學校), 이상호는 익전농림학교(益田農林學校), 이재관은 동경농업공업학교(東京農業工藝學校)에 각각 입학하였다. 이들은 각 학교에 재학하면서 일본인 학생들의 심한 멸시와 민족차별의 수모를 당하면서 우리도 단결하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반드시 되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우리의 말과 글이 짓밟히고, 역사와 얼까지 치욕을 당하는 현실에서 울분을 참아내며 민족독립에 나설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1939년 11월경 박근철(朴根徹), 이상만은 하숙집에서 일본인 학생인 사기행웅의 한국인 학생들에 대한 멸시에 분노를 되새기며 조국의 독립에 몸 바칠 것을 다시금 각오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국력이 약화될 것을 내다보고 그 시기를 택하여 독립운동의 거사를 모의하여 실행해 나갈 것을 협의하였다. 1940년 4월에는 장기현 간조시 선월정 임우철 집에서 강조농업학교의 신입생 자축회라는 모임을 가지고 이상만, 박근철, 박응구, 이재관, 심재인, 이호, 김상훈, 김민남, 고연하, 정진근, 이상호, 송병홍, 손병주 등이 모여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이 조직은 삼삼인단(三三人團)의 점조직인 재일학생단(在日學生團)이라 이름을 짓고, 각자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학교를 졸업하면 귀국하여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1941년 5월경에 재일학생단에 가입한 이들은 일부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일본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남아있기로 하였다. 이상만은 곡물검사소 부산지소(釜山支所)에 검사조수로 임명되어 귀국하였으며, 같은 해 7월 예천(醴泉)출장소로 전근되어 가자 그곳을 국내 활동 근거지로 삼았다. 이상호는 고성군농회에 기수(技手)로 취직되어 거점지로 삼았고, 이호는 함북 흥남 비료공장에 취직하여 각자 국내서 조직을 확대해 갔다. 이들이 함께 할 동지로 규합한 인물은 고성읍 덕선리에 거주하는 이상철(李相鐵)·이규철(李圭喆)·이상만(李相萬)과 하이면 와룡리에 거주하는 박윤수(朴允守)였다.

서울에서는 고성읍 덕선리 출신의 이재홍이 중심이 되어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동주섭(함남 북청 출신), 김병수(평북 정주 출신), 김규룡(서울 출신), 이상순(충북 음성 출신), 이재호(황해도 연백 출신), 선우현(황해도 연백 출신) 등을 규합하여 각 지역에 조직망을 갖추게 되었다. 일본의 본부는 동경과 우도궁에 두어 심재인, 박응구, 김상만, 박근철, 이재관, 이상호, 정덕수 등이 남아 국내와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동경에 있었던 이재관의 하숙집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한편 우에노공원(上野公園) 등에서 비밀리에 회합을 거듭하여 독립운동을 실행에 옮길 것을 논의하였다. 규합된 조직 인원은 약 80명으로 늘어났고,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 삼삼오오 소규모단위로

활동하여 일제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1942년 2월경 경북 예천에서 이상만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동지들이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있다가 심부름하는 아이의 실수로 조직에 관련된 문건을 분실하였는데, 그 문서가 당시 예천경찰서 고등계 한국인 형사 고송이라는 자에게 발각되어 국내와 일본에 있던 동지들 대부분이 체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체포된 관련자들은 경북 예천, 영주, 상주, 봉화, 안동 등의 경찰서에 분산 구금되어 일제의 무자비한 고문과 구타를 당하였다. 이들 중 조직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자들은 8월중 불기소로 방면되었으나 40여 명은 대구형무소로 이감되어 오랜 예심기간을 거쳐 1943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수형을 받았다. 당시 수형받은 자들과 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인 징역 4년

이근철 징역 3년

이상만 징역 3년

李虎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朴應九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高連河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金相勳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金中事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이재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鄭鎭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宋炳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孫炳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이상호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이 외의 관련자들은 2년여의 예심 구류중에 악독한 고문과 취조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내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유예로 방면되었다. 이상만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옥중에서 병세가 악화되어 25세의 젊은 나이에 조국의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고 1944년 1월 31일 순국하였으며, 박윤수도 옥사하였다. 심재인, 박근철은 1945년 8·15 해방과 더불어 석방되었다.

재일고성학생 독립운동 관련자들의 판결문은 당시 이들의 활동내용을 일제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다. 편파적이고 비판적인 내용들이지만 민족의 독립을 위한 의기와 희생을 엿볼 수 있다.

소화 17년(1942년) 刑公 제1121호  
판결  
본적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동  
주소 우도공시 우도궁 고등농림학교  
학생 심재인, 창씨명 송충정부, 26세  
본적 경상남도 울산군 대현면 여천리 206  
주소 삼중현 진시 하부전정 앵전정통 부이로  
학생 박근철, 창씨명 광정근철 24세  
본적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762  
주소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동 222  
곡물검사소 조수 이상만, 창씨명 파산지용, 25세  
본적, 함경북도 북청군 속순면 서도리 424  
주소 함경남도 함주군 흥남읍 서호리 56  
조선농회 고원 이호, 창씨명 청봉호, 28세  
본적 충청남도 아산군 선고면 신동리 145  
주소 본적지와 같은  
학생 박응구, 창씨명 신정국정, 23세  
본적 전라남도 제주도 쌍산리 163의 2  
주소 장기현 간조시 동소로정 168  
학생 고연하, 창씨명 고원통년, 21세  
본적 전라남도 제주도 구좌월면 월리 440  
주소 장기현 간조시 선월정  
학생 김상훈, 창씨명 김택상훈  
본적 충남 아산군 수창면 수장리 249  
주소 장기현 간조시 서정매진  
학생 김중, 창씨명 김광중남, 22세  
본적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197  
주소 본적지와 같음  
학생 이재관, 창씨명 안본재관, 24세  
본적 경상남도 울산군 두서면 전읍리 885

주소 본적지와 같음

면기수 정진근, 창씨명 동본승치, 23세

본적 경남 울산군 경양면 반송리 281

주소 동경시포전구 지정 394

활동사진영화기사 송병홍, 창씨명 우촌홍길, 23세

본적 경상남도 울산군 울산읍 북정리 106

주소 동경시 품천구 비품천정 12정목 80

신문배달점 학생 손병주, 창씨명 무촌병주, 28세

본적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337

주소 본적지와 같음

군농회 기수, 이상호, 창씨명 파산상호, 22세

위 심재인·박근철·이상만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육군형사법 위반 이호·박응구·고연하·김상훈·김민남·이재관·정진근·송병홍·손병주·이상호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각 피고사건에 있어 조선총독부 검사 堤房治 관여 심리로 판결은 아래와 같다.

주문

피고인 심재인 징역 4년, 피고인 박근철, 피고인 이상만 각 징역 3년에, 이호·박응구·고연하·김상훈·김중사·이재관·정진근·송병홍·손병주·이상호 등 각 피고인을 각 징역 1년6월에 처하고, 단 이호·박응구·고연하·김상훈·김민남·이재관·정진근·송병홍·손병주·이상호 등 각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위 형을 집행유예하고, 심재인·박근철·이상만 등 각 피고인에 대하여는 미결구류 일수 중 각 360일을 본형에 산입함. 소송비용 중 증인 산기이부에 지급할 것은 피고인 이상만이 부담함.

이유

제3피고인 이상만은 본적지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공립보통학교와 고성농림농업실수학교를 졸업하고 소화 13년 4월 장기현립 간조농학교에 입학, 동 16년 3월 동교를 졸업한 후 동년 4월 조선총독부 곡물검사소 부산지소 검사조수로 임명되어 동년 7월 28일 예천출장소에 전근되어 그동안 연조농업학교 재학 당시부터 내지인 학생이 선인 학생에 대한 모욕적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점차 민족적 의식이 농후하여 한국독립을 희망하게 되어 한국을 제국기반으로부터 이탈 독립하여 국체를 변혁할 것을 목적하여

1. 전시 제1의 ① 기재와 같이 그 목적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전시 제1의 ① 기재

소화 14년 11월경, 당시 상 피고인 박근철·이상만과 같이 하숙하고 있는 장기현 간조사

동소로정(東小路町) 진야정방(陳野正方)에서 박근철은 동일 상급생 내지인 사기행웅(寺崎行雄)이 한국인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고인 두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이 이와 같이 내지인으로부터 멸시당하는 것은 한국이 내지에 비하여 문화수준이 낮기 때문이고,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인 까닭에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한국 사람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기 때문이며, 이를 타파하는 것은 한국이 독립을 하는 것이 절실하므로 그 실행방법으로 우리 한국청년은 일신의 영달을 꿈꾸지 말고 한국 전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면학의 목표를 가지고 문맹인 한국민족 갱생을 위해 진력하여 문화수준의 향상과 무술연습에 노력하여 목하(目下) 일본은 일지사변(日支事變)의 와중이므로 상당히 장기전에 임하여 국력이 약해지고 있으므로 한국 독립의 호기(好機)에 있어 이때 노력할 뜻을 가지고 그 목적의 사항을 시행할 것을 협의함.

2. 전시 제1의 4 기재와 같이 그 목적인 사항을 실행함에 있어 협의함. 전시 1의 기재 소화 15년 4월 중순경 장기현 간조시 선월정(仙越町)의 임우칠(林又七) 집에서 간조농학교 한국인 신입생의 입학 자축회를 가짐에 있어 피고인 이상만·박근철도 같이 출석하여 동인(同人) 등과 같이 당시 2년생 박응구, 신입생 김상훈·김민남과 소외(訴外) 이천영일 금강화길 등에 대하여 우리 한국 학생은 한국 문화의 향상 한국 동포를 위해 면학하여야 할 것이며 면학의 목표를 일신일가(一身一家)의 영달과 행복에 두기보다 내지에 도항(渡航)하여 처음 느끼는 내지인이 한국인에 대하여 모욕하는 그 원인은 한국 문화의 저하에 있는 까닭에 만약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면 문화도 이와같이 저졸(低拙)하지 않고 오늘과 같이 차별적 모욕은 받지 않을 것이니 무엇보다도 먼저 제1, 제2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간요(懇要)하나 한국의 독립은 용이(容易)의 업(業)이 아니니 한국인은 선(宣)하여 한국인 정신을 견지하고 양양(昂揚)함과 같이 한국 독립을 목표함을 서서히 시기의 도래함을 기다릴 것임을 취지로 동인 등의 찬동을 얻어 그 목적과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함.

3. 전시 제1의 ⑥ 기재와 같이 그 목적인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함. 전시 제1의 ⑥ 기재

소화 16년 3월경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의 피고인 집에서 상 피고인 이상만과 박윤수에 대하여 본인 등은 내지 장기현 간조시에 재학 중 한국인은 매우 모욕당하여 차별 취급을 당하고 고심(苦心)하면서 공부해도 학교를 나와 취직하려면 내지인에게는 가봉(加俸)해 줘도 불구하고 한인에게는 이렇지 않고 관민회사(官民會社)의 주뇌자(主腦者)는 전부 내지인이고 한인은 아무리 두뇌가 좋아도 출세의 길이 없고, 또 한국의 문화가 비상이 뒤떨어져 있는 것은 일본의 식민정책을 부(扶)하고 있는 까닭에 한국은 독립해야 되므로 우리는



일신일가의 이익 영달을 위해 공부할 것이 아니라 한국독립을 목표로 공부해야 된다는 취지를 말하여 동인의 찬동을 득하여 그 목적인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함.

4. 소화 16년 6월경 부산부 대청정 1정목 시장 주식회사 2층 합숙소에서 소외 송본청고 충산건선에 대하여 내지에 있어서는 내지인과 조선인 학생간에 비당한 차별대우가 있어 크게 고로(苦勞)하고 있고, 또 내지인은 자기 등의 한인학생을 지적하여 욕하고, 한인 운운(云云)하는 모욕을 당하는 이와같은 참고(慘苦)를 당하여 내지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국내에 충분한 교육기관이 없이 때문에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한국의 문화정도가 낮은데다가 일본 정부는 조선에 교육을 시행할 정책을 부(扶)하지 않고 있어 이대로 경과한다면 한인의 지의(智義)는 더욱 늦어져 지가 있는 자 많지 않고 관청 방면에 있어서도 장관의 지위는 전부 내지인들이 이를 차지하고 한인은 두뇌가 우수하고 명석하여도 하적(下積)만 당하는 까닭에 한국은 여하히 하더라도 독립해야 한다. 그 시기는 현재 일본은 지나사변으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전쟁을 치루고 있고, 또 만약 세계대전의 와중에 휩싸이게 되면 패전의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그 호기를 택한다는 취지를 지향하고 동인 등의 찬동을 구하여 그 목적인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동시 지나사변과 관련하여 군사에 관한 조언비어(造言飛語)를 함.

5. 소화 16년 10월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모 음식점에서 피고인 이상호에 대하여 전시제3의 ④ 동지(동지)를 신향하고 동인의 찬동을 득하여 그 목적인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함과 동시에 지나사변에 관련하여 군사에 관한 조언비어를 함.

## 8) 재일 조선독립청년단과 정덕수

정덕수는 고성군 개천면 좌연리 119 출신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1941년 2월경 대판에 있는 니시시마(西島) 제2공업학교 야간부에 입학하였다. 그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재일유학생 김태원(金泰元)·박유수(朴有守)·강연중(姜練中)·조영제(趙泳濟)·윤병인(尹炳寅) 등과 함께 조선독립청년단을 조직하였다. 정덕수는 단원들을 일본군 지원병으로 가장하여 입대시켜서 일본군 내부에 침투하게 하여 작전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해 내고 일본군 내부를 혼란케 하여 작전수행에 타격을 주기로 작정하였다.

한편 군사시설의 파괴를 계획하면서 자신이 강력한 폭탄제조의 책임을 맡았으며, 폭탄제조와 함께 거사를 준비하면서 1942년에는 상해임시정부와도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기와 폭약을 입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때 고베(神戸)영사관으로 있는 미국인 직원 마이클과 연결하여 거사 때 무기와 폭약을 구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같은 해 10월경 대판(大阪)의 쓰미요시(佳吉)공원에서 동지들이 모여 거사 계획을 모

의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일본경찰의 습격을 받아 체포되어 거사는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그는 대판지방법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의 죄목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 9) 수원고농의 조선개척사와 김봉일

김봉일은 고성읍 월평리 출신으로 수원고등농림학교 3학년에 재학 중 학생 비밀결사 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수원고등농림학교는 1904년 9월 1일 경성에 설립된 관립 농상공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이 학교는 실업교육을 강조하는 고종의 칙서에 의해 1899년 상공학교가 설립된 지 5년 후 농과를 대한제국 학부에서 증설하여 만들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변화와 발전하는 과정에서 1907년 1월 8일 수원 서둔촌의 신축교사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농업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1909년 6월 ‘농상부령’에 의한 교칙 개정으로 2년제에서 3년제 농림학교가 되었으며,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이후 조선총독부 농림학교로 개칭되면서 권업모범장에 부속되었다. 수원농림학교는 전국 각지의 농촌 현장에서 일제의 농업정책을 실시해 나갈 조선인 말단 실무관리를 양성하는 정책적 교육기관이었다. 수원농림학교는 전문과의 설치와 동시에 일본인에게도 입학할 허가를 하였으며, 일본인 학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일본인 학생이 이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징집유예의 특전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수원농림전문학교는 1922년 3월 조선총독부 수원고등농림학교가 되었다. 이 학교의 입학자격은 5년제 고등보통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였으므로 우수한 인재들이 입학하는 학교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 학생은 특별히 반일사상이 없고 신체 건강한 학생 가운데 구술시험만으로 합격시켰다.

수원고농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1920년대 중반 학생비밀결사인 건아단(健兒團)과 조선개척사(朝鮮開拓社)를 조직하였다. 1926년 4월 수원고농 농학과에 입학한 김찬도·우종휘(禹鍾徽)·고재천(高在千)·권영선(權永善)·김봉일(金奉日)·김익수(金益洙)와 입학과의 백세기(白世基)·진동백(陸東白) 등은 1년 선배인 김성원을 중심으로 동료들간의 생활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한국인들 사이에 힘을 키우면서 단합하였다. 이들은 우선 한국인 학생들로 수양단(修養團)을 조직하여 한국인 학생의 체위(體位)향상, 정신개조, 학력증진을 목표로 유도, 검도, 등산, 냉수마찰, 조기운동 등 다양한 실천사항을 내세우며 활동을 전개하였다. 학생들은 민족운동의 중심을 농민운동이라 판단하여 농촌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한편 1926년 여름 천도교계 조선농민사의 중심인물인 이성환(李晟煥)이 수원고농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조선농민사 지부를 수원고농 내에 설치하였다. 학생들은 조선농민사의 주요 활동 가운데 야학활동에 크게 공감하여 부근 각 면에 농민야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수양단 활동과 야학활동을 전개하던 학생들은 사회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결사체의 조직을 계획하였다. 이에 1927년 6월 수원고농에 재학하는 한국 학생들을 결집하여 건아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농민대중의 계발을 통한 새로운 조선 건설을 강령으로 삼고 단군기원의 연호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건아단 회원들은 조선농민사 활동도 계속하였다. 그리고 야학을 실시하며 자기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건아단은 일본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조직한 조선농우연맹(朝鮮農友聯盟)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조선농우연맹은 1928년 5월 27일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전문학교 이상 학생들로 조직된 단체로 조선 농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오직 조선인 스스로의 힘으로 팽이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하기 ① 순회강연을 할 것, ② 지방농업 상태를 조사할 것, ③ 하기 농업강좌를 개최할 것, ④ 조선농촌의 특수성을 조사 연구할 것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조선농우연맹의 이러한 취지와 사업은 수원고농 건아단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건아단은 조선농우연맹에 가입하는 한편 지부를 수원고농에 설치하였다. 건아단에서는 수원지부 대표로 임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한전중(韓典鍾)을 조선농우연맹의 조선 순회강연 때 파견하는 등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순회강연은 남부 지방에서 진행되는 중 여러 지역에서 중지당하거나 금지되었다. 결국 순회강연은 해산되고 한전중은 학교로부터 무기정학을 당하였다. 그러나 조선농우연맹의 지부가 수원고농에 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수원고농 농과 2학년 학생 24명은 1927년 7월 강원도 회양군 난곡, 평강군 고삼면 세포리, 함경남도 함흥과 원산, 금강산 방명 등으로 8일간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이들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대규모의 근대식 농장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다. 건아단 단원들은 일본인 경영의 모범농장을 시찰하고 돌아온 후 평소부터 지니고 있던 독립주의를 조선에 널리 퍼기 위해서는 먼저 농민과 함께 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깨달았다. 그들은 조선의 농민과 더불어 조선운동의 중추가 되어야겠다고 결의하고 1928년 6월 하순경 조선개척사라는 비밀 조직을 결성하였다. 당시 이 모임에 참가한 인물로는 김찬도·육동백·김익수·황봉선·김문찬·남영희·고재천·권영선·우중희·김봉일·백세기 등을 들 수 있다.

조선개척사는 일본이 외국과 전쟁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중앙집권적 체제하에 농민봉기를 전개, 조선의 독립을 달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비밀리에 회합을 가졌다. 조선개척사는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단체의 명칭을 흥농사(興農社)로 개명하는 한편 계림흥농

사(鷄林興農社)라고도 하였다. 계림흥농사 회원들은 졸업을 앞두고 각 방면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추진하던 중 1928년 9월 교사로 활동하던 김성원을 체포하고 관련자들의 행적과 서신 등을 수색하여 발견하면서 비밀조직이 탄로나게 되었다.

1928년 9월 1일 수원경찰서에 체포된 수원고농 학생 11명의 이름, 나이, 학과, 출신지 등을 보면 김봉일(25세, 농과 3년, 경남 고성)을 비롯하여 고재천(25세, 농과 3년, 전남 담양), 권영선(26세, 농과 3년, 황해 안악), 김문찬(27세, 농과 2년, 강원도 이천), 김익수(25세, 농과 3년, 전남 나주), 김찬도(22세, 농과 3년, 황해도 황주), 남영희(24세, 농과 2년, 충남 아산), 우중휘(25세, 농과 3년, 함남 삼수), 황봉선(22세, 농과 3년, 충남 천안), 백세기(22세, 임과 3년, 충남 공주), 육동백(21세, 임과 3년, 충북 옥천) 등이다.<sup>199)</sup> 체포된 학생들의 나이는 20대 초반이며, 학과는 농과, 학년은 3학년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출신지는 전국에 걸쳐 있었다. 이 사건으로 수원고농에서는 관련된 조선인 학생들에 대한 퇴학과 무기정학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한국인 학생의 입학정원도 대폭 감축하는 등 심한 차별대우를 하였다.

일제는 그들이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전문학교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비밀 결사사건에 대해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한편 사건 관련자들을 3년간이라는 장기간의 예심 동안 혹형을 가함으로써 학생운동에 대한 처벌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였다. 치안유지법 위반과 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11명은 재판에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의 변호는 이인·김병로·신태악·김용무 등이 담당하였다. 예심부터 판결을 받을 때까지 3년간 서대문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던 학생들 대부분이 면소되고 김찬도와 권영선 2명만 기소되었다. 김찬도와 권영선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았다.

### 10) 진주고보의 학생운동과 이진하(李鎭河)

이진하는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 출신으로 진주고등보통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때 학생들의 민족운동에 참가하였다. 진주지역은 진주고보를 비롯하여 진주공립농업학교,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 진주제일보통학교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에 앞장섰다.

1930년 1월 진주고보 학생들의 대대적인 만세시위가 일어나기 3년 전에도 동맹휴학 등을 통해 민족운동의 의기를 보여주었다. 1927년 6월 진주공립농업학교 2학년생 일동은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그 이유는 담임교사인 고목좌태랑이 성질이 쾌악할 뿐만 아니라 항상 조

199) 『동아일보』 1928년 9월 16일

선민족을 노예시하거나 모욕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부실하여 비난을 받고 있었다.

민족차별, 멸시 등으로 동맹휴교가 늘어나자 경찰은 주모자 2인을 검거하지만 학부모들은 긴급 학부모회를 소집하여 주동학생 2인을 석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태도는 더욱 강경하여 진주농업학교 학생일동은 동맹휴학원서를 제출하였고 진주고등보통학교 학생 역시 등교하지 않을 태도를 보였다.

1930년 1월 17일 진주고등보통학교와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 500여명은 아침 9시에 만세를 부르며 시위에 들어갔는데 이날 진주제일공립보통학교 학생 남 여 400여명도 오후 2시경 뒤를 이어 시위운동에 참여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어 가자 일제경찰은 많은 학생과 청년을 검거하였다. 진주고등보통학교 학생 18명과 청년 3명을 밤새도록 모질게 신문하는 경찰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진주고등보통학교와 진주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무기동맹휴학을 선언하였다. 또한 진주 제2보통학교와 진주 시원여학교에서는 동년 1월 18일 집회를 마친 후 학생들은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동요하였는데, 학교와 경찰당국이 엄중하게 경계하므로, 동요는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진주고등보통학교를 비롯한 진주지역의 학생들이 시위운동을 일으킨 이후로 연쇄적 항일운동은 퍼져나갔다. 진주농업학교, 진주 제2보통학교, 시원 학교, 양잠 전습소에 이르기까지 경찰당국은 경계를 더욱 강화해오던 중, 1930년 1월 20일 아침시간 진주농업학교 학생들의 행동이 이상하여 미연에 발각되니, 수명의 학생을 검거하여 엄중 취조하였다.

이 운동이 발발한 후 학생들을 13일간 검거하여 두었다가 1월 30일 진주농업학교 학생 1인과 진주고등보통학교 학생 2인은 석방되고, 21명은 10~19일간 구류 처분하여 진주형무소로 호송하였다. 나머지 6인은 주동자라 하여 26일간이나 구금하여 두고 엄중히 취조를 거듭하여 마침내 2월 10일 송치되었는데 당일 고도검사의 심리로 보안법 위반의 죄목을 붙여 진주형무소에 수감하였다.

이들 주동학생 6인과 청년 3인을 검사국에서 심리하다가 검사기일의 만기인 2월 21일에 하춘 검사는 학생 6인을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공판에 회부하고, 청년 3인은 불기소로 같은 날 석방하였다. 이들 주동학생 6인은 3월 18일 진주재판소 공판에서 동목 재판장과 하춘 검사의 입회하에 최고 6개월에서 4개월의 징역을 언도하였다.

진주학생운동으로 구류처분을 받아 감옥에서 고초를 받던 진주고등보통학교 학생 2명도 같은 해 2월 18일 출감하였으나 주모자 6인은 여전히 기소되어 있었다. 진주 학생 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난 지 3일만에 진주시내 요소마다 격문이 나붙자 경찰은 주모자 색출에 혈안이 되어 곳곳을 수색하다가 2월 11일 주모자들을 잡아 검사국으로 송치하였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진주고등보통학교 1학년 김찬기(17세)라는 학생인데 당시 대전형무소

에서 복역중인 경북유림단장 김창숙 아들이었다. 김찬기는 자신이 손수 격문을 손으로 3천 여장을 써서 하숙집마다 배부하였다. 그리고 백지 전면에 격문을 기록하여 진주시내 요소마다 부착하여 보안법 위반 죄목으로 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또한 박도제라는 학생은 1929년 진주 제2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진주학생만세시 위운동이 일어나자 각 관청에 구속학생을 무조건 방면하라는 협박장을 보냈다가 체포되어 역시 수감되었다. 이 외에도 진주고보 학생 강병수와 김경용도 검거되어 고초를 당하였다.

이후에도 여러 곳 학생들의 거사책동 등이 사전에 발각되거나 재차 동요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학생 수명을 취소한 일이 있었으며, 또 하동청년 동맹위원장 강채홍과 진주농민조합위원장 안두식 등이 구금이 되는 등 진주지역 학생운동은 1931년 말까지 이어진다.

### 지세인상 반대운동

1906년 3월 고성군에서는 지세징수에 있어 종전에 엽전 12원을 부과하던 것을 16원으로 세율을 인상 징수하게 되자 고성군내 군민들이 서로 모여서 군수 蔡範錫의 관사에 몰려 들어 지세 인상의 반대를 외쳤다. 특히 구만면이 유독 심하여 약 5백명의 주민들이 일어나서 반대 시위를 할 때 고성경찰서에서는 마산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군중을 강제 해산시켰다.

### 동해면 어부 동맹파업

1918년 8월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에는 일본인들의 鰯網漁業者 아홉 가구가 살면서 황금 어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당시의 멸치잡이를 독점하고 많은 어부들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들 어부 중 약 50명은 일본인 기술자들이었다. 그들에게는 한국인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임금을 주어 우대하였으나 한국인 어부는 형편없이 싼 임금으로 혹사하였으므로 한국인 어부들은 이와같은 차별대우에 불만을 품고 항상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일본인 경영주에 의하여 묵살되고 말았다. 한국인 어부들은 비밀리에 동맹파업을 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이 사실을 업자측에서 사전에 알고 거류면 塘洞주재소에 주둔하고 있는 헌병에게 알려서 한국인 어부에게 파업을 못하도록 說諭願을 내자 헌병 河合幸이 동해면 내산리의 어장막을 찾아와서 한국인 어부 전원을 모이게 하였으나 고용주측에서 헌병을 개입시켜 압력을 가하려 든다고 격분하여 유삼두 등이 주역이 되어 한국인 어부 약 5백명이 함께 시위를 일으킬 기세가 보이자 헌병보 하합행이 칼을 빼들고 위협을 가하여 돌을 던지고 항거하자 사태가 위험하다고 고성헌병분견소와 통영경찰서의 지원 병력을 불러와서 강제로 진압하였다.

## 제 11절 만세운동과 독립운동 개인약전

□ 강영순(姜永淳 : 1882. 2.12 ~ 1939. 3.18)

경상남도 고성(固城) 영오면 영산리에서 출생하였으며, 3·1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18일의 경남 진주군(晋州郡) 정촌면(井村面)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은 서울의 독립선언식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귀향한 이병홍(李炳洪)이 강재순(姜在淳)을 만나 독립선언서를 보여주며 서울의 정황을 전하면서부터 계획되었다. 이때 강연순 이 소식을 듣고 강재순·허현(許炫)·이종락(李鍾洛) 등과 더불어 협의한 결과 정촌면민들도 진주읍민들과 함께 3월 18일 진주 장날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여 진주에서 합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종연(李鍾彦)에게 독립선언서를 판각하여 등사하도록 하는 한편 인근 진주의 동지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각지로 동지규합에 나섰다. 3월 18일 강연순은 5천여명의 정촌면 군중과 함께 시위하며 진주읍내로 행진하였다. 도중에 사천(泗川)의 일본군 헌병대와 진주의 일본군 수비대의 경계선을 돌파하고 칠암리(七岩里)에 도착하였는데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과수원에 매복하고 있던 일본 군경과 충돌하여 격투가 벌어졌다. 남달리 힘이 센 그는 한 손에는 대형 태극기를 들고 한손으로 일본 헌병의 칼을 빼앗아 남강(南江)에 던지며 선두에서 시위 군중을 지휘하였다. 진주읍내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던 시위군중은 독립만세를 외치며 이를 성원하였다. 그러나 일본 헌병이 던진 포승줄에 걸려 결국 체포되었으며, 시위군중의 필사적인 구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주경찰서로 연행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정으로 호송되는 도중에 포승을 절단하고 일본 경찰 2명을 발로 쓰러뜨린 뒤 피신하여 강원도 일대에서 수년간 유랑생활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구기언(具奇彦 : 1884. 5. 3 ~ 1958.10. 3)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401번지에서 출생하였으며, 의열단에 가입하여 군자금모집 등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24년 7월말 고성에서 김찬규(金燦奎)로부터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군무총장(軍務總長) 노백린(盧伯麟) 명의의 군자금모집 지령서 40여 매를 교부받고 군정서(軍政署) 총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군자금을 모집하여 김찬규(金燦奎)에게 건네주고 군정서 밀사(密使)로 임시정부에 파견키로 결의하는 한편, 군정서(軍政署)에서 발행한 사령서(司令書)를 가지고 계속 활동하다가 1925년 2월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1926년 3월 2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김찬규의 군자금모집운동에

관한 재판에서 증거인멸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공소(控訴)함으로써, 1926년 5월 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구여순(具汝淳 : 1892.10.23 ~ 1946. 1.20)

경남 의령(宜寧)에서 출생하였으며, 이후 거주지를 진주로 옮겼다. 진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3·1만세운동과 의열단으로 군자금 모금, 반일단체 조직과 활동 등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전개될 때인 3월 12일 동지 최정학(崔正學)과 함께 의령지방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3월 15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3년 초 중국으로 건너가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여 무력에 의한 항일투쟁을 도모하면서 같은 해 12월 일제의 주요 관공서를 폭파할 목적으로 여러 명의 동지들과 함께 국내에 잠입하여 거사를 추진하던 중 또다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다시 시베리아로 건너가 1928년 동지들과 함께 반제지방단부(反帝地方團部)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에 필요한 군자금을 모금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1940년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 1941년 4월 경남 고성군(固城郡) 개천면(介川面)에서 고려구국동지회(高麗救國同志會)를 조직하여 활동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으며, 1946년 1월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김갑록(金甲錄 : 1899. 4.24 ~ 1977. 9.12)

경남 고성(固城) 회화면 배둔리에서 출생하였다. 1919년 3월 20일 고성군 회화면(會華面) 배둔리(背屯里)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최낙중(崔洛鍾)·이정수(李正洙)·문태룡(文泰龍)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국천(菊川) 장터에 모인 다수의 군중을 규합하여 이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드높이 외치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본 경찰의 무력탄압으로 시위가 중단되고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어 5월 24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김봉일(金奉日 : 1905.3.16 ~ 1983.3.5)

경남 고성(固城) 사람이다. 수원고등농림학교 재학 중 1926년 여름에 동교생 10여명과



함께 학교 뒷산인 여기산(麗妓山)에 모여 민족사회에 이바지할 길을 모색하고 그 방법으로 농민대중을 계발하여 신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 항일학생결사 건아단(健兒團)을 조직하였다. 건아단을 조직한 단원들은 먼저 농촌사회의 계발이 곧 독립운동의 기초가 된다고 보고 그들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농민을 계몽 지도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들은 수원군 안룡면(安龍面) 고견리(古牽里)를 비롯한 부근에 있는 여러 마을에 농민야학을 설립하여 농민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야학을 운영하면서 민족의식의 함양과 독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단군(檀君) 연호를 사용하였는데, 후일에 이것이 말썽이 되었다. 1927년 9월에는 북도(北道)지방을 수학여행하게 되었는데 강원도 등지에서 일본인의 대규모 농장을 본 건아단원들은 농장운영이 식민지를 더욱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농후함에 분개하고 민족농장 건설의 꿈을 키우기도 하였다. 건아단은 이후 1928년 6월에 당시 일본 동경에 설치되어 있던 조선농우연맹(朝鮮農友聯盟)에 가입하였다. 조선농우연맹은 '조선인에 의한 조선농촌개발'이라는 주장하는 내용은 건아단이 이상으로 삼고 있던 것과 합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연맹에 합류하여 활동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에 조선농우연맹이 국내에서 지방강연 등 계몽활동을 할 때, 수원고등농림학교의 학생이 연사로 참석하였다. 그런데 강연내용이 불순하다는 이유를 들어 일제에 의해 강연활동이 중지되었고, 여기에 연사로 참석했던 수원고농학생 한전중(韓典鍾)은 학교에서 무기정학을 당하였다. 이때 건아단의 조직은 발각되지 않았으나 단원들은 사태를 중시하여 건아단의 명칭을 계림농흥사(鷄林農興社)로 변경하고 계속 조직을 확대하여 나갔다. 이후 건아단 출신으로 김해공립농업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던 김성원(金聲遠)이 건아단의 목적을 수행하던 중 일본경찰에 검거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1928년 여름에 계림농흥사는 다시 조선개척사(朝鮮開拓社)로 변경하여 조직을 개편하였다. 그러나 사건의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조선개척사의 조직과 활동이 드러나게 되어 1928년 9월에 김봉일은 다른 회원들과 함께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수원고등농림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으며, 18개월 동안 미결수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30년 2월에 경성지방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김영조(金永祚 : 1899. 9.14 ~ 1976. 7.14)

경남 고성(固城) 사람이다. 1918년 호주계(濠洲系) 선교회(宣教會)에서 경남지역에 사립 학교(私立學校)를 설립하고자 할 때 그는 이 학교를 진주로 끌어오기 위해 이영규(李永圭)의 도움을 받아 악기(樂器)를 구입하고 악대를 조직하여 그 공연 수입금으로 진주에 사립

광림학교(光林學校)를 세우는데 성공하였다. 1919년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될 때 시위행렬의 선두에서 애국가를 연주하는 등 시위군중의 사기를 드높이게 하였다. 1919년 3월 18일 진주에서 김재화(金在華)·강달영(姜達永)·박진환(朴進煥) 등이 주도하는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여 독립선언서와 격문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한편 인근 마을에 연락, 18일 오전 진주 비봉산(飛鳳山)에 집결하도록 하고 시민 3만여 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선두대열에서 활약하다가 일본헌병과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어 같은 해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2년에는 경남 의령군(宜寧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옥고를 치른 구여순(具汝淳)과 함께 구재서(具再書)를 찾아가 구여순이 중국 상해(上海)로 가기 위한 독립운동자금을 모아 전달하는 등 독립을 위해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김영주(金英柱 : 1921.10.11 ~ 미상)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고성면 송학동 244번지에 주소지를 두었다. 그는 1940년경 일본 동경(東京)에서 전쟁·노동·여성문제 등에 관한 문헌을 탐독하면서부터 일제의 한민족차별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그는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동지를 규합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1940년 11월경부터 비밀리에 학우인 강철규(姜哲奎)·나기욱(羅基郁)·엄호영(嚴昊永)·노병례(盧炳禮) 등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고 그들로부터 적극적인 동의를 얻게 되었다. 이후 그들과 함께 자주 회합을 갖고 '중일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일본인 내부가 경제적·사상적으로 동요되고 있으니 이 기회를 독립운동 전개의 최적기로 이용할 것, 재일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민족차별은 피압박민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 동지들 상호간에 목적 완수를 위해 단결을 강화하고 희생적 정신으로 투쟁할 것' 등을 계획하였다. 그러다가 1942년 4월 1일 체포된 후 1942년 8월 7일 송치되어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 김진만(金鎭萬 : 1899. 9. 8 ~ 1943. 11. 12)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면 동외동 393번지에서 태어났으며, 고성만세운동을 주도하는 등의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22일 고성읍 만세운동에 안태원(安太元), 김형정(金炯正) 등과 함께 참여하여 시위군중을 주도하며 일본 헌병과 대치하며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주동자들과 같이 1919년 5월 26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

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1919년 6월 14일 대구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되어 복역하였다. 그는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19년 10월 16일 출옥하였다. 이후 그는 일제의 요시찰인물로 지목되어 감시를 받아오다 사할린으로 징용되어 강제노역에 혹사당하다가 이국 땅에서 생애를 마쳤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김형정(金炯正 : 1897. 3.19 ~ 1952. 4.25)

경남 고성군 고성면 덕선리에서 태어났으며, 고성읍 독립만세운동 등을 주도하며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22일 고성군 고성읍 장터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이곳에서의 만세운동은 동경(東京) 정칙영어학교(正則英語學校)를 졸업하고 고향에 와있던 안태원(安太元)이 부산상업학교 학생이던 서주조(徐周祚)와 협의하여 주도하면서 계획되었다. 그들은 고성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의 거사 참가를 권고하여 3월 22일 고성읍 장터에서 시장 상인들과 학생·기독교인·천도교인들이 합세하여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그러나 시위군중이 어시장 입구에 이르자 긴급하게 출동한 일본 헌병과 경찰에 의해 해산당하였다. 이때 김형정을 비롯한 시위 주동자들은 군중의 선두에서 만세를 외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특히 김형정과 김진만(金鎭萬)은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나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는 만세시위 주동자로 1919년 5월 27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박이열(朴利烈 : 1872 ~ 미상)

경상남도 고성에서 태어났으며, 의병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08년 음력 3월 13일 노내화의진(盧乃化義陣)에 참가하여 의병 30명과 함께 노내화의 지휘 아래 활동하였다. 노내화는 1908년 전북 장수(長水) 등지에서 20여 명의 의병과 함께 친일파를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박이열은 동년 5월 전라북도 남원(南原)·장수(長水)지역과 경상남도 함양(咸陽)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1910년 10월 29일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배만두(裵萬斗:~ 1972.3.10)

경상남도 고성에서 태어났으며, 고성만세 시위운동을 주도하고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

동하는 등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일찍이 한학을 수학하고 1914년 무렵부터 서울로 올라가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기독교청년회가 경영하는 야학에 다니며 학업을 쌓는 가운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학업을 마친 후에는 창덕궁 수비대에 입대하여 신식 군사훈련을 익히게 되었다. 이후 황실수비대가 해산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일제의 식민정책에 시달리고 있는 동포들을 보며 망국의 통탄을 절감하고 독립운동의 의지를 다짐하였다. 3·1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배만두는 고성읍 덕선리에서 철성의숙을 열어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던 박진완의 연락을 받고 이상은·김상옥과 함께 진주사람 이주현을 만나 고성에서 만세의거를 결행할 것을 협의하였다. 거사일을 앞두고 밤새워 태극기를 만드는 한편 학생들을 만세시위에 참여하도록 분주하게 준비하였다. 그러나 3월 17일 새벽 일본 헌병이 배만두의 가택을 수색하고 그를 체포하면서 만세시위운동은 결행되지 못하였다. 만세시위는 3월 22일 고성읍 장터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때 배만두는 일본 헌병 보조원으로 있던 조선인의 도움으로 경찰서에서 탈출하여 만주로 떠났다. 그는 通化縣에 있던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여 일찍이 황실수비대에서 훈련받은 경험을 토대로 신병훈련을 보조하였다. 1921년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독립군 이청천부대의 예하대원으로 활동하였다. 청산리전투 이후 일본군의 대토벌작전을 피하여 우수리강을 건너 소련으로 넘어가 활동하다가 黑河사변이 발생하여 다시 만주로 돌아오게 되었다. 만주로 돌아온 배만두는 독립군의 밀명으로 함경도지방에서 군자금모집과 독립군 초모공작(招募工作)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37년 만주사변이 발생하면서 일제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오랜 망명세월에 병을 얻어 고성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는 鄭世權과 함께 조선물산운동에 참여하면서 백일공작사(白日工作社)라는 건설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애국지사들을 지원하는 등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사회단체와 한독당 등에 관여하였고, 육영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 배상호(裴相鎬 : 1923. 8.28 ~ 1957. 4. 8)

경남 고성군 동해면에서 태어났으며, 일본의 지원병제도를 비판, 반대하는 등의 활동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36년 고성군 마암공립심상소학교(馬岩公立尋常小學校)를 졸업하고 자택에서 잡화상을 경영하였다. 그는 잡화상을 경영하면서 당시 일제가 실시하던 육군특별지원병제도(陸軍特別志願兵制度)가 소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만이 지원해당자임을 파악하고 지원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전파하였다. 이무렵 일제는 전쟁에 광분하여 이른바 조선인학도 육군특별지원병제도란 명목으로 학생들을 전선으로 끌어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병제도는 어디까지나 표면상 지원이라는 형태였을 뿐 실제로는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배상호는 "너희도 소학교를 졸업하면 지원병에 채택되니 지금 당장 학교를 그만두라" 라고 당시 인근 소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지원병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활동을 하였다. 그는 이 일로 체포되어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박증몽(朴曾夢 : 1916. 1. 3 ~ 1981. 9. 3)

경남 고성군에서 태어났으며, 동맹휴학을 주동하는 등의 활동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31년 2월 경남 진주공립농업학교 2학년에 재학 중 동맹휴학에 연루되어 5일간 근신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3월 2차 동맹휴학을 계획하였다가 다시 7일간 근신처분을 받았다. 또한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김종항(金琮恒)과 함께 사회과학서적을 탐독하고 식민체제를 비판하는 서적을 보급하는 등의 활동으로 인해 50일간 정학처분을 받았다. 이후 송기호(宋畿鎬)와 함께 진주에서 학생협의회(學生協議會)를 조직하고 진주농업학교의 책임을 맡아 활동하였다. 그는 진주농업학교 내에 독서회(讀書會)도 조직하여 사회과학서적을 운독하며 동지규합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이 일로 재판을 거쳐 8개월의 옥고를 치렀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심재인(沈載仁 : 1918.10.13 ~ 1946. 6.27)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고성면 성내동 336번지에 주소를 두었다. 1938년 일본 장기현(長崎縣) 소재 간조농학교(諫早農學校)에 재학하던 중 일본인들의 한국인 학생에 대한 차별대우를 체험하면서 민족적 각성에 이른 그는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1940년 4월 장기현 간조시 선월정(船越町)에 있는 임우칠(林友七)의 집에서 이상만(李相晩)·박근철(朴根澈) 등과 함께 비밀결사 재일학생단(在日學生團)을 조직하고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과 농업정책 등에 반대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중일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독립운동의 방안을 협의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심재인은 1941년 간조농학교를 졸업하고 우도궁(宇都宮)고등농림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일본에서 동지를 규합하였으며, 귀국한 동지들을 통해 국내의 조직을 확대하여 거점을 확보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하였다. 1942년 경북 예천(醴泉)의 동지 이상만 등이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있던 중 일본경찰에게 발각되어 80여 명의 동지들이 체포되었는데, 심재인 역시 연루자로 피체되어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는 1943년 5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및 육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8·15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안정삼(安正三 : 1919.11. 8 ~ 1982.12.17)

경남 고성에서 출생하였다.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이른바 임시육군특별지원병제도란 명목으로 조선인 학생들을 전쟁터로 끌어내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안정삼은 일본 구택(駒澤)대학 전문부에 재학중이었다. 그는 일본의 육군특별지원병제도에 반대하여 1943년 10월경 중국 상해(上海)로 탈출을 꾀하다가 일본경찰 발각되어 국내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이후 심재인은 고성에서 민중들에게 태평양전쟁의 상황을 설명하고 일제의 패망으로 조국의 독립이 다가왔음을 알리며 항일투쟁을 벌이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어 안정삼은 1944년 9월 20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과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안지호(安知鎬 : 1857.12.22 ~ 1921.12.23)

경상남도 고성에서 출생하였으며, 함안군 대산면 평서리에 주소를 두었다. 안지호는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합병되자 만국공관(萬國公館)에 호소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1905년에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자 통감부(統監府)와 일본 정부에 논책문(論責文)을 보냈다가 몇 차례 구금되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조선총독(朝鮮總督)인 시내(寺內)에게 조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글을 보내었다가 부산(釜山)지방법원 마산(馬山)지청에서 징역 3월에 2년간 집행유예형을 받기도 하였다. 안지호는 1919년 3월 19일의 함안읍(咸安邑)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일찍이 1919년 3월 1일 이후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될 때에 한문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조한휘(趙漢輝)·한중순(韓鍾淳)·이찬영(李讚榮)·조병흡(趙丙欽)·박건병(朴建秉)·강기수(姜琪秀)·한관렬(韓灌烈) 등 함안군내 청년유지들의 배후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들과 연합하여 3월 19일 함안읍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제작하는 한편 이와 같은 계획을 인근지역 주민에게 연락하였다. 3월 19일 당일 정오부터 3천여명의 대규모의 시위군중이 장터를 출발하여 경찰주재소·군청·등기소·우편소·일본인 소학교를 차례로 시위행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건물들을 파괴하고, 도처에서 일본 군경과 충돌하는 등 격렬한 시위가 전개되었다. 만세운동이 있고 난 후 그는 함안지역 독립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체포되어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받고 부산감옥 마산분원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옥중에서 지은 ‘자위가(自慰歌)’가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하늘이 덥고 땅이 시름이여 이에 사람이 있도다.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심 이여 나의 몸이 있도다. 인군이 있고 나라가 있음이여 이에 이상(霽常)을 온전히 하리로다. 인군과 부모가 일체임이여 만고에 큰강령이라. 나혼자 이 때아닌 때 남이여 몸도 용열하고 재조도 어질지 못하다. 하늘이 나라를 돌아보지 않음이여 차마 금수와 견양을 보겠는가. 난신역자가 다 후백(侯伯)이 됨이여 슬프다 저 적과 같이 날뵈다. 인군의 원수를 갚지 못하니 신민의 큰수치로다. 맹서코 한 하늘을 같이 이고 살지 않으리라. 죽으면 영화되고 살면 옥됨이여 칠십 늙은이가 무엇을 경영할고. 다만 원컨대 일찍 지하에 돌아가 우리 인군을 뵈이고 자세히 아뢰리라. 이것으로 나의 마음을 결정하고 나의 정을 위로하여 큰 노래를 부르니 천지가 망망하도다.”

□ 여병섭(呂柄燮 : 1890. 8.21 ~ 1934. 7.27)

경남 고성군 철성면 성내리 341번지에서 태어났다. 마산구락부와 혈성단, 마산신간회 지회를 통해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평양신학교 재학 중인 1917년 평양(平壤)에서 조직된 조선국민회(朝鮮國民會)에 참가하여 경상도 구역장으로 활동하였다. 조선국민회는 1914년 1차 대전의 발발과 함께 일본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을 예견하면서 장일환(張日煥)이 미주 국민회(國民會)의 박용만(朴容萬)과 연결되어 1915년부터 조직 결성을 준비해 오다가 평양의 숭실학교와 평양신학교 출신자 및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1917년 3월 결성한 국내 독립운동 단체였다. 조선국민회의 투쟁 전략은 국내와 국외독립운동 세력을 연결하여 전민족적 결사로 발전시켜 결정적 시기에 독립전쟁을 통하여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조선국민회는 결성 직후 전국 각처에 지부 조직을 확대해 갔는데, 이 때 여병섭은 경상도 구역의 대표를 맡았다. 그러던 중 1918년 초 조선국민회의 조직이 발각되면서 체포되어 1918년 3월 16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3·1만세운동 이후 기독교 계통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1919년 10월 경남 진주(晉州)에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진주 광림학교(光林學校) 교사 홍수원(洪秀媛)·강우석(姜佑錫) 등과 함께 비밀결사 혈성단(血誠團)을 조직하여 회원 모집과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일본경찰에 발각됨으로써 여병섭은 다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기독교 지도자로 활동하는 한편 동아일보 통영분국장·마산지국장 등을 지내면서 사회운동을 폭넓게 전개하였다. 그는 강연활동을 통하여 경남 일대의 청년회나 노동야학회의 설립과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20년 4월 거제군

기성청년회(岐城靑年會) 주최 강연회에서 「아반도(我半島) 청년의 사명(使命)」이란 주제로 강연을 행하였고, 동년 4월 고성청년회 주최의 강연회에서는 「현대와 노력」이란 제목으로 연설하는 등 주로 청년의 의식 계몽에 역점을 두고 강연활동을 벌여 나갔다. 그는 1920년 12월 조선청년연합회(朝鮮靑年聯合會)의 창립총회가 서울 중앙 기독교청년회에서 열릴 때 마산청년회의 대표로 참석하여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선출되었고, 1922년 4월 3일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한편 1925년 4월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이 결성될 때 그는 중앙위원에 선출되어 노동운동에도 깊게 관여하였다. 조선노동총동맹의 성립은 3·1운동 이후 질적 성장을 거듭한 농민운동의 결정체로써, 창립 당시 182개의 농민단체가 참여한 전국 규모의 농민운동단체였다. 또한, 그는 1925년 4월 신문기자대회에서는 서기(書記)에 선출되는 등 다방면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남기었다. 그리고 신간회 창립 후 지부가 전국적으로 생겨날 때, 마산에서도 역시 여병섭의 주도하에 1927년 3월 마산지부가 설치되었다. 이 때 그는 준비위원으로 활약했으며, 1929년 신간회 복대표대회(復代表大會)가 열릴 때 마산구 대표로 선출되었다. 1930년 3월 21일 신간회 마산지회의 서기장 겸 서무부장의 일을 맡아 신간회 마산지회의 실질적 책임자로 활약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윤영백(尹永百 : 1884. 2. 2 ~ 1958.11. 6)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다. 만주에서 대한독립단 군자금 모집 등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망국의 한을 안고 서간도 봉천성 환인현(桓仁縣)으로 이주하여 아우 영기(영기)와 함께 그곳에 살고있는 윤세위(尹世葦)·송병헌(宋昞憲)·서세명(徐世明)·김문필(金文弼) 등과 한교공회를 조직하여 동포들을 규합하면서 항일독립운동을 준비하였으며, 1919년경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에 가입함으로써 항일운동에 진력하였다. 이후 1926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령 이상룡(李相龍)의 지령으로 군자금 모집을 위해 비밀리에 입국하여 고향으로 내려가 곽인협(郭寅協) 등과 활동하면서 구만면의 허재기(許在基)를 통해 도움을 받으며 군자금 모금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그는 고성군 영현면(永縣面)의 정양구(鄭亮九)·마능숙(馬能淑) 및 개천면(介川面) 옥천사(玉泉寺)의 승려 한봉실(韓奉實) 등의 동지들과 함께 창원군(昌原郡) 서면(西面)의 최병화(崔炳化), 함안군(咸安郡) 칠북면(漆北面)의 박수현(朴秀玄)·구찬문(具贊文) 등을 찾아가 독립선언서와 독립단원의 인장을 제시하고 군자금 250여 원(圓)을 모금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다가 일본경찰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4년에 건국



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이백용(李白容 : 1911. 6.11 ~ 미상)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으며, 일본으로 건너가 동지들과 함께 민족의식 함양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는 1943년 11월 초부터 일본 산구현(山口縣)에서 이완모(李完模)·이기성(李基成) 등과 함께 회합을 갖고 한국 역사를 깊이 인식할 필요성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역설하면서 역사와 언어는 민족의 정신을 담은 것이므로 이를 수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민족의식 양양에 노력하였다. 이후 1944년 7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동지들과 회합을 가져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차별대우의 실상을 토로하고 일제의 패망과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함으로써 항일독립 의지를 강화하다가 1945년 1월경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투옥되었으며, 같은 해 5월 20일 고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여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 이상만(李相晩 : 1919. 5.28 ~ 1944. 1.31)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으며, 일본으로 건너가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38년 일본 구주(九州) 장기현(長崎縣) 농업학교에 재학하면서 비밀결사 단체인 삼인단(三人團)을 조직하여 항일활동에 참여하였다. 귀국 후 그는 1941년 부산의 곡물검사소와 경북 예천출장소에 근무하면서 동지들을 규합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하던 중 1942년 동지들과 더불어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1943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가혹한 고문의 여독으로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이상모(李相模 : 1908. 4. 1 ~ 1961. 9. 10)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에서 태어났으며, 고성농민조합을 통해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31년 고성군에서 고성농민조합 간부로 활동하면서, 이진하(李鎭河)·권순학(權淳學)·이효율(李孝律)·박우상수(朴又尙守)와 함께 대가면 송계리, 영현면 봉발리에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이때 그는 여러 차례 마을사람들을 모아놓고 “농회비·축산조합비 등은 악세(惡稅)이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고, 보통학교는 유산자의 자제를 교육하는 곳이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야학교를 세워 자제를 교육하여야 하며, 현재의 정치는 유산자의 이익만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무산자의 영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일치단결하여야 한다” 는 연설을 하는 등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을 비판하

였다. 이로 인해 이상모는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1932년 6월 30일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징역 6월(미결구류 120일 통산)을 받고 1932년 9월 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이상호(李相浩 : 1922. 7. 8 ~ 미상)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으며,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학생동지회(在日學生同志會)를 통해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상호는 일본 도근현(島根縣) 익전농림학교(益田農林學校) 재학중이던 1939년 2월에 동향 친구인 이재관(李在官)의 동경(東京) 소재 하숙집에서 항일결사인 재일학생동지회를 조직하고 항일활동에 참여하였다. 이후 이들은 동지를 규합하는데 열정을 쏟았으며, 1940년 동경 상야공원(上野公園)에서 모임을 갖고 조직을 정비하며 부서를 정하였다. 이때 그는 경상도 책임자로 국내에 들어와 고성군 농회(農會) 기수(技手)로 재직하면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1942년 2월 체포되었으며, 1943년 5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형을 언도받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 이재관(李在官 : 1920.11. 4 ~ 1986.9.2)

경남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197번지에서 태어났으며, 일본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동경농업공예학교에 재학 중이던 1940년 4월에 장기(長岐)에서 심재인(沈載仁) 등 5명의 동지와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하기로 맹세하였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동지규합에 힘을 쏟아 30여명의 동지를 포섭하였고, 1940년 8월에는 뜻을 같이 한 동지들과 함께 동경 상야(上野)공원에 모여 다가올 조국독립에 대하여 의논하고 독립의식을 길렀으며, 이후에도 계속 모임을 가지며 항일투쟁을 전개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동지간의 연락 문서가 일본경찰에 발각됨으로써 이재관은 1942년 2월에 체포되어 대구형무소로 이송되었다. 그 후 그는 1년여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43년 4월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형을 언도받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 이증삼(李曾參 : 1913. 3.27 ~ 미상)

경남 고성군 고성면 덕선리에서 태어났으며, 학생운동을 통해 독립운동에 참여하였고, 이기윤(李其潤)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는 1930년 1월 17일 진주고등보통학교(晉

州高等普通學校) 2학년에 재학하면서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으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학년 주모자로 정학(停學)을 당하였다. 1933년 11월 27일에는 한계수(韓桂壽)·김사옥(金駟玉)·장준(張駿)·황진생(黃鎭生) 등과 함께 비밀결사인 독서회(讀書會)를 조직하고 5학년을 담당하여 동지구합과 조직 확대를 위해 활동하던 중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1934년 8월 3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 이진하(李鎭河 : 1912.10.21 ~ 1957. 6.10)

경남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에서 태어났으며, 광주학생운동과 고성농민조합을 통해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경남 진주(晋州)의 진주공립고등보통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30년 1월 16일, 김병호(金柄琥) 등 수명의 동료 학생들과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는 동맹휴학을 주도하고 선전전단 작성에 관해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이튿날인 1월 17일 아침 교장의 훈시가 끝나자, 조방제(趙邦濟)가 연단으로 뛰어올라가 "우리도 조선 전반의 학생과 행동을 같이하자"고 외치고 만세삼창을 하자, 이를 신호로 동료들과 함께 학생 200여 명을 지휘하며 진주읍내와 진주읍 소재의 각 학교를 순회하며 '노예교육 폐지', '경찰의 학내 침입 금지', '광주학생 석방' 등을 주장하는 격문을 살포하며 시위를 주도하다가 같은 해 1월 28일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이후 1930년 3월 13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이른바 주거침입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같은 해 5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1931년 경남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에서 고성농민조합 간부로 활동하면서 부락민들을 대상으로 농회비·축산조합회비의 납부 거부, 일제의 신민교육인 보통학교 교육 거절, 야학 설립을 통한 민족교육 실시 등 민족의식 고취활동을 전개하다가 1933년 11월 12일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경기도 경찰부에 검거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이호용(李好用 : 1893. 1.23 ~ 1951. 9.22)

경남 고성군 고성면 무량리 237번지에서 태어났으며, 경남 산청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이호남(李好男)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20일 경남 산청군 신등면(新等面) 단계리(丹溪里)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신등지역의 만세운동은 인접한 면인 단성면(丹城面) 성내리(城內里)의 시위와 연결되어 일어났다. 3월 20일 단

계리 만세시위에 힘을 얻은 시위대는 다음날인 3월 21일 성내리 장날을 이용하여 성내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신등과 단성의 만세운동은 광무황제(光武皇帝)의 인산(因山)에 참례하러 상경하였던 김상준(金相峻)과 윤규현(尹圭鉉)이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돌아와 만세소식을 고향에 알리면서 비롯되었다. 김상준의 아버지인 김영숙(金永淑)은 인근 지역에서 명망이 높았던 유림으로써 서울에서와 같이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이호용은 김영숙과 뜻을 같이 하여 비밀리에 만세운동 준비에 가담하였다. 당초 이들은 거사일을 3월 19일로 정하고 추진해 갔으나 거사 당일 아침에 동지 일부가 일본경찰에 체포됨으로써 계획대로 만세운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호용 등은 긴급모임을 갖고 3월 20일 다시 거사를 결행하기로 결정하기로, 단계리 시장에서 6~7백 명의 군중과 더불어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때 이호용은 시위대의 선봉에 서서 시위행렬을 이웃의 단성면 성내리 시장으로 향하도록 주도하였다. 만세시위 행진 과정에서 시위대의 규모는 수천으로 늘었다. 이들 시위대는 일본 헌병대 앞에서 전날에 구금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때 거창과 진주에서 8,90여 명의 일본군이 출동하여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해옴으로써 시위군중 가운데 11명이 순국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시위대는 해산하고 말았다. 이호용은 산청지역 만세운동을 주동한 일로 1919년 8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소요(騷擾)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9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는 출옥한 이후에도 항일의지를 굽히지 않고 독립운동의 방도를 모색하면서 단성청년회(丹城靑年會)에 참가하면서 청년운동에 투신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정덕수(丁德秀 : 1923. 5.26 ~ 미상)

경남 고성군 개천면에서 태어났으며, 일본 대판(大坂)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33년 11월 일본으로 건너가 등내목(藤乃木) 심상고등소학교 고등과를 고학으로 졸업한 후, 1941년 4월부터 대판시립 유도(酉島) 제2공업학교 응용화학과에 다녔다. 평소에도 그는 민족차별에 분개하였는데, 1941년 2월에 조성인(趙成寅)·강연중(姜鍊中) 등에게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이들과 동지적 결합을 맺고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하였다. 또한 그는 조성인과 독립운동의 투쟁방법에 관하여 의논하고 항일결사단체인 개진대(改進隊)를 결성하였다. 그는 당시의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운동방침을 정하였다. 즉 중일전쟁의 장기화로 피폐해진 일제에 미·영·소가 참전하게 되면 일제의 패망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 이때를 이용하여 일제히 봉기하여 독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같은 계획아래 그는 동지를 포섭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1941년 8월에는 강연중과 함께 그의 활동조직으로서 항일결사 조선독립청년당(朝鮮獨立靑年黨)을 결성하였다. 조선독립청년당의 조직을 정비하고 당칙 및 부서와 행동강령도 정하였는데, 정덕수는 당령으로 추대되었다. 이후 조직을 점차 확대해 가면서 하부조직으로서 대판내 우유배달클럽 및 신문배달클럽과 유도(酉島) 제2공업학교·관서공업학교·대판공업학교 등에 학생클럽을 결성해 나갔다. 이렇듯 조직을 확대하여 항일활동을 벌이던 중 같은 해 10월에 결사조직이 발각됨으로써 그는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피체된 후 재판이 진행되어 1942년 8월 31일 대판지방재판소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 정두명 (鄭斗明 : 1909.12.20 ~ 1936. 2.14)

경남 고성군 마암면에서 태어났으며, 항일민족의식 고취와 교육을 통해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28년 경남 진주사범학교(晉州師範學校)의 독서회 조직활동에 참여하였다고 하며, 진주사범학교 졸업 후 김해공립보통학교(金海公立普通學校) 교사로 재직 중 사회운동지를 규합하여 항일운동을 하였다. 1933년 10월 경남교육노동조합(慶南教育勞動組合)에 가담하여 경남지역 교원들에게 “우리 교사들은 역사와 국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후학들에게 민족의식을 뿌리 깊게 심어주자”는 요지의 연설을 하는 등 민족교육의 실시를 위해 힘썼으며,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고성과 김해 지역을 오가며 학교를 옮겼으나 끝내 포적되었다. 이후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1934년 7월 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정세권 (鄭世權 : 1894 ~ 미상)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에서 태어났으며, 주로 서울에서 조선물산장려회와 신간회 활동 등을 통해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23년 1월 조만식(曹晩植)·안재홍(安在鴻) 등을 중심으로 조선물산장려회(朝鮮物產獎勵會)가 발기되자 이에 적극 참가하여 서울지회를 설립했다. 이후 1930년 4월에는 조선물산장려회 서울 지회의 경리부 상무이사로 선출되고, 같은 해 5월에는 중앙회의 경리부 상무이사로 선출되었으며, 1934년에는 중앙회 이사로 선출되어 회관건립·강연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1927년 2월 자치론을 비판하고 절대독립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독립운동의

민족협동전선으로 신간회(新幹會)가 창립되자 이에 적극 찬동하여 서울지회에서 활약했다. 1930년 11월 신간회 서울지회의 대회준비위원회에 김응집(金應集)·홍기문(洪起文) 등과 함께 재정부원으로 활동했다.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가 조선어사전 편찬사업을 하면서 독립된 사무실이 없어 어려움에 처하자, 1935년에 서울 화동(花洞)에 있는 2층 건물과 부속 대지를 회사하여 조선어학회의 국어운동과 사전편찬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정정선(鄭正善 : (1883) ~ 1908. 7.30)

1908년 경남에서 활동하던 의병이다. 경남 고성군(固城郡)의 구한국군 장교 출신으로 추정되는 신중근(申重根)과 이경재(李景在)가 거느리는 의병부대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08년 7월 30일 단성군(丹城郡) 단계치(丹溪峙) 부근에서 30여 명의 동료 의병과 함께 일제 군경을 상대로 치열한 교전을 벌이던 중 중상을 입고 체포된 후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4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천재환(千載桓 : 1900. 5.15 ~ 1964. 2.22)

경남 고성군 고성면 서외동에서 태어났으며, 대한독립단원 등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서울 중동학교(中東學校)를 졸업하고, 3·1독립운동에 참가하여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중국 동삼성(東三省)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의 보병 속성과를 수료하였다. 1920년 1월에는 제정 러시아군의 하사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에 입단하여 독립군으로 활약하다가 비밀 임무를 갖고 입국하여 대구(大邱)지방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던 중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1921년 2월 2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정치범으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마산(馬山)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22년 6월 12일 기출옥하였다. 출옥한 후 1924년에 다시 소련 시베리아로 가서 한인소학교(韓人小學校)를 운영하다가 공산당(共産黨)과의 의견충돌로 1925년 2월 동삼성의 흥안령(興安嶺)으로 와서 농사를 지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최낙중(崔洛鍾 : 1864. 4.27 ~ 1945. 6. 8)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에서 태어났으며, 구만면의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자를 규합하여 활동하는 등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19년 3·1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자 고성에서도 독립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인접면인 회화면(會華面)까지 사전연락을 하여 독립선언서를 필사하고 태극기를 제작하여 3월 20일 구만면의 국천(菊川) 모래사장에서 군중과 함께 봉기하고, 그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3월 21일에는 「한인관리 퇴직권고문(韓人官吏退職勸告文)」을 구만면 면사무소에 첨부하고, 다음날 이 권고문을 각 도와 군의 관공서에 발송하였다. 일제가 이와 같은 사건을 조사한 결과 3·1운동의 주동자로 지목하여 체포하려 하므로 피신하였다. 1920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에서 재일동포들을 규합하여 동흥노동동맹(東興勞動同盟)을 창립하고 친일단체인 상애회(相愛會)에 대항하여 1932년까지 투쟁하였다. 또한 서상한(徐相漢)·이혁(李革)·변영우(卞榮宇) 등과 함께 월간잡지 「노동(勞動)」을 발행하여 일본과 국내에 배포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체포되어 1925년 5월 22일에 출판법 위반으로 벌금 40원의 언도를 받았으며, 1926년 11월 30일 이른바 국가총동원법 위반으로 동경구(東京區)재판소에서 징역 1년 6월형과 벌금 30원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최우순(崔宇淳 : 미상~ 1911. 3.18)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下一面) 학림리(鶴林里)에서 태어났으며, 일본의 회유와 강압을 끝까지 뿌리치고 순절하였다. 그는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강제로 합병하여 나라가 망하자 통분을 이기지 못하여 두문불출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가르치며 독립의식을 고취시켰다. 1911년 3월 즈음 일본헌병이 찾아와 일본천황이 주는 은사금(恩賜金)이라 하며 한국의 전국 유림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뿌리는 많은 돈을 내놓고 받을 것을 강요했으나 거부하였으며, 일제 헌병이 밤이 되어도 가지 않고 돈을 받지 않으면 연행하겠다고 하자 거짓으로 달래어 잠재워 놓고 그날 자정을 기해 북방을 향하여 재배한 다음에 조국광복을 기원하며 독약을 마시고 자결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충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최정원(崔正元 : 1892. 1.24 ~ 1922. 5. 3)

경남 고성군 구만면 화림리에서 태어났으며, 구만면 만세운동 주도과 독립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20일에 고성군 구만면에서 만세운동을 주동하였으며, 같은 해 3월 21일에는 고성읍에서 동지들과 함께 한인관리 퇴직권고문을 작성하여 각 군과 면에 발송하였다. 1920년 10월에는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에서 비밀리에 파견된 윤영백(尹永百)으로부터 군자금 모집지령을 받은 허재기(許在基)와 함께 군자

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1년 2월에 산청군(山淸郡)에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동년 4월 11일 부산지방법원 진주(晋州)지청에서 이른바 제령 7호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고문의 여독으로 1922년 5월 3일 옥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허재기(許在基 : 1887.10.28 ~ 1969.12. 7)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저연리에서 태어났으며, 3·1만세운동 주도와 독립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20일의 회화면(會華面) 배둔리(背屯里)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구만면의 청년 유지인 최정주(崔正周)·최낙희(崔洛僖)·최정원(崔正元) 등과 만나 독립만세운동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는 이들과 함께 한문학자 이종홍(李鍾弘)에게 독립선언서를 요약해 줄 것을 부탁해서 그것을 필사하여 밤사이에 12개 동리에 전달하였다. 3월 30일 오후 1시경, 나팔소리를 신호로 개천리(介川里)·마암리(馬岩里) 주민들이 국천사장(菊川沙場)으로 몰려들었다. 여기서 최정원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이어 허재기가 등단하여 공약삼장(公約三章)을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이곳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시위대열은 마침 장날이었던 회화면 배둔리 장터로 시위 행진하였다. 이 정보를 입수한 일본 헌병대는 완전무장으로 도로를 차단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시위대열이 이들에게 접근하자 헌병대가 말을 타고 시위대열로 돌진하였다. 그러나 시위대열은 나팔을 불어대며 저지선을 뚫고 배둔리 장터에 도착하였다. 이때 장터에서는 전날의 연락으로 서찬실(徐贊實)·김갑록(金甲錄)·김동기(金東琪) 등이 시위 군중을 인솔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하였다. 이에 그는 8백여명으로 늘어난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를 시위 행진하였다. 일제는 그들 재향군인의 협력까지 받으며 시위를 진압하기에 안간힘을 썼으나, 시위대열은 아무런 희생도 없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 구만면으로 돌아왔다. 그는 구만면으로 돌아온 즉시 대한독립동맹(大韓獨立同盟) 명의로 한인관리 퇴직권고문(韓人官吏退職勸告文)을 기초하여 이를 구만면사무소 이재홍(李在洪)에게 등사하도록 하여 각 도와 군에 있는 관공서에 우송하였다. 1920년 11월 19일에는 상해 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의 밀사인 곽정곤(郭正坤)과 함께 마암면 장산리(章山里)의 허종택(許宗澤)을 찾아가 군자금을 모금하는 등 계속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5월 13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제령 제7호(정치에 관한 처벌의 건)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 허종택(許宗澤)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에서 태어났으며, 독립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3·1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1920년 11월 상해임시정부의 지령을 받고 군자금을 모집하러 찾아 온 허재기, 박인섭 등에게 종형(從兄)인 종엽(鍾燁)·종수(鍾洙)·종태(鍾泰) 등과 의논하여 당시의 돈으로 2백원을 서슴없이 내놓았다. 독립군자금 모금과 관련 허재기와 함께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출옥한 이후에도 변상태(卞相泰)와 협조하여 개천면의 옥천사를 드나들며 제2차 독립만세운동을 추진하고 있던 승려 신화수(申華秀)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등 민족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한편 사립강습소를 설립하여 미취학자를 가르쳤고, 학교 부지를 희사하는 등 지역의 육영사업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 제 12절 해방과 정부수립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일제의 항복 선언으로 35년여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다. 당시에는 라디오조차 매우 귀했기 때문에 고성 사람들은 면사무소나 공공기관에 다니는 지인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날 사람들은 일본인의 동태를 관망하다가 도로나 골목으로 뛰쳐나와 만세를 불렀고, 일장기에 먹물을 칠해 태극기를 만들어 흔들고 만세를 부르며 광복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해방은 우리 민족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민족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는 패전국의 식민지로서 미국과 소련 등 전시연합국 진영의 관리로 넘어가게 되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 항복 접수와 무장해제라는 명분으로 38도선을 경계로 군대를 주둔시켰다. 군사적 편의에 따라 설정된 38도선은 점차 정치적 경계선으로 굳어져 갔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국제적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인들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국가 수립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서울에서는 여운형이 주도하여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활동하였다. 여운형과 안재홍이 위원장장 부위원장을 맡는 등 좌우의 이념에 상관없이 건국에 동참하였다. 1945년 8월 말 건국준비위원회는 145개의 전국 지부로 구성될 만큼 상당한 조직으로 활동하였다.

서울에서 건준이 결성되는 것과 함께 전국에서는 건준 또는 치안유지회의 이름을 내건 조직이 결성되었다. 경남지역에서도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고성지역에서 건준

을 누가, 언제 결성했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8월 하순 또는 9월 초에 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성과 인접하고 있는 통영의 경우 8월 28일 경 정식으로 조선독립축하 통영시민대회를 충렬사 앞 광장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성지역도 비슷한 시기에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을 것이다. 건국준비위원회 경남본부 연합치안대는 다음과 같은 강령과 선언을 통해 활동방향을 설정하였다.

<강령>

1. 우리는 건국을 위하여 굳세게 모든 치안을 담당하자.
2. 우리의 행동을 청백하고 질서 있게 하자.
3. 우리는 경신(敬愼)과 열정으로 나아가자.

<선언>

40년 동안 갈망하던 우리 민족에 반갑고 기쁜 건국서광이 이제 비쳐왔다. 때가 건국시라 그 과도기에 열어 가자. 문란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청년학도는 연합치안대를 결성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며 기타 치안유지에 협력하여 건국준비에 공헌하기를 원하고 자에 선언함.

1945년 9월 4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경남본부 연합치안대

고성지역에서도 건준 경남본부 연합치안대에 동참하여 활동하였다. 건준 경남본부에서는 건국사업에 필요한 도내 각지의 정세 조사와 연락을 목적으로 조사대(調査隊)를 편성하여 1945년 9월 22일 각 담당지역으로 파견하였다. 고성은 통영, 김해, 창원, 마산과 함께 제4대에 속하였다.<sup>200)</sup>

건준이 활동할 무렵 미군이 남한에 진주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세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건준에 참여했던 우파 세력이 대거 이탈하여 독자적인 정당과 정치 단체를 결성하였으며, 좌파도 9월 6일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건준을 해소하고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내걸었다. 조선인민공화국은 이승만을 주석, 여운형을 부주석으로 지명하고, 임시정부 요인과 사회주의자를 포함한 좌우 세력의 주요 인물을 발표하고, 자유독립국가 건설 등이 담긴 정강과 시정방침도 발표하였다. 건준 산하의 각 지방지부들은 인민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재조직되었다. 인민위원회는 해방 이후 치안유지회·자치회·건국준비회 등과 같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정치조직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200) 통영시사편찬위원회, 『통영시지 (상)』, 1999, 424~425쪽 참조.

8월 15일 해방 당시 고성에는 일본인 경찰서장 이시이 요시오(石井義雄)가 부하 20여 명 및 군인 약간 명과 함께 잔류 중에 있었다. 행정과 치안 등에 공백상태에 이어지는 가운데 인민위원회가 각 관공서를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고성에서는 인민위원회 보안부장인 이용규(李龍奎)가 부하 20명과 함께 고성경찰서를 접수하고, ‘고성보안서’ 라는 이름 아래 이른바 보안서장에 취임하여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실질적인 지방행정기관 역할을 담당한 인민위원회는 미군이 남한에 군정을 실시한 후에도 대체할 수 있는 지방행정조직이 없다는 이유로 얼마간 미군정으로부터 유일한 지방행정조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과 중경임시정부 등 한국인의 정권기관을 전면 부정하고 각지의 인민위원회와 치안대 등에 해산명령을 내리는 등 자신들이 주도하는 행정기구 정비작업을 추진하였다.

건준 경남본부는 10월 5일의 대표자대회에서 발전적으로 해소한 후 새로이 경남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일반 인민의 이익과 특히 근로대중의 생활향상을 목표로 출발하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경남인민위원회의 간관을 새로 달고 부서도 정비하였다.<sup>201)</sup> <사진 있음★조선인민공화국경남도인민위원회>

중앙에서의 정치세력이 분열됨에 따라 지방에서도 그동안 협력관계에 있던 좌우세력이 분화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지방의 인민위원회는 자치 기관의 성격이 강했으며,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심했다. 좌파 세력은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중단체를 결성하였다. 우파 세력은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남한에 미군이 진주하여 군정을 펴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미군정은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고 자본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보급하는데 주력하였다. 하지만 군정을 선포하면서 일제 총독부의 관리와 지배기구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정책을 폈다. 또한 많은 친일 인물들이 그대로 기용되기도 하여 여론의 비판이 거세졌다. 미군정하에서 지방제도는 행정구역과 기구의 개편,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지방행정을 개혁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운영되었던 도회·부회·읍회·면협의회 등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미군정기에 지방자치제를 위한 제도적인 개혁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한편 건준 경남본부 치안부에서는 건축업자와 공작대원으로서 토목건축공작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의 건축재료와 건축 중이던 목재 및 필요재료를 엄중히 조사하여 당국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sup>202)</sup>

201) 『민주중보』 1945년 10월 8일.

9월 28일 부산미국군정사령관은 군정경상남도지사를 임명하였고, 군정도지사는 미군정의 포고문을 발표하여 정지상태에 있는 행정기관을 확립시키는 동시에 관공리의 직책과 권한을 명료하게 하고, 그 취지를 일반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군정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미군과 도청 직원으로 지도반을 조직하여 도내 각 지역에 파견하였다. 이때 고성은 통영, 사천, 남해, 하동과 함께 제4반에 편성되었고, 파견자는 최승진(崔升珍), 정봉일(鄭鳳鎰), 윤기원(尹基元)이었다.<sup>203)</sup>

건준 고성지부에서는 치안유지를 위해 고성청년단원, 귀환장병대원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치안대를 조직하여 각 읍면위원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악덕간상배의 부정매매로 인한 경제혼란을 철저히 배격하고자 하였다.<sup>204)</sup>

건준 경남본부에서는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지부 대표자 회의 소집을 준비하였다. 대표자 대회 소집에 앞서 각 지부의 건의안은 10월 4일까지 접수하고, 대표자 자격은 현재 각 지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남녀이고 그 비율은 인구 1만명에 대하여 각 1명씩으로 정하였다.<sup>205)</sup> 10월 5일 각 군의 지부에서 선출한 대표의원 422명과 본부 위원으로 구성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경남대표자대회를 부산극장에서 개최하였다.<sup>206)</sup> 이 대회에서 건준 경상남도지부는 발전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인민위원회 결성에 관한 결의문과 조선인민공화국 지지의 건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경남인민위원회를 새로 조직하였다.<sup>207)</sup>

#### 인민위원회 결성의 결의문

본 대회를 조선인민공화국 경상남도인민대표자대회로 전환하여 행정기관으로서 활동에 가장 적합한 인민위원회로 조직함과 동시에 건준 경남본부는 발전적으로 해소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전 도내의 군부(郡府) 인민위원회의 결성을 촉진할 것을 결의함

#### 조선인민공화국 지지 건(件)의 결의문

우리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정강과 시정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전인민대중을 그 산하에 결집하여 우리들의 완전한 독립을 전취(戰取)할 것을 결의함

그런데 건준 경남도지부의 조선인민공화국 지지와 조선인민공화국 결성에 대해 반기를 들고 퇴장한 일부 대의원들은 그날 오후 부산 시내 소화관(昭和館)에 모여 여러 가지 문제를 토의하였고, 이어 10월 6일 오전 대생좌(大生座)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경남연합대회

202) 『민주중보』 1945년 9월 26일.

203) 『민주중보』 1945년 10월 4일.

204) 『민주중보』 1945년 10월 5일.

205) 『민주중보』 1945년 9월 24일.

206) 『민주중보』 1945년 10월 6일.

207) 『민주중보』 1945년 10월 6일, 10월 7일, 10월 8일.

를 개최하였다.<sup>208)</sup> 이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이념간의 대립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해방 직후 전국 각 지역에서는 인민위원회 체제가 구축되어 갔다. 당시 남한 각 지역에서 인민위원회 결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방 직후 지방인민위원회의 구성 상황><sup>209)</sup>

도별	總 郡數	組織結成 郡數	조직율(%)
경기	21	19	90
강원	12	10	83
충남	14	13	93
충북	10	7	70
전남	21	21	100
전북	14	14	100
경남	19	19	100
경북	22	22	100
제주	1	1	100
합계	134	126	94

이와 같이 해방과 더불어 남한의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조선 인민공화국을 지지하고 건국사업에 활동 중이던 건준 고성위원회도 발전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10만 군민의 총의(總意)에 의해 하부조직체인 반위원(班委員)으로부터 지방위원회, 읍면위원회를 조직하고 군인민위원회를 결성하고 다음과 같은 위원을 선임하였다.

○ 군인민위원장 김봉일(金奉日), 부위원장 권순학(權淳學), 내정부장 전갑봉(全甲奉), 산업부장 구종근(具鍾根), 재정부장 김종원(金宗元), 선전부장 오만수(吳萬壽), 보안부장 이용규(李龍奎), 문교부장 정성춘(鄭盛春), 노농(勞農)부장 김영문(金永文)

○ 읍면위원장 김중주(金鍾注 : 고성), 이기재(李起在 : 삼산), 최숙환(崔淑煥 : 하일), 박종욱(朴宗煜 : 하이), 박증몽(朴曾蒙 : 상리), 정상도(鄭相道 : 대가), 강태주(姜太周 : 영현), 최계호(崔啓鎬 : 영오), 유재○(劉在★ : 개천), 이효율(李孝律 : 마암), 구수열(具守烈 : 회화), 최맹석(崔孟石 : 동해), 김재홍(金在洪 : 거류), 김창기(金昶琪 : 광일)<sup>210)</sup>

208) 『민주중보』 1945년 10월 7일.

209)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현대사연구회, 『해방정국과 민족통일전선』, 세계, 1987, 89쪽 참조

210) 『민주중보』 1945년 10월 27일.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국 외상회담이 열렸다. 연합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종전을 맞이하였다. 연합국이 합의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를 독립시킨다는 것과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것뿐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모스크바 3상회의는 군사상의 목적을 위해 잠정적으로 미소 양군에 의해 분할된 남북한을 통일시키고 독립을 달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모스크바 3상협정의 핵심 내용은 “한국은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임시정부의 참여하에 미소영중 4개국이 주도하는 신탁통치 협정을 미소가 체결한다”는 것이었다. 모스크바 3상협정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임시정부 수립이 아닌 소련의 제의에 의한 신탁통치 결정으로 왜곡되어 보도, 전달되면서 즉각 독립을 요구하는 한국민족의 감정을 크게 자극하였다. 해방과 함께 독립을 기대하고 있던 민중은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좌우익을 막론하고 이를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신탁통치를 일제의 지배와 유사한 식민 상태의 연속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정국은 1946년 1월 2일 조선공산당이 기존의 반탁주장을 철회하고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후 좌우익 사이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깊어갔다.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싼 문제는 ‘좌익 대 우익’의 구도로 전환되면서 정치세력간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우익은 비상국민회의를, 좌익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하면서 대결구도는 더욱 증폭되었다.

한편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한 노력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미군정 고성경찰서에서는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관하 읍면부락 단위로 경민간담회(警民懇談會)를 실시하여 다대(多大)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제5일인 16일 오전 10시부터 고성경찰서 연무장(鍊武場)에서 읍내 각 여관, 주류 등 접객업자 50여 명을 초집(招集)하고 서장 신영주(辛泳柱)로부터 당국의 지시사항과 업자측의 요망사항, 거리의 음식점 정리와 불량도배(不良徒輩) 문제, 악덕상인과 밀주자(密酒者)는 기존(既存) 업자일지라도 폭리에 눈이 어두워 건국을 즐먹는 자들은 일제히 단속기로 협의하였다.<sup>211)</sup>

고성군교육회 주최의 해방교육경축대회는 12월 17일 9시 반부터 고성제일국민학교 운동장에서 군수 이하 각 학교장, 읍·면장, 지방유지 남녀 3천 건아(健兒)의 참가하에 개최되었다. 벽두에 김(金) 교육회장의 개회사와 제일국민학교 서(徐) 교장의 축사, 학생대표자의 답사, 김 농업학교장의 의미깊은 축하의 말이 있을 후 장사진을 지어 악대를 선두로 애국가를 고창하면서 시내에서 깃발 행렬을 하고 12시에 교정에서 산회하였다.<sup>212)</sup>

211) 『민주중보』 1945년 12월 24일

212) 『민주중보』 1945년 12월 27일

고성의 12만 군민들은 일인가옥을 둘러싸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가진 수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악덕 분자를 소탕하고자 일산관리위원회(日産管理委員會)를 결성하고 사무를 진행하였는데, 위원으로 김종주(金鍾注), 박창순(朴昌淳), 반기한(潘基漢), 김성갑(金甲聲), 배만두(裴萬斗), 김남도(金南道), 하진수(河震壽) 등이 임명되었다.<sup>213)</sup> 미곡 매상(買上)문제에 대해서는 고성군 각 읍·면에서 구장회의(區長會議)를 열고 신중히 협의한 결과 2월 16일부터 동 20일까지 호별(戶別) 실태조사를 실시한 다음 동 20일까지 군민의 애국심에 의한 자발적 매출과 악질상인의 처벌할 방침을 세우고 목표 수량 매상에 노력하였다.<sup>214)</sup>

민주주의민전(民主主義民戰) 고성군위원회 준비회에서는 지난 11일 읍내 청년동맹 회관에서 동 위원회 결성대회를 개최 16단체 대표자와 32명의 읍면 대표자가 참가하여 새롭게 발족하였는데, 위원장 김재업(金在業)과 부위원장 이효율(李孝律) 등이 역원을 맡았다.<sup>215)</sup> 민경일체(民警一體)를 목표로 고성민안회(固城民安會) 결성은 2월 9일 고성경찰서 구내 광장에서 결성식을 거행하였는데, 단장에 이상신(李相信), 부단장에 김종원(金宗元)·손상조(孫尙祚) 등이 선출되었다.<sup>216)</sup>

경남 도내 각 지역에서 천연두가 발생하여 고성지방에도 침입하여 다수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상화에서 고성군 보건후생과와 경찰서 위생계에서는 하루빨리 이를 퇴치하고자 두모(痘苗)를 대량 주문하여 예방 중두(種痘)를 실시하는 한편 일반 군민도 예방에 노력하여 줄 것을 홍보하여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sup>217)</sup> 또한 풍기가 문란하여 방역상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고성경찰서에서는 풍기교란자(風紀攪亂者)를 일제히 단속한 바 130건 중 밀매음 18건, 사창 12건, 통행위반 6건, 도박 1건이라는 바 괴질과 악성 화류병이 유행하는 때인 만큼 일반인의 자각을 요망하였다.<sup>218)</sup> 회화면에서는 회화국민학교에서 신탁을 절대 반대하며 자주독립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결의 밑에 광복청년회 회화지부를 결성하였다. 광복청년고성지부에서는 위원장 金洋(庠★)洙, 부위원장 정동만(鄭萬東)·강현구(姜鉉九), 전위대장(前衛隊長) 조길룡(趙吉龍), 감사대장(監查隊長) 김여수 등으로 역원을 개선하였다.<sup>219)</sup>

정치, 사회적인 여러 문제에 대한 좌우의 간에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어 가는 상황에서 민생문제를 둘러싼 대중과 미군정과의 갈등도 더욱 첨예화 되어 갔다. 특히 식량문제에서

213) 『민주중보』 1946년 2월 18일

214) 『민주중보』 1946년 2월 19일

215) 『민주중보』 1946년 2월 19일

216) 『민주중보』 1946년 2월 19일

217) 『민주중보』 1946년 3월 26일

218) 『민주중보』 1946년 7월 10일

219) 『동아일보』 1947년 9월 5일

미군정이 일관성 없이 자유시장정책과 강제수집정책을 병행하면서 사회적 불안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로써 곡물가는 안정되지 못하고 자유시장과 통제정책에 대한 불만만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성지역의 식량문제 역시 안정되지 못하였다. 식량이 수급을 조절하는 기구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인근 지역과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었다.

각지의 식량 사정이 극도로 긴박한 이때 대중의 식량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소위 식량영단(食糧營團)이 오로지 그 직책을 이해하지 않고 도로 부정행위를 감행하고 있다는 고성식량출장소에 대한 물의가 분분하므로 고성식량대책위원회에서는 1946년 5월 2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관계당국에 책임을 추궁하고 당국자들의 반성을 요망하였다. 사실의 내용은 전 고성식량영단소장 유희동(柳熙東)이 재임 당시로부터 군내 생산미의 위탁도정(委託搗精)을 각 정미공장과 정당한 입장에서 계약치 않고 영단내 공장의 수의(隨意) 또는 구두계약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4월 중 갑자기 유희동이 다른 지역으로 전임하면서 미곡 또는 기타 중요물자를 반출해 갔다는 사실과 모 직원을 채용한다는 구실로 부임인사(赴任人事)를 한번 소개하여 놓고 하루 출근에 3개월간의 급료를 지불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부정사실에 대하여 항간에는 비난이 날로 높고 있다.

이에 대해 신임 영단 대표자는 “모든 것은 전 소장의 책임이라 자세한 바를 모르겠으나 영단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연대책임이 있는 이상 대단 미안히 생각합니다. 금후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리라.” 고 하였고, 미곡검사소장은 “검사소로서는 도정의 원로미를 일일이 검근(檢斤)하지 못한 관계도 있으며 작년도 산미로서는 신한공사(新韓公社)의 수집미만은 품질이 좋으나 수집미는 모두가 합격품이 아니므로 확실한 표준이 서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고 하였다. 지방 유지의 한 사람은 “우리 고성주민으로서 용서치 못할 문제입니다. 소위 지도자라 하면서 도로 대중을 착취하고 항간에 여론이 있도록 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전 소장 유희동이 전임 당시 아닌 밤중에 출발한 것만은 물론 쌀이나 모든 물자를 훔쳐가려고 계획한 것이라고 누구나 인증치 않을 수 없습니다. 당국은 지도자들의 지도가 있기를 요망하오.”<sup>220)</sup> 라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사회불안정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고성지방에서는 추수기를 앞두고 돌연 자유시장에서 이변이 발생하여 9월 20일 현재로 백미(白米) 평(平) 1두에 1,200원, 정맥(精麥) 1두에 1천원, 소두(小豆) 1두에 1,500원의 고가를 보이고 있는 한편 통영 방면의 각 섬으로부터 매일 수십명이나 되는 곡물매입부대로 인하여 농가를 혼란시키고 있어 일반 비농가(非農家)와 귀환동포들은 식량을 구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하여 원망이 높았다.<sup>221)</sup> 이러한 때 통영주민들은 농촌으로 들어가 식량을

220) 『민주중보』 1946년 5월 17일



구입하는데 돈 가진 일부 사람들이 1석에 3,500원 정도로 예약금과 전도금을 산포하여 농촌경제를 어지럽히는 한편 신곡미가를 폭등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sup>222)</sup> 식량의 수요와 공급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였다. 1947년 3월에도 고성과 통영군의 미가는 하락으로 우려를 낳고 있었는데 주요 원인은 일반 지주층의 토지방매로 인한 소작인의 미곡방매(米穀放賣)와 농우방매로 인한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미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한 듯하지만 앞으로의 미가와 농촌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sup>223)</sup>

해방된 이후에도 소작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미군정기 상황에서 미군정의 정책과 좌파 주도의 사회, 노동운동이 충돌하면서 토지문제의 해결책을 둘러싼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1945년 말 시점에서 전체 농가는 약 206만호인데, 그 중 순수 소작농은 약 101만호로서 전체 농가의 48.9%를 차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자작농겸 소작농의 상당수가 소작을 겸하고 있어 이 비율까지 감안한다면 전체 소작농의 비율은 전체 농가의 62.7%에 달하였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당시 지주를 포함한 일부 부유 농민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이 최소한의 경작지도 가지지 못한 채 영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남한의 자작·소작별 농가호수>

구 분	농가호수	비 율
지주겸 자작농	284,509	13.8
자작농겸 소작농	716,080	34.6
소작농	1,009,604	48.9
피용자	55,284	2.7
합계	2,065,477	100.0

고성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작료와 그 형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 즉 3:7제와 금납화를 주장하는 소작인과 금납화하면 식량수급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지주들과 서로 대립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성지역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농민조합 결성과 관련한 움직임을 당시 신문기사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조선토지의 8할이 일본제국주의의 독아(毒牙)에서 완전히 해탈을 못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8할이 농민인 만큼 농민의 완전해방이 없는 조국의 해방이 어디 있으랴 하며 고성군인

221) 『민주중보』 1946년 9월 28일

222) 『민주중보』 1946년 9월 28일

223) 『민주중보』 1947년 3월 18일

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도계급에서는 모든 분파적(分派的) 정치야망을 일소(一掃)하고 ‘농민은 농민조합의 산하(傘下)로’ 라는 슬로건 아래서 15일까지 각 읍면농민조합의 결성은 물론 그 세포조직인 반(班)조직까지 완료하고 목하 당면한 소작료 3:7제의 완전한 전취(戰取)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지난 11일에는 고성농민조합 고성읍지부 결성대회를 오전 11시부터 고주초등학교(固州國民學校) 강당에서 거행하였는데 마침 당일은 고성장날이라 사망으로부터 모여든 노동자 농민들은 인파만경(人波萬頃)을 이루어 ‘우리 동무야 단결하자 우리 농민의 깃발 아래로’ 라는 희망에 넘치는 농민가를 높이 부르며 악대를 선두로 시내를 행진하였다. 이날 피선된 役員은 지부장에 김봉일(金奉日), 위원에 오만수(吳萬壽)·고찬용(高贊用) 이하 제씨(諸氏)이다.<sup>224)</sup>

이후에도 소작료를 종전대로 받으려는 지주층과 소작료를 경감시키려는 소작인과의 마찰은 줄어들지 않았다. 3:7제에 대한 지주의 반발은 얼마간의 경작지를 지주 자신이 갖거나 친지에게 경작권을 이동시켜서라도 실질적인 식량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다 귀환동포가 늘어나고 소작을 확보하려는 자가 늘어나면서 경작지 쟁탈전과 토지브로커들의 경작지 전매 등의 폐단이 발생하면서 소작료를 둘러싼 갈등은 줄어들지 않았다. 고성농민조합에서는 1946년 군내 읍면지구 대표자 150여 명이 회합하여 제1회 임시대회를 개최하고 노동자 농민의 당면문제인 작권이동(作權移動) 방지의 건 등을 신중히 토의하였다.<sup>225)</sup>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으로 반탁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1946년 3월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약 2개월간 진행된 미소공동위원회는 한국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집단을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우익이 신탁통치안을 완강하게 반대하였고, 좌익세력 및 대부분의 민중들도 점령정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우익과 좌익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고성에서는 6월 16일 하오 10시경 민정민청 등 좌익간부 15명이 주민들을 선동하여 하곡(夏穀)수집을 방해하는 동시에 경비선(警備線)을 절단하고 지서를 습격하여 서류, 사무용품 등을 파괴하는 외에 현금 900원을 절취하였다. 이에 경찰대에서는 응원대를 출동하여 혐의자 20여 명을 검거하였다.<sup>226)</sup>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지 1년만인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2차 회의에서도 미국과 소련에 자국에 유리한 임시정부 수립안을 주장하

224) 『민주중보』 1945년 10월 17일.

225) 『민주중보』 1946년 3월 4일

226) 『동아일보』 1947년 7월 9일

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협의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정책 방향을 전환하였다.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시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여 1948년 3월까지 남북한 전역에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의회 및 정부를 구성하고, 미국과 소련은 각 지역에서 철군하지는 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이를 거부하였다.<sup>227)</sup>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에서는 미국이 제안한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통한 한국통일 방안이 결의되었다. 위원단의 임무는 한국 정부수립을 위한 선거를 감시하고 선거결과 선출된 대표들에게 실질적인 협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위원회는 통일한국 임시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단순한 감시·조사·권고 기능을 갖는 기구에 불과하였다. 소련군정은 이들이 북한지역 활동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남한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1948년 1월 남한에 파견되었다.

총선거를 둘러싸고 남한에서는 남한 단독선거 반대, 남북정치회담을 주장과 즉각 총선거를 주장하는 세력이 대립하였다. 이 무렵 남한에서는 좌익이 주도한단독선거 반대투쟁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월 5일에 군정장관 A.L. 리치가 미군 철수설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틀 후에 남로당의 단선반대 구국투쟁위원회가 지휘한 대대적인 노동자 파업이 발생하였다. 전기 노동자들이 송전을 중단하고, 철도 노동자들은 철도 운행을 중지하는가 하면 통신 노동자들은 통신 설비를 파괴하는 방식을 통해 미군정을 압박하였다. 이에 호응한 농민들의 시위와 학생들의 동맹휴학도 이어졌다.

경남의 경우 밀양에서는 2월 7일 이른 아침에 농민들이 지서 두 곳을 습격하여 경찰이 발포로 맞서면서 10여 명이 사살되고 100여 명이 검거되었다. 함천에서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농민들이 지서를 공격하여 역시 100여 명이 검거되었다. 전국적인 파업과 폭동이 일어난 지 1개월이 경과한 3월 9일에 고성군을 비롯하여 통영, 동래 등 지대에서 폭동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3월 10일 7관구(管區)경찰대장 박명제(朴明濟)는 관내 상황을 대략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고성 : 지난 9일 새벽 0시경 고성지방 일대에서 폭동이 발생하였던 바 그들은 남로당(南勞黨) 지령에 의해서 남조선총선거 반대와 UN조사위원단의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투쟁을 하고 있으며 금번 폭동은 주로 경찰관사 파괴와 경관살해, 전화선절단, 도로파괴 등의 행동을 취하였던 것인 바 이로 인하여 경찰관과 폭도측의 충돌이 발생하였는데 고성경찰서 관내 지서 피해상황은 아래와 같다.

227) 김인걸 외, 『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 1998, 92쪽 참조.

하일(下)지서직원 1명 순직, 삼산(三山)지서원 1명 순직, 개천(介川)지서원 2명 순직. 하일, 삼산, 개천 3지서에서는 각 1명씩 부상을 당하였으며, 하이지서에서는 납치 1명이 있었으나 즉시 구출하였다고 하며, 경찰측에서는 장총 9개와 탄환 50여 발을 폭도에게서 탈취하였다고 한다. 이외 건물 피해에 있어서는 하이지서 일부 파손과 문서소각이 있었고, 도로파괴가 수개소이며, 각 지서와 본청간의 전화선을 절단하였는데 전화선은 지난 9일 12시 40분경 완전 복구를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5개의 지서를 습격한 폭도수는 약 6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이 사용한 무기는 죽창, 돌, 다이너마이트 등이라고 하는 바 경찰 당국에서는 선동자 60명을 검거하고 목하 고성지방에 있어서는 완전한 치안확보를 하고 있는 한편 주범 수사에 활동 중이라고 한다.<sup>228)</sup>

이러한 반대운동은 5월 10일의 총선거 때까지 전국 각지에서 계속되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단선·단정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의 총선거 실시계획은 구체화되어 실행되었다. 1948년 3월 17일 미군정장관은 ‘법령 제175호의 부록 제1호’로 선거구와 선거인수를 발표하였다. 1948년 5월 10일에 치러진 제헌의회 선거는 21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게 동등한 투표권이 주어진 남한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선거는 단기무기명 투표로 행하였고, 각 투표용지에는 선거구에 입후보한 의원후보자의 성명과 기호번호를 인쇄하고 각 후보자 성명 아래에 적당한 공간을 두어 선거인이 택한 후보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문으로 인쇄하였다.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경찰관이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의 지휘하에 투표소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선거였다는 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였다. 특히 선거에서 좌익이 완전히 배제되고 남북협상에 참여한 중도파와 양심적인 민족주의자들마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선거의 약점이었다.

5월 10일 단독선거 결과 무소속이 85석으로 가장 많았고, 이승만의 독촉국민회가 54석, 한민당이 29석, 대동청년당이 12석, 민족청년단이 6석을 차지하였다. 6월 1일에는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12일에 역사적인 헌법이 통과되어 전문 10장 103조로 된 대한민국 헌법이 7월 17일 발효하게 되었다.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에서는 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헌법에 따라 정·부통령을 선거를 실시하여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고, 부통령은 이시영이 선출되었다. 이후 해방 3주년이 되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었다.

228) 『민주중보』 1948년 3월 11일